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 ▶ 책임연구원 :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유성렬(백석대학교·교수)
김신영(한양사이버대학교·교수)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엄아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은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 간 사 ■ ■ ■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학업성취 경쟁에 쏠려 있으며 교육정책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대학에 가는 청소년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쏟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 학교 부적응으로 정규학교에서의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유래 없이 높은 교육열로 인해 한국의 중,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낮다고 여기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여주지 못했고 이들을 문제거리, 골칫거리로 이해해왔습니다.

이들이 왜 학교를 그만두었고, 이후 어떠한 생활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사회적 이해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곧 비행, 범죄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정도였습니다.

이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존재형태와 이들이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경로로 이행해가고 있는지, 학업중단 청소년의 다양한 삶의 유형을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떠나면 공적 지원체계에서 멀어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이 직면한 어려움과 그에 대한 지원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하며,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기울여야 할 사회적 노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시기에 단 한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것은 사회적 과제일 뿐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 연구는 경쟁위주 사회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사회적 자원으로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조망하고, 청소년이 성인으로 건강하게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결과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사례 수 확보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약 1,000명의 대규모 표본을 확보하고, 표본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 학교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를 확보하느라 온갖 어려움을 감당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동안 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학교 현장, 교육청 및 교육부,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복지센터 등 모든 관계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3-37-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37-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유성렬(백석대학교 교수) 김신영(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영실 선임연구위원	김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훈(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학업중단 현황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후 경로유형 및 생활실태와 의식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양적조사로, 2013년도 연구에서는 해당 학령기에 있는 정규 중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776명(본 패널),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220명(비교집단 패널)을 조사 패널로 구축하였으며, 2015년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먼저 학업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출생인구 대비 학업중단 청소년 총 수는 약 40만 명이다. 이 중 기타 학제나 대안교육기관, 교정시설, 병원 등에 있는 학업중단자는 약 12만 명이며, 약 28만 명의 학업중단자는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3년 조사응답자의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중단은 연령별로 볼 때 중학생은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며, 개인적 형편이나 대안교육을 선호해서 그만두기보다는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학교(또는 학교교육) 자체요인 때문에 중단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학업중단 시 교사와 상담하거나 학교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청소년은 30% 수준에 불과해 대부분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로부터 별로 도움을 얻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게 된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생 청소년과 비교할 때 개인 심리·정서적으로 별 차이가 없었으며, 문제행동 경험에서도 음주, 흡연 외에는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와 학교 교사, 친구와의 관계, 학교규정 위반 경험 등 환경적 요인을 비교하였을 때 드러난 특징을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은 친한 친구 수가 많고, 학습부적응 수준이 높았으며, '무단결석', '수업 빼먹기'와 같은 학교규정 위반사항이 많았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이후 경로를 살펴보았을 때, 중단 이후에도 학업에 초점을 둔 학업형 42%,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무업형 23%, 직업형 18%, 비행형 9%, 분류가 어려운 혼합형이 8%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유형은 학업중단 사유, 생애사건

경험 등과 관계가 있었는데, 학교부적응/품행 문제로 중단한 경우는 학업형이 적고 비행형이 많았다. 성장과정에서 가족구성의 변화를 경험한 경우는 직업형과 니트형의 비율이 높았으며, 또한 문제행동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직업형과 비행형 비율이 높았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공간을 떠난 후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지역사회 시설의 도움을 받고 있지 못했다.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지만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보면 여가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보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청소년들이 개인공부나 운동 등 긍정적 활동을 하는 청소년보다 많았으며, 점심과 저녁 주 5일 결식률이 학생 청소년에 비해 현격히 높았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욕구는 다양하다. 이들이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건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제어: 학업중단, 중단 이후 경로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후 삶과 경험 실태,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를 살피고, 학업중단 후 이행경로 파악을 위한 학업중단 청소년 종단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경험을 기반으로 향후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화 및 유형별 분포,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부적응 관련요인을 탐색하고자 함.
-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과 이행경로 파악을 토대로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종단조사 1차년도인 2013년도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패널(본 패널과 비교집단 패널) 구축, 조사도구 개발, 분석모형 탐색, 학생 청소년과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비교를 통해 이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방법

- 협동연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3년간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연구대상 및 조사패널 구축을 각기 분담, 협동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이탈과정에 대해 연구함.
- 문헌연구 : 학업중단 현황, 학업중단 후 삶의 경로와 의식, 학업중단 후 경험의 유형화, 학업중단 후 경로 관련 변인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
- 전문가 자문 : 종단연구설계, 조사문항 선정 등을 위해 중앙대학교 데이터과학연구소의 자문과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수시 자문을 실시함.
- 양적연구 : 2013년도 조사패널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776명,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220명을 구축하였으며, 2015년(3차년도)까지 65%선으로 패널을 유지하도록 관리함.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법무부, 보호관찰소, 한국상담복지개발원과 상담복지센터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사패널을 구축하였으며, 부족한 패널의 확보를 위해 2013학년도 2학기 기준

학업중단 청소년 명부 추가 수합과 더불어 2차 조사를 실시하였음.

- 면접조사 : 조사도구 검토를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를 실시함(일반 학업중단 5명, 보호관찰 학업중단 3명).
- 세미나 및 정책협의회 :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 학업중단 대책 수립과 경기도 및 고양시, 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학업중단 대책 수립을 위한 세미나와 회의에 참석하고, 정책 및 사업안에 대해 자문함.

3. 주요결과

- 2012년을 기준으로 출생인구 대비 초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 중 사회적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학업중단 청소년은 총 278,260명으로 추산됨. 교육통계에 따른 학업중단율은 초, 중, 고에서 학교급이 높을수록, 지역별로는 수도권일수록 높았음.
- 학업중단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일수록, 수도권일수록 학업중단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주요 학업중단 사유는 학교부적응이며 2006년 이후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증가해옴.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연구 1차년도 조사결과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474명,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190명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며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학령별로 볼 때 주된 학업중단 시기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었음. 학업중단사유는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공부하기 싫다는 학교요인이 55.1%로 가장 많았음.
- 학업중단자들 중 복귀경험율은 16.1%로 복귀자의 40% 정도는 6개월 이내에 학교로 복귀하였으며, 대부분 이전에 다니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복귀하였음.
- 학업중단 시 주요 상담대상은 부모님이며, 그 다음은 친구와 선후배였음. 학생의 학업중단 결정 사실을 담당교사가 모르거나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응답이 20%를 넘어서 학업중단 시 교사의 상담자 역할은 취약한 것으로 보임. 또한 학업중단 시 학교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청소년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학교의 정보제공 역할도 매우 취약하였음.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하고 이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함.
- 청소년이 학업중단 시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은 진로상담이었음(48.3%).

-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생 청소년과 비교하여 개인·심리적 특성에 별 차이가 없었으며,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생보다 게임중독 정도가 높았음. 환경적 특성에서는 일반 학업중단자가 학생보다 친한 친구 수가 많고, 학습 부적응 수준이 높으며, 학교규정 위반 경험이 많았음. 특히, 월 1회 이상의 무단결석이나 수업 불참은 학생과 구별되는 규정 위반사항임.
- 학업중단 이후 생활경험 중 7개월 이상 지속한 경험내용을 살펴보면 검정고시 공부(24.3%), 무위도식(21.7%), 아르바이트/취업(9.3%), 취미/동아리 활동(5.7%) 순으로 나타남. 학업중단 청소년 5명 중 1명 이상이 학업중단 후 7개월 이상 목표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음. 한편, 학업중단 후 가출 등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경험한 청소년은 약 10%이며, 보호관찰 경험자 8.6%, 보호시설 혹은 소년분류심사원 생활 경험자는 2~3% 수준이었음.
- 사회적 관계를 보면 학업중단 후 새로 사귀 친구가 없거나, 1명~5명 이하인 경우가 77.2%로 학업중단 후 새로운 친구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음. 지역사회기관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경험은 학원과 상담기관이 10명 중 1.5명꼴로 가장 많은 편이었고, 기타 지역기관의 도움을 받은 청소년 비율은 더 낮았음.
- 학업중단 후 가장 필요했던 도움은 진로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며, 진로정보를 찾기 위해 주로 부모님 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87.5%)를 하거나 인터넷 검색(69.2%)을 하였고 공공기관 상담은 22.6%에 그침. 이들의 향후 진로계획은 검정고시, 대학진학, 복학 등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유형이 65.1%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 관련 계획을 가진 청소년이 16.4%, 진로 미결정은 17.5%였음.
- 학업중단 후 일상생활을 보면 학업 혹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60%,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 참여 청소년이 20%임. 여가시간을 혼자 보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청소년은 81.2%로 개인적인 공부(58.2%)나 운동 등의 긍정적 활동(52.1%)을 하는 청소년보다 많았음.
-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음. 학교를 그만둔 이후 현재 생활에 만족하거나(80.4%),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74.3%)는 등 상당수가 학업중단을 후회하지 않았음(59.7%). 이와 동시에 지인에게 학업중단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48.9%), 학업중단으로 문제야 취급을 당하는 것 같다(58.4%)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주변인의 시선에 민감한 편이었음.
- 학업중단 후 경험을 토대로 경로를 구분하면 학업형(42%), 무업형(23%), 직업형(17.9%), 비행형(8.9%), 혼합형(8.2%)으로 나타남. 양부모 가정에서는 학업형, 부모 모두 안계신 가정에서는 비행형 비율이 높았으며, 가정경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학업형, 경제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직업형 비율이 높았음. 학업성적을 중위권 이상으로 인식할수록 학업형, 하위권으로

인식할수록 무업형, 비행형 비율이 높았음.

- 주요 생애사건 경험은 학업중단 후 경로와 관련을 보이고 있음. 가족구성의 변화를 경험한 44.9%의 청소년 집단에서는 직업형이, 무경험 집단에서는 학업형이 비교적 큰 비율차로 상반되게 높았음. 또한 비행경험 집단은 무경험 집단에 비해 학업형이 적고 비행형과 직업형이 많으며, 비행 무경험 집단에서의 비행형 청소년은 전무함.
-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이하 일반)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이하 보호관찰)을 비교해보면,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학업중단 시기가 초·중학교 시기(43.2%)로 이른 편이며, 학업중단 사유에 있어 일반 청소년이 주로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17.7%), 자신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는(10.5%) 이유로 그만둔다면 보호관찰 청소년은 공부하기 싫거나(17.4%), 교사가 싫어서(8.9%) 학업을 중단함. 이후 복교율은 보호관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3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남(일반 청소년 10.3%, 보호관찰 청소년 30.8%).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반대와 교사의 묵인과 무관심 속에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시 가장 필요한 도움은 일자리 소개(38.6%)로 나타남(일반 청소년은 진로상담 48.3%).
- 보호관찰 청소년의 환경적 특성 중 특징적인 것은 부모의 방임과 학대 경험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많고, 친한 친구나 학업중단 이후 새롭게 사귀는 친구 수가 더 적으며, 친한 친구들의 비행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업중단자도 더 많았음. 학교생활에서 교사와의 관계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이며, 규정 위반경험이 더 많고, 학교수업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응답이 많았음.
- 학업중단 후 경험을 보면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무위도식, 아르바이트/취업, 복학, 병원 입원 경험이 많은 반면,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직업기술훈련, 취미/동아리 활동,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 경험은 적었음.
-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상생활에서 학업에 할애하는 시간은 비교적 적고, 근무시간이 길었음. 여가시간에는 일반 청소년의 경우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과 달리 보호관찰 청소년은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보내는 시간이 길었음.
- 보호관찰 청소년의 주 5일 결식률은 일반 학업중단자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특히 저녁 결식률의 격차가 컸음(일반 16.2%, 보호관찰 68.4%). 보호관찰 청소년은 불규칙하고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보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에게 더 알리고 싶지 않아하고,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어서 더 불안을 느낌. 현재 생활의 만족도 역시 일반 학업중단 집단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인식도 낮으며, 학교를 안 다니는 것에 대한 후회가 많았음.

4. 정책제언

- 학업중단 예방 및 지원 대책은 공평한 기회의 제공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국가정책으로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 우선 ①정책 대상인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 파악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②학업중단 예방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정책 주체 확립, ③더불어 지방자치단체까지의 전달체계가 마련되고,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특정 부처 및 일부 산하 기관만이 아닌 개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 학업중단 예방대책으로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조기경보제 도입, 학업중단 숙려제 개선 및 전문 인력 풀 구축,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제작 보급, 특성화고 학업중단 예방대책 수립,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등이 필요함.
-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책으로 ①학업중단 시 학교의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 기능 강화, ②대안교육기관 확대 및 운영지원, 학교선택권 제공, 취약지역에 공공 대안교육기관 우선 설치 등을 통한 지역사회 대안교육역량 제고, ③학업중단자 유형별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 등이 필요함. 즉, 학업중단 시점이 중,고생이냐에 따른 학업 혹은 취업 위주의 차별적 지원, 특별한 목표의식 없이 중단한 청소년들을 위한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출 및 비행 청소년 등 특수집단을 위한 교육과 보호, 자립지원 원스톱 지원시설 확대, 목표 없이 방황하는 무업형 청소년의 진로 설정을 돕는 거점 문화 공간의 설치, 직업형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친화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강화 등의 지원책이 필요함. 또한 이들이 긍정적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지원 대책 수립이 필요함. 학업중단 이후 대인관계 형성을 촉진하고 진로와 경험, 활동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자조모임과 온오프라인의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등을 활성화함.
- 학업중단대책의 전달체계로 지역교육청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학업중단 예방과 학업중단 후 복교 지원, 진로지원 및 사회 적응을 돕는 업무를 수행함. 학업중단 예측의 주요 표식인 무단결석, 낮은 성적, 비행 청소년에 대한 학교급별 보고체계 및 퇴학생의 재적응 계획을 입안하여 학교복귀를 지원함.
- 학업중단 현황을 볼 때 지역별·교급별로 역점을 두어야 할 학업중단 대상이 다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이를 고려하여 지역에 맞는 학업중단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부나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전국 학업중단 정책지도를 작성하고 그 성과를 점검하여 학업중단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함.

- 학업중단 사유는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경로와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교육부는 학업중단 사유를 정확히 조사하고 기록하도록 지침을 마련함.
- 학교평가지표에 학업중단 예방 및 복교 지원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여 학업중단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적극적 관심과 긍정적 지원을 유도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위기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앙센터는 정책모형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차원의 정책 수립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지역센터는 다양한 지역사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6
1) 종단연구 추진내용	6
2) 2013년도 주요 연구내용	7
3.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10
1) 협동연구 추진	10
2) 문헌연구	12
3) 전문가 자문	12
4) 양적 연구	12
5) 면접조사	14
6) 세미나 및 정책협의회	15
7) 국외출장	16
II. 학업중단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17
1. 학업중단 현황	19
1) 학업중단을 변화추이	19
2) 학업중단자 복귀현황	21
3) 시도별 학업중단자 규모 및 학업중단을	23
4) 학업중단 사유의 변화	26
5) 학령인구 대비 학업중단자 유형별 규모 추정	27
2.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생애과정	31
1)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념	31
2)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	32

3)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로	36
4) 학업중단 후 경로 관련 요인: 생애과정 관점	36
3. 아동·청소년 관련 중단조사 등 국내외 관련 연구	42
Ⅲ. 1차년도 조사도구 개발	49
1. 조사도구 개발절차	51
2. 조사영역 및 변인에 대한 이론적 근거	53
1) 개인의 심리·정서	53
2) 문제행동 가해·피해경험	56
3) 환경적 특성	57
4) 학업중단 이후의 삶	61
5) 생애사건	62
3. 조사영역 및 변인에 대한 경험적 근거	
: 2012년 조사문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63
1) 2012년도 조사문항 구성	64
2) 2012년 설문조사 분석결과 및 시사점	66
4. 최종문항 확정	80
Ⅳ. 조사설계	87
1. 패널구축	89
1) 조사대상	89
2) 표본설계	89
3) 조사방법	93
2. 자료수집과정	93

1) 리스트 수령 및 정제	93
2) 면접원 교육 및 조사 홍보	96
3) 사전 접촉	98
4) 실사	100
5) 패널 추가 수집	105
6) 데이터 처리 및 검증	109
7) 데이터 클리닝	112
3. 패널관리	115
1) 패널관리 통합시스템	115
2) 패널관리 방안	116
V. 1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I :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119
1. 응답자의 특성	121
2. 학업중단 관련 실태	123
1) 학업중단 시기	123
2) 학업중단 이유	127
3) 학업중단의 행정처리 형태	128
4) 학업중단 횟수	131
5) 학교 복귀 경험	133
6) 최초 학업중단 관련 경험	135
7) 학업중단 시 고민상담 경험 및 주변 반응	143
8) 학업중단 관련 정보제공	149
9) 학업중단 숙려제 이용 경험	150
10) 학업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	151

3.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 학생 청소년 집단과의 비교결과	153
1) 개인적 특성	154
2) 환경적 특성	164
4. 학업중단 이후의 삶	179
1)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과 인식	179
2) 학업중단 이후 경로	203
VI. 1차년도 조사결과 분석II :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217
1. 조사목적 및 조사방법	219
2. 조사결과	220
1) 응답자의 특성	220
2)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업중단 특징	
: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의 비교	223
3)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230
4) 학업중단 이후의 삶	237
5) 학업중단과 문제행동	245
VII. 결 론	247
1. 요약	249
1) 연구개요	249
2) 학업중단 현황	250
3) 주요 조사결과	251

2. 정책제언	263
1) 정책수립의 전제	264
2) 학업중단 예방대책	265
3)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 대책	268
4) 학업중단대책의 전달체계 및 추진일정	273
참고문헌	277
부 록	283
1. 일반 청소년용 설문지	285
2. 보호관찰 청소년용 설문지	308

표 목차

〈표 I-1〉 설문지 구성	14
〈표 I-2〉 2012년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문항	15
〈표 II-1〉 연도별 학업중단을	20
〈표 II-2〉 연도별 학업중단자 학교 복귀 현황(2008~2012년)	22
〈표 II-3〉 2012년도 시도별 학업중단 현황	24
〈표 II-4〉 연도별, 학업중단 사유별 학업중단을	26
〈표 II-5〉 출생인구 중 학령인구 현황(2012년 기준)	28
〈표 II-6〉 출생인구 중 학령인구와 기간학제 학생 수 비교	28
〈표 II-7〉 유입 인구와 기타 학제 학생 수	29
〈표 II-8〉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 밖 존재 유형(추정)	30
〈표 II-9〉 학업중단 이후 경로와 관련 요인	39
〈표 II-10〉 아동·청소년 관련 국내 패널조사의 조사설계 비교	46
〈표 II-11〉 아동·청소년 관련 국내 반복 횡단조사의 조사설계 비교	48
〈표 III-1〉 2012년 설문조사 문항 구성 체계	64
〈표 III-2〉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67
〈표 III-3〉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69
〈표 III-4〉 부모 관계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72
〈표 III-5〉 학교생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75
〈표 III-6〉 지역사회 환경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76
〈표 III-7〉 학업중단 이후 심리·정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79
〈표 III-8〉 설문조사영역 및 주요 내용	81
〈표 IV-1〉 학교급별 모집단 크기, 정규학교 학업중단자 목표 표본 수	90
〈표 IV-2〉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지역별 모집단 수 및 표본 수	90
〈표 IV-3〉 권역별 보호관찰소 개소 수 및 목표 표본크기	91

〈표 IV-4〉 1차년도 학업중단자 패널 구축 당초안 및 수정안, 최종 표본수	92
〈표 IV-5〉 학업중단자 패널 구축 경로별 최종목표 표본수	92
〈표 IV-6〉 정제 전후 수집방법별 리스트 현황	94
〈표 IV-7〉 거주지 기준 정제 리스트 현황	95
〈표 IV-8〉 지역별 면접원 교육일정	96
〈표 IV-9〉 사전 접촉 결과	100
〈표 IV-10〉 인포시트 내용	101
〈표 IV-11〉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기관 유형별 현황	105
〈표 IV-12〉 스노우볼링 리스트 수집 현황	108
〈표 IV-13〉 전화 검증 항목	110
〈표 IV-14〉 편칭 검수 일정	112
〈표 IV-15〉 전화 실사 항목	112
〈표 IV-16〉 패널 확보 경로별 응답자 수 (최종 조사완료 기준)	113
〈표 IV-17〉 패널 확보 경로별 응답자 수 (부적격 응답자 삭제 기준)	114
〈표 IV-18〉 패널관리 통합시스템	116
〈표 IV-19〉 연락처 확인을 위한 패널 접촉 문항	118
〈표 V-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22
〈표 V-2〉 학업중단 시기: 배경변수별 차이	124
〈표 V-3〉 학업중단 기간: 배경변수별 차이	126
〈표 V-4〉 학업중단 이유	127
〈표 V-5〉 학업중단 행정처리 형태: 배경변수별 차이	130
〈표 V-6〉 학업중단 횟수: 배경변수별 차이	132
〈표 V-7〉 학교 복귀 경험: 배경변수별 차이	134
〈표 V-8〉 최초 학업중단 시기: 배경변수별 차이	136

〈표 V-9〉 최초 학업중단 후 복교 소요기간: 배경변수별 차이	138
〈표 V-10〉 최초 학업중단 후 복학 이유	140
〈표 V-11〉 종전 학교로의 복학 여부: 배경변수별 차이	141
〈표 V-12〉 종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이유	143
〈표 V-13〉 학업중단 시 상담자	144
〈표 V-14〉 학업중단 시 부모와의 상담 경험: 배경변수별 차이	145
〈표 V-15〉 학업중단 시 친구나 선후배와의 상담 경험: 배경변수별 차이	147
〈표 V-16〉 학업중단 시 주변의 태도	148
〈표 V-17〉 학업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 실태	149
〈표 V-18〉 학업중단 숙려제 경험 여부	150
〈표 V-19〉 학업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	152
〈표 V-20〉 자아존중감 집단비교: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155
〈표 V-21〉 자아존중감 집단비교: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156
〈표 V-22〉 자아탄력성 집단비교: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156
〈표 V-23〉 자아탄력성 집단비교: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157
〈표 V-24〉 우울감 집단비교: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158
〈표 V-25〉 우울감 합산 집단비교: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159
〈표 V-26〉 충동성	159
〈표 V-27〉 문제행동 경험: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161
〈표 V-28〉 학업중단 전후 문제행동 경험	162
〈표 V-29〉 게임중독 집단비교: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163
〈표 V-30〉 게임중독 집단비교: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164
〈표 V-31〉 부모의 정서적 지원 집단비교(문항):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165
〈표 V-32〉 부모의 정서적 지원 집단비교(합산):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166

〈표 V-33〉 부모의 경제적 지원 집단비교(문항):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166
〈표 V-34〉 부모의 경제적 지원 집단비교(합산):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167
〈표 V-35〉 부모의 방임	167
〈표 V-36〉 부모의 학대	168
〈표 V-37〉 또래 애착	170
〈표 V-38〉 친구의 비행성향	170
〈표 V-39〉 학교교사와의 관계 집단비교(문항):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171
〈표 V-40〉 학교교사와의 관계 집단비교(합산):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171
〈표 V-41〉 학교친구와의 관계 집단비교(문항):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172
〈표 V-42〉 학교친구와의 관계 집단비교(합산):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173
〈표 V-43〉 학습부적응 집단비교(합산):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173
〈표 V-44〉 학교규정 위반 경험 집단비교(합산):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176
〈표 V-45〉 지역사회 사회통합	176
〈표 V-46〉 지역사회 무질서	177
〈표 V-47〉 지역사회 유익환경	177
〈표 V-48〉 학업중단 이후 경험	181
〈표 V-49〉 학업중단 이후 경험 - 김정고시 공부를 함: 배경변수별 차이	182
〈표 V-50〉 학업중단 이후 경험 - 직업기술을 배움: 배경변수별 차이	183
〈표 V-51〉 학업중단 이후 경험	
-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배경변수별 차이	185
〈표 V-52〉 학업중단 이후 경험	
-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놀음:	
배경변수별 차이	186
〈표 V-53〉 학업중단 후 주거 공간 및 비행추이	187

〈표 V-54〉 학업중단 이후 친한 수	188
〈표 V-55〉 학업중단 이후 만난 성인 멘토	189
〈표 V-56〉 진로 정보의 탐색	190
〈표 V-57〉 향후 진로 계획	192
〈표 V-58〉 본인의 교육 기대수준	193
〈표 V-59〉 생활영역별 일상시간	195
〈표 V-60〉 식생활 유형: 주 5일 결식률과 인스턴트 음식 섭취율	195
〈표 V-61〉 아침식사 주5일 결식률: 배경변수별 차이	196
〈표 V-62〉 학력에 대한 생각	198
〈표 V-63〉 자신의 미래에 대한 태도(문항)	198
〈표 V-64〉 자신의 미래에 대한 태도: 배경변수별 차이	199
〈표 V-65〉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201
〈표 V-66〉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배경변수별 차이	202
〈표 V-67〉 학업중단 이후 경험	204
〈표 V-68〉 학업중단 이후 경험의 재분류	205
〈표 V-69〉 학업중단 이후 경로	206
〈표 V-70〉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배경변수별 차이	208
〈표 V-71〉 생애사건 경험 여부	214
〈표 V-72〉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생애사건 경험여부별 차이	215
〈표 VII-1〉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254
〈표 VII-2〉 범 부처 학업중단 대책 추진일정	276

그림 목차

【그림 I-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2012년~2015년)	7
【그림 I-2】 연구추진체계	11
【그림 II-1】 학교급별 학업중단을 변화(2005~2012)	21
【그림 II-2】 학교급별 학교복귀율 변화(2008~2012)	22
【그림 II-3】 지역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을	25
【그림 II-4】 지역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	25
【그림 II-5】 연도별 고등학교 부적응 사유의 학업중단을	27
【그림 II-6】 학업지속 유형별 노동시장 참여 형태 2009-2010	33
【그림 II-7】 생애과정 관점에 근거한 학업중단 청소년 전환 및 적응 모형	41
【그림 III-1】 2013 조사도구 개발절차	52
【그림 IV-1】 조사 팜플렛	97
【그림 IV-2】 보호관찰 대상자 조사 안내문	97
【그림 IV-3】 홈페이지 메인 이미지	98
【그림 IV-4】 사전 접촉 스크립트	99
【그림 IV-5】 매니저 프로그램: 면접원 입력 페이지	103
【그림 IV-6】 매니저 프로그램: 전체 조사 진행상황 확인 페이지	103
【그림 IV-7】 실사 진행상황 보고자료 예시	104
【그림 IV-8】 상담센터 조사대상자 모집 팜업창 예시	107
【그림 IV-9】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예시	107
【그림 IV-10】 조사 홈페이지의 패널 지원자 정보입력 페이지 예시	108
【그림 IV-11】 리뷰가이드(Review Guide) 예시	109
【그림 IV-12】 편치로직 리스트 예시	111
【그림 IV-13】 데이터 클리닝 리스트	115
【그림 IV-14】 휴대전화를 통한 웹조사(CAMI) 예시	117

【그림 V-1】 학업중단 시기	123
【그림 V-2】 학업중단 기간	125
【그림 V-3】 학업중단 이유	128
【그림 V-4】 학업중단 행정처리 형태	129
【그림 V-5】 학업중단 횟수	131
【그림 V-6】 학업중단 사유에 따른 학업중단 횟수	133
【그림 V-7】 학교 복귀 경험	133
【그림 V-8】 가족구성에 따른 최초 학업중단 시기	137
【그림 V-9】 최초 학업중단 후 복교 소요기간	138
【그림 V-10】 종전 학교로의 복학 여부	141
【그림 V-11】 학업중단 기간에 따른 종전 학교로의 복귀 비율	142
【그림 V-12】 학업중단 시 상담자	144
【그림 V-13】 학업중단 시 주변의 태도	148
【그림 V-14】 학업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	149
【그림 V-15】 학업중단 숙려제의 유용성	151
【그림 V-16】 학업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	152
【그림 V-17】 문제행동 경험: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161
【그림 V-18】 학업중단 전후 문제행동 경험	162
【그림 V-19】 친한 친구 수 집단비교	169
【그림 V-20】 학교규정 위반 경험 집단비교	175
【그림 V-21】 학업중단 이후 경험	180
【그림 V-22】 학업중단 후 주거 공간 및 비행추이	187
【그림 V-23】 학업중단 이후 만난 성인 멘토	189
【그림 V-24】 진로 정보의 탐색	191

【그림 V-25】 일상 생활시간 영역별 경험빈도	194
【그림 V-26】 학업중단 이후 경로	207
【그림 V-27】 성별에 따른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209
【그림 V-28】 연령대에 따른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209
【그림 V-29】 가족구성에 따른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210
【그림 V-30】 가정 경제수준에 따른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210
【그림 V-31】 학업성적에 따른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211
【그림 V-32】 학업중단 시점에 따른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212
【그림 V-33】 학업중단 사유에 따른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212
【그림 V-34】 가족구성 변화경험 여부별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216
【그림 V-35】 비행경험 유무별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216
【그림 VI-1】 성별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220
【그림 VI-2】 가족구성 집단비교: 학생 vs 일반 vs 보호관찰	221
【그림 VI-3】 주관적 경제수준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222
【그림 VI-4】 주관적 학업성적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222
【그림 VI-5】 학업중단 시점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223
【그림 VI-6】 학업중단 사유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224
【그림 VI-7】 학업중단 형태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224
【그림 VI-8】 복학경험 여부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225
【그림 VI-9】 최초 학업중단 이후 복학 이유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226
【그림 VI-10】 학업중단 시 고민 상담자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227
【그림 VI-11】 학업중단 시 부모님과 교사의 태도 집단비교 : 일반 vs 보호관찰	228
【그림 VI-12】 학업중단 숙려제 설명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229

【그림 VI-13】 학업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230
【그림 VI-14】 개인 심리적 특성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평균	231
【그림 VI-15】 부모관계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평균	231
【그림 VI-16】 친구의 비행성향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평균	232
【그림 VI-17】 교사관계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평균	233
【그림 VI-18】 학습부적응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평균	233
【그림 VI-19】 학교규정 위반 경험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234
【그림 VI-20】 지역사회환경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평균	235
【그림 VI-21】 가족구성 변화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236
【그림 VI-22】 교사의 폭력 및 전학 경험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237
【그림 VI-23】 학업중단 이후 생활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238
【그림 VI-24】 학업중단 이후 주거 공간 및 비행 집단비교 : 일반 vs 보호관찰	238
【그림 VI-25】 학업중단 이후 새롭게 사귀 친구 수 집단비교 : 일반 vs 보호관찰	239
【그림 VI-26】 학업중단 이후 만난 성인 멘토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240
【그림 VI-27】 학업중단 이후 진로정보의 탐색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240
【그림 VI-28】 학업중단 이후 향후 진로계획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241
【그림 VI-29】 생활영역별 일상시간 집단비교(평일): 일반 vs 보호관찰	242
【그림 VI-30】 생활영역별 일상시간 집단비교(휴일): 일반 vs 보호관찰	243
【그림 VI-31】 주 5일 이상 결식률 집단비교: 학생 vs 일반 vs 보호관찰	244
【그림 VI-32】 학업중단 전후 비행경험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246
【그림 VII-1】 범부처 학업중단대책 전달체계	265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1년 이후 감소하던 학업중단율이 2007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학업중단자의 절반 가까이가 전문고등학교 학생이었으나 2004년부터는 중학생과 일반 고등학교 학생의 구성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 현재 중학생과 일반고생은 각각 전체 학업중단자의 31.3%와 34.7%를 차지하고 있다. 왜 학업중단이 늘어날까? 중학교와 일반 고등학교에서 왜 학업중단이 늘어나는 것일까? 학업중단 사유는 무엇이며, 학업중단 이후 이들은 어떤 삶의 행로를 거치게 되는 것일까?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보면 한국의 학업중단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학업중단자가 적은 한국사회의 특성상 이들의 진로는 비교적 준비되지 않은 채 사회로 배출된다. 이 때문에 학업중단자들의 삶은 더욱 고달프고 힘이 든다.

학업중단 후 청소년들의 삶의 경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학교를 떠난 후 교정시설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공공부문에서는 그들의 삶의 흔적을 포착할 수 없다.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사회적으로 헤독되지 않은 상태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이 사회의 소수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삶의 행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오기는 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10~20명의 학업중단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나 학업중단자들이 있는 시설과 기관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조사대상자의 선정부터 편향적이었기 때문에 학업중단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웠으며, 일회성 횡단조사이기에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들이 어떠한 행로를 경험하고 있는지도 정확한 실태파악이

* 이 장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어려웠다. 청소년에 대해 비교적 광범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 혹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등 또한 전체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에 포함된 아동·청소년 중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수가 전체의 1% 내외로 각각 30-40명, 20여명에 불과해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전반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학업중단자의 삶은 정형화되기 어려운 여러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므로, 학교 중단시점부터 추적조사를 하는 중단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시기에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이후 삶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사회에 적응하고 이탈하게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20대 초, 중반에 이를 때 까지 장기간의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학업중단자의 극심한 유동성으로 현실적으로 조사 패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학업중단 초기, 3개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중단조사를 시도하고자 한다. 학업중단 직후 이들의 생활과 경험은 급변할 것이라 예측된다. 이들의 삶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파악하고 이 시기에 개입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의 학업중단 발생시점부터 대상자를 추적하는 중단연구를 시도하였다. 쉼터, 대안교육기관 등 특정 기관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구했던 기존 학업중단자 관련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학업중단자의 실제에 보다 근접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갖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어떤 생활과 경험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가치관과 의식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가?

둘째,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경험은 어떤 경로를 거치며, 이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별 분포는 어떠한가?

셋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로, 이행과정(사회적응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행과정을 예측할 수 있는가?

넷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에 맞는 정책적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전체 연구의 목적

-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 및 경험 실태, 가치관과 의식에 대한 중단자료를 수집하여 학업중단 후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의식의 변화를 추적한다.
-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경험을 토대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화 및 유형별 분포를 파악한다.
- 셋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 즉 사회적응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다.
- 넷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이행과정(적응과 부적응)을 예측함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출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3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탐구하였다.

- 첫째,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단조사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
- 둘째,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모형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중단조사 도구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나?
- 셋째, 2012년 조사도구는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무엇을 수정·보완해야 하는가?
- 넷째, 2013년도에 수집된 학업중단 응답대상자의 특성은 어떠하며 학생 청소년,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다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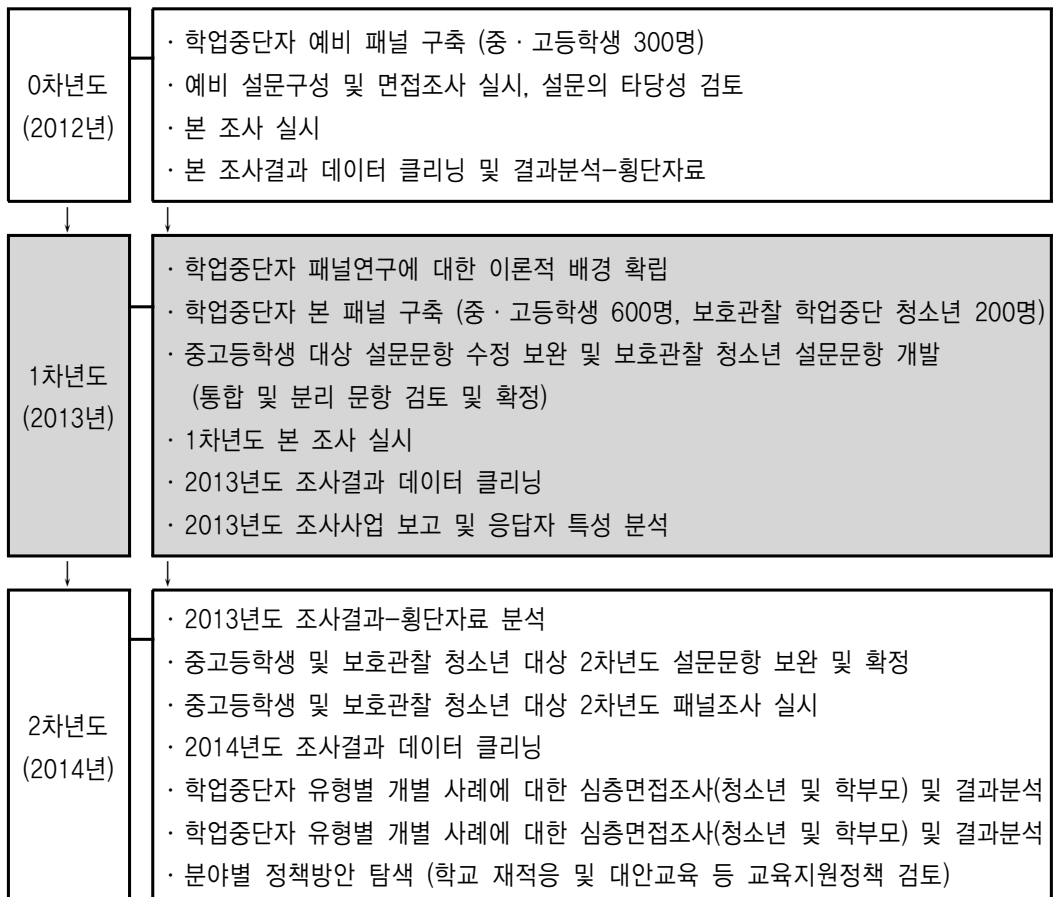
2013년도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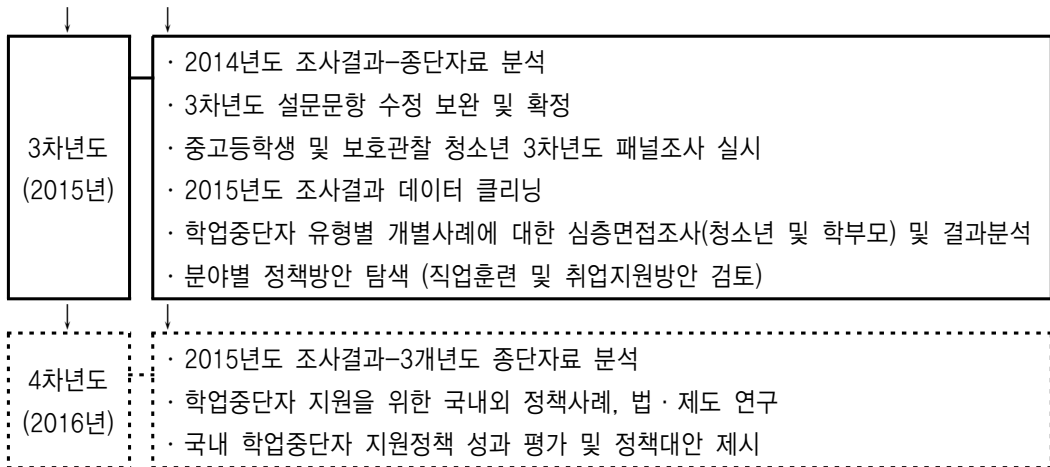
-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 조사대상 패널(본 패널과 비교집단 패널)을 구축한다.
-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생활실태와 의식, 가치관의 변화, 중단 후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도구를 개발한다.
- 셋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행경로(사회적응과 이탈)에 대한 분석모형을 탐색한다.
- 넷째,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학생 청소년,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을 비교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한다.

2. 연구내용

1) 종단연구 추진내용

본 연구는 2012년도 교육부(경기도교육청 수탁과제) 예산으로 실시된 300명의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조사를 기초로 향후 3개년 간 종단연구로 추진될 계획이다. 종단연구 주요 추진내용은 <그림 I-1>과 같다.





【그림 I -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2012년~2015년)

* 2016년 사업은 미확정

2) 2013년도 주요 연구내용

(1) 국내외 학업중단연구 및 종단연구 사례분석

정규학교 학업중단자 현황,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 학업중단 이후 경로 및 이행과정, 이와 관련된 변인 등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며, 국내외 아동·청소년 종단연구 등에 대한 검토로 학업중단 종단조사 설계 및 관련변수 설정, 분석모형 등을 고찰하였다.

(2) 2012년도 조사결과 분석

2012년도에 실시한 학업중단 청소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찰하였다. 첫째, 2012년 연구의 조사패널 구축방법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차이를 검토하여 2013년도 학업중단자 조사패널 구축방향을 설정하였다.

둘째, 2012년 조사문항의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등을 통해 조사문항을 수정하였다.

(3) 1차년도 조사도구 신규항목 개발 및 보완

2012년도에 조사 설문지의 응답결과를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문항들을 선별하고 이를 수정하였

다. 이에 일반 학생 또는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과 비교 가능한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조사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생활시간과 식생활, 가치관과 의식 등에 관한 설문문항을 새로 추가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의식의 변화를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학업중단 후 경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요인들을 추가하였고,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보호관찰과 관련된 문항을 추가하였다.

조사도구의 수정·보완은 문헌 및 2012년도 조사결과의 검토, 전문가 자문,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협동 연구진 회의, 조사기관 및 면접원의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쳤다.

(4) 조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 이후 경험을 통해 경로 유형을 탐색하고 경로 유형별 분포, 학업중단 후 경로와 이행과정(사회적응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탐색, 학업중단 청소년의 일상생활 실태와 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자로 학업중단 발생시점부터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1년 이내 학업중단자를 우선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특정시설에 소속된 학업중단자의 특성이 본 연구결과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학업중단 사례를 가진 학교에서 조사대상자 명부를 확보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학교는 해당 청소년과 학부모(14세 미만)에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했다. 이 과정에서 연락두절 등으로 고위기 보호관찰 청소년이 많이 누락될 것에 대비하여 보호관찰소를 통해 별도의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을 확보하여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조사패널 구축 및 유지관리

조사 설계에 따라 패널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13년 9월 30일 기준, 1차 조사를 완료한 후 데이터 처리를 진행했다. 학업중단자 리스트 확보가 어려워서 목표표본이 부족하였다. 패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2학기에 한차례 더 학업중단자 명부를 수합하였으며 2013년 10월~11월 중에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1차 조사 후 데이터 처리가 완료된 표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추가 데이터는 최종완료 후 본 데이터에 병합하여 2014년도에

활용할 예정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유동성이 커서 패널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실사종료후 2개월 후부터 연락처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를 활용한 웹조사 및 본인 뿐 아니라 주변인 연락처를 확인, 웹조사 참여자에 대한 모바일 상품권 지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6) 1차년도 조사준비 및 조사관리

1차년도 조사를 위해 리서치 업체선정 및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조사 준비과정으로 조사대상 리스트의 정제, 면접원 교육, 조사홍보 팜플렛 작성, 홈페이지 운영, 웹 홍보 등을 진행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면접원 교육 및 조사 검증 결과 검수, 면접원 간담회 등의 조사과정을 담당하였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조사실시를 위해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보호관찰소를 섭외하고 조사방법을 협의하였으며, 보호관찰관에게 배포할 조사안내문 제작 및 교육·홍보 등 보호관찰소에서의 조사과정을 관리하였다.

(7) 협동연구관리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협동연구를 추진하였다. 협동연구대상은 중·고등학교 학령의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중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으로, 전국 보호관찰소 중 11개소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관 당 24명씩 총 270명(1개 기관은 30명)을 조사하였으나, 설문 폐기부수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26명의 조사패널이 구축되었다. 단, 본 보고서는 2013년 9월 30까지 데이터 처리가 완료된 190명의 패널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내용은 본 연구와 동일하되 보호관찰 관련사항을 추가 설문하였으며, 보호관찰 청소년의 비행 특성 그리고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의 비행, 재비행 및 사회적응 요인을 밝히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협동연구과제의 연구일정(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은 본 연구일정보다 7~10일 선행하여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조사일정(설문지 개발 및 실사 진행, 자료처리 등)은 본 조사 패널과 동일한 일정으로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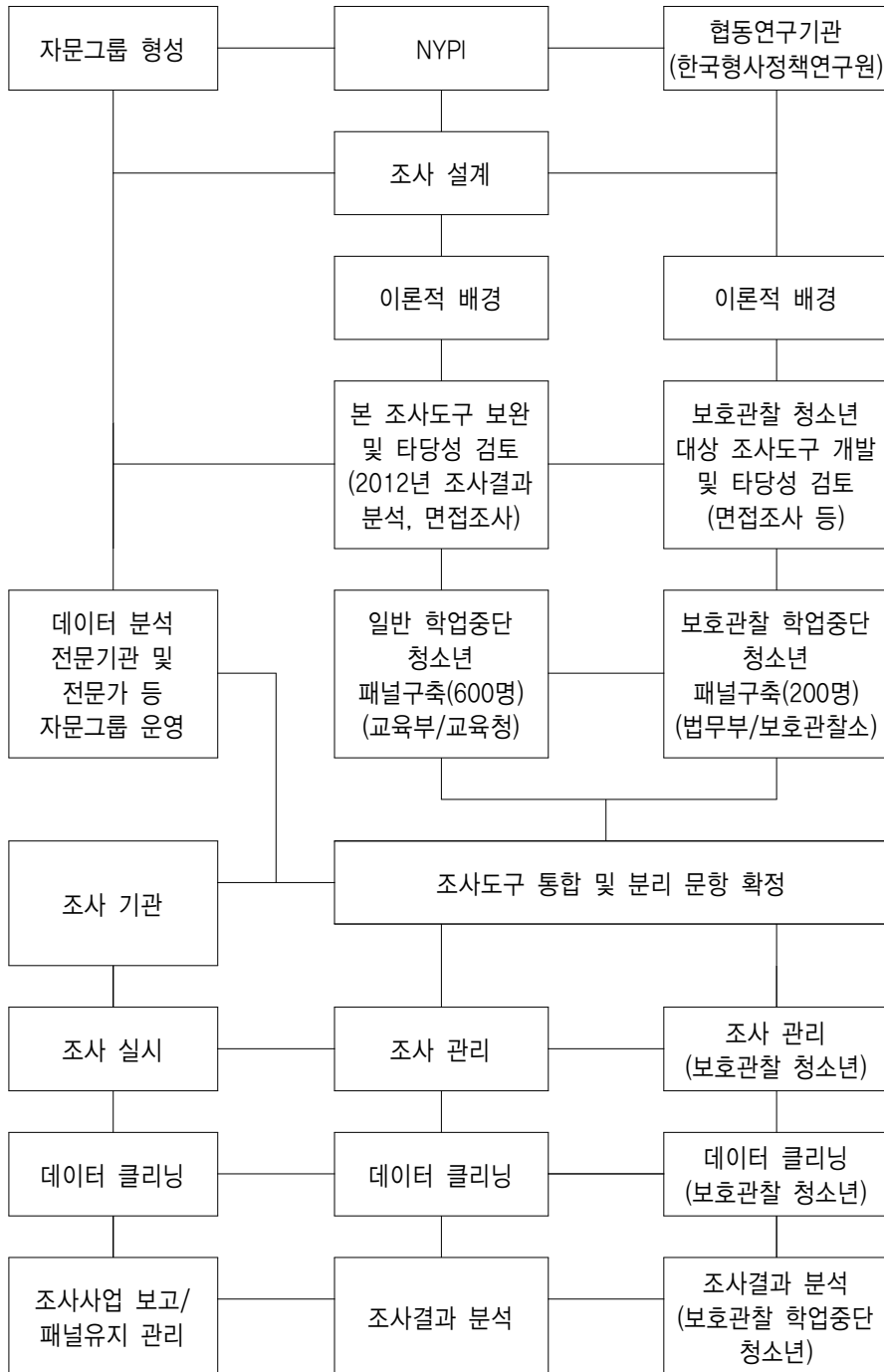
3.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1) 협동연구 추진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3년간 협동연구로 추진된다. 학업중단자에 대한 조사는 2 track으로 진행된다. 우선 본 패널은 교육부 및 교육청과 협조하여 2012년도 7월부터 2013년도 7월(2차 조사 2012년도 9월 ~ 2013년도 9월)까지 발생하는 중고등학교 학업중단자를 대상으로 구축하였다.

학교를 통해 학업중단자 패널을 구축할 때, 가출, 비행 등으로 학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명단 작성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고 품행사유 학업중단자 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패널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법적 비행 청소년 중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수감 청소년은 구금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조사가 실시되는 3년 동안 경험의 변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교집단 패널 대상을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 법적 비행 청소년에 대한 조사패널 구축, 조사문항 개발 등은 해당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협동으로 추진하며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향후 3개년 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한다.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그림 I-2]와 같다.



【그림 I -2】 연구추진체계

2)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청소년의 학업중단 현황, 학업중단 후 삶의 경로와 의식 및 가치관, 학업중단 후 경험의 유형화, 학업중단 후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학업중단 중단연구 설계와 분석에 유용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학업중단 관련 중단연구 사례, 특히 국외연구의 소재를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3) 전문가 자문

양적연구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단연구 설계 및 조사문항 선정 등에 대해 수차례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중앙대학교 데이터과학연구소와 2012년 조사결과 검토 및 본 조사의 목적, 연구 설계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4) 양적 연구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이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교 등 개인 명부를 활용한 조사대상자의 확보를 우선으로 하였다. 2012년 7월 이후 정규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학업중단 경험(해당 기간에 중단했다가 복교한 청소년 포함)이 있는 청소년이었다. 부족한 패널은 직업훈련기관,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학원, 상담지원센터 웹 등을 통해 중·고등학교 학령(1995년 3월~2001년 2월 출생자)에 해당하며, 정규 중·고등학교 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집·확보하였다. 학업중단 개별 리스트를 활용한 표본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 2013년 2학기에 발생하는 학업중단자를 포함하여, 2013년 9월 30일까지 일선학교에서 한 차례 더 학업중단자 개별 명부를 수합하였다.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역시 중·고등학교 학령기이면서, 2012년 7월 이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조사방법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개별 명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대면면접 조사방법을, 기관접촉을 통한 조사는 기관 사정에 따라 일대일 대면면접 조사방법과 집단면접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이 활용되었다. 조사 섭외가 이루어진 보호관찰소에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이 조사대상 청소년에게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설문 응답완료 후 A4 봉투에 설문지를 넣어 밀봉하였으며, 조사대상자별 설문과 보호관찰관 설문을 A3 봉투에 함께 넣어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3) 조사기간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조사기간은 2013년 6월 28일 ~ 2013년 8월 5일이었으며, 2차 조사는 2013년 10월 ~ 2013년 11월에 실시하였다.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조사는 2013년 6월 말 조사자료 발송을 시작으로 7월 ~ 8월에 실시되었으며, 2013년 9월초까지 설문지 회송이 완료되었다.

(4) 조사도구

설문지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용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용 두 종류로 개발되었다. 조사영역은 ① 학업중단 현황, ② 학업중단 당시 학교생활 회고, ③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인식, ④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 ⑤ 부모·친구관계·동네주변 환경, ⑥ 일상생활 및 가치관, ⑦ 생애사건 경험, ⑧ 문제행동 경험, ⑨ 배경요인, ⑩ 보호관찰 관련 사항 등 10개 영역으로 두 청소년 집단 간 비교를 위해 최대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단,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관찰 사항은 청소년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담당 보호관찰관이 내부기록을 확인하여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표 I-1 설문지 구성

설문내용 구분	응답대상자	
	정규학교 학업중단자	보호관찰소 학업중단자
학업중단 현황	0	0
학업중단 당시 학교생활 회고	0	0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인식	0	0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	0	0
부모·친구관계·동네주변 환경	0	0
일상생활 및 가치관	0	0
생애사건 경험	0	0
문제행동 경험	0	0
배경요인	0	0
보호관찰 관련사항		0

* 단, 보호관찰 문항은 청소년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내부기록을 확인하여 작성함.

5) 면접조사

2013년도 조사 설문지의 검토를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16세 ~ 19세 청소년 5명,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3명, 이상 총 8명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설문문항이 너무 많아서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는 않은지, 청소년 간 지적능력의 차이로 이해가 어려운 용어는 없는지, 또한 응답방법을 잘 몰라서 응답 오류가 생기는 문항은 없는지 등이었다.

조사시간은 문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청소년이 20분 이내에 응답을 완료하였다. 이는 문항 수는 많았으나 청소년 입장에서 해당되는 문항에만 답하는 선택형 문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용어나 응답방법 등에 어려움이 발견되어 수정한 문항은 <표 I-2>와 같다.

표 I-2 2012년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문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문제점	수정
문1	학교복귀 상황	문항 응답지 중 “정규학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함.	“정규학교”를 학력을 인정을 하는, 검정고시를 볼 필요가 없는 학교라고 정의함.
문6	학업성취 수준	응답자 본인이 직접 반, 전교 전체 인원에서 몇 등을 하였는지 또는 몇 %에 속하는지 직접 기입하는 방식이므로 구체적인 등급 밝히기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자신의 정확한 성적을 몰라 응답에 어려움이 있음.	최하위권부터 최상위권까지 성적형태를 7단계로 구분하여 자신이 속한 성적 그룹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문8-5	종전 학교로 복귀하지 않는 이유	기타 의견으로 검정고시를 보고 학력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에 다녔던 학교로 복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있었음.	⑤번 보기 문항으로 새롭게 추가함.
문19	중단 후 생활패턴	경험이 있는 전 기간에 표기해야하지만 처음 시작한 달에만 표기하는 경우가 발생함.	응답해야 할 기간과 응답 표시방법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여 올바른 응답을 유도함.
문20	중단 후 가출 비행 경험	질문 문항 중 “가출패”와 “소년분류심사원” 용어에 대하여 질문을 받음.	각 용어의 설명을 추가 표기함.
문27	학업중단 관련 심리-정서	질문의 시제가 현재형이므로 현재 복학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일 경우, 과거 학업 중단 당시의 학교인지 아니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를 의미하는지 혼란이 있음.	복교한 응답자의 경우, 과거 학교를 그만두었을 당시 심정을 묻는 질문임을 문항에 명시하고, 응답 지문에도 현재형뿐 아니라 과거시제를 추가함.
문36	생활시간	응답자가 하루 24시간에 맞추어 모든 생활 시간을 표시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였으며,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음.	응답자가 쉽게 답할 수 있도록 주요 영역의 생활시간에 대해서만 평균시간을 표기하도록 하여, 24시간에 인위적으로 맞추는 것을 삭제함.

6) 세미나 및 정책협의회

여성가족부 정책협의회 2회,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정책협의회 1회, 교육부 학생복지과 개최 세미나 발표 등 국가차원의 학업중단 대책 수립과정에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경기도 상담복지센터, 고양시의회, 부천시 상담복지센터 등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학업중단 대책 수립 등을 위해 세미나 및 회의 참석, 정책과 사업안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7) 국외출장

국외출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먼저, 국제수준의 대규모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축·운영하고 대규모 종단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미시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사연구센터 방문을 통해 종단연구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종단연구 수행에 필요한 패널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학업중단 연구진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업중단 연구 성과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

둘째, 시카고대학교 채핀홀센터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축적된 기관으로 연구진과의 회의 개최를 통해 일리노이주와 미국의 학업중단 예방 및 지원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렴하였다.

셋째, 시카고 지역은 학업중단이 심한 도시로 학업중단 대책이 발전하고 있는 도시이다. 시카고시의 학업중단 대책 현황을 파악하고자 시카고 교육위원회, 시카고 차터스쿨협의회(Youth Connection Charter School, YCCS) 및 몇 개의 차터스쿨 현장을 방문하여 학업중단자를 위한 정책의 실재를 파악하였다.

국외출장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종단연구 수행과 데이터 처리 및 결과 활용 등에 적용하고, 회의와 현장방문을 통해 축적한 정보는 정책대안 개발 등에 활용되었다.

제 2 장

학업중단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1. 학업중단 현황
2.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생애과정
3. 아동·청소년 관련 중단조사 등
국내외 관련 연구

제 2 장

학업중단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1. 학업중단 현황¹⁾

1) 학업중단을 변화추이

<표 II-1>을 보면 2012년 현재 학교급별 학업중단 인원은 초등학교 19,163명(0.6%), 중학교 17,811명(0.9%), 고등학교 37,391명(1.9%)이다.

학업중단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2000년까지는 대체로 감소하다가 200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자료가 없어서 변화를 알기 어려우나, 2000년에 0.3%에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0.6%에 이르고 있다. 중학교 학업중단율은 1980년에 1.4%였던 것이 2000년에 0.7%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0.9%가 되었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1980년 3.0%에서부터 2006년 1.3%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여 2012년에는 1.9%가 되었다.

최근 8개년 간(2005~2012) 학업중단율의 변화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에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학업중단율이 높으며, 고등학교 시기의 학업중단율이 중학교 시기의 2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2005년 이후 최근 8개년 간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이다. 그 중 고등학교의 증가폭이 가장 크며, 초·중학교는 201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이장의 1절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절은 김신영(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3절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1) 이 부분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표 II-1

연도별 학업중단율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적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재적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재적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2012	3,132,477	19,163 (10,771)	0.6 (0.3)	1,910,572	17,811 (15,337)	0.9 (0.8)	1,943,798	37,391 (33,057)	1.9 (1.7)
2011	3,299,094	18,836 (10,404) →10,181 (사망자 수 제외)	0.6 (0.3)	1,974,798	18,866 (16,509) →16,320 (사망자 수 제외)	1.0 (0.8)	1,962,356	38,887 (34,091)	2.0 (1.7)
2010	3,474,395	11,634	0.3	2,006,972	15,736	0.8	1,965,792	34,540	1.8
2009	3,672,207	17,644	0.5	2,038,611	19,675	1.0	1,906,978	34,450	1.8
2008	3,829,998	20,450	0.5	2,063,159	20,101	1.0	1,841,374	32,943	1.8
2007	3,925,043	23,898	0.6	2,075,311	18,968	0.9	1,775,857	27,930	1.6
2006	4,022,801	18,403	0.5	2,010,704	15,669	0.8	1,762,896	23,076	1.3
2005	4,116,195	16,793	0.4	1,933,543	14,165	0.7	1,746,560	24,037	1.4
2000	4,019,991	12,846	0.3	1,860,539	13,045	0.7	2,071,468	47,456	2.3
1995	3,905,163	-	-	2,481,848	23,938	1.0	2,157,880	52,847	2.4
1990	4,868,520	-	-	2,275,751	22,348	1.0	2,283,806	53,865	2.4
1985	4,856,752	-	-	2,782,173	33,589	1.2	2,152,802	71,571	3.3
1980	5,658,002	-	-	2,471,997	35,439	1.4	1,696,792	50,698	3.0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9.11), 201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 주: 1)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 / 재적학생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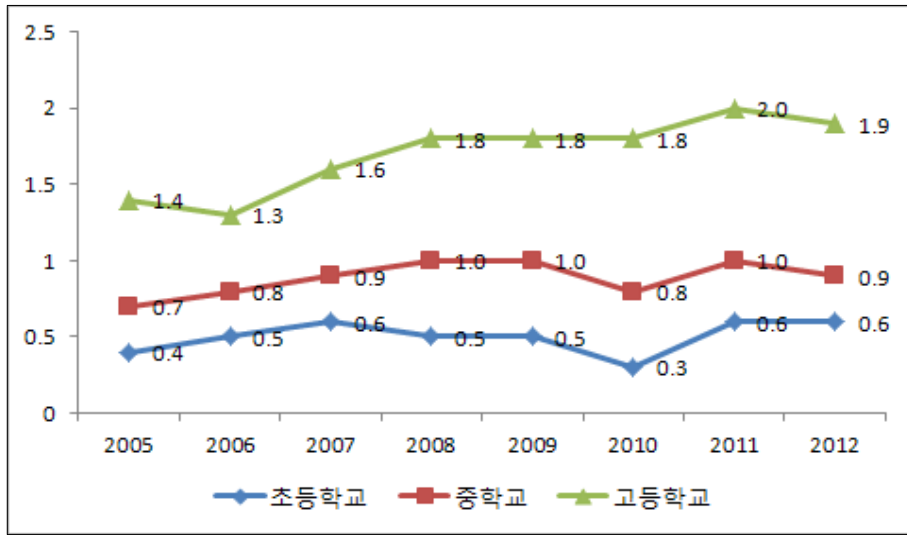
2) 구분의 연도는 조사년도임(2012년도에 조사된 학업중단자는 2011.3.1.~2012.2.29. 기준이며, 재적학생수는 2011.4.1. 기준임).

3)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봄.

4) 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사유는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임.

5) 학업중단자에서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6) 2011년도부터 유학자가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2011~2012년의 ()는 2010년 이전 기준(유학이민 제외)으로 산출한 값임.



【그림 II-1】 학교급별 학업중단을 변화(2005~2012) (단위: %)

2) 학업중단자 복귀현황

최근 5개년 간(2008~2012) 연도별 학업중단자의 학교 복귀현황(<표 II-2>, [그림 II-2])을 보면 먼저, 학교급별로 초등학교는 70~80% 이상의 복귀율을, 중학교는 50% 수준, 고등학교에서는 18% 수준의 복귀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령기 순으로 복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연도별 복귀율의 변화에서는 2010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복귀율이 큰 폭으로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 산출방식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최근 5개년 간 큰 변화가 없었다. 2008년에 비해 2012년의 초·중학교 시기 복귀율은 다소 하락하고, 고등학교 시기의 복귀율은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2

연도별 학업중단자 학교 복귀 현황(2008~2012년)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복귀자	복귀율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복귀자	복귀율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복귀자	복귀율
2008	20,450	0.5	15,160	70.0	20,101	1.0	10,939	54.4	32,943	1.8	8,039	24.4
2009	17,644	0.5	16,245	87.2	19,675	1.0	10,262	52.2	34,450	1.8	8,285	24.0
2010	11,634	0.3	18,739	161.1	15,736	0.8	11,849	75.3	34,540	1.8	7,696	22.3
2011	18,836 (10,404)	0.6 (0.3)	16,245	86.2	18,866 (16,509)	1.0 (0.8)	9,382	49.7	38,887 (34,091)	2.0 (1.7)	7,366	18.9
2012	19,163 (10,771)	0.6 (0.3)	15,160	79.1	17,811 (15,337)	0.9 (0.8)	9,221	51.8	37,391 (33,057)	1.9 (1.7)	6,565	17.6

* 출처: 국회(2013). 초·중고 시도별 학생 변동상황 2008~2012(내부자료).

* 주: 1)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 / 재적학생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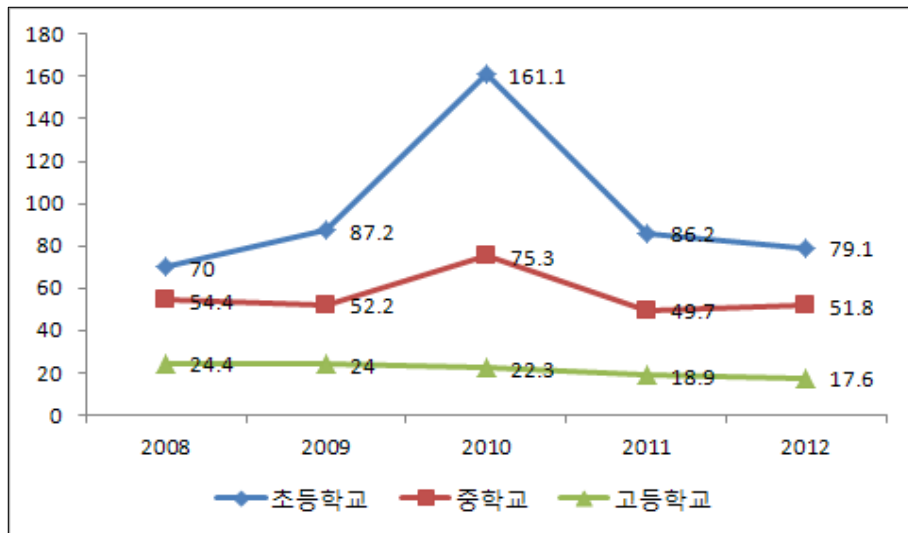
2) 구분의 연도는 조사년도임(2012년도에 조사된 학업중단자는 2011.3.1~2012.2.29. 기준이며 재적학생수는 2011.4. 1 기준임).

3)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봄.

4) 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사유는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임.

5) 학업중단자에서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6) 2011년도부터 유학자가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2011~2012년의 ()는 2010년 이전 기준(유학이민 제외)으로 산출한 값임.



【그림 II-2】 학교급별 학교복귀율 변화(2008~2012) (단위: %)

3) 시도별 학업중단자 규모 및 학업중단율

<표 II-3>과 [그림 II-3]은 2012년도 시도별·학교급별 학업중단율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초등학교에서는 서울(0.6%), 경기지역(0.4%)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중단율을 보이며, 중학교에서도 서울(1.1%), 인천(0.9%), 경기(0.9%) 순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에서 높은 학업중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학생인구가 타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큼을 감안할 때, 수도권 지역의 의무교육단계에서 이탈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반 고등학교는 광주(1.6%), 전북(1.5%), 서울·충남(1.4%) 순으로 학업중단율이 타 지역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대구·울산지역(0.8%)의 학업중단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대체로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특성화고등학교는 학업중단율이 높았고, 지역별 차이도 크다. 대전지역의 학업중단율이 6.5%, 강원지역이 6.1%로 가장 높았고, 서울(2.6%), 인천·제주(2.9%), 광주(3.0%)지역이 비교적 낮았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의 지역 간 격차는 대전, 강원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서울지역보다 약 3.5% 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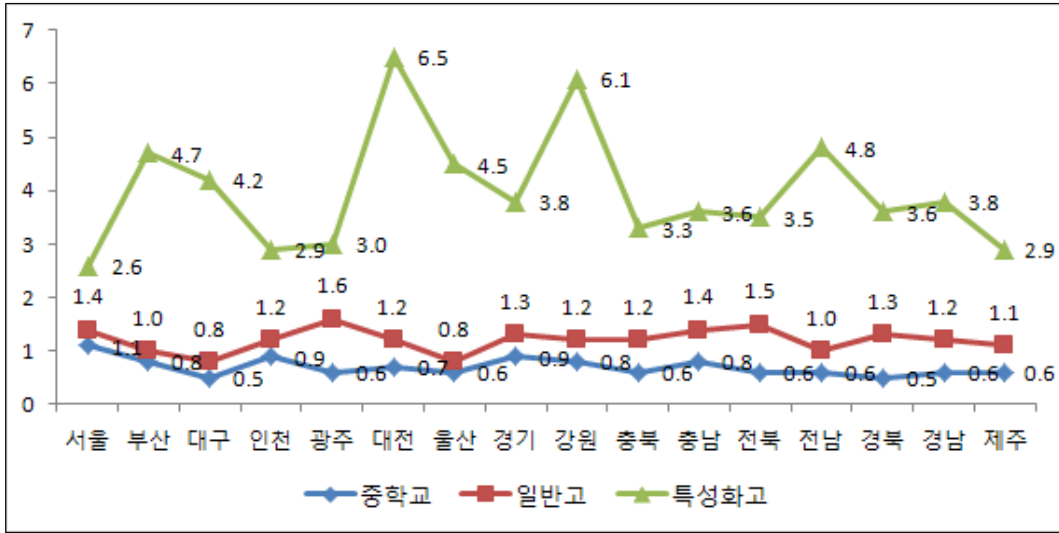
2012년도 시도별 학업중단 현황

(단위: 명, %)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제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일반고			특성화고		
							제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제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서울	535,948	3,460	0.6	330,219	3,729	1.1	233,738	3,183	1.4	55,630	1,431	2.6
부산	184,983	475	0.3	121,918	1,021	0.8	85,906	831	1.0	28,877	1,368	4.7
대구	157,693	365	0.2	102,493	533	0.5	70,489	554	0.8	18,850	795	4.2
인천	173,598	473	0.3	107,234	990	0.9	83,164	983	1.2	22,642	658	2.9
광주	109,760	254	0.2	68,761	443	0.6	49,427	788	1.6	11,590	350	3.0
대전	103,852	340	0.3	63,791	464	0.7	45,192	540	1.2	10,276	670	6.5
울산	76,596	158	0.2	49,934	302	0.6	38,010	320	0.8	10,022	447	4.5
경기	814,927	3,316	0.4	472,878	4,205	0.9	373,241	4,852	1.3	67,979	2,571	3.8
강원	94,442	277	0.3	57,321	432	0.8	44,978	532	1.2	9,598	582	6.1
충북	99,902	196	0.2	61,590	392	0.6	40,509	468	1.2	18,031	588	3.3
충남	132,962	245	0.2	77,771	609	0.8	59,712	857	1.4	13,273	472	3.6
전북	119,592	297	0.2	74,593	466	0.6	55,266	822	1.5	13,034	458	3.5
전남	115,550	218	0.2	71,837	415	0.6	49,765	517	1.0	17,865	862	4.8
경북	155,146	258	0.2	93,999	439	0.5	70,192	893	1.3	18,136	659	3.6
경남	215,383	362	0.2	131,677	742	0.6	107,455	1,277	1.2	19,772	757	3.8
제주	42,143	77	0.2	24,556	155	0.6	18,838	202	1.1	4,652	134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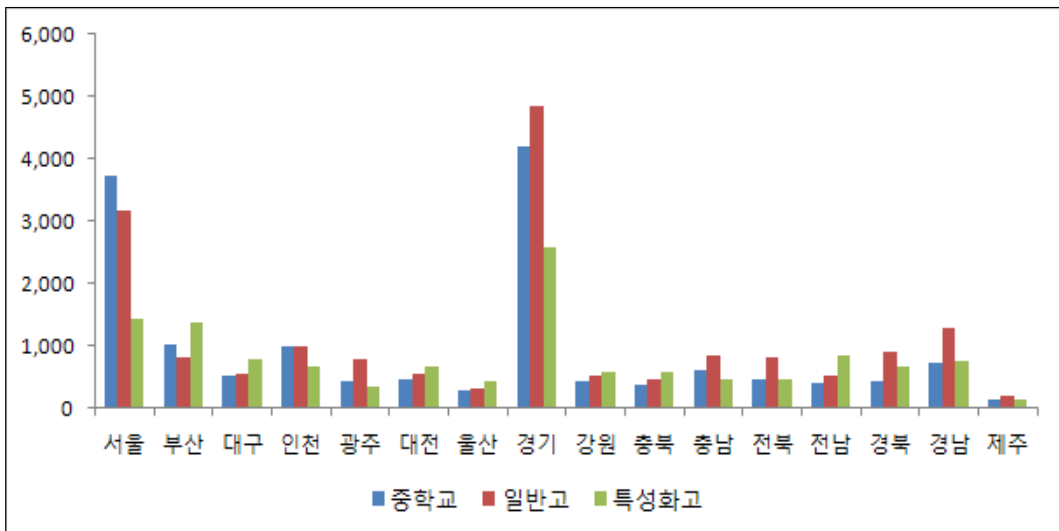
* 출처: 교육부(2013). 2006~2012 연도별 학업중단학생 현황(인성교육지원팀 내부자료).

* 2012년도 교육통계는 실제 2011학년도 학업중단 현황을 나타냄.



[그림 II-3] 지역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단위: %)

[그림 II-4]의 지역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를 보면 학생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지역의 학업중단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볼 수 있다.



[그림 II-4] 지역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 (단위: 명)

4) 학업중단 사유의 변화

<표 II-4>는 최근 7개년 간의 학업중단 사유별 학업중단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II-4 연도별, 학업중단 사유별 학업중단율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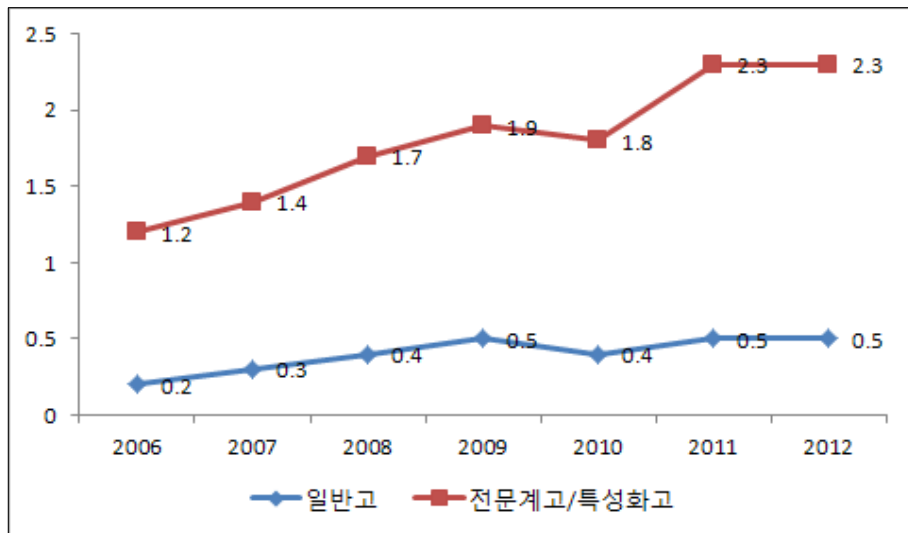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초·중·고·대학	유예자	18,150 (0.5)	23,691 (0.6)	20,211 (0.5)	17,371 (0.5)	11,332 (0.3)	10,181 (0.3)	10,711 (0.3)
	면제자	253 (0.0)	207 (0.0)	239 (0.0)	273 (0.0)	302 (0.0)		
중·고·대학	유예자	14,920 (0.7)	18,415 (0.9)	19,512 (0.9)	19,294 (0.9)	15,261 (0.8)	16,320 (0.8)	15,337 (0.8)
	면제자	749 (0.0)	553 (0.0)	589 (0.0)	381 (0.0)	475 (0.0)		
일반고등학교	질병	1,083 (0.1)	1,350 (0.1)	1,590 (0.1)	1,506 (0.1)	1,555 (0.1)	1,645 (0.1)	1,485 (0.1)
	부적응	2,952 (0.2)	3,920 (0.3)	5,855 (0.4)	6,810 (0.5)	6,636 (0.4)	6,927 (0.5)	7,668 (0.5)
	품행	138 (0.0)	149 (0.0)	200 (0.0)	165 (0.0)	182 (0.0)	136 (0.0)	141 (0.0)
	가사	2,993 (0.2)	3,288 (0.3)	4,395 (0.3)	4,300 (0.3)	3,505 (0.2)	2,198 (0.1)	1,478 (0.1)
	기타	3,000 (0.2)	3,909 (0.3)	3,437 (0.3)	3,364 (0.2)	5,541 (0.4)	5,879 (0.4)	6,847 (0.5)
전문계고 / 특성화고	질병	1,083 (0.2)	618 (0.1)	584 (0.1)	466 (0.1)	512 (0.1)	594 (0.1)	462 (0.1)
	부적응	6,087 (1.2)	7,049 (1.4)	8,160 (1.7)	9,457 (1.9)	8,632 (1.8)	10,621 (2.3)	7,805 (2.3)
	품행	514 (0.1)	713 (0.1)	934 (0.2)	507 (0.1)	293 (0.1)	347 (0.1)	289 (0.1)
	가사	3,782 (0.8)	4,769 (1.0)	5,805 (1.2)	5,869 (1.2)	4,858 (1.0)	2,328 (0.5)	1,279 (0.4)
	기타	2,088 (0.4)	2,165 (0.4)	2,083 (0.4)	2,006 (0.4)	2,826 (0.6)	3,416 (0.7)	2,967 (0.9)

* 출처: 교육부(2013). 2006~2012 연도별 학업중단학생 현황(인성교육지원팀 내부자료).

* 주: 1) 구분의 연도는 조사년도임(2012년도에 조사된 학업중단자는 2011.3.1.~2012.2.29. 기준이며, 재적학생수는 2011.4.1. 기준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업중단 사유를 유예 및 면제로만 구분하여 구체적인 중단사유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업중단 사유를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로 구분하였다. 세부사유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부적응으로 2012년 현재 일반 고등학교 7,668명(0.5%), 특성화고등학교 7,805명(2.3%)이 부적응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그림 II-5]는 부적응을 사유로 한 고등학교의 연도별 학업중단율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고에 비해 전문계고/특성화고 학생이 부적응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다. 두 집단 모두 2006년 이후 대체로 부적응을 사유로 한 학업중단이 증가해왔으며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부적응을 사유로 한 학업중단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림 II-5】 연도별 고등학교 부적응 사유의 학업중단율 (단위: %)

5) 학령인구 대비 학업중단자 유형별 규모 추정

학업중단자는 매년 발생하고 그 인원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학령인구 중 실제 학업중단자 수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학교제도 밖에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란 어렵다. 출생인구 중 학령인구와 실제 학생 수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학업중단자의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 출생인구 중 학령인구 현황을 나타낸 <표 II-5>을 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령인구는 총 7,126,098명이다.

표 II-5 출생인구 중 학령인구 현황(2012년 기준)

(단위: 명)

출생연도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계	
인구(명)	435,518	473,519	493,081	494,459	558,962	638,716		7,126,098
2012년 현재학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출생연도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인구(명)	619,187	639,127	670,694	68,357	706,559	711,919		
2012년 현재학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 출처: 통계청(2013). 인구통계(출생신고 기준/사망자 이민자 제외).

이에 비해 기간학제의 실제 학생 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6>과 같다. 총 학생 수는 6,721,176명으로 출생인구 중 학령인구와 기간학제 학생 수의 차이는 404,9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간학제 밖에 존재하는 학령인구의 규모를 의미한다.

표 II-6 출생인구 중 학령인구와 기간학제 학생 수 비교

(단위: 명)

	학생수	학생수 소계(A)	해당연령인구(B)	비교(B-A)
초등학교	2,951,995	2,951,995	3,094,255	
중학교	1,849,094	1,849,094	1,929,008	
일반고등학교	926,966	1,920,087	2,102,835	
특수목적고등학교	43,976			
특성화고등학교	223,068			
자율고등학교	94,242			
일반계고등학교	489,056			
전문계고등학교	142,779			
총계		6,721,176	7,126,098	404,922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2학년도 학생현황 교육통계(내부자료).

동일한 기간 중 외부로부터의 학령인구 유입이 있으며, 기간학제는 아니지만 각종 학교

등 기타 학제 학생 수가 산출되고 있다. <표 II-7>은 외부 유입 인구나 기타 학제 학생 수를 나타낸 것이다. 2012년 학령인구의 증가 효과를 준 중도입국과 외국인 가정의 학생 수는 총 6,914명이고, 기타 학제 학생 수는 총 50,231명이다. 양 집단 간 차이는 43,317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출생 인구로 산출한 학령인구와 실제 학생 수와의 격차 총 404,922명 중 일부집단을 설명해주고 있다.

표 II-7 유입 인구나 기타 학제 학생 수 (단위: 명)

		기타 학제 학생 수(C)		학령인구 증가수(D)	비교 (D-C)
유입인구	중도입국	-		4,288	
	외국인가정	-		2,626	
특수학교		24,785	24,785	중	
공민학교		-		10,966	
고등공민학교		170			
고등기술학교		1,137			
각종학교		9,291			
산업체부설학교		48			
산업체특별학급		320			
방송통신고등학교		14,480	14,480		
총계		50,231		6,914	-43,317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2학년도 학생현황 교육통계(내부자료).

그렇다면 이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361,605명은 어떠한 형태로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을까?

<표 II-8>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 밖 존재 유형을 추정한 것이다. 평생교육시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보호관찰소, 소년원 및 소년교도소 재소자, 장기 입원자 유형을 합하면 총 83,345명이 된다. 앞서 <표 II-6>과 <표 II-7> 그리고 다음 <표 II-8>을 종합하면, 미파악 학업중단 청소년 수(F) = 출생인구 중 학령인구(B) - 학생 수(A) - 기타 학제 학생 수(C) + 해외유입인구(D) - 파악된 학교 밖 청소년(E)로 소속이 파악되지 않는 총 278,260명이 존재한다.

이들은 현재 어떤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아르바이트나 취업 인구, 무업자, 학원 등에서 학습이나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인구로 추정할 수 있다.

표 II-8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 밖 존재 유형(추정) (단위: 명)

유형	인원	산출근거	출처
평생교육시설	18,738		(기준일: 2013.4.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7,399	평생교육시설 재원자 1,127 명 감함	(기준일: 2013.4.1) 교육부 학생복지과 시도교육청 조사자료 수합
유학/이민자	16,515	2011학년도 : 2011년 3월 ~ 2012년 2월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통계팀
해외이주/파견동행자	11,628	2011학년도 : 2011년 3월 ~ 2012년 2월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통계팀
직업훈련기관 재학자	2,500	추정치 (취업사관학교 150명 포함)	
보호관찰	18,534	보호관찰 전체인원 46,336명 x 0.4 (보호관찰자 중 학업중단을 어림치)	2012 청소년백서, p.374.
소년원	2,559		2012 청소년백서, p.379.
소년교도소	114		2012 청소년백서, p.369.
장기입원자	5,358	2012년 기준 해당연령 중 건강보험공단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수	건강보험공단 자료
소 계 (E)	83,345		
미파악자(F)	278,260	$F = B - A - C + D - E$	

2.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생애과정²⁾

1)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념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명칭들은 중퇴생, 중퇴청소년, 학교중퇴, 학교중단, 학업중퇴, 학업중퇴청소년, 중도탈락, 학교중도탈락, 학업중단청소년, 학교밖청소년, 학교를 떠난 아이들 등 매우 다양하고, 학업중단에 대한 분명한 정의 없이 진행되거나 명칭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금명자, 2008: 301), 2002년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2003년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 제 42조에서 ‘학업중단’을 공식 용어로 규정한 이후에 용어가 통일되었다(이현주·김용남, 2012: 152).

이병환(2002)은 ‘학업중단’이라는 용어가 중도탈락이 가지는 피동성과 모호성을 어느 정도 극복한 용어로 중도탈락이 탈락의 귀책사유를 학생 개인에 두는데 반해, 학업중단은 사회 시스템 전반의 거시적 차원에서 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려는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또한 학생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학교 이외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이병환, 2002: 177).

과거에는 주로 경제적 사유에 근거한 빈곤, 결손 가정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일탈 및 비행청소년들이 학습장면으로부터 밀려나는 경향이 많았지만, 요즘은 부모가 있는 정상적인 가정과 중산층 가정 출신의 청소년들, 비일탈적 성향의 중도탈락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형적인 학업중도탈락의 경우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자발적인 중도탈락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김민, 2001: 2). 학업중단이란 학업을 계속하고 싶지만 외부조건이 여의치 않거나 학교부적응, 또는 비행 및 범죄 등의 일탈적 행위에 의해 학교를 그만두는 전통적인 학업중도탈락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였다(김민, 2001: 7-8).

2) 이 부분은 김신영(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집필하였음.

2)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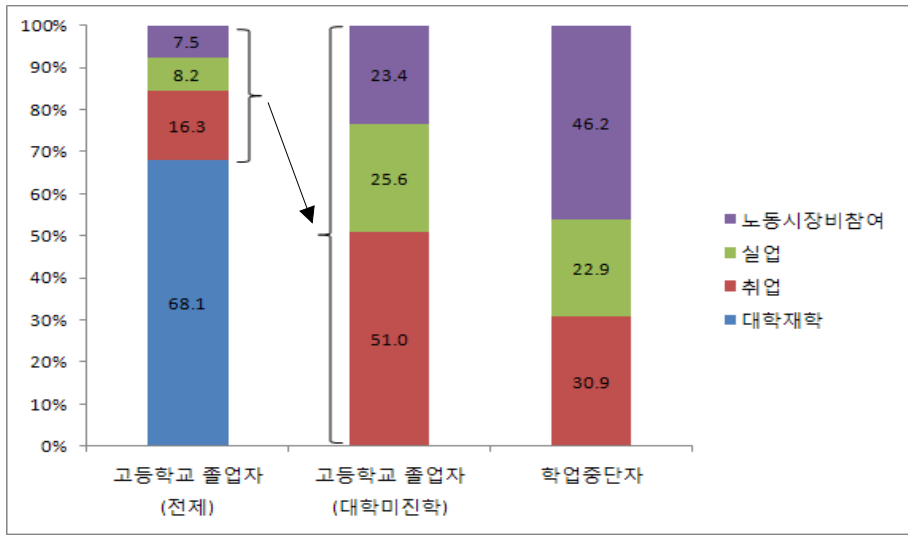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인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2011)의 연구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가장 전형적인 정서는 부정적이며, 무얼 할지 몰라 답답하고, 짜증나고, 무리한 감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늦잠을 자거나, 컴퓨터만 하며, 나가서 놀고, 술을 마시기도 하며, 삶의 이유가 없어서 몸이 가는대로 살면서 생활이 불규칙해졌다(오혜영·지승희·박현진, 2011: 149). 홍임숙(2004)의 연구에서도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시간사용이 자유로워지며 불규칙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들은 미래가 걱정되고 자신이 불필요한 사람이 된 느낌이며 소외감이 느껴지며 학교라는 소속집단에서 제외되는 심리·사회적 박탈과 동요를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에 따라서는 교사의 권위와 통제로부터 벗어나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였다(홍임숙, 2004: 61-62).

학업중단 이후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변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고립되거나, 친구나 직장 상사 등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기도 하며, 학력 및 졸업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도 한다. 아르바이트가 평생직장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졸업장이 없으면 한심한 사람이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되며, 장래에 대한 꿈과 계획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가출 등의 문제행동과 경찰서 출입 등 법적 비행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오혜영 외, 2011: 149-150).

여기에서는 학업중단이 중단 이후 삶의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고용과 비행(범죄)이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업중단과 고용

학업중단의 결과가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바로 노동시장이다. 직관적으로 볼 때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습득해야 할 여러 가지 도구적·수단적 지식의 부족함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졸업장이라는 자격(credential)의 부재 또한 포함된다(Rumberger, 2011: 88). [그림 II-6]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II-6] 학업지속 유형별 노동시장 참여 형태 2009-2010

* 출처: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Department of Labor, 2011; Rumberger, 2011: 89, 표 4.1에서 재인용

[그림 II-6]에 따르면 2010년 조사결과, 2009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68%는 대학에 진학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은 32%이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자와 고등학교 학업중단자의 노동시장 참여형태를 비교해보면 취업은 각각 51%, 31%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20% 포인트가 높다. 실업률은 각각 25.6%, 22.9%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은 졸업자 23%, 중단자 46%로 학업중단자가 23% 포인트나 더 높다. 즉, 고등학교 학업중단자는 졸업자에 비해 취업률이 20% 포인트 정도 낮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은 23% 포인트나 더 높다. 학업중단이 보여주는 노동시장 효과이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증가해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에 발표된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이하 NLSY) 1997의 추적조사 결과, 1980년에서 1984년 사이에 태어난 집단이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23세 연령일 때, 학교생활과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취업 75%, 군복무 5%, 실업 5%, 노동시장 비참여 14%로 나타났으나, 학업중단자의 경우 취업 60%, 실업 8%, 노동시장 비참여 32%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실업 또는 노동시장 비참여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U.S. Department of Labor, 2010; Rumberger, 2011: 90-91에서 재인용).

(2)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과 고용

학업중단 청소년은 중단 이후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하고자 한다. 재입학 후 졸업을 하기도 하며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기도 한다.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은 고용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가? 미국 NLSY 1997 자료에 따르면 18세에 학업중단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11%는 일년 후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19세에 학업중단 상태에 있던 청소년들 가운데 11%는 20세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U.S. Department of Labor, 2008; Rumberger, 2011: 93에서 재인용).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고등학교 이학년 학생들을 추적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학업중단자 중 18%는 2년 안에 고등학교 과정을 완수하였으며, 31%는 GED(General Equivalency Diploma)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umberger & Rotermund, 2008; Rumberger, 2011: 93에서 재인용).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의 효과가 없거나 크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Heckman과 그의 동료 Cameron이 1993년 발표한 연구결과는 학업중단자들과 GED 시험을 통과한 자들 간에 임금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Cameron & Heckman, 1993: 40; Rumberger, 2011: 94에서 재인용). 이후 수행된 다른 연구들 역시, 낮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업중단자들이 GED 시험을 통해 학력을 취득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음을 밝혀내고는 있으나 그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Heckman · Humphries & Mader, 2010; Tyler, 2003; Fry, 2010; Rumberger, 2011: 94에서 재인용).

GED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읽기, 쓰기와 같은 인지적 기술 외에 동기부여, 자존감, 인내력, 자기통제와 같은 비인지적 기술 역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 GED를 획득한 학업중단자들이 인지적 기술은 획득할 수 있으나 비인지적 기술은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Heckman et al., 2010; Heckman & Rubinstein, 2001; Rumberger, 2011: 94에서 재인용).

(3) 학업중단과 비행(범죄)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교육과 직업훈련 등 긍정적 활동에 대한 참여는 낮은 반면 일탈 또는

범죄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은 더 높다는 것이 상식에 가깝다. 교육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경제학 분야의 논의는 학교생활을 통해 얻게 된 인지적 및 비인지적 기술은 노동시장에서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이것이 범죄행위 참여에 대한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범죄행위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Rumberger, 2011: 97). 한편 범죄학에서는 학업중단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 이론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긴장이론(strain theory)으로서 학교생활 자체가 긴장의 원인인 경우,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은 학업중단을 통해 오히려 범죄행위 참여가능성을 낮추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론은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학교는 교사와 학생 간 관계를 통하여 긍정적 가치와 목표를 전수하는 곳이라서 학업중단을 통한 학교와의 단절은 범죄행위 참여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Rumberger, 2011: 98). Rumberger(2011)는 많은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결론적으로 학업중단과 범죄와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이 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Rumberger, 2011: 95)³⁾.

학업중단과 생애과정과 관련하여 범죄학 이론을 주장한 샘슨과 라우(2005)의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 그는 개인적 특성이나 아동기의 경험이 범죄행위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나 청소년기의 특수한 경험은 범죄행위의 궤도를 충분히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생애시기의 소위 전환점(turning points)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Sampson & Laub, 2005: 16; Rumberger, 2011: 99에서 재인용). 여기서 전환점이란 직업획득, 학교입학 또는 졸업, 학업중퇴, 입대, 결혼 및 이혼, 출산, 이주 등 개인이 생애에서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제도적 또는 구조적 변화 상황을 의미한다. 전환점은 사회적 지지, 개인적 성장, 정체성 형성 등을 형성하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위기 요인이 되기도 한다(Sampson & Laub, 2005: 18; Rumberger, 2011: 99에서 재인용). 생애과정 관점에 근거한 전환점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기 일탈 청소년들이 성인 범죄자로 대부분 지속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동시에 청소년기 일탈이 성인 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이해 또한 제공한다(Rumberger, 2011: 99).

3) 스위텐(2006)의 연구에 따르면 학업중단자들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비해 약 두 배정도 높은 범죄행위 가담 및 체포빈도를 보였으며(Sweeten, 2006: 470), 오리오폴리스와 살바네스의 연구에 따르면 16세에서 24세 사이의 학업중단자들은 같은 연령대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비해 50% 가량 높은 체포 경험의 정도를 보였다(Oreopoulos & Salvanes, 2009).

3)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로

이경상과 조혜영(2005)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설정 유형으로 ① 중단된 학업을 마치고 난 뒤 정규 직업을 가지려는 진학지향형, ② 중단된 학업을 마치지 않은 채로 취업이나 창업에 나서는 취업지향형, ③ 아르바이트를 갖고 생활비와 용돈을 충당하는 방임형으로 분류하였다(이경상·조혜영, 2005: 47-48).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2010)는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경로를 현재 하는 일에 따라 대안학교, 검정고시, 직업훈련 등 무엇인가 배우고 있는 학습지향, 취업/알바형, 무업(NEET)형으로 유형화 하였으며, 또한 보호관찰 및 소년 교도소 경험자를 비행형으로 구분하였다(윤철경·류방란·김선아, 2010: 7).

이숙영, 남상인(1997)의 중도탈락학생 연구에서는 사회 적응형을 진학형, 취업형, 취업준비형으로, 부적응형은 보호 및 관리체제에 소속된 청소년(소년원 수용, 보호관찰 중, 요양 중)과 보호 및 관리체제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비행청소년, 유흥업소 취업청소년, 가출 청소년, 방치된 정신질환 청소년)으로 구분한 바 있으며(이숙영·남상인, 1997: 76), 이근창(2003)은 적응형으로 학교복학, 검정고시, 취업준비 및 취업을 포함하였고, 부적응형에는 무단기출, 법에 의한 처벌, 쉼터 등을 일시보호로 분류하여 포함하였다(이근창, 2003: 29).

박창남 외(2001)는 학업중단자를 정착형과 비정착형으로 구분한 후, 정착형을 진학형(대안학교 입학, 검정고시, 복교), 취업형, 취업훈련형으로, 비정착형을 시설수용형(소년원 직업교육, 소년원 진학교육)과 방치형으로 세분하였다(박창남 외, 2001; 이경상·조혜영, 2005: 47에서 재인용).

4) 학업중단 후 경로 관련 요인: 생애과정 관점

학업중단 후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중단 요인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학업중단 동기 등 과정요인, 학업중단 후 경험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학업중단 후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

먼저 학업복귀 등 학습형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오혜영 외(2011)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복귀 과정을 분석한 질적 연구에서 학업복귀를 결정한 요인으로 학력 및 졸업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가족 등 주위사람의 권유, 상담자의 지지, 본인의 결심과 정보탐색 노력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업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주변의 정서적 지지와 지원을 들고 있다(오혜영 외,

2011: 133).

조규필 외(2011)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재적응 과정을 연구하면서 학업 동기의 발생을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는 학업동기를 학업중단 이후 현실을 자각하면서 학업에 대한 동기가 강하게 생기거나 부모나 주위 사람의 동기부여 또는 본인 스스로 자각하는 등 학업 동기 발생을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조규필·박현지·김래선 외, 2011: 991).

아르바이트 등 취업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면 전경숙(2006)은 학업을 중단한 10대 청소년이 일을 하게 된 개인·환경적 요인으로 구조적·기능적 결함과 정서적 기능을 상실한 가정 환경적 요인, 유사한 생활조건을 지닌 친구관계망을 통한 일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 학습·교환, 학교생활과 공부를 대체할 ‘시간보내기’에 대한 필요, 가출의 유지 수단 등을 제시한 바 있다(전경숙, 2006: 7-10).

학업중단 후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가족, 학교, 또래, 지역사회 등의 환경적 요인 등 학업중단 요인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윤여각 외(2002)의 연구에서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는 학업중단 요인에 따라 예측된다고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를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윤여각·박창남·전병유·진미석, 2002: 38-40).

첫째, 가정에 대한 불만족에 따른 가출이 반복되면서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이다. 가정에 머물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로 학습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대안 학교 등에 진학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길거리 청소년으로 남아 비행 등에 참여할 가능성 높다.

둘째, 생계문제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되며 아르바이트 등 단순 일용직 근로자로 남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정규 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에 대한 불만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전학, 대안학교, 검정고시, 유학 등을 택하게 된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대안 선택에 차이가 있게 된다.

넷째, 단순히 교과공부가 싫어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집안일을 돕거나, 교과공부가 아닌 다른 것을 배우거나,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 있다.

다섯째, 교칙위반, 학교폭력 등 비행으로 인한 학업중단의 경우,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선도보호시설이나 소년원에 수용되게 된다.

여섯째, 건강의 악화, 질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건강이 호전되지 않으면 학업중단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곱째, 장기간의 유학이나 이민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외국의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거나 학교 외 기관에 참여하게 된다. 대부분 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다가 귀국 후 복학이나 진학을 하게 된다.

첫째와 두 번째 경로는 가정, 세 번째와 네 번째 경로는 학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학생, 일곱 번째는 부모를 학업중단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소영(2000)은 학교중단 청소년의 중퇴이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① 개인적 요인, ② 가족적 요인, ③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연구결과 개인적 요인에서는 자아존중감, 가족적 요인에서는 양친부모가 있는지의 여부와 아버지의 양육태도,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중퇴 이전의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 또래집단의 비행성향, 정서적 지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정도,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의 참여여부를 청소년의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에서는 사회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소영(2000)의 연구는 사회 환경적 요인에 지역사회 활동 참여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의 보호요인을 추가함으로써 정책적 개입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홍임숙(2004)의 연구에서도 보호요인을 포함하여 중퇴 이후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있다. 가족, 학교, 사회 환경 등 생태학적 변수 뿐 아니라 적응유연성 등 심리적 변수, 자발적-비자발적 중단 등의 중단과정 변수를 추가하였는데, 학업중단 이후 관련 변수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은 <표 II-9>와 같다.

표 II-9 학업중단 이후 경로와 관련 요인

학교중퇴 과정과 이후의 삶에서 도출된 개념		
관련요인	범주	개념
위험요인	● 가정환경에 의한 상처	경제적 어려움, 권위적인 분위기, 가정불화(부모이혼), 학대경험, 방임
	● 학교환경에 의한 좌절	낮은 학업동기, 낮은 학업수행 능력, 출석/무단결석 문제, 빈약한 동료 관계 학업스트레스, 강압적 분위기, 불필요한 수업내용(시간낭비)
	● 사회 환경에 의한 좌절	가출, 흡연, 음주, 동거, 비행친구와 어울림, 금품갈취, 소년원, 절도
자발성 유/무	● 자발적 중퇴자-학교를 거부	원하는 공부를 위한 자퇴, 부모 내편 만들기, 신중한 결정, 스스로의 결정
	● 비자발적 중퇴자-학교로부터 거부	교사의 자퇴권고, 학교에서 쫓겨남, 편견(낙인)
지원요인	● 가정으로부터의 지원	부모의 신뢰, 부모의 적극적인 진로모색, 좋은 가족 관계
	● 학교로부터의 지원	교사의 정보제공,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유지
	● 사회로부터의 지원	중퇴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 접근이 용이, 사회적인 지지망
적응유연성	● 적응-새로운 도전	다양한 관심사, 새로운 교재, 대학진학, 대안학교, 검정고시준비, 진로준비, 사회경험
	● 부적응-무의미한 소일	뭘 해야 할지 모름, 할 일 없음, 심심함, 시간관리 실패, 아르바이트로 소일거리 함

* 출처: 홍임숙(2004), 학교를 떠난 아이들의 세계: 학교중퇴자에 대한 사례연구. p.69

학업중단 이후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중단 자체를 설명하는 이론에서 출발한다.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은 학업중단의 유형을 결정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들의 경로, 적응 및 부적응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이론적 모형은 ‘생애과정관점’이다(Rumberger, 2011: 146). 생애과정 관점은 발달의 과정이나 결과는 개인이 취해온 삶의 축적된 궤적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핵심 명제로 하고 있다. 즉, 개인이 그들의 삶에서 겪게 되는 중요한 삶의 결과물은 어느 순간 발생한 사건(event) 라기 보다는 과거 축적된 경험들로부터 나타나는 과정(process)의 일부로 본다. 이 관점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은 장기간 발전적으로 지속되어 온 학교로부터의 유리과정(a long-term progressive academic disengagement)이다.

Baltimore Beginning School Study를 수행한 알렉산더와 그의 동료들(1997)의 연구⁴⁾에 따르면 생애과정 관점에서 볼 때 학업중단은 청소년들의 학교경험, 청소년 개인의 정서적 자원, 부모태도 등의 요인들이 초등학교 입학 이후 지속적이고 축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Alexander · Entwisle & Kabbini, 2001; Rumberger, 2011: 147에서 재인용). Chicago Longitudinal Study⁵⁾ 자료를 토대로 학업성취와 일탈행위를 생애과정 관점에서 연구한 레이놀즈 Reynolds, Ou 그리고 Topitzes(2004)의 연구에서는 유아기 유치원에 다닌 경험이 초등학교 시기의 학업성취 및 학교 적응뿐만 아니라 이후 중고등학교 시기의 학업성취 및 일탈행위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다(Rumberger, 2011: 147).

생애과정 관점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전환과 적응을 바라본다는 것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걸어온 삶의 궤적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며, 이는 학업중단이 발생한 원인에서 이론적 논의를 시작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은 계속해서 학업중단 이후 전환과 적응에도 일관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학업중단과 학업중단 이후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크게 개인적 수준, 관계적 수준, 그리고 제도적 수준에서 살펴 본 후 학업중단 이후 새롭게 개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개인적 수준의 변수들은 크게 정서 상태와 관련된 변수와 자신의 건강상태이다. 정서 상태와 관련된 변수들로는 자기 효능감, 우울, 불안, 무기력감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 및 건강상태는 청소년기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 개인 수준의 변수들은 학업중단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계적 수준의 변수들은 관계가 발생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크게 학교와 가정으로 재구분이 가능하다. 학교에서 관계 수준의 변수는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 친구와의 관계로 구분되는데, 교사와의 관계는 학생과 교사와의 상호작용,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지, 교사에 대한 적대감 등이 포함되며, 또래집단과의 관계는 친한 친구, 비행친구 및 본인의 비행경험, 괴롭힘 또는 왕따 경험 등을 포함한다. 또한 가정에서의 관계는 주로 부모와의 관계를 의미하며 부모와의 상호작용, 부모로부터의 지지 또는 학대(방임 포함)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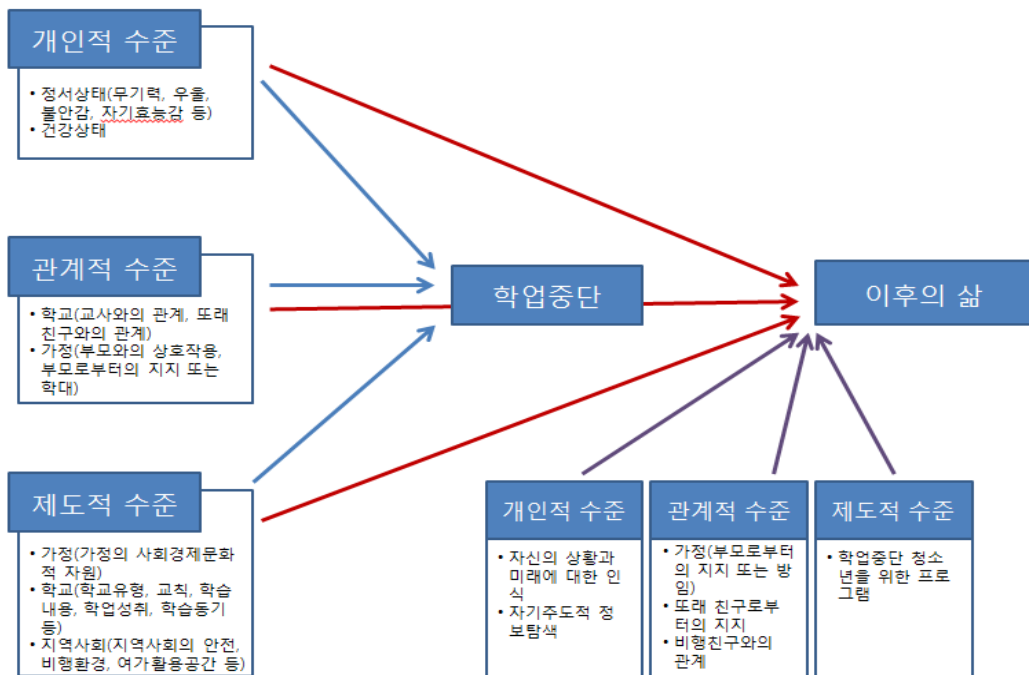
다음은 제도적 수준의 변수들이다. 여기서 ‘제도’란 청소년기 발달과정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의미하며, 주요하게 가정, 학교, 그리고

4) 1982년에 볼티모어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한 661명에 대한 패널조사 연구임.

5) 1979년에서 1980년 사이에 시카고 빈곤지역 1,569명의 소수인종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적연구임.

지역사회를 말할 수 있다. 제도로서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청소년기 성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제도로서의 가정이 보유한 자원은 청소년의 생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가정에서의 자원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부모의 교육수준 포함)이다. 다음으로 제도로서의 학교는 교칙, 학습내용, 학교유형, 학생의 학업성취 정도, 학습동기 등이 발생하는 공간이며, 이것들은 학업중단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이후의 적응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도로서 지역사회는 청소년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적 환경을 구성한다.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안전의 정도, 비행 환경, 그리고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의 제공 등은 청소년들의 학교 밖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업중단 이후 적응과정에 새롭게 개입하는 변수들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차원인 개인, 관계, 제도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개인적 수준에서의 변수들은 자신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인식, 자신의 미래를 위한 정보탐색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관계적 수준의 변수들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지지정도와 또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등을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도적 수준에서는 공적 기관에 의해 진행되는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변수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종합해 보면 [그림 II-7]과 같다.



【그림 II-7】 생애과정 관점에 근거한 학업중단 청소년 전환 및 적응 모형

3. 아동·청소년 관련 종단조사 등 국내외 관련 연구⁶⁾

<표 II-10>은 아동·청소년 관련 국내 패널조사의 조사설계를 비교한 것이다. 조사대상 영역과 연령으로 볼 때, 본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한국청소년패널(KYPS),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와 가장 유사하다. 한국교육종단연구는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종단적 자료 수집으로 교육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가지며 2005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매년 추적조사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패널은 청소년들의 잠재적인 직업선택과 향후 진로설정, 진로준비, 여가, 일탈행위 등에 대한 실태와 종단적 변화양상 및 변화의 원인에 대한 정보구축이 조사목적이며,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학생을 대상으로 2008년 6차년도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아동·청소년의 발달 및 성장과정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각적인 자료를 구축하고자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을 2010년(1차)부터 2016년(7차)까지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등 전환과정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청년패널(YP2001/2007), 한국노동패널(KLIPS)과 유사하므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는 청소년의 교육경험과 진학, 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을 파악하여 현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관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패널은 청년들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단계와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1차 프로젝트(YP2001)는 2001년을 시작으로 2006년(6차)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만 15~29세 청년을 표본으로 구성해 2차 프로젝트(YP2007)를 구축해 2007년을 기점으로 2016년까지 추적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학교생활, 직장경험, 직업관 및 앞으로의 진로, 직업교육훈련, 구직활동, 가계배경 등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비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을 연 1회 추적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 집단의 성격으로 볼 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탈북청소년교육종단연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와 유사하다. 이 연구들은 빈곤층, 탈북청소년, 다문화아동·청소년처럼 특수집단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특수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을

6) 이 부분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파악하기 위해 일반 청소년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학업중단 이후 이행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비교를 위한 일반 학생 청소년 패널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한계는 있지만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집단비교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중·고등학교 전 학령인구를 포함하기 때문에 동일 연령집단 또는 한 학년의 조사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는 <표 II-10>의 패널조사 결과와는 비교의 어려움이 있다. 일반 학생 청소년과의 비교를 위해 중·고등학교 전 학령인구를 포함하고 있는 국내 반복 횡단조사 연구를 검토하였다. <표 II-11>은 아동·청소년 관련 국내 반복 횡단조사의 조사설계를 비교한 것으로, 이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가 본 연구의 변수설정에 있어 가장 유사하다.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는 청소년 생활실태 및 건강관련 문항 등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문제행동 경험 여부,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아르바이트 경험 등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으므로 검토하였다.

해외의 청소년 중단조사 연구로는 다음의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CDS)이다.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는 1968년부터 미시간 대학 부설 Survey Research Center(SRC)에서 주관한 종단연구로 고용, 소득, 재산, 지출, 건강, 결혼, 출산, 자녀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Child Development Supplement(CDS)는 초기 인적 자본 형성 정보와 아동과 가족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데이터 구축 연구로 1997년 PSID에서 0~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을 추출하여 2002년, 2007년 조사가 실시되었다. CDS는 가족, 이웃, 학교 환경에서 신체적 건강, 정서적 복지, 지적 성취, 가족 및 동료와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이다 (<http://psidonline.isr.umich.edu/Guide/FAQ.aspx?Type=2>에서 2013. 7. 7 인출). 본 연구에 부속되어 있는 CDS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작용하는 변수 간의 역동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추후 본 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물들을 본 연구결과 분석 시 참조하였다.

둘째, Children of Immigrants Longitudinal Study(CILS)는 적어도 한쪽 부모님이 외국인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한 2세대 적응과정을 연구한 것이다. Children of Immigrants Longitudinal Study(CILS)은 마이애미/포트 로더데일과 샌디에고의 공립 및 사립학교 8, 9학년에 재학 중인 2세대 이민자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1992년에 시작된 조사에서 전체 표본 수는 5,262명으로 응답자들은 77개의 다른 국적을 가졌으며, 이민자 가족의 기초적 정보,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언어 사용, 자아정체성 및 학업성취를 확인하였다.

3년 후 청소년 시기의 언어적 지식과 선호를 포함한 적응결과와 민족 정체성, 자아존감,

학업성취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시기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을 추적 조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졸업을 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한 이민 2세대 청소년의 비율도 알 수 있었다. 또한 함께 진행된 부모조사에서는 이민 부모와 가족의 직접적인 특성과 자녀들을 위한 열망과 계획을 포함한 미래관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2001~2003년에 실시한 마지막 추후조사에서는 교육 성취도, 고용 및 직업지위, 수입, 시민 자격, 배우자의 인종, 정치적인 태도 및 참여, 민족 정체성, 비행과 수감, 미국사회에서의 신분 수준 및 태도,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이 조사되어 평균연령 24세인 대상자들의 성인초기 적응 패턴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조사는 학교에서 진행될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조사에서는 이미 학교를 졸업한 응답자가 대부분으로 그들의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응답자는 초기 실시된 지역뿐 아니라 다른 주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아 세 번째 조사는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로 실시되었다(<http://www.icpsr.umich.edu/icpsrweb/ICPSR/studies/20520>에서 2013. 7. 7 인출). 이 연구는 이민자라는 특수집단 아동을 조사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적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언어, 민족 정체성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와 차이가 있지만, 사회적응 관련 변수를 검토하고 도출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셋째,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Add Health)는 1994~95년 미국의 7~12학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로 2008년 연구대상자들이 24~32세의 성인기에 해당되는 동안 4번의 면접이 진행되었다. Add Health는 응답자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복지와 가족, 이웃, 학교, 지역사회와 친구관계, 동료관계를 조사하여 청소년기의 사회적 환경이 건강과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자 하였다. Add Health는 응답자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의 건강관련 행동을 파악하고자 하는 사회적, 행동적, 생의학적인 폭넓고 종합적인 조사로 1, 2차 조사에서는 청소년, 학부모, 학부모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 가족, 형제, 친구관계,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비행행동 등을 조사하였고, 3차 조사에서는 18~26세에 접어든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녀와 육아, 시민참여, 도박에 대한 부분을, 4차 조사에서는 직장생활, 스트레스, 인지기능과 심리사회적인 요인들에 관한 내용들을 기존 조사내용에 더 추가하였다(<http://www.cpc.unc.edu/projects/addhealth/design>에서 2013. 7. 8 인출). 본 연구는 사회적 환경요인이 청소년기 건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넷째, Monitoring the Future(MTF)는 197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미국 젊은이들의 신념, 태도, 행동변화를 연구한 것으로 미래사회를 구성하는 청소년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의 약물사용과 남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약물남용에 대한 정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 조사이다. 현재 MTF는 미시간 대학교 조사 연구 센터에서 8, 10, 1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고등학교 졸업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고등학교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한다. MTF는 동일연령 집단의 해마다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연령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발달적인 변화, 생활주기를 통한 동료집단 사이의 일관된 차이, 응답자의 환경변화와 역할이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변동사항을 알 수 있다 (<http://www.monitoringthefuture.org/purpose.html>에서 2013. 7. 8 인출). 이 연구는 약물사용 등 건강에 초점을 둔 연구이나 청소년의 신념, 태도, 행동변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업중단 청소년의 가치관과 의식, 행동의 변화 등에 대한 조사문항을 개발하는 데 유용하였다.

기관	한국교육 중단연구 (KELS)	한국청소년패널 (KYPs)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KCYPs)	한국교육· 고용패널 (KEEP)	청년패널 (YP2001/2007)	한국노동패널 (KLIPS)	특수집단 패널		
							한국복지패널 (KWPS)	탈북청소년교육 중단연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 을 위한 중단연구
주요 목적	인지적·정의적 발달 연구, 중등학교 학교 효과분 석, 상급학교 진 학과정 분석을 통한 교육정책 수립 기초자료 구축	청소년들의 잠재 적 직업선택, 진 로설정 및 준비· 실행행위 등의 실태에 대한 정보구축	이동·청소년의 학 령시기의 전반적 성장·발달을 시간 의 흐름 속에서 다각도로 포착하 여 이동·청소년정 체수립에 실효성 있는 기초자료 구축 및 제공	교육과 고용간의 연계성, 학생들의 학교에서 노동시 장에서의 이행 과정 등의 청년 층 인적자원개발 기초자료 제공	학교에서 노동시 장으로 이행 단 계 및 과정, 청년 층의 학교생활, 사회생활, 가정보 장을 반영하는 기초자료 수집	노동정책의 수립 및 평가, 노동관 련 연구의 활성 화를 위한 기초 자료 구축	빈곤층 및 차상 위계층의 규모와 실태 변화 파악, 소득 계층별 경제 활동상태별 연령 별 각 인구집단 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파악	탈북·청소년의 교 육 및 사회적응 과정을 심층적으 로 분석하고 중 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기초자 료 구축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비 (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비 교분석, 정책제언
조사 시작 및 완료 시기	1단계 :2005-2011 2단계 :2011~2019 3단계 :2023 (6,908명)	2003(중2)-2008 (중2) 3,967명 2004(중4)-2008 (중4) 2,494명	2010-2016(7년) 각 연령 코호트 2,200여명	2004-진행중 (6,000명)	1단계 : 2001(1st)-2006 (YP2001) 11,074명 2단계 : 2007(2nd)-2016(YP2007) 12,000명	1998-진행중 (5,000가구)	2006-진행중 (7,072가구)	2010-예비조사 2011-1차년도 본조사 (탈북청소년) 872명 2015-5차년도 까지 조사	2010-예비조사 2011-1차년도 본조사 (초4) 1,502명 2012-2차년도 본조사
조사 대상	• 학생 :중학교 1학년 • 부모 • 학교교사 • 학교장	• 학생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 부모	• 학생 :초등학교 1학년 :중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 부모	• 학생 :중학교/일반고/ 실업고 각 3학년 • 부모 • 학교교사	만 15-29세의 개인	조사대상 가구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개인	조사대상 가구 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 개인 •초등학교 4,5,6 학년	• 초등학교 4학 년 - 중학교 3학 년 탈북·청소년 • 부모 • 교사	• 학생 :초등학교 4학년 • 학부모 • 교사

주기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성취 : 학생취도검사/학생의적영역검사/담임교사의평가 학생 : 인구통계특성/인식/학교교육프로그램/수업관련사회심리적환경/활동경험/시간활용/부모-학생관계/사교육/스트레스/부적응및만족도 부모 : 가정및학생특성/학교교육/가정생활/교육지원/사회인식 학교 : 학교배경/교육예산/교육과정 학교장 : 학교장배경/학교운영/인식 교사 : 교사의배경/교수활동/학교인식/자아개념 교육통계DB : 학교인구통계적특성및환경 	<p><초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용 : 직업선택/향후진로설정/진로준비/여가/타생활/생활영역별시간배분및중요도/자아관/성장과 적응 가구용 : 가족현황/가족학력/가족소득/주거형태 <p><중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용 : 직업선택/향후진로설정/진로준비/여가/타생활/생활영역별시간배분및중요도/자아관/성장과 적응 가구용 : 가족현황/가족학력/가족소득/주거형태 	<p><초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 교육환경 부모 : 신체발달/가정환경/또래환경/지역사회환경/매체환경 <p><초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 개인발달/가정환경/또래환경/교육환경/지역사회환경/청소년참여환경/매체환경 부모 : 가정환경/교육환경 <p><중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 개인발달/가정환경/또래환경/교육환경/지역사회환경/청소년참여환경/매체환경 부모 : 가정환경/교육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 학교생활/가정생활/진로지도/재중근로/자아관및직업관/일반현황 학교행정가 및담임교사 : 일반현황/학생평가담임교사일반직사할 가구 : 가구원현황/교육환경/문화생활/학생의보호자/경제활동및자기개발/가구소득및자산과 부채/가구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등학생및대학·대학원생 : 학교생활/아르바이트/일자리경험/취업준비/구직활동/진로/직업교육훈련및자격증/인적사항함및가구배경 취업자 : 학교생활/원직장/직업경력/취업준비및구직활동/앞으로의진로/직업교육훈련및자격증/인적사항함및가구배경 미취업자 : 일자리경험/직업력/경제활동상태/취업준비및구직활동/및자격증/인적사항함및가구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등학생및대학·대학원생 : 학교생활/아르바이트/일자리경험/취업준비/구직활동/진로/직업교육훈련및자격증/인적사항함및가구배경 취업자 : 학교생활/원직장/직업경력/취업준비및구직활동/앞으로의진로/직업교육훈련및자격증/인적사항함및가구배경 미취업자 : 일자리경험/직업력/경제활동상태/취업준비및구직활동/및자격증/인적사항함및가구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 학교생활/가정생활/진로지도/재중근로/자아관및직업관/일반현황 학교행정가 및담임교사 : 일반현황/학생평가담임교사일반직사할 가구 : 가구원현황/교육환경/문화생활/학생의보호자/경제활동및자기개발/가구소득및자산과 부채/가구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북청소년 : 개인배경/북한에서의경험/탈북과정/경험/가정·부모환경/자녀교육지원/학교환경/교사/학급운영/관계적응/신체·심리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 : 가구원반사항/건강 및 의료/사회보험가입, 퇴직금제 적용/가구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원 : 사회보험, 개인연금, 퇴직연금/근로/생활실태·만족및의식/사회환경에대한의식/생활습관/부부관계및정신건강/개인사 아동 : 학교생활/생각행동/부모/친구/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 성취동기/자아존중감/자아탄력성/삶의만족도/문화적응/스트레스/국가정체성/이중문화수용태도 학부모 : 부모효능감/양육스트레스/자아존중감/문화적응/스트레스 교사 : 교사의배경/학교정책/학교환경/교사특성
주요 조사 내용 및 항목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 pp.46-48 참조하여 재구성함.

표 II -11 아동·청소년 관련 국내 반복 횡단조사의 조사설계 비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주요 목적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 현황을 파악	청소년의 건강행태 현황과 추이를 파악	중장기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목표 수립하기 위해 현재 청소년 현황과 상태를 실증적·체계적으로 파악	생활 속에서 각종 유해환경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청소년 정책의 기초 자료 제공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 경제 분석과 인력 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
조사 시작 및 완료 시기	2011-2013	2005-진행중	2011-진행중	2006-진행중	1963-진행중
조사 대상	(2012년 기준) 초등학교 4-6학년: 3,185명 중학교 1-3학년: 2,986명 고등학교 1-3학년: 2,574명	제1차(2005년) :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2학년 제2차(2006년) 이후 :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2012년 기준) 74,186명	청소년 만 9세-24세 2,200명 청소년의 부모 2,200명	일반 청소년(중·고등학교생) : 16,572명 위기청소년(소년원, 가출청소년, 학교 부적응 청소년) : 1,972명	매월 15일 현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
주기	1년	1년	3년	1년	매월
주요 조사 내용 및 항목	우울/불안/게임중독/자살/스트레스/비행/생활만족도/자아존중감/정서조절/낙관주의/가족/지역사회/학교	흡연/음주/비만및체중조절/신체활동/식습관/손상예방/상황태/정신보건/인터넷중독/구강보건/아토피·천식/개인위생/악플/폭력	가구 정보/가정 생활 및 양육 정보/생활환경/학교 생활/건강·신체/인간·참여/활동여가/진로·아르바이트	청소년 매체이용실태/청소년건강과 의약품이용실태/청소년업소이용실태/청소년가출/청소년학교폭력/청소년성/일반배경	인적사항/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기타

제 3 장

1차년도 조사도구 개발

1. 조사도구 개발절차
2. 조사영역 및 변인에 대한 이론적 근거
3. 조사영역 및 변인에 대한 경험적 근거: 2012년 조사문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4. 최종문항 확정

제 3 장

1차년도 조사도구 개발*

1. 조사도구 개발절차⁷⁾

1차년도 조사도구는 학업중단 관련실태, 학업중단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변인,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2012년도 학업중단 설문조사를 출발점으로 하였다. 2012년 조사도구의 수정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먼저 2012년도 조사결과 검토와 더불어 관련 문헌검토, 연구진 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였다.

조사도구의 수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2012년 조사결과 및 조사문항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문항을 삭제하거나 수정 또는 다른 문항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2012년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업중단 후 일상생활 및 가치관 등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1차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협동연구기관에서도 보호관찰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문항 개발과 문항 수정을 거쳐 1차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양 기관은 1차 수정안에 대해 각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내용 타당도를 검토한 후 협동연구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양 기관이 조사대상에 따라 각기 개발한 문항들을 검토하면서 세운 수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 간 집단비교를 위해 가능한 동일한 문항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둘째, 보호관찰 청소년의 지적 수준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내용이 동일한 경우 가능한 쉬운 용어로 된 문항을 선택하였다. 셋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비행 수준 등이 학생 청소년 집단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조사데이터를 구할 수 있고 조사대상 연령이 유사한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설문조사 문항과 동일한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2종의 조사도구(안)을 마련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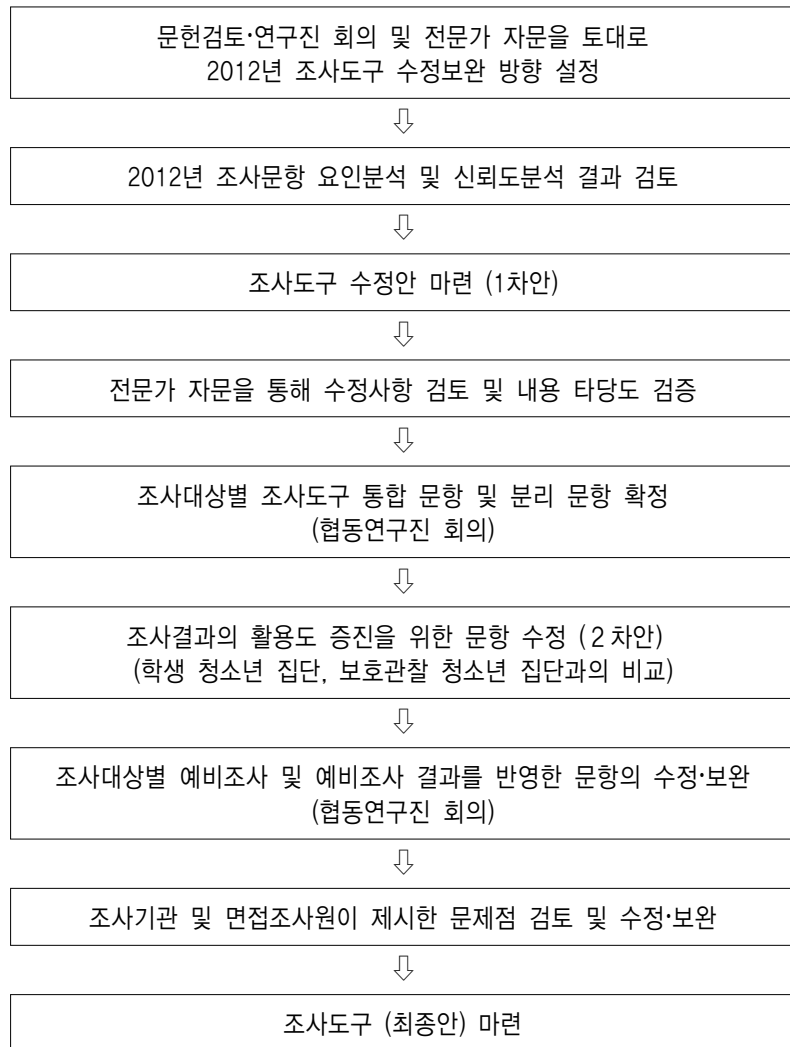
* 이 장의 1절, 2절, 4절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절은 유성렬(백석대학교 교수)가 집필하였음.

7) 이 부분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기관별로 각기 조사대상자에게 2012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 설문조사 후 협동연구진 회의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문항의 수정·보완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2종의 조사도구(3차안)를 조사기관에 전달하였다.

조사기관에서는 면접조사원 회의 등을 통해 조사문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의견을 보내왔고 이를 반영하여 조사도구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그림 III-1]은 이상의 2013년 조사도구 개발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III-1] 2013 조사도구 개발절차

2. 조사영역 및 변인에 대한 이론적 근거⁸⁾

본 조사는 크게 학업중단 관련 실태,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학업중단 이후의 삶(경로)과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는 학업중단 이전의 개인적·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깊으며, 여기에 학업중단 이후의 특정 경험 요인이 더하여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첫 해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생 청소년과 다른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은 1차적으로 학업중단요인과 관련될 것이라고 보며,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한 학업중단 관련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의 심리·정서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믿는 심리적 특성으로(Coopersmith, 1976), 자신에 대한 가치감과 유능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념화되고 있으며, Rosenberg(1975)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하고 불안한 정서를 보이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과 인내력, 대인관계 능력이 높다고 설명하였다(최인재·모상현·강지현, 2011: 25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개인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수용할 줄 알고,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그 한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안다고 할 수 있다(이은경·박성연, 2010; 최인재 외, 2011: 25에서 재인용).

Kaplan(1975)에 의하면 낮은 자아존중감이 비행을 일으킨다고 한다. 청소년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학교, 가정 등)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여 계속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축적된 부정적 감정이 한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주변 환경으로부터 더욱 부적응하게 만들고, 이들은 자신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비슷한 부적응의 또래 집단을 찾게

8) 이 부분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된다. 그리하여 비행 가치를 받아들이고 비행행위에 가담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환경에서 거부되었던 지위를 얻게 되며, 결과적으로 그들과 어울려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얻고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려 하는 것이다. 즉,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그를 인정치 않은 사회에 반격을 가하고, 잃었던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기 위하여 비행에 가담한다는 것이다(장연심·조아미, 2007: 126에서 재인용).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어려운 상황이나 역경 등의 문제에 부딪혔을 경우에도 정서적으로 특별한 문제를 보이지 않고 환경에 건강하게 적응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김지경·백혜정·임희진·이계오, 2010: 27). 자아탄력성의 공통적인 하위요인으로는 낙천성, 자율성, 능동적인 활동성, 타인에 대한 공감, 원만한 대인관계 등이 있다(Block & Blockm 1980; Klohne, 1996; 김지경 외, 2010: 27에서 재인용).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높고(김현옥, 2010), 또래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석주영·박인전, 2009)으로 나타났다(김지경 외, 2010: 27에서 재인용). 또한 유성경, 홍세희와 최보윤(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학대나 빈곤과 같은 가족 내 위험 요소와 아동·청소년의 적응 간의 관계에 있어 자아탄력성은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경 외, 2010: 27에서 재인용). 즉, 가정의 위험요소들은 아동·청소년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아탄력성이 그 영향력을 매개하면 위험요소의 영향력이 감소된다(김지경 외, 2010: 27).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기질적으로 높은 자아탄력성을 갖는 아동·청소년도 있으나 많은 경우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높은 자아탄력성을 갖기도 한다(김지경 외, 2010: 27). 즉, 따뜻하고 안정적이며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거나 부모 중 적어도 한쪽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은미·박인전, 2002; 김지경 외, 2010: 27에서 재인용).

(3) 우울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보이는 우울 증상은 우울 정서의 심각도 뿐 아니라 불면증, 짜증, 자살 사고 등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성인의 우울증과 공통점이 많지만 연령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즉, 사춘기에 다다른 아동들에게서는 신체증상에 대한 호소가 많아지는 반면 청소년들은 무쾌감증, 무망감이나 무기력감, 과도한 수면 등을 더 많이 호소한다. 우울한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과 같은 우울증상을 경험할 뿐 아니라 우울장애와 대인관계 및 역할 수행의 문제 간에 성인과 유사한 패턴의 연관성을 나타낸다(최인재 외, 2011: 18).

우울장애로 진단된 아동은 학업수행과 학교적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Puig-Antich·Luckens·Davis·Goets·Brennan-Quattrock&Todak, 1985), 우울증상이 심한 청소년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학업을 중단할 확률이 높았으며 따라서 교육을 받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최인재 외, 2011: 18-19에서 재인용).

아동이나 청소년기 우울증상은 가족관계나 또래, 기타 대인관계 등에서 사회적 기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기 우울증상은 대인관계 의존성을 증가시키며 동시에 또래관계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온다(Hencht·Inderbitzen&Bukowski, 1998; 최인재 외, 2011: 19에서 재인용). 여기에 사회 기술의 결함과 사회적 유능감의 부족은 대인관계 문제와 상호작용하여 우울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Lewisohn·Rohde&Seeley, 1998; 최인재 외, 2011: 19에서 재인용). 아울러 우울한 아동,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도식이 형성되어(Mcgrath & Reipetti, 2002), 자신의 성취에 대하여 스스로 낮게 평가하고 자존감이 매우 낮은 특성을 보인다(최인재 외, 2011: 19).

(4) 충동성

충동성은 청소년 일탈행동의 유의한 예측변인이다(윤영미·최명숙, 2003; 권재환·이은희, 2006: 326에서 재인용). 낮은 자기통제력은 문제행동과 관련된 주요한 개인 내적변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정자, 2005; 민수홍, 2005; 권재환 외, 2006: 326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충동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조급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고 모험상황을 더 선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Barratt & Patton, 1983; 권재환 외, 2006: 328에서 재인용). 반사회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충동성이 높고 단조로움을

피하는 성격특성을 보이며(Schalling 외, 1988; 권재환 외, 2006: 328에서 재인용),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 즉,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취약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행동을 표출하기 때문에 충동성은 전 생애에 걸쳐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계속하게 하는 주요인이라고 하였다(White, 1994; 권재환·이은희, 2006: 328-329에서 재인용).

2) 문제행동 가해 · 피해경험

(1) 문제행동 가해 · 피해경험

청소년기의 비행 그리고 폭력과 같은 공격행동은 성인기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9세에서 17세 비행청소년들의 80%가 8년 내에 다시 수감되는 경향이 있었다(진태원, 1996; 양계민·김승경, 2010: 87에서 재인용). 비행청소년들은 범죄에 다시 가담하지 않더라도 저조한 학업 성적으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중도탈락하거나 안정적 직업을 얻지 못하기 쉬우며(Meeus · Dekovic & Iedema, 1997; 양계민 외, 2010: 87에서 재인용), 폭력이나 공격적 청소년의 경우 문제행동에서 벗어나더라도 정상적인 현실 적응이 어려운 이차적 부적응을 겪는 경우가 많고 학교 및 사회생활에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진태원, 1996; 양계민 외, 2010: 87에서 재인용).

따돌림 같은 또래거부는 그 빈도와 강도에 따라 심각성이 다르기는 하지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고 우울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Vernberg, 1990; Walker & Green, 1987; 양계민 외, 2010: 81에서 재인용), 무단결석, 학습부진, 공격성, 위축된 행동과 같은 여러 가지 적응문제를 유발하며, 단 한 번의 거부 경험이 심하게는 학교생활에서 낙오되게 할 수도 있다(Bronfenbrenner, 1989; DeRosier · Kupersmidt & Patterson, 1994; Kupersmidt · Burchinal & Patterson, 1995; 양계민 외, 2010: 81에서 재인용). 더욱이 이러한 청소년들은 성인 초기까지 공격적이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지속하거나 결혼생활, 성생활, 직업적 문제 및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Parker & Asher, 1987; 양계민 외, 2010: 81에서 재인용). 또래 괴롭힘의 희생자들도 우울, 무기력, 등교 기피 증상을 보였으며 성인이 되어도 우울하고 자존심이 낮았다(Limber, 1997; Olweus, 1993; 양계민 외, 2010: 81에서 재인용).

(2) 게임중독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과 이수진(2002)은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인터넷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장애, 내성, 금단, 일탈행동, 갈망, 인터넷에 대해 자동화된 중독적 사고,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현실구분 장애가 나타나는 상태를 인터넷 중독을 정의하였는데 게임중독에 대해서도 이러한 정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최인재 외, 2011: 21에서 재인용).

게임 과다이용자와 중급이용자의 50% 이상이 '금단 증상으로 인해 게임을 못하면 초조하거나 불안한 느낌'을 경험하며,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면 우울하고 무기력해진다'고 보고하였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최인재 외, 2011: 22에서 재인용).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도 증가해 인터넷 게임에 빠진 초등학생이 동생을 흉기로 살해하거나(중앙일보, 2001.6.16), 게임비를 마련하기 위해 10대 소년이 모친을 살해한 사건(중앙일보, 2010.10)도 보고되었다. 이런 극단적인 행동문제까지 아니더라도 게임 중독은 일상적인 생활을 파괴해 잦은 지각, 거짓말, 결석, 가족과의 마찰, 학업성적 저하 등의 다양한 일상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최인재 외, 2011: 22).

정연순과 이민경(2008)은 교사들이 인지하는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사이버 세계에 대한 높은 몰입도를 보이는 경우 잠재적 학업중단 가능성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인터넷(게임) 등에 심취하면서 학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게임 등에 몰두하는 학생들은 활동 에너지를 대부분 가상 세계에서의 활동에 쓰고 있기 때문에 학업에 흥미를 가지거나 학업을 지속할 여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박재숙, 2009: 7-8에서 재인용). 어기준(2000)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중독 성향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비중독 성향의 청소년에 비해 일상생활에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중독군에 해당하는 경우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사용함으로 학교수업시간에 졸아본 적이 더 많았고 숙제나 다른 할 일을 더 못한 적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박재숙, 2009: 8에서 재인용).

3) 환경적 특성

(1) 부모관계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원하고 또래의 중요성이 증가하지만 그렇다고 부모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이 의존하는 대상은 문제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의복, 음악적 선호, 여가 등의 단기적 문제는 또래에게 의지하지만 교육이나 직업 등의 장기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Steinberg, 1999; 양계민 외, 2010: 83에서 재인용). 부모로부터 수용과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 청소년들이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지지되었다(김의철·박영신, 1999; 2001; 박영신·김의철·민병기, 2002; Coopersmith, 1967; Gecas, 1982; Robinson, 1995; 양계민 외, 2010: 83에서 재인용). 또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높은 수준의 진로 포부와도 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지원은 사회적 지원보다 고등학생의 진로 포부를 더 많이 예측했다(박용두·이기학, 2008; Sewell & Howser, 1975; 양계민 외, 2010: 83-84에서 재인용). 그 밖에 부모의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 청소년은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적고(Herrenkohl·Maguin·Hill·Hawkins&Abbott, 2001; Jessor·Bos·Vanderryn·Costa&Turbin, 1995) 우울 수준이 낮다(Graber, 2004; Sheeber·Hops·Andrews&Davis, 1997)고 보고되고 있다(양계민 외, 2010: 84에서 재인용).

(2) 친구관계

청소년들에게 친구란 심리적으로 서로 유사하고 비밀을 지켜주며 어려운 상황에서 편을 들어주고 도움이 되는 존재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기에는 애착의 대상이 부모에서 또래로 변화해가게 된다. 청소년들은 부모보다 또래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할 뿐 아니라 친구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또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허혜경·김혜수, 2002; 양계민 외, 2010: 85에서 재인용). 친구관계에서 신뢰, 친밀감, 공감적 이해를 더 많이 기대하게 되고(Berndt & Perry, 1990; 양계민 외, 2010: 85에서 재인용), 과거 부모나 가족에 의해서 제공받았던 정서적 지원을 친구들로부터 제공받게 된다(Cotterell, 1992; DuBois & Hirsch, 1990; 양계민 외, 2010: 85에서 재인용).

김혜원과 홍미애(2007)는 자신이 혼자이기를 선택하고 외로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경우에는 친구로부터의 고립이 청소년들의 심리 발달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최인재 외, 2011: 32-33에서 재인용). 이는 친구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청소년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청소년의 친구집단과 비행 간의 관계를 연구한 전병재(1991)는 친구의 비행성 정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하였으며, 친구들이 결석하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 같이 학교를 결석하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다(이재우, 1973; 송승영, 1995; 김경식, 1997: 119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또래집단의 비행성향은 청소년의 비행에 높은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며(정익중, 2006; 홍봉선·아영아, 2009), 비행친구의 수는 비행관련 변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어서 청소년 비행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최인재 외, 2011: 33에서 재인용).

(3) 학교 및 학교생활

학교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생활의 장이다. 또래와 관계를 맺는 장이자 부모 외에 중요한 성인인 교사와 관계를 맺는 장이며, 자신의 미래 그리고 진로와 관련하여 주요한 결정력을 갖는 학습의 장이다.

학교유형, 학교규모, 학교의 소재 지역 등 물리적인 학교 특성이 일정 부분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의 학교적응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풍토, 친구·교사 등과의 관계, 학습부적응이나 학교규범 부적응 등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학교에서의 관계요인과 학업중단은 관련이 깊다. 정익중(2006)은 학교에서의 유대관계가 취약할 때 학교중퇴의 위험이 증가하며 이것은 비행의 발생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른 후에 징계나 퇴학 처분 등으로 인해 학교와의 단절을 경험하고 교사의 지지도 결여되어 재비행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최인재 외, 2011: 32에서 재인용).

교사와의 관계가 원활하고 신뢰감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지각하는 삶의 질에도 교사의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명순, 2006; 성미옥, 2003; 최인재 외, 2011: 32에서 재인용), 교사와의 지지가 청소년의 학업성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애현, 1998; 최인재 외, 2011: 32에서 재인용).

무엇보다도 학업중단은 학교생활의 부적응, 낮은 성취도, 낮은 학교애착, 학습무능력, 학교에서의 잘못된 경험 등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김선남, 1994), 특히 학교의 공부압력, 성적경쟁이 강한 학교풍토, 학습부진은 학업중단의 요인이 된다(김준호 외, 1990; 김경식, 1997: 118에서 재인용). Finn(1989)은 학교성적 부진이 자부심을 떨어뜨려 학생들의 문제행동 즉, 학교거부로 이어지게 하며, 교내활동 참여 부족이 학교에 대한 동일시(identification)를 약화시켜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김경식, 1997: 118에서 재인용). 이처럼 국내외 연구들에

서는 학교성적,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상실과 부적응, 교칙위반, 문제행동 등과 같은 학교관련 요인들이 학교중퇴에 매우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으며(김경식, 1997: 118), 또한 경쟁적이고 훈육적인 학교풍토가 참여적이고 자치적인 학교풍토보다 학업중단 위험을 높일 것을 시사하고 있다.

Alexander 외(1997), Ensminger & Slusarcick(1992), Rumberger(1995) 등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학교성적과 행동발달상황(결석, 지각, 문제행동 등), 학교 전학과 같은 요인들이 고교 중퇴와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경식, 1997: 118-119에서 재인용).

학업중단 학생들은 재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무단결석, 지각, 교칙위반 등 교내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이유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는 횟수도 많다(유성경 외, 1998; 조영승 외, 2001; 구본용·신현숙·유제민, 2002: 38에서 재인용). 무단결석, 지각, 교칙위반은 학교교육에의 참여를 어렵게 하므로 학업중단의 중요한 전조증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중도탈락 경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구본용 외, 2002: 38).

(4) 지역사회

김정주(2000)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련성을 청소년의 비행이 범죄가 관련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과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사회 위험요인에는 빈곤의 집중, 사회적 혼란, 지역사회의 높은 범죄율, 약물과 갱 집단의 활동, 학교에서의 높은 중퇴율, 마스크의 폭력에 대한 묘사, 지역사회의 이동성, 지역사회의 법규나 규범 등이 포함된다(최인재 외, 2011: 30에서 재인용).

청소년의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보호요인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정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거나 조언할 수 있는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존재, 교사나 지도자, 상담자들로부터의 조언, 정신건강이나 치료교실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믿을만한 역할 모델의 존재, 어른들의 청소년들의 취약성에 대한 이해, 음악과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들과 어른들 간의 친밀한 관계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최인재 외, 2011: 30).

지역사회요인은 학업중단을 자극하는 향락 산업으로 인한 유해환경, 지역성인과의 유대관계 등이 포함된다. 학교 주변이나 집 주변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향락업소 및 컴퓨터 게임방, 오락실, 주유소 아르바이트 등 지역사회 특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 대신에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밤늦게까지 방황이 가능하며 외박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은 학업중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윤미경, 2002; 성윤숙, 2005: 301에서 재인용).

이렇게 볼 때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성인들과의 유대 및 통제를 의미하는 사회통합, 지역사회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무질서 요인이 일정부분 학업중단과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지역사회의 유익하고 쾌적한 환경은 학업중단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4) 학업중단 이후의 삶

(1) 사회적 관계

학업중단 이후의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다시 말해 또래 지향적으로 확대되느냐, 아니면 지지해 줄 수 있는 성인을 만나느냐는 중단 이후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교라는 공식적인 보호의 장을 떠난 후 청소년이 성인을 만날 기회는 각종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종교기관, 아르바이트 업체와 같은 영리기관 등을 통해 제공된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성인의 지지망은 사회 정책적 서비스가 확대되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의 사회관계적 요인이라기보다 정책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2) 진로탐색과 진로계획

학업중단 후 진로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진로계획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의 여부는 성인사회로의 성공적 이행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설정 유형은 크게 중단된 학업을 마치고 난 뒤 정규 직업을 가지려는 순수 진학형, 중단된 학업을 마치지 않은 채로 취업이나 창업에 나서는 취업형,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비와 용돈을 충당하면서 독학이나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단된 학업을 마치려는 생각도 취업할 생각도 하지 않고 시간제 일자리만 하며 지내는 아르바이트형(방임형)으로 나눌 수 있다(이경상·조혜영, 2005: 62).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설정은 진학형과 취업형으로 크게 구분되며, 취업을 염두하고 진학준비를 하거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불활실한 유형도 있었다. 진학형 청소년들은 대부분 혼자서 학원수강 등을 통해 진학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취업형 청소년들은 직업훈련을 받을만한 적절한 지원기관을 찾지 못해 대안교육기관이나 학원 등을 찾아다니며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거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며 구체적인 진로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상·조혜영, 2005: 62-63).

(3) 학업중단 후 경험유형

이러한 진로설정 유형은 학업중단 후 경험으로 나타난다. 경험유형은 결국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이행과정(경로)을 드러내는 자료가 될 것이다. 윤철경 등(2010, 2013a)의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후 경험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타 연구에서 진로설정 유형 중 진학형은 복교나 검정고시, 대안학교 등을 통해 학업을 계속하려는 유형으로 학업(지향)형을 의미하며, 취업형은 직업학교나 전문학원 등을 통해 직업기술훈련을 배우려는 청소년이나 취업 또는 아르바이트로 1일 8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는 청소년인 직업(지향)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윤철경 등(2010, 2013a)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는 청소년을 무업(NEET)형, 보호관찰 등 비행에 노출된 청소년을 비행형으로 추가 분류하였다. 한국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후 경험유형은 실증적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계속 검토되고 있는 중이다.

(4) 일상생활과 인식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변화된 일상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학생 청소년들과는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자신의 생활시간을 어느 활동에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향후 경로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한편 규칙적인 식생활은 건강과 직결되므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식생활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으며, 학생 청소년들과 비교할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 자신의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도, 학력 및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등이 학업중단 이후 경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5) 생애사건

가정구조와 기능이 상실되거나 기능이 약화될 때 청소년들에게는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거나 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권이중, 1992; 김종범, 2009: 30에서 재인용).

실례로 사회복지관 사회봉사 명령 청소년들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 가정의 불화나 부모가 정상적인 가정구조를 갖지 않는 경우 또는 부모가 맞벌이 부부로 자녀에게 관심을 등한시한 경우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오는 경향이 있음을 볼 때 가정적인 환경이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김종범, 2009: 30).

또한 청소년들은 보편적으로 부모갈등이 분노나 공격성 같이 표면적으로 나타날 때, 자녀 앞에서 이루어질 때, 자녀양육에 대한 불일치가 포함될 때, 갈등이 만성적이고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때 아동들이 더 심한 부적응을 보인다고 한다(Davies & Cummings, 1994; Fincham & Osborne, 1993; 김종범, 2009: 30에서 재인용).

김종범(2009)의 연구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과 가정환경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사망 및 이혼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간의 갈등 및 이혼이 청소년들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짐을 알 수 있으며, 가정폭력도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범, 2009: 42).

3. 조사영역 및 변인에 대한 경험적 근거: 2012년 조사문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⁹⁾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조사는 표본구축부터 표본의 유지에 이르기까지 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패널조사보다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후 모습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본격적인 패널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와 관련한 여러 측면들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289명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예비조사를 근거로 조사방법 및 조사도구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각 문항의 반응 분포, 신뢰도 및 타당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비조사에

9) 이 부분은 유성렬(백석대 교수)가 집필하였음.

서 사용한 문항의 수정·보완방안을 모색하였다.

1) 2012년도 조사문항 구성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삶의 경로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학업중단 현황, 개인의 심리·정서 및 행동특성, 환경적 특성,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인식, 생애사적 사건, 배경 문항의 총 6개 영역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업중단 현황은 학업중단 시점과 기간 등 학업중단과 관련한 실태를 묻는 9개의 문항과 학업중단 당시 제공된 각종 지원과 관련한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의 심리·정서 및 행동특성에 관한 영역은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및 우울로 구성된 심리·정서 영역의 19개 문항, 문제행동 및 피해경험을 묻는 13개 문항, 매체 이용과 관련한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적 특성 영역은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12개 문항, 친구와의 관계에 관한 15개 문항, 학업중단 당시 학교생활에 관한 28개 문항, 지역사회 환경에 관한 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과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업중단 이후 생활 실태에 관한 23개 문항, 관계망의 변화에 관한 6개 문항, 진로 계획과 관련한 4개 문항, 그리고 학업중단에 관한 인식을 묻는 10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특히 학업중단 이후 생활패턴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요 생활양식에 대해 월별로 응답하게 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각 생활양식별 발생 여부 및 지속기간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35가지의 생애사적 사건들의 발생 여부와 처음 일어난 시기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과 더불어 8개의 배경문항을 포함하여 전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예비조사에 사용된 설문지 문항의 구체적인 구성 체계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2012년 설문조사 문항 구성 체계

세부영역	세부영역	조사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학업중단 현황	학업중단 관련 실태	학업중단 시점	1, 1-1	2
		학업중단 기간	2	1
		학업중단 이유	3	1
		학업중단 행정 처리 형태	4	1
		학업중단 횟수	5	1
		최초 학업중단 시기	5-1	1

		최초 중단 후 학업중단 기간	5-2	1	
		최초 중단 후 학교복귀 이유	5-3	1	
	학업중단 시 지원 현황	학업중단에 대한 고민 상담	6	1	
		고민상담의 유용성	6-1	1	
		학업중단 관련 정보제공 여부	7-1)~6)	6	
		학업중단 숙려제 경험	8	1	
		학업중단 숙려제의 유용성	8-1	1	
개인의 심리·정서 및 행동특성	심리·정서	자아탄력성	29-1)~5)	5	
		자아존중감	29-6)~9)	4	
		우울	30-1)~10)	10	
	문제행동	지난 일 년 간 문제행동 경험	40-1)~9)	9	
		지난 일 년 간 피해 경험	41-1)~4)	4	
	매체 이용	많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35	1	
		전자기기 이용시간(주중, 주말)	36-1)~2)	2	
		전자기기 이용시간 변화	37	1	
		컴퓨터와 휴대폰 용도	38-1)~9)	9	
		컴퓨터와 휴대폰 의존도	39-1)~5)	5	
	환경적 특성	부모관계	부모 애착	31-1)~4)	4
			학대·방임	31-5)~12)	8
		친구관계	또래 애착	32-1)~3)	3
			친한 친구 수	33	1
			친구비행	33-1-1)~11)	11
학교생활		교사와의 관계	9-1)~4)	4	
		친구와의 관계	9-5)~7)	3	
		학교규칙	9-8)~9)	1	
		문화예술·동아리 및 자치활동	9-10)~11)	2	
		학습 부적응	9-12)~13)	2	
		학업성적	10	1	
		문제행동 및 규정위반 경험	11-1)~8)	8	
		학교생활 부적응	9-14)~16)	2	
학교생활의 의미		12-1)~5)	5		

	지역사회	지역사회 환경	34-1)~6)	6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인식	학업중단 이후 경험	기관·시설 이용경험	13	1
		아르바이트 경험(경험 여부, 업종, 업소, 이유)	14, 14-1, 14-2, 14-3	4
		검정고시 준비 경험(응시 경험, 준비방법)	15, 15-1	2
		보호관찰 경험	16	1
		월별 생활패턴 추이	17-1)~9)	9
		월별 주거공간 및 비행 추이	18-1)~7)	7
	관계망 변화	친구(새로운 친구 수, 만남 곳)	19, 19-1	2
		어른(어른 수, 만남 곳)	20, 20-1	2
		중단 이후 학교 접촉	21	1
		중단 이후 부모님의 태도	22	1
	진로계획	진로 계획	23	1
		진로 계획 달성 예측	24	1
		교육 기대수준(본인)	25	1
		교육 기대수준(부모님)	26	1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학업중단 관련 심리·정서	27-1)~9)	9
학업중단 만족도		28	1	
생애사적 사건	생애사적 사건	35가지 사건 발생여부 및 처음 일어난 시기	42-1)~35)	35
배경문항	배경문항	성별, 연령, 지역	설문지 표지	3
		가족구성, 부모님 결혼상태, 아버지·어머니 교육정도, 경제적 형편	배문1~5	5
총 문항 수				217

2) 2012년 설문조사 분석결과 및 시사점

본 절에서는 2012년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에 포함된 설문 문항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문항들을 중심으로 응답결과의 분포와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방식(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사각회전을 위해서 오블리민(oblimin) 방식을 이용하여 패턴행렬을 정리하였고, 요인 수의 결정은 고유치(eigen value)의 값이 1.0 이상인 경우로 설정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크론바하의 알파 계수 산출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본 예비조사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III-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사례수 (명)	비율 (%)
전 체		289	100.0
성별	남자	171	59.2
	여자	118	40.8
연령대	중등학령기(만13~15세)	69	23.9
	고등학령기(만16~18세)	220	76.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55	53.6
	한부모가정	103	35.6
	기타	31	10.7
부모학력	양부모 고졸이하	94	32.5
	아버지 초대졸이상 어머니 고졸이하	14	4.8
	아버지 고졸이하 어머니 초대졸이상	14	4.8
	양부모 초대졸이상	52	18.0
	기타(모르겠음 등)	115	39.8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47	16.3
	중	121	41.9
	하	120	41.5
	무응답	1	0.3
지역	대도시	147	50.9
	중소도시	129	44.6
	읍면지역	13	4.5

(1) 학업중단 현황

학업중단 현황 영역에서는 학업중단 관련 실태와 학업중단 시 지원 현황과 관련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학업중단 관련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학업중단 시점, 기간, 이유, 학업중단 행정처리 형태 및 횟수, 최초 학업중단 시기, 최초 중단 후의 학업중단 기간 및 학교복귀 이유 등의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학업중단 실태와 관련하여 사용된 문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항들은 학업중단 후 현재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조사대상이 조사시점부터 1년 전까지 기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사 시점에서의 현재 상태가 학교에 복귀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학업중단 실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조사 시점에서 학교에 복귀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에 복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학업중단 이후의 삶의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조사 시점에서의 학교 복귀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로 포함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실태를 보다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업 중단의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는 모두 12가지의 폐쇄형 응답지와 1개의 개방형 응답지가 제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비행으로 학교의 징계를 받아서’의 경우는 제시되어 있지만, 조금 더 심각한 비행 혹은 범죄의 경우에는 학교의 징계와 관계없이 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으로 인해 학교로부터 퇴학 조치를 받아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의 징계와 관련된 응답지와 더불어 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폐쇄형으로 제시된 12개의 응답지들도 그 서술 방식을 보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시 지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는 학업중단에 대한 고민 상담, 고민 상담의 유용성, 학업중단 관련 정보제공 여부, 학업중단 숙려제 경험, 학업중단 숙려제의 유용성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학업중단 고민 상담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학교나 상담기관 선생님과 상담이 학업중단과 관련된 고민해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문항에 대한 답변을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즉 학업중단 시의 고민을 결국 학업중단을 할 것이냐의 여부이지만, 학생의 입장에 따라 학업중단을 하는 것이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문항으로는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학업을 그만두는데 도움이 된 것인지 아니면 학업을 계속하는데 도움이 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학업중단 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학업중단에 동의하였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 응답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개인의 심리·정서 및 행동 특성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태 및 행동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심리·정서, 문제행동, 매체 이용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심리·정서 영역의 경우 자아탄력성을 나타내는 5개의 문항,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4개의 문항을 하나의 표에 포함하여 제시하였으며,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10개의 문항을 별도의 표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표 III-3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2
8)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935	-.233
9)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776	-.273
7)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765	-.329
6)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63	-.172
1)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265	.735
2)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135	.622
3)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302	.620
5)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133	.435
4)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	-.094	.424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9개의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는 4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을 나타내는 5개의 문항이 별도의 요인으로 표현되고 있으므로 조사에 사용된 9개의 문항이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참조). 신뢰도를 나타내는 알파계수도 자아탄력성은 .698, 자아존중감은 .882로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탄력성과 관련한 문항 가운데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와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의 2개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다른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값이 낮고, 이 두 문항의 문항전체상관도 각각 .366와 .396으로 다른 3개 문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두 문항을 자아탄력성과 관련한 다른 문항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2012년 설문조사에서는 모두 10개의 문항을 사용하

였는데, 이 문항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부하량은 .599 ~ .773으로 비교적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알파계수도 .898로 바람직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행동 특성 파악을 위해 지난 1년간의 문제행동과 더불어 피해 경험과 관련한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특히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체 설문지의 문항들이 부정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한 지양하기 위해 직접적인 문제행동 경험여부를 묻기보다 문제행동에 대한 충동을 느꼈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등의 9가지 문제행동 각각에 대해 충동을 느꼈는지 여부와 충동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충동을 느낀 횟수, 그리고 학업중단 이후 충동을 느낀 경험 횟수의 증가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실제 자료 분석과 해석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우선 특정 행동에 대한 충동을 느끼는 것과 그러한 행동을 직접 경험하는 것과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즉, 특정한 행동에 대해 충동을 느낀다고 해서 그러한 충동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기에는 별도의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충동 여부를 통해 행동의 정도를 유추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따르게 된다.

이와 더불어 충동을 느낀 횟수에 대해 응답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담배 피우기의 경우 흡연자는 하루에도 수차례 흡연 충동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한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해서 기입하는 것은 응답자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어려운 일일뿐 아니라, 지난 1년 동안의 충동 횟수를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학업중단 이후 충동을 느낀 경험 횟수의 증가 여부에 관한 문항은 학업중단이 부정적인 사건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충동 횟수 문항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응답이 쉽지 않은 문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항들을 간결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비행과 관련한 충동을 묻는 대신 각각의 비행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로 대체하여 직접적으로 행동 여부를 측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청소년 비행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비행 정도를 술 마시기, 담배 피우기 등 각각의 비행 횟수보다는 여러 유형의 비행들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몇 가지를 경험하는가의 정도로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비행들에 대한 경험 횟수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묻는 대신 여러 종류의 비행을 중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비행 정도를 측정하도록 할 경우 문항을 보다 간결하게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의 경험의 증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각각의 행동을 경험하였는지의 여부를 묻는 방식을 사용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비행(범죄) 피해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집단 따돌림, 폭행, 돈이나 물건 빼기기, 성폭행이나 성희롱의 4개 항목에 대한 피해경험 여부, 피해 횟수, 학업중단 이후 피해경험 횟수 증가 여부가 문제행동을 묻는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해경험 횟수와 학업중단 이후 증가 여부에 관한 문항들은 문제행동 관련 문항과 마찬가지로 응답하기가 수월하지 않으며,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 횟수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고 피해경험 여부를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질문할 때 전반적으로 문항을 간결하게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당초 확보하고자 의도한 정보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피해경험의 경우 현재의 4문항에 문자사용에 따른 언어폭력 및 음란물 노출 등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매체이용 실태와 관련하여 본 2012년 설문조사에는 많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주중과 주말의 이용시간,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의 전자기기 이용시간 변화,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사용용도 및 의존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의 문항에 대해서는 연구목적과 관련한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대부분인 현황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매체이용과 관련한 문항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조사에서 매체이용 실태에 대한 명확한 연구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면 굳이 매체이용과 관련한 문항을 포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한 정보는 기존의 타 조사 결과 혹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조사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매체이용과 관련한 항목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매체이용 실태에 관한 분명한 관심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환경적 특성

학업중단 청소년의 환경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2012년 설문조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업중단 당시의 학교생활, 지역사회의 특성과 관련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표 III-4 부모 관계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2	3
3)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941	-.550	-.453
4)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칭찬을 잘 해주신다.	.870	-.520	-.391
2)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852	-.520	-.381
1)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793	-.547	-.560
5)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752	-.521	-.396
6)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739	-.613	-.342
7)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신경 쓰신다.	.624	-.996	-.370
8)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	.623	-.679	-.237
11)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451	.286	.887
10)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443	.346	.862
12)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예: 멍청이, 개만도 못한 것, 나가 죽어라, 네가 없으면 좋겠다. 등)	-.541	.331	.792
9)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242	.147	.684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부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4개 문항, 부모의 방임 정도를 나타내는 4개 문항, 그리고 학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4개 문항을 사용하여 총 12개의 문항을 하나의 표에 제시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12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III-4>에 제시된 바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애착, 부모방임, 학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들이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이 각기 하나의 요인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III-4>에 나타나 있듯이 부모애착과 방임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8개의 문항의 경우 고유치상으로는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나, 요인부하량은 두 요인에 대한 각 문항의 값이 유사한 수준이어서 명확하게 두 요인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방임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의 서술방식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부모방임과 관련한 문항들의 경우 각 문항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은 부모의 방임 정도가 낮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응답자의 관점에서 볼 때 부모방임 정도 측정 문항들은 부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과 그리 다르게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모방임을 묻는 문항들의 내용적 방향성을 반대로 전환하여 문항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할수록 부모방임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수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12개의 문항을 하나의 표에 구성하기보다는 부모애착과 관련한 문항들을 분리하여 별도의 표로 제시하고, 방임과 학대를 나타내는 문항들을 하나의 표에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의 알파계수는 애착, 방임, 학대 각각에 대해 .922, .842, .88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친구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또래애착, 친한 친구 수, 친구 비행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또래애착의 경우에는 3개 문항을 4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각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810 ~ .842의 범위 안에 있으며, 알파계수도 .86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조사에서는 친한 친구가 몇 명인지에 관한 문항과 친한 친구들 가운데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등의 비행을 하는 친구의 수가 몇 명인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비행 친구와 관련한 문항들의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우선 응답자 본인의 비행 여부를 묻는 문항과 매우 유사한 형태여서 전반적으로 설문지가 부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특히 비행을 하는 친구가 몇 명인지에 관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문항들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기 위한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 원인을 규명함이 아니라면 굳이 설문지 전체에 부정적인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11가지 비행의 종류에 대해 그러한 행동을 하는 친구의 수를 일일이 생각해내는 것도 응답자의 관점에서는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업중단 당시의 학교생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규칙, 문화예술동아리 및 자치활동, 학습 부적응, 학교생활 부적응을 측정하는 총 16개의 문항을 하나의 표로 제시하고, 4점 척도로 구성된 응답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III-5>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총 16개의 문항은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 내 활동, 학습 부적응, 학교 부적응의 5가지 요인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교규칙과 관련한 ‘학교규칙이 엄격하게 행해지고 있었다’와 ‘학교규칙을 어겼을 때 받는 벌은 누구에게나 공평했다’의 2개 항목은 당초 기대했던 바와 달리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지 않았으며, ‘학교에는 친구들을 만나고 밥 먹으러 갔다’의 문항은 당초 학교 부적응을 나타내기 위한 문항으로 포함하였으나 오히려 친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규칙에의 적응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문항은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생활 부적응과 관련한 ‘학교에는 친구들을 만나고 밥 먹으러 갔다’는 문항은 삭제하거나 대체할 필요가 있다. <표 III-5>에 나타난 5개의 요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을 대상으로 알파계수를 산출한 결과, 교사와의 관계는 .852, 친구와의 관계는 .873, 학교 내 활동은 .829, 학습부적응은 .680, 학교생활 부적응은 .707로 비교적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문항 외에도 2012년 설문조사에서는 학업성적, 학교 내 문제행동 및 규정위반 경험, 학교생활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학교 내 문제행동 및 규정위반 경험은 지각, 무단결석, 복장이나 용모 규정 위반, 숙제 안하기, 수업 빼먹기, 시험 부정행위, 선생님에게 대들기, 학부모 소환의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인분석 결과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시험 볼 때 부정행위’ 문항을 제외한 7개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488 ~ .836으로 나타났고, 부정행위 항목을 제외한 알파계수는 .835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내 문제행동 및 규정위반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시험 부정행위를 제외한 7개의 문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생활이 응답자에게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보기 위해 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1개의 요인에 대해 각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689 ~ .884의 범위 내에 있으며, 알파계수도 .878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생활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2012년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5개의 문항은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5 학교생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2	3	4	5
13) 제시된 학습과제와 내용은 내 수준에 맞지 않았다.	.991	.203	-.092	.150	.276
12) 학교 수업은 내 관심과 흥미에 아무 상관이 없었다.	.535	.223	-.119	.102	.236
6)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었다.	-.051	.802	.320	-.384	-.475
5) 학교에서 쉽게 친구를 사귄 수 있었다.	.046	.755	.336	-.315	-.410
7)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친구들이 도와주었다.	.035	.754	.305	-.344	-.401
14) 학교에는 친구들을 만나고 밥 먹으러 갔다.	.301	.450	.003	-.011	.030
8) 학교규칙이 엄격하게 행해지고 있었다.	.209	.289	-.024	.050	.137
1) 선생님은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이해하셨다.	-.101	.103	.821	-.349	-.245
2) 선생님은 학생을 공정하게 대하셨다.	-.162	.132	.781	-.290	-.107
3) 선생님은 내가 가진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셨다.	-.130	.128	.755	-.405	-.190
4)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선생님은 나를 도와 주셨다.	-.023	.183	.723	-.418	-.158
9) 학교규칙을 어겼을 때 받는 벌은 누구에게나 공평했다.	.005	.177	.454	-.364	-.153
10) 학교에 문화예술행사나 동아리활동 등이 활발하였다.	-.115	.163	.390	-.864	-.253
11)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치활동이 활발하였다.	-.159	.143	.429	-.822	-.305
16) 학교만 가면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	.312	-.129	-.207	.322	.831
15) 학교에서는 나를 이해해주는 이가 없고 외로웠다.	.150	-.417	-.215	.276	.677

마지막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는 <표 III-6>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총 6개 문항에 대해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문항과 요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부하량을 0.4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3개의 문항이 각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각 요인 내에서도 문항들의 요인부하량 크기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0.5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요인과 문항과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에 지역사회 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의 경우에 보다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환경은 단순히 주변이 깨끗하다거나 유흥가에 인접하지 않다는 등의 물리적 특성과 더불어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관계 등의 심리적 특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사회 환경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본 조사에 사용할 문항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표 III-6 지역사회 환경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2
2) 우리 동네에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975	-.230
1) 우리 동네에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450	-.113
3)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때를 지어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427	-.097
5) 동네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은 혼내서 바로 잡아줄 것이다.	-.082	.827
4) 우리 동네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동네 어른들이 나를 꾸짖을 것이다.	-.121	.576
6) 우리 동네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265	.443

(4)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인식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과 인식에 관련한 영역은 학업중단 이후 경험, 관계망의 변화, 진로 계획,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학업중단 이후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 조사에서는 기관·시설 이용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검정고시 준비 경험, 보호관찰 경험, 월별 생활패턴 추이, 월별 주거 공간 및 비행추이와 관련한 문항들을 사용하고 있다.

우선 기관·시설 이용 경험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한 8개의 각기 다른 시설과 동아리 모임 등을 제시하고 이용여부를 답하도록 하였는데, 일부내용이 검정고시 준비 경험, 월별 생활패턴 추이 등에 포함된 문항과 중복되고 이용한 기관을 모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응답 결과가 각 기관별 이분형 변수로 표현되어 실제 변수의 활용 여부가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해당 문항을 삭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경험 여부, 업소, 업종 및 이유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경험 여부에 관한 문항은 월별 생활패턴 추이에 포함된 항목과 중복되고 있으며, 실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아르바이트 경험보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떤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이 활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검정고시 준비 경험과 관련하여 응시경험 여부, 준비 장소의 문항이 사용되고 있으나, 학업중단 시점이 1년 이내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응시 경험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준비 장소의 경우 월별 생활패턴 추이에 대한 응답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검정고시 관련 문항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월별 생활패턴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대안학교, 검정고시학원, 직업기술학원, 아르바이트, 전일제 취업,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있거나 친구들과 놀러 다님, 상담이나 치료를 받음,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함의 9가지 항목에 대해 지난 12개월 간 해당 사건을 경험한 달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 정보는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를 구축하기 위한 자료로서 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아르바이트와 전일제 취업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점, 병원 입원 경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월별 거주 공간 및 비행추이의 경우 가출과 관련된 4가지 경우 즉, 친구 집이나 PC방 등 불특정 거주, 보호시설 거주, 보호관찰 경험, 소년분류심사원 거주 여부에 대하여 지난 12개월 간 해당 사건을 경험한 달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가출 경험과 관련하여 친구의 집, 찜질방이나 PC방, 가출캠, 노숙의 구분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정보는 학업중단 이후의 가출 경험 여부에 있으므로 이 4가지 항목을 하나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호관찰 관련 경험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포함된 ‘보호관찰을 받음’ 문항에서 추출이 가능하므로, 보호관찰 경험을 묻는 별도의 문항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이다.

학업중단 이후 관계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2012년 설문조사에서는 새로 만난 친구 수와 만난 장소, 도움을 준 어른 수와 만난 장소, 학업중단 이후 학교 접촉 여부 및 학업중단 이후 부모님의 태도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학업중단 이후 새롭게 만난 친구 수와 만난 장소에 관한 문항에 관한 응답결과를 보면 먼저 친구 수는 평균 9.3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시설 등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새로 사귀 친구가 더 많다고 답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게다가 친구관계를 묻는 문항에서 친한 친구 수를 묻는 문항이 있기에, 두 문항은 일부 중복되는 경향을 갖게 되고 학업중단 이후의 친구 수와 이전까지의 친구 수를 구분하여 응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게다가 새롭게 친구를 사귀는 장소는 생활패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문항을 통해 질문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업중단 이후 새롭게 사귀 친구와 관련한 문항은 삭제하고, 친한 친구 수를 묻는 문항의 하위 문항으로 학업중단 이후 사귀 친구 수를 묻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이후 도움을 준 어른의 수와 장소 문항의 경우 또한 친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순화시켜 장소별로 도움을 준 어른이 있었는가를 묻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이후 학교 접촉 여부는 ‘학업중단 이후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로부터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항을 사용한 의도는 비록 학업을 중단하여 학교 밖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관심을 보이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그러나 본 조사의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연락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이 응답하는 과정에서 원래 조사에서 의도한 의미의 접촉과 조사대상자 선정으로 인한 접촉을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해당 문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업중단 이후 부모님의 태도와 관련한 문항은 그 내용이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문항에 포함되어 있어 중복질문의 성격이 강하므로 간결한 설문지 구성을 위해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업중단 이후 진로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진로계획, 진로계획 달성 예측, 본인 및 부모의 교육기대 수준의 4개 항목 중 부모의 교육기대 수준에 관한 문항은 실제 조사결과 활용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012년 설문조사에는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학업중단 이후의 심리·정서 상태와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학업중단과 관련한 심리·정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9개의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 III-7> 참조),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2개 문항은 학업중단 이후의 상태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른 6개 문항은 학업중단에 따른 부정적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이끌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문항은 2개의 요인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도 관련 문항을 결부하여 검토해보면, 우선 학업중단 만족도에 대한 별도의 문항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업중단 이후의 심리·정서 상태에 관한 문항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문항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7 **학업중단 이후 심리정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2
9)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957	-.295
8)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808	-.324
6) 소속된 곳이 없으니 외롭고 불안하다.	.303	.742
5)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아 무기력한 생각이 들고 위축된다.	.343	.721
4)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 앞길이 막막하기도 하다.	.409	.720
2)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	.233	.653
3)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주위사람들에게 문제가 취급을 받는 것 같다.	.098	.548
1)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	.110	.524
7)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이끌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115	.343

(5) 생애사적 사건 및 배경

마지막으로 2012년 설문조사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였을 수 있는 ‘나의 생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발생 여부, 처음 일어난 시기 등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구성의 변화와 관련한 8개 문항, 가정경제의 변화와 관련한 6개 문항, 부모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4개 문항, 학교 선생님께서부터의 구타, 병원 입원, 이사 등으로 인한 전학과 관련하여 각 1개 문항, 비행경험과 관련한 4개 문항, 처벌경험과 관련한 4개 문항, 범죄피해와 관련한 5개 문항, 아르바이트 경험 1개 문항 등 총 35가지의 생애사건에 대한 발생 여부와 그 발생 시기에 대해 묻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학업중단의 원인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이후의 삶의 경로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병원 입원, 비행, 처벌, 범죄피해,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문항들은 앞서 조사에 포함된 관련 문항들과 비교하였을 때, 연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은 조금씩 상이하나 응답자의 입장에서는 중복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피로감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14개 문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처음 경험 시기를 묻는 질문에서도 취학 전, 초, 중, 고 각 시기를 구분하여 선택하도록

한 뒤 취학 전일 경우에는 발생한 시점의 나이를, 초·중·고 시기에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시점의 학년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응답요구는 매우 구체적인 수준이어서 응답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회상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험 발생 시기를 취학 전, 초, 중, 고 시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응답자가 보다 쉽게 답하도록 하는 것이 결측치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배경 문항의 경우에는 부모의 '교육정도'라는 표현보다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는지' 등으로 보다 쉽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다문화 가정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최종문항 확정¹⁰⁾

이상과 같은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 문항은 다음 <표 III-8>과 같다. 조사영역은 크게 학업중단 관련 실태, 개인적·환경적 특성,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과 인식으로 구분된 3개 영역에 더하여 생애사건 경험, 인구사회학적 배경문항이며,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호관찰 관련사항이 추가되었다.

설문지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용 2종류로 작성되었으며,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중에는 중단 이후 복교한 청소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장 최근에 경험한 학업중단을 시점을 기준으로 답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신분 상태를 확인하는 질문을 첫 문항으로 추가 구성하였다. 총 문항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용 263문항,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용 26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실제 설문지는 응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① 학업중단 현황, ② 학업중단 당시 학교생활 회고, ③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인식, ④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 ⑤ 부모·친구관계·동네주변 환경, ⑥ 일상생활 및 가치관, ⑦ 생애사건 경험, ⑧ 문제행동 경험, ⑨ 배경요인, ⑩ 보호관찰 관련 사항 등 10개 영역으로 편집되었다.

10) 이 부분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표 III-8 설문조사영역 및 주요 내용

대영역	세부영역	조사내용	문항 분류 11)	문항번호		출처	조사 연도	본 패널과 비교집단
				A형	B형			
학업 중단 관련 실태	현재 신분 상태	중단/복교상태	□	1	-	신규	계속	-
	학업 중단 실태	학업중단 시점	●	2,2-1	1,1-1	윤철경외(2010) 문4-1수정	1차 년도	비행
		학업중단 기간	●	3	2	윤철경외(2010) 문6		
		학업중단 이유	●	4	3	윤철경외(2010) 문8 수정		
		학업중단 행정처리 형태	●	5	4	윤철경외(2013a) 문4 수정		
		학교성적수준	●	6	5	윤철경외(2013a) 문10 척도 수정		
		학업중단 횟수	●	7	6	윤철경외(2013a) 문5		
	복교 관련 실태	최초 학업중단	●	8	7	신규	1차 년도	비행
		최초 학업중단 시점	●	8-1	7-1	윤철경외(2013a) 문5-1	1차 년도	비행
		최초 중단 후 복교 소요기간	●	8-2	7-2	윤철경외(2013a) 문5-2		
		최초 중단 후 학교 복귀 이유	●	8-3	7-3	윤철경외(2013a) 문5-3 수정		
		복교 학교 유형	●	8-4	7-4	신규		
		종전 학교로 복교하 지 않은 이유	●	8-5	7-5	신규		
		복교학교 유형 및 소재지	●	8-6	7-6	신규	1차 년도	비행
	학업 중단 시 지원 실태	학업중단 시 상담자	●	9	8	윤철경외(2010) 문9 수정	1차 년도	비행
		학업중단 시 제공받 은 정보	●	10	9	민인철외(2011) 문10/학업중단숙려제 추가		
		학업중단 시 필요했 던 도움	●	11	10	신규		
		학업중단 시 부모님 태도	●	12	11	신규		
		학업중단 시 선생님 태도	●	13	12	신규		

		학업중단 숙려제 경험	●	14	13	윤철경외(2013a) 문8			
		학업중단 숙려제의 유용성	●	14-1	13-1	윤철경외(2013a) 문8-1			
개인적 특성	심리 정서	자아존중감	●	28-1) ~5)	24-1) ~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2012) 문8	계속	학생/비행	
		자아탄력성	●	28-6) ~10)	24-6) ~10)	KCYPS(2010) 중1패널 1차년도 문19 ②,③,⑥,⑧,⑫ 번 선정	계속	학생/비행	
		우울	●	29-1) ~10)	25-1) ~10)	KCYPS(2011) 중1패널 2차년도 문18 ㉗~㉛번 선정	계속	학생/비행	
		충동성	●	29-11) ~15)	25-11) ~15)	Grasmick 등(1993) 척도, 이희길(2006)	계속	비행	
	문제 행동 가· 피해 경험	피해경험(학업 중단 전후)	●	41	36	KCYPS(2012) 중1패널 3차년도 문23 수정	수정 계속	비행	
		문제행동 가해경험 (학업 중단전후)	●	42	37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2012) 문6 수정	수정 계속	학생/비행	
		게임중독	●	30	2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2012) 문3 ⑤~⑬	수정 계속	학생/비행	
	환경적 특성	부모 관계	부모애착(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	●	31	27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2012) 문10 ②~⑥, ⑩, ⑫, ⑭번 수정	계속	학생/비행
			부모의 방임	●	32-1) ~5)	28-1) ~5)	허묘연(2000) 방임만 취하여 수정	계속	비행
부모의 학대(신체적, 정서적 학대)			●	32-6) ~9)	28-6) ~9)	KCYPS(2012) 중1패널 3차년도 문25 ⑤~⑧번 수정	계속	학생/비행	
친구 관계		친한 친구 수	●	33	29	KYPS(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37-1	수정 계속	비행	
		학업중단 후 사귀 친구 수	●	33-1	29-1	윤철경외(2013a) 문19	계속	비행	
		학업중단한 친구 수	●	33-2	29-2	신규	계속	비행	

	또래 애착	●	34-1) ~3)	30-1) ~3)	KCYPS(2012) 중1패널 3차년도 문26 ④~⑥번 선정	수정 계속	학생/비행
	친구의 비행성향	●	34-4) ~6)	30-4) ~6)	전영실·신동준(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피해 및 가해 연구. 15-4,15-5, 15-6	수정 계속	학생/비행
학교 및 학교 생활	중단 학교 현황 (유형/규모/지역)	□	명부 / 학교 정보				
	교사관계	●	16-1) ~3)	15-1)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2012) 문13 ④~⑥	1차년도	학생/비행
	친구관계	●	16-4) ~7)	15-4) ~7)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2012) 문13 ⑦~⑨		
	학습 부적응 (수업참여)	●	16-8) ~ 10)	15-8) ~ 10)	한국교육종단연구 (2008) 문36 ① ~③ 선정, 수정		
	훈육적 학교풍토	□	17-1) ~2)	-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10번 ③, ④번 선정 -척도수정		-
	참여적 학교풍토	□	17-3) ~4)	-	신규		-
	학교규범 위반 경험	●	18-1) ~7)	16-1) ~7)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문9. ①, ②, ③, ⑥, ⑨번 선정 - 신규 추가 '선생님에게 대들었음', '부모님 이 학교에 불려감' - 척도수정		학생/비행
지역 사회	지역사회 사회통합 (유대와 통제)	●	35-1) ~4)	31-1) ~4)	김지선·홍영오(2011)	수정 계속	비행
	지역사회 무질서 (물리적, 사회적)	●	35-5) ~8)	31-5) ~8)	김지선·홍영오(2011)		
	지역사회 유익 환경	●	35-9) ~10)	31-9) ~10)	신규추가		

학업중 단 이후 경험과 인식	중단 이후 경험	중단 후 경험실태	●	19-1) ~9)	17-1) ~9)	윤철경외(2013a) 문17 수정	계속	비행	
		중단 후 주거 및 비 행 경험	●	20-1) ~4)	18-1) ~4)	윤철경외(2013a) 문18 수정	계속	비행	
		아르바이트 경험, 업 종, 시간, 임금	●	21, 21-1,2 ,	19, 29-1,2 ,	KYPS(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25-1 ③, ④번	계속	비행	
	사회 관계	중단이후 성인 멘토 (만남 어른 유무, 만 남 시설)	●	22	20	윤철경외(2013a) 문20-1 수정	계속	비행	
	진로 계획	진로 정보의 탐색	진로정보의 탐색	●	23	21	신규	계속	비행
			향후 진로 계획	●	24	22	KYPS(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11-1 수정	계속	-
			진로 계획 달성 예 측	□	25	-	윤철경외(2013a) 문24	계속	-
			본인의 교육 기대수 준	□	26	-	KYPS(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13	계속	학생
	학업 중단 에 대한 인식	학업중단 관련 심리· 정서	●	27-1) ~6)	23-1) ~6)	윤철경외(2013a) 문27 ①,③,⑥,⑧,⑨ 번 선정/ 5)신규	계속	비행	
	일상 생활 및 가치관	생활 시간	수면, 학습 및 일, 여가 시간	●	36	32	KCYPS(2012) 중1패널 3차년도 문1 수정,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 인조사 문33 참조	계속	학생/비행
식생 활			식사 습관, 인스턴트 식품노출	●	37	33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 인조사 문 5, 6, 7, 11 수정	계속	학생/비행
가치 관		학력에 대한 생각	□	38	-	KYPS(2007) 중2 패널 5차년도 문12 ⑤, ⑥, ⑪번 선정 수정	계속	학생/비행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	39	34	전영실·신동준(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피해 및 가해 연구. 문2	계속	비행	
생애	최초	무단 결석 여부	●	15	14	신규	1차	비행	

사건 경험	무단 결석 경험	최초 결석 시작일	●	15-1	14-1	신규	년도	
		최초 결석 이유	●	15-2	14-2	신규		
	20개 생애 사건	발생여부 및 처음 일어난 시기	●	40-1) ~ 20)	35-1) ~ 20)	KYPS(2005) 중2패널 3차년도 evt. 수정 -20번으로 '이사 등으로 전학' 신규 추가		
보호관찰관련 사항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	-	38	신규		-
	이전 처분	이전 처분 유무 및 처분내용	△	-	별지 1, 1-1	신규	최근 1년간 처분유무 및 처분내용 조사	-
	본범 특성 및 처우 현황	죄명, 처분내용, 부가처분, 보호관찰소에서 받는 지원, 공범유무 및 공범자간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시 거주상태, 보호관찰종료일, 보호관찰사건번호, 보호관찰 담당선생님	△	-	별 지 2,3,4,5,6, 6-1,7, 8,9,10, 11	신규	최근1년간 처분경험있는 경우 관련내용 조사	-
배경 문항	배경 문항	성별, 연령, 지역	●	설문지 표지	설문지 표지		지역, 가족구성, 이사 횟수만 계속	-
		가족구성, 부모 결혼 상태, 다문화가정 여부, 부모학력, 이사 횟수, 가정경제수준, 지역(시도별, 도시규모별)	●	43,44, 45,46, 47,48	39,40, 41,42, 43,44			
총 문항수				2 6 3	2 6 7			

11) ●: A, B 공통, □: A형 설문(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대상), △: B형 설문(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제 4 장

조사설계

1. 패널구축
2. 자료수집과정
3. 패널관리

제 4 장

조사설계*

1. 패널구축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후 경험을 유형화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별 분포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가치관의 변화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 청소년과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징 비교, 학업중단 청소년 중 사회 적응형(학업형, 직업훈련형) 청소년과 사회 부적응형(비행형, 무업형) 청소년의 특성 비교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이다. 일반 청소년은 학업중단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등학교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되, 학업중단 이후 경로를 학업중단 발생시점과 근접하게 조사하고자 1년 미만인 자로 한하여 선정하였다. 보호관찰 청소년은 조사패널 유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장기 보호관찰 대상자(최대 2년) 중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보호관찰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 학령기 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 표본설계

정규 중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모집단과 목표 표본의 크기는 <표 IV-1>과 같다. 정규 중고등학교 학업중단자의 경우, 조사의 효율성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 이 장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표 IV-1 학교급별 모집단 크기, 정규학교 학업중단자 목표 표본 수 (단위: 명)

학교급		모집단		목표 표본 수
중학교		15,337 (31.7%)		202
고등학교	일반고	17,619 (36.4%)	33,057 (68.3%)	229
	특수목적고	972 (2.0%)		-
	특성화고	12,802 (26.5%)		169
	자율고	1,664 (3.4%)		-
합계		48,394 (100.0%)		600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3). 2011학년도 학업중단자 현황 (내부자료).

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 표집으로 지역별, 교급별 목표 표본 수는 <표 IV-2>와 같이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학생비율이 낮고 타 지역의 학생과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표본할당에서 제외하고, 그 외 총 15개 지역에서 표본을 할당하였다. 조사과정에서 각 시도교육청 별로 목표 표본수의 5배에 해당하는 학업중단자 명부(개인과 학부모 동의 포함) 수집을 요청하였다.

표 IV-2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지역별 모집단 수 및 표본 수 (단위: 명)

지역	모집단				표본수			
	합계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고	특성화고
서울	8,343	3,729	3,183	1,431	110	49	42	19
부산	3,220	1,021	831	1,368	43	14	11	18
대구	1,882	533	554	795	25	7	7	11
인천	2,631	990	983	658	35	13	13	9
광주	1,581	443	788	350	21	6	10	5
대전	1,674	464	540	670	22	6	7	9
울산	1,069	302	320	447	14	4	4	6
경기	11,628	4,205	4,852	2,571	154	56	64	34
강원	1,546	432	532	582	21	6	7	8
충북	1,448	392	468	588	19	5	6	8
충남	1,938	609	857	472	25	8	11	6
전북	1,746	466	822	458	23	6	11	6
전남	1,794	415	517	862	24	6	7	11
경북	1,991	439	893	659	27	6	12	9
경남	2,776	742	1,277	757	37	10	17	10
전체	45,267	15,182	17,417	12,668	600	202	229	169

보호관찰 청소년은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중 권역별로 안배하여 <표 IV-3>과 같이 총 10개소를 선정하였다. 표본크기는 각 보호관찰소에서 20명씩 총 200명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보호관찰소 대상 조사는 지역할당 자체가 어려웠으며, 조사협조가 가능한 지역별 보호관찰소에 한하여 유의할당을 실시하였다.

표 IV-3 권역별 보호관찰소 개소 수 및 목표 표본크기 (단위: 명)

권역	보호관찰소 개소수	목표 표본
서울	2	20
		20
경기	2	20
		20
인천	1	20
충청·강원권	1	20
경상권	2	20
		20
전라권	2	20
		20
전체	10	200

그러나 실제 조사과정에서 각 시도별 대상자 명단의 충분한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할당에 의미가 없어서 조사 설계 자체를 수정해야만 했다.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발생한 정규 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보한 명단은 총 895명이었다. 목표 표본 수의 5배인 3,000명의 명단 확보를 기대하였으나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학기에 2차 추가조사를 실시하더라도 목표 표본 수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스노우볼링, 웹 홍보,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수집된 개별 조사대상은 쉼터, 대안교육기관 등에서 수집되는 학업중단자 표본보다 조직의 특성이 덜 반영되기에 이러한 방식으로 대상자 모집을 강화하였으며, 학업중단 후 경로 유형화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자활지원관, 검정고시학원, 대안교육기관에 일정 쿼터를 배분하여 조사대상 표본을 추가 확보하였다.

학교 명부를 활용한 표본 추가를 위하여 2013년 7월~9월 기준 학업중단자를 포함하고, 9월 30일까지 학업중단자 명부를 재수령하였다. 수합기간이 짧았지만 청소년의 학업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탓에 추가로 확보한 명단은 363명이 되었다. 2차 추가조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목표 표본 수를 상향조정하여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다. 교육부와 지역자치단체 교육청의 협조로 확보된 1차년도 학업중단자 조사 표본은 <표 IV-4>와 같다.

표 IV-4 1차년도 학업중단자 패널 구축 당초안 및 수정안, 최종 표본수

구 분		당초안	1차수정안	2차수정 및 최종 표본	대상 특성
학교 개인명부 조사	중학생	202명	100명	349명	1년 미만 학업중단자
	고등학생	398명	200명		
보호관찰소 조사		200명	200명	220명	1년 미만 보호관찰자
스노우볼링, 웹 홍보		-	최대치	49명	1년 미만, 1-2년 미만, 2년 이상 학업중단자 동일비율 확보 노력
기관 접촉 조사	상담복지센터	-	100명	154명	
	직업훈련기관/ 자활지원관	-	100명	57명	
	검정고시학원/ 대안교육기관	-	100명	167명	
합 계		800명	800명	996명	

본 중단연구는 1차년도에 구축된 패널표본을 3차년도까지 65%정도 유지할 것을 목표로, 2015년도 최종목표 표본 수를 총 648명으로 설정하고 있다(<표 IV-5> 참조).

표 IV-5 학업중단자 패널 구축 경로별 최종목표 표본수

구 분 ¹²⁾	2013	2014	2015	주관기관
개인명부 조사	552명	→	359명	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분석기관
기관접촉 조사	224명	→	146명	
보호관찰소 조사	220명	→	143명	형사정책연구원 /조사분석기관
합 계	996명	(65% 유지)	648명	

12) 개인명부 조사는 스노우볼링 및 웹조사, 상담복지센터의 개별 명부 조사를 포함하는 표본 수이며, 스노우볼링 및 웹조사를 통해 확보한 명단은 교육청을 거친 학교별 개인명부 확보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기관접촉 조사는 직업 및 학업기관 대상 조사를 포함하는 표본 수임.

3) 조사방법

학교로부터 확보한 명단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일대일 대면면접조사를,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개인정보노출 문제로 외부면접원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법무부와의 협의 후 보호관찰관의 협조 하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개별로 밀봉한 각 조사지는 조사기관에서 수령하여 설문문항 응답을 검토한 이후 전화 및 면접을 통해 보강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 자료수집과정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조사방법은 일대일 대면면접 및 서베이 형태로 실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실사내용은 리스트 정제, 면접원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사전접촉, 실사, 데이터 처리 및 검증, 데이터 클리닝이다.

한편,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조사실사는 협동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실제 조사방법은 총 11개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로 진행하였으며¹³⁾, 조사대상자는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 회수한 설문지에 대한 검토 후, 필요시 조사대상자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각각 재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실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1) 리스트 수령 및 정제

(1) 리스트 정보

본 조사는 3년 패널로 진행되므로 응답자 본인의 참여 의사가 중요한 바, 리스트 수집과정에서

13) 당초에는 10개 보호관찰소에서 각 24명씩 총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초기 목표는 200명이었으나 폐기될 부수의 발생을 감안하여 총 2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함. 그러나 폐기 부수가 예상보다 많아져 1개의 보호관찰소를 추가하고 총 11개 보호관찰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짐.

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은 리스트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동의서 취합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우편, 직접 작성 등이 있다.

리스트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리스트 출처 및 응답자 동의 방법, 학업중단 관련 정보, 연락처 정보로 구분된다. 리스트의 출처는 응답자의 학업중단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으로 각 교육청이 해당지역의 개별 학교로부터 직접 리스트를 취합한 것이다. 학업중단 관련 정보는 학업중단 시점의 학교명/학년/반, 학업중단 시기와 사유, 향후 계획이다. 학업중단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은 응답자에게 민감한 사항일 수 있으므로 실사 시 면접원이 응답자를 최대한 이해하고 접촉하여 수집한 정보이다. 연락처는 응답자 접촉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이므로 청소년이 휴대전화번호가 자주 변경될 수 있는 연령대임을 고려하여 개인 연락처뿐만 아니라 자택, 아버지/어머니, 친한 친구의 전화번호 등 최대한 많은 연락처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사 시 면접원 방문 및 향후 패널 관리를 위해서 집 주소와 이메일 주소도 함께 수집하였다.

(2) 리스트 출처 및 현황

1차 개인 리스트는 우선 세 가지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첫째,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의 협조 하에 각 지역 학교의 학업중단 청소년 리스트 수령, 둘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협조 하에 각 지역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리스트 수령, 셋째, 2012년 학업중단 청소년 예비조사 응답자 리스트 활용이다.

각 수집방법별 정제 전 리스트는 각 지역 학교를 통해 관할 교육청에서 취합한 1,034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5명, 2012년 설문조사 응답자 187명이다. 정제 후 리스트는 교육청 967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5명, 2012년 설문조사 응답자 186명으로 변경되었다.

표 IV-6 정제 전후 수집방법별 리스트 현황

개인 명단 수집방법 구분	정제 전 리스트 수(명)			정제 후 리스트 수(명)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교(교육청)	250	784	1,034	235	732	96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	35	45	10	35	45
2012년 설문조사	51	136	187	55	131	186
합 계	311	955	1,266	300	898	1,198

(3) 리스트 정제 결과

1차 수집된 개인별 리스트는 현 거주지 주소 기준으로 정제하였다. 그 이유는 대면면접 시 면접원이 조사대상자의 거주 지역으로 방문조사하기 때문이며, 정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된 리스트를 조사대상자의 실거주지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초기 리스트와 중복되거나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은 리스트 등을 제하였다. 이에 최종 정제된 1,198개의 리스트를 확보하였다.

표 IV-7 거주지 기준 정제 리스트 현황

거주지역	리스트 수(명)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서울	25	47	72
부산	44	287	331
대구	7	21	28
대전	6	41	47
인천	13	20	33
광주	14	22	36
울산	2	18	20
경기	43	66	109
강원	2	16	18
충북	5	28	33
충남	5	42	47
전북	6	12	18
전남	13	40	53
경북	53	85	138
경남	56	135	191
제주	6	18	24
합 계	300	898	1,198

2) 면접원 교육 및 조사 홍보

(1) 면접원 교육

면접원 교육은 6월 25일~27일까지 집체교육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동이 어려운 제주지역은 담당 연구원이 방문하여 7월 26일에 별도로 교육하였다.

표 IV-8 지역별 면접원 교육일정

교육일	교육장소	대상지역	교육내용
6월 25일(화)	서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조사개요 - 청소년상담전문가 특강 - 인포시트 및 설문지 교육 - 면접원 설문 현황 입력 프로그램 교육 - 질의응답
6월 26일(수)	대전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6월 27일(목)	대구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2) 조사 팸플릿 및 보호관찰 청소년 조사 안내문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조사를 위해 팸플릿을 작성하여 활용하였다. 팸플릿에 들어가는 내용은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일정, 홈페이지, 조사담당자 연락처, 조사 주관기관 소개, 조사 참여자의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안내 등이다.

보호관찰 청소년 패널의 경우 일반 청소년과 별도로 조사가 진행되는데, 면접원이 아닌 해당 보호관찰소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조사가 진행된다. 이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조사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조사 안내문은 조사에 대한 기본정보와 보호관찰관이 실사를 진행할 때의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한국리서치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중단 조사 2013 패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통계를 준수합니다.

본 조사가 생산된 내용은 중립적인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개인의 비밀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계법에 의해 보호되며 보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0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한다.

1. 위법행위 수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관리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에 보조하여 관리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1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 제31조 제1항은 법 제 18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개인정보처리자에게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상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 (개인정보의 제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통제되는 정보)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2항제1항 단서 내의 다른 사항이 법제정목적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상당 이유에 의하여 직접 법정책임자의 상당한명령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③ 동등성, 투명성, 목적 제한, 최소화, 정확성, 신뢰성, 책임성, 투명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업무, 업무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정책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할 때에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통계법 제30조 (개인정보의 사용 및 보존 등)

제30조 (통계작성자의 책임) 통계작성자는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처리한 정보를 통계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통계작성에 대하여 상당한 명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통계작성 목적) 통계작성자는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처리한 정보를 통계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통계작성에 대하여 상당한 명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통계작성 목적) 통계작성자는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처리한 정보를 통계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통계작성에 대하여 상당한 명의를 관리하여야 한다.

Panel Study of School Dropouts in Korea 2013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중단 조사 2013

《학업중단 청소년 생활실태조사》는 2012년 7월 ~ 2013년 9월 사이에 전국 정규 중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2013년 9월 20일부터 2014년까지 2년간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생활 및 인식, 자기의 미래에 대한 생각과 희망을 수집하여 작성한다.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의사태를 추적하는 중단의 조사이다. 이를 통해 학교 및 청소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조사의 목표이다.

조사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이희진 (www.kyrc.or.kr)
조사문의 전화: 02-2188-8804
조사문의 E-mail: kyrc@kyrc.or.kr

조사 대행기관

Hankook Research
총괄책임자: 이희진 (www.hrc.co.kr)
조사문의 전화: 02-3014-0097 / 1016
조사문의 E-mail: hrc@hrc.co.kr
panel@hrc.co.kr

【그림 IV-1】 조사 팸플릿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인식에 대한 중단조사 2013 보호관찰 대상자 조사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리서치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조사인 만큼
조사의 중요성을 생각하시어 보호관찰소 담당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목적 :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출함
- 조사방법 :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조사 의향을 확인한 후, 조사 대상자가 자기기입식으로 설문 진행
- 조사기간 : 2013년 6월 ~ 8월

조사 대상자 필수 안내사항

보호관찰소 담당자께서는 아래의 항목을 조사대상자에게 필히 안내해주셔야 합니다.

1. 본 조사는 **패널조사**로써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매년 1회씩 시행됩니다.
2.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한국리서치 담당자가 개별 연락을 드려 조사를 진행합니다.
3.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패널 관리를 위해 한국리서치에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4. 조사 완료 후, 설문지 및 관련자료에 나와있는 조사 홈페이지 가입을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5. 설문 진행 시 아래의 사항을 필히 안내해주셔야 합니다.
 - ① 본 설문지 22페이지 (응답자 정보) 반드시 기재하도록 안내
 - ② 설문 문항 중 대상자가 누락하는 문항이 없도록 안내
 - ③ 이동 문항(예: 문3으로 이동)을 대상자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
 - ④ 설문지의 필독 및 굵은 글씨에 유의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안내

보호관찰소 담당자 필수 수행 사항

보호관찰소 담당자께서는 설문 진행 시 아래의 사항을 필히 수행해주셔야 합니다.

1. 조사대상자에게 **패널통의서 서명** 받기
2. 본 설문지 첫 페이지의 (기본 정보)란 직접 작성
3. 필히 **보호관찰** 관련 설문 직접 작성
4. 설문 종료 후, 조사대상자의 **상물권 수령확인 서명** 받기

조사담당자 연락처

윤철경 박사 (02-2188-8804)

KIC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영실 박사 (02-3460-5122)

Hankook Research

장희숙 팀장 (02-3014-0120)
박선경 대리 (02-3014-1016)

【그림 IV-2】 보호관찰 대상자 조사 안내문

조사설계 4장

(3) 홈페이지

홈페이지(<http://sdp.hrcglobal.com>)의 내용은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일정, 조사방법, 공지사항 및 질문답변 게시판, 회원가입 및 이벤트 안내이다.



【그림 IV-3】 홈페이지 메인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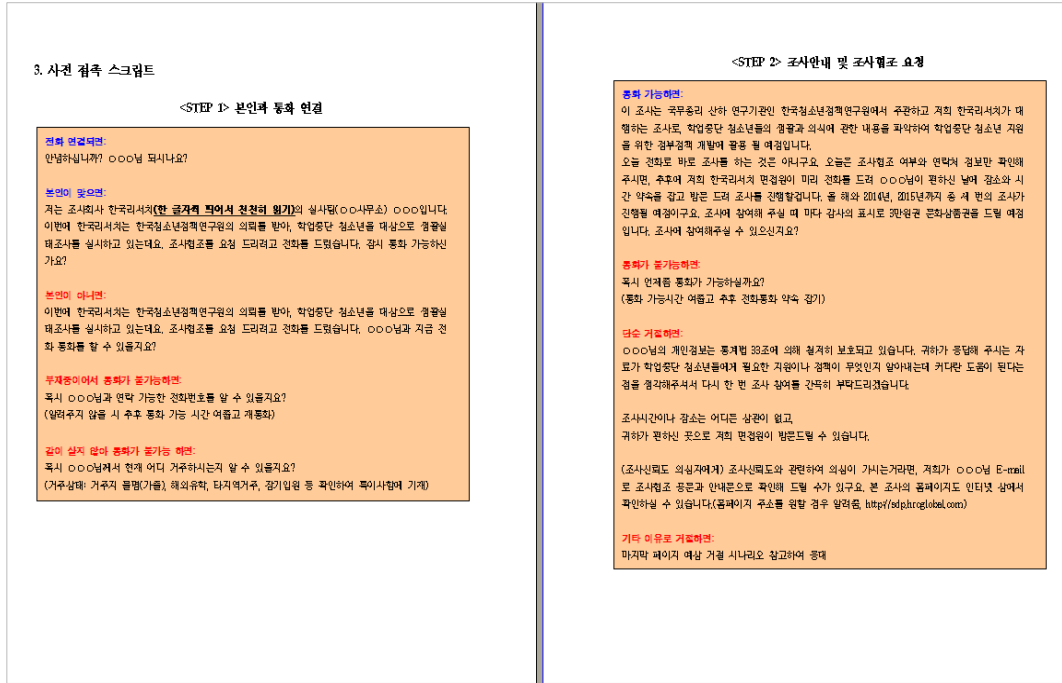
3) 사전 접촉

(1) 접촉 방법

대면면접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본 조사에 대한 안내와 협조를 요청하는 사전 전화 접촉을 실시하였으며, 휴대전화에 있는 리스트에 대해서 SMS로 먼저 공지한 후 전화 통화를 시도하여 접촉 성공률을 높였다. 사전접촉 시 조사 협조 의사를 밝힌 리스트에 한해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접촉 시에는 조사담당자가 다르더라도 표준화된 내용을 질문하고, 문의사항에 대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리서치 담당 연구원이 접촉 스크립트를 공유하고 해당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림 IV-4] 사전 접촉 스크립트

(2) 접촉 일정

새 학년이 시작되거나 여름방학이 끝날 때 학업중단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자 리스트를 한 번에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사를 2회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최초 전화 접촉과 대면면접조사의 시간차가 지나치게 길 경우에 응답자가 조사에 대한 관심을 잃을 수 있으므로 사전접촉은 대면면접조사 실시 1~2주 전에 진행하도록 하였다.

2013년 6월까지의 조사대상자는 대면면접조사가 시작되는 7월 1일 해당 주로부터 2주 전인 6월 17일 해당 주부터 접촉을 시작하여 약 1개월 간 사전접촉을 진행하였다. 2013년 7월~9월까지의 조사대상자는 10월 첫 주부터 사전접촉을 시작하고, 10월 둘째 주부터 사전접촉이 완료되는 순서대로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3) 사전 접촉 결과

사전 접촉 결과 리스트 총 1,305명¹⁴⁾ 중 조사협조자는 601명(46.1%)으로 해당 리스트를 대면면접조사 대상자로 설정하였다. 그 외 접촉 결과, 부재중 519명(39.8%), 통화 약속 22명(1.7%), 조사 단순 거절 66명(5.1%), 강력 거절 25명(1.9%), 조사 불가 58명(4.4%), 조사대상이 아닌 14명(1.1%)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V-9>참조).

접촉결과 ‘부재중’은 수신호는 있으나 받지 않거나, 결번으로 추측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며, ‘통화 약속’은 조사대상자의 사정으로 접촉 시점에 통화를 할 수 없어서 추후 재통화를 약속한 경우이다. 조사거절은 ‘단순거절’과 ‘강력거절’로 임의 구분하여, 강력 거절자는 추가 접촉 없는 탈락 리스트로 확정하고, 단순 거절자는 재접촉 및 설득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조사불가’는 유학, 군 입대 등이 사유로 패널 활용이 어려운 경우이며, ‘조사대상 아님’은 학업중단 경험이 없거나, 연락처가 맞지 않는 타인인 경우이다.

표 IV-9 **사전 접촉 결과**

	조사협조	부재	통화약속	단순거절	강력거절	조사불가	조사대상 아님	전체
1차	429명 (45.7%)	366명 (39.0%)	17명 (1.8%)	48명 (5.1%)	23명 (2.4%)	43명 (4.6%)	13명 (1.4%)	939명
2차	172명 (47.0%)	153명 (41.8%)	5명 (1.4%)	18명 (4.9%)	2명 (0.5%)	15명 (4.1%)	1명 (0.3%)	366명
합계	601명 (46.1%)	519명 (39.8%)	22명 (1.7%)	66명 (5.1%)	25명 (1.9%)	58명 (4.4%)	14명 (1.1%)	1,305명

4) 실사

(1) 실사 진행방법

본 패널과 비교집단 패널은 패널 특성상 각기 다른 방법으로 실사가 진행되었으며, 본 패널

14) 사전접촉 리스트가 앞서 개별 리스트 정제 전 1,266명 및 거주지 기준 정제 후 리스트 1,198명과 오차가 생긴 이유는 사전접촉 시 개별 명부인 스노우볼링 리스트 107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실사는 리스트를 활용한 일대일 대면면접조사를, 비교집단 패널 실사는 보호관찰소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회수하는 우편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패널에 대한 대면면접조사는 사전교육을 받은 면접원이 사전 연락을 취하고 조사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일대일 대면면접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는 형태이다. 조사 수행을 위해 면접원에게 사전 제공된 인포시트는 조사대상 리스트 정보 및 사전접촉 결과, 조사대상자 접촉 상황과 결과를 기록하기 위한 자료로 상세내용은 <표 IV-10>과 같다.

표 IV-10 인포시트 내용

구분	내용
조사대상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 및 본인여부 - 성별 및 연령 - 학업중단 학교 - 학업중단 시점 - 사전접촉 시 특이사항(주로 하는 일 등)
연락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휴대전화번호 - 집 전화번호 - 아버지/어머니 휴대전화번호 - 친한 친구 휴대전화번호 - 집 주소 - 이메일 주소
접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자 접촉상황 - 조사 시 응답자 태도

2013년도 종단연구는 패널 구축이 주요 목적이므로 설문지와 함께 패널 참여 동의서를 배포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내용 및 조사기간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패널 동의서는 조사대상자가 향후 3년간 유지되는 패널로 본 조사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사 완료 후 면접원이 조사대상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달하였으며, 추후 패널이 답례품 미수령으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패널 관리의 차원에서 조사대상자가 상품권을 수령하였음을 서명한 상품권 수령확인증을 작성하였다. 패널 동의서와 상품권 수령확인증은 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분실되지 않도록 설문지 마지막 장에 추가하였다.

비교집단 패널에 대한 실사는 우편조사로 진행하였다. 우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보호관찰소에 접촉하여 조사 참여에 동의한 보호관찰소 리스트를 수합하고, 조사대상 보호관찰소를 선정하였다. 이후 한국리서치가 해당 보호관찰소에 설문지 등 조사 자료를 우편으로 전달하고, 조사 완료된 설문지는 다시 우편으로 회수하도록 하였다.

보호관찰소 내 실사는 외부 면접원이 아닌 보호관찰관 담당으로 진행되었다.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전달하고, 조사대상자는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응답내용의 비밀보장을 위해 설문지 작성 후 A4 봉투에 설문지를 넣어 밀봉하도록 하였다. 한편, 분실방지를 위해 조사대상자별 설문지를 보호관찰관 설문과 함께 A3 봉투에 동봉하여 회수하였다. 전문 면접원이 직접 방문 조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사 지침 전달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보호관찰관용 조사안내문을 추가로 배포하였다.

(2) 실사 관리

내부 실사관리는 한국리서치 자체개발 매니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매니저 프로그램은 ① 면접원이 배당 받은 리스트에 대한 진행상황을 각각 입력하는 기능, ② 면접원별 데이터를 취합하여 전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기능, ③ 이관 및 검증상황을 공유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매니저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실사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문제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조사가 부진한 지역에 대하여 면접원 추가 투입, 재교육 등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담당 연구원과 여러 지역의 실사, 검증 담당자가 별도의 연락 없이도 진행상황 전체를 공유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실사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다.

신문입력

배부수 : 19부 진행상황 입력수 : 0부 진행상황 미입력수 : 19부 진행상황 입력비율 : 0%

입력여부 선택 미관여부 선택 정황조건 선택 검색조건 조건 검색

no	응답자 PID	성명	방문주소	유대전화번호	접전화번호	배부일	조사성황	응답거절유형	조사불가사유	저장
			특이사항	입력일	미관하기	미관취소				
1	T1111	패널1	경기 안양시동안구 호계1동 test	010-111-1111	02-111-1111	2013-05-29	선택	선택	선택	저장
2	T1112	패널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mbc에산다KBS에산다KBS에산다KBS에산다	010-000-0000	02-3014-9999	2013-05-29	선택	선택	선택	저장
3	T1113	패널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mbc에산다	010-010-0012	02-3014-9999	2013-05-30	선택	선택	선택	저장
4	T1114	패널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mbc에산다	010-010-0013	02-3014-9999	2013-05-30	선택	선택	선택	저장
5	T1115	패널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mbc에산다	010-010-0014	02-3014-9999	2013-05-30	선택	선택	선택	저장

1 / 2

【그림 IV-5】 매니저 프로그램: 면접원 입력 페이지

국무총리실 Manager - 지역별 진행상황

인포시트 지역별 진행상황 패널별 진행상황표 배부 미관 검증이관

새로고침 Excel로 저장

	성공건수	개인										기관													
		건수	배부	성공	비성공	완료	부재중	조사거절	강력거절	조사불가	검진	조사역숙	진행중	보호관찰 성공	성당역지 성공	적원유관 성공	자활 성공	강정고시 성공							
사무소별	서울사무소	404	78	0	0	0	0	0	0	0	0	0	0	11	270	4	21	1	29	0	0	3	64		
	부산사무소	161	160	160	116	94	192	11	9	9	1	2	2	0	0	0	3	27	0	0	1	7	1	29	
	대구사무소	91	72	72	62	9	71	4	1	2	0	0	2	0	0	0	0	0	0	0	0	0	0	1	29
	대전사무소	87	69	69	64	5	69	5	0	0	0	0	0	0	0	0	2	21	1	2	0	0	0	0	
	광주사무소	74	48	48	36	9	48	7	0	0	0	2	0	0	0	0	1	13	1	7	0	0	1	15	
지역별	서울	389	18	0	0	0	0	0	0	0	0	0	0	11	270	2	6	1	29	0	0	3	64		
	부산	130	95	95	81	14	95	4	6	2	1	0	1	0	0	0	2	13	0	0	1	7	1	29	
	대구	46	21	21	17	4	21	1	0	2	0	0	1	0	0	0	0	0	0	0	0	0	0	1	29
	대전	49	35	35	33	2	35	2	0	0	0	0	0	0	0	0	1	16	0	0	0	0	0	0	
	인천	0	1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광주	36	27	27	21	6	27	4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1	15
	울산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	8	34	0	0	0	0	0	0	0	0	0	0	0	0	0	1	8	0	0	0	0	0	0	0
	강원	7	7	0	0	0	0	0	0	0	0	0	0	0	0	0	1	7	0	0	0	0	0	0	0
	충북	15	17	17	15	2	17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충남	23	17	17	16	1	17	1	0	0	0	0	0	0	0	0	1	5	1	2	0	0	0	0	0
	전북	22	9	9	9	0	9	0	0	0	0	0	0	0	0	0	1	13	0	0	0	0	0	0	0
	전남	16	12	12	9	3	12	3	0	0	0	0	0	0	0	0	0	1	7	0	0	0	0	0	0
	경북	45	51	51	45	5	50	3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경남	51	64	64	37	20	57	7	3	7	0	2	1	0	0	0	1	14	0	0	0	0	0	0	0
제주	0	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837	429	349	293	57	340	27	10	11	1	4	4	0	11	270	10	82	3	38	1	7	6	157		

【그림 IV-6】 매니저 프로그램: 전체 조사 진행상황 확인 페이지

실사 진행상황은 담당 연구진에게 주 1회 보고하도록 하며, 조사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시 문의하여 문제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분	개인													기관				전체 성공
	리스트 전체	사전질속 조사완료 전체	배부	성공 (조사완료)	비성공								상담 성공	직업 성공	학업 성공	기관 전체 성공		
					부재중	조사거절	강력거절	조사불가	결번	조사약속	진행중							
응답자 수	930명	378명	306명	227명	62명	21명	9명	5명	1명	4명	22명	-	6명	31명	159명	196명	423명	
일반	목표제일 600명 대비 비율			37.8%													32.7%	70.5%
	리스트 전체 대비 비율		40.6%	32.9%	24.4%	6.7%	2.3%	1.0%	0.5%	0.1%	0.4%	2.4%	-					
	사전질속 조사완료 대비 비율			81.0%	60.1%	16.4%	5.6%	2.4%	1.3%	0.3%	1.1%	5.8%	-					
	배부 대비 비율				74.2%	20.3%	6.9%	2.9%	1.6%	0.3%	1.3%	7.2%	-					

구분	성공 (조사완료)
응답자 수	168명
목표제일 200명 대비 비율	84.0%

[그림 IV-7] 실사 진행상황 보고자료 예시

(3) 면접원 관리

면접원 관리방안은 일일 통제시스템, 주간 통제시스템, 면접원 간담회, 조사실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일 통제시스템은 슈퍼바이저에 의한 면접원 1일 조사활동 관리로서 다음 항목을 일별로 통제하였다. 통제된 내용은 조사 진행상황(배부, 완료, 회수), 조사대상별 진행상황(진행 중, 완료, 조사 약속 등), 조사 진행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면접원 근태, 검증결과에 대한 통보 및 주의당부 등이다.

둘째, 주간 통제시스템은 연구부와 슈퍼바이저에 의한 면접원별 주간 조사활동 관리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면접원별 주간 진행상황을 통제하고 면접원이 한 주에 할 수 있는 부수에 과도하게 못 미치거나 많이 진행한 경우에 조사 진행을 독려하거나, 과도한 진행 이유를 파악하여 조사 전반 진행상황을 조정하고 조사의 질을 확보하였다. 슈퍼바이저와 면접원이 본사 또는 지방사무소(경우에 따라 조사현장지역의 특정 장소)에서 만나 에러 유형에 대한 교육을 주 1회 정도 실시하였다.

셋째, 격주 단위로 조사 연구원 및 슈퍼바이저와 면접원이 직접 만나 조사 진행상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면접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연구부에서는 면접원 간담회에 논의 내용 관련 지침을 정리하여 면접원에게 전달하였다.

넷째, 조사 진행 건수에 따라 면접원에게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면접원의 지속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조사수행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5) 패널 추가 수집

최초 조사설계 시 본 연구에서 필요로하는 패널 리스트 수가 부족하였으므로, 기존에 수집된 개별 리스트 외에 학업중단자 관련 기관 접촉 및 스노우볼링 방법을 활용하여 추가 패널을 구축하였다.

기관 접촉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에 연락하여 조사대상자 유무를 확인한 후 면접원이 해당 기관을 방문, 갱 서베이(Gang Survey)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기관유형에 따라 패널 성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관유형을 3가지로 나누어 유형별 패널 수를 통제하도록 하였다.

표 IV-11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기관 유형별 현황

구분	해당 기관명	기관 수
상담기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
직업훈련 / 자활기관	취업사관학교	6
	직업전문학교	116
	전국 청소년자활지원관	27
학업지원기관	검정고시학원	81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70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한국리서치 소속 면접원이 조사대상자가 센터 내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 방문하여 해당 기관에서 실사를 진행하였다. 취업사관학교에서는 조사대상자로 구성된 1개 학급을 섭외하여 수업시간 중 1시간 정도를 할애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직업전문학교 기관 수는 가장 많으나,

성인만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수강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수강생이 없는 곳이 있으므로 해당 조사대상자 유무를 확인하는데 집중하였으며, 실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동일한 형태로 진행하였다. 검정고시학원은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한양학원에 접촉하여 서울 3개 지점(신도림점, 잠실점, 충무로점), 광주, 대구, 부산 각 1개 지점(금남로점, 중앙로점, 서면점), 총 6개 지점의 협조를 받아 조사하였다. 학원의 정규수업이 끝난 후 조사대상자를 한 교실에 모이도록 하여 실사를 진행하였다.

일대일 대면면접조사 대비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운 갱 서베이(Gang Survey)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관방문 전 조사대상 인원을 확인하여 적절한 수의 면접원을 투입하였다. 특히 한 번에 모이는 조사대상 인원이 많은 취업사관학교와 검정고시학원에는 4~6명의 면접원을 배치하여 조사대상자가 궁금 사항에 대해 확인하면서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스노우볼링(눈덩이표집) 방법으로 개별적인 조사대상자를 추가 확보하였다. 조사대상자 모집을 위해 ① 전국 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조사 팝업창 게시, ② 구인/구직 사이트에 연구대상 아르바이트 모집공고 게재, ③ 이미 구축된 패널을 통한 소개의 3가지 경로를 이용하였다.

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조사 팝업창을 게시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각 상담복지센터에 조사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한국리서치에서 총 50개 기관에 전화 접촉을 시도하여 36개 기관(72.0%)의 협조동의를 받았다. 팝업창이 없는 경우에는 공지사항 등의 게시판에 모집 내용을 게시하였다. 센터는 기관 내부 의사결정 시간이 필요하기에 최초 접촉 후 최종 협조까지 약 2~4주 가량 조사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림 IV-8】 상담센터 조사대상자 모집 팝업창 예시

한편, 2012년도 예비조사 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는 조사결과에 착안하여, 알바몬과 알바천국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 아르바이트 모집 형태로 연구 조사대상자 모집 공고를 게재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상세 모집내용	지원 및 담당자 정보	근무지 정보	회사정보
< 설문조사 대상자 모집 > - 모집대상: 1995년 3월 ~ 2001년 2월 출생이며, 중고등학교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 * 고등학교는 일반고 및 특성화고만 해당(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제외) * 현재 학교를 다시 다니고 있어도 중고등학교 시기 학업중단 경험이 1번 이상 있으면 참여 가능 - 사례금: 1회 조사(소요시간: 1시간 내외) 완료 시 문화상품권 30,000원 지급 단, 조사대상자 확인 및 설문지 응답 완료 후 지급 - 지원방법: (1) 조사 홈페이지 http://sdp.hrcglobal.com 에 접속 (2) '처음 조사 참여' 또는 '나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클릭 (3) 조사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입력 (4) 조사대상자로 확정되면 (주)한국리서치 면접원이 연락하여 약속을 잡고 1대 1로 만나서 설문조사 진행 (지역 무관) - 지원결과안내: 개별안내 - 담당자: (주)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 박선경 대리(02-3014-1016) 여론조사부 박종경 연구원(02-3014-0988)			

【그림 IV-9】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예시

6) 데이터 처리 및 검증

(1) 데이터 검증 및 입력

조사 자료의 검증은 면접원 검증, 슈퍼바이저 검증, 전화 검증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면접원 검증은 실사를 담당할 면접원이 설문완료 후 설문 로직, 누락 설문문항 등에 대한 직접 확인으로 이루어진다. 면접원 검증을 마친 설문지는 슈퍼바이저의 검증을 거친다. 설문 로직, 누락 설문문항 등을 재확인하고 재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였다. 담당 연구원은 리뷰가이드(review guide)를 배포하여 면접원 및 슈퍼바이저의 검증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인식에 대한 종단 조사 2013 리뷰 가이드				
페이지	일반항 부분	보조관찰항 부분	주요확인 사항	세부 내용
<p>세부 내용의 문번호 일반용 문번호입니다. 혼용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시) "문6 '재학 중 성적'을 불성실(장난) 응답하는 경우 있음" -> 보조관찰용에서는 문5임.</p> <p>* 특학한 학교에 정규학교를 제외한 미인가 대안학교, 특수학교, 직업훈련학교 등은 제외됩니다. (주후 확인 및 수정 필요)</p> <p>*** 전체적으로 오른 문항들을 주의하여 리뷰해 주십시오. 본인 출생년월, 학업중단 년월, 친구 수, 아르바이트 시간, 급여, 근무 일수, 이사 횟수 등을 확인하여 이상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응답자 글씨체가 양호하지 않아, 응답자 정보가 오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메일 주소(스/대문자, 숫자/알파벳 여부)를 신경써서 확인 바랍니다.</p> <p>***** 실수로 누락한 문항이 아닌, 페이지 단위 등으로 전체적으로 고의적 누락이 있는 응답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확인 하여 누락 문항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p> <p>***** 매트릭스(척도) 문항이 다수 있습니다.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p> <p>각 문항에 대한 리뷰 주의사항 및 한글 파일로 드린 지침에 따라 반드시 100% 리뷰를 진행해 주십시오.</p>				
표지	성년월	성년월	성년월	1) 년도는 94-02 만 응답가능 2) 월은 01-12 만 응답가능
1	문1	없음	로직	문1=0일 시, 문8=0만 응답가능
1	문2 문2-1	문1 문1-1	중단 시기	문2-1의 응답값이 0일 시, 반드시 문 2의 응답값은 0이 되어야 함.
1	문3	문2	로직	1) 년도는 08-13 만 응답가능 2) 월은 01-12 만 응답가능
1	문4	문3	로직	1) 1순위, 2순위, 3순위 중복불가 2) 2순위 또는 3순위 '없음' = 99 응답 응답자 중, 문6 '재학 중 성적'을 불성실(장난) 응답하는 경우 있음.
1	문6	문5	학교 성질	문6= ㉠ '최상위권' 일 시, 문18의 보기2) '무단결학', 보기4) '숙제 안함', 보기5) '수업 배역'의 응답값을 참고하여 불성실(장난) 응답 여부를 판단함. 예시) 문18의 보기2) 4) 5) = ㉠ 또는 ㉡ 로 응답(학업 불성실)했는데, 문6= ㉠ '최상위권' 일 시 불성실 응답으로 간주하고 재확인
2	문7	문6	학업 중단 경험 횟수	1) 문7 응답값 0 기재 불가, 최소 1회 이상이어야 함. (학업중단을 한 경험이 있어야 적격 조사 대상자이므로) 2) 문7 응답값 2 이상 일 시 문8=㉠, ㉡만 응답가능 (응답값 2 이상은, 학업 중단용 하고, 복학 후 다시 학업 중단을 했다는 뜻임)
2	문8-1	문7-1	로직	1) 년도는 00-13 만 응답가능 2) 월은 01-12 만 응답가능 3) 학교급 선택 후, 학년은 1-3만 응답가능
2	문8-2	문7-2	로직	1) 0년 0개월 응답불가 2) 년은 0-5 만 응답가능 3) 개월은 0-11 만 응답가능 (12개월 이상은 X년 XX개월로 환산하여 기재)

【그림 IV-11】 리뷰가이드(Review Guide) 예시

전화 검증은 완료 설문지의 30%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한국리서치 전문 검증팀이 담당하였다. 본 연구조사는 패널조사의 특성 상 연락처 변경 확인과 데이터 클리닝 중 재조사를 위한 접촉이 잦기 때문에 응답자의 거부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증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였다.

표 IV-13 **전화 검증 항목**

순번	검증 항목
1	본인이 직접 또는 면접원을 만나서 조사를 진행했는지 여부
2	본 조사가 2015년까지 진행되는 3년 패널임을 안내 받았는지 여부
3	조사완료 후 문화상품권 3만원을 수령했는지 여부
4	연락처(전화번호)가 맞는지 사실여부(통화한 번호 외 1개 이상 추가 확인)

검증이 완료된 설문지의 입력은 자료입력 전문 프로그램인 Survey Craft를 활용하였다. 담당 연구원이 문항 내 및 문항 간 응답 에러 유형을 편치로직 리스트로 작성하여 배포하고, 작성된 에러 유형을 Survey Craft에 설정하여, 로직에 벗어난 응답은 입력이 불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하였다.

자료의 입력은 더블편치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2명의 자료입력원이 각각 응답값을 입력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더블편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1명의 자료입력원이 완료 설문지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응답값을 모두 입력하고 1차 설문지 내용을 데이터 서버에 저장한다. 이후 다른 1명의 자료입력원이 완료 설문지 응답값 입력을 반복하는데, 이때 1차 설문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넘어가지 않고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된다. 자료입력원은 설문지를 직접 확인하여 최종 데이터를 확정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인식에 대한 중단 조사 2013 - 편치로직 리스트		
* 내용의 문번은 일반용 설문 기준임		
* 보호관찰 범죄 설문은 변수명 앞에 'B' 붙이기		
일반용 문번	보호관찰용 문번	내용
생년월	생년월	1) 연도는 94~02 만 입력 가능 2) 월은 01~12 만 입력 가능
문2-1	문1-1	1) 문2=㉔, ㉕인 경우, 문2-1=㉔ 입력 불가
문3	문2	1) 연도는 00~13 만 입력 가능 2) 월은 01~12 만 입력 가능
문4	문3	1) 1순위, 2순위, 3순위 중복불가 2) 2순위, 3순위 = 99 '없음' 코드 추가 3) 1순위 99 '없음' 응답 불가
문5	문4	1) 문2-1=㉔인 경우만 문5=㉔ 입력 가능
문7	문6	1) '1' 이상 입력 가능
문8	문7	1) 문7=2 이상 응답 시, 문8 = ㉔, ㉕만 입력 가능 1) 문1=㉔ 인 경우, 문8=㉔ 입력
문8-1	문7-1	1) 연도는 00~13 만 입력 가능 2) 월은 01~12 만 입력 가능 3) 중/고등학교 선택 후, 학년은 1~3만 입력 가능
문8-2	문7-2	1) 0년 0개월 입력 불가 2) 년은 0~5 만 입력 가능 3) 개월은 0~11 만 입력 가능
문8-6	문7-6	1) 학교명: 학교급까지 입력 2) 시/도 시/군/구 읍/면/동 각각 입력 예: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문9	문8	1) 문9 = ㉔ 인 경우, 중복응답 불가
문20	문18	1) 무응답(각 항목 오른쪽에 X 표시) 및 없음 = 99 '해당없음' 입력
문21-2	문19-2	1) 보기 1) 근무 일 수는 0 초과 7 이하/소수점 한자리까지 입력 가능 2) 보기 2) 근무 시간:은 0 초과 24 이하 입력 가능 3) 보기 3) 시급은 1,000~100,000 사이만 입력 가능
문33	문29	1) '친한 친구 수' 오류값 0~100명 사이만 입력 가능
문33-1	문29-1	1) 문33-1은 문33보다 클 수 없음
문33-2	문29-2	1) 문33-2는 문33보다 클 수 없음

【그림 IV-12】 편치로직 리스트 예시

(2) 편칭검수

편칭이 끝난 데이터에 대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각 담당 연구진이 편칭검수를 진행하였다. 이는 설문지와 데이터에 입력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3차례에 걸쳐 제공된 데이터에 대한 편칭검수를 완료하였다. 보호관찰 청소년은 9월 16일부터 9월 18일 사이에 편칭검수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검수일정은 <표 IV-14>과 같다.

표 IV-14 편칭 검수 일정

구분	기간	검수 부수
1차 검수(일반 학업중단)	8월 7일, 8월 12~13일, 8월 29일	200부
2차 검수(일반 학업중단)	9월 2~6일	275부
3차 검수(보호관찰 학업중단)	9월 23일	150부
전 체		625부

(3) 전화 실사

담당 연구진은 편칭이 끝난 데이터를 무작위 추출하여 응답자와 면접원을 대상으로 8월 20일에 전화 실사를 진행하였다. 전화 실사 응답자는 패널 20명(전화 실사 당시 입력 데이터 200부 중 10% 목표)과 면접원 11명으로 전화 실사 시 확인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IV-15 전화 실사 항목

구분	순번	검증 항목
패널	1	본인이 직접 또는 면접원을 만나서 조사를 진행했는지 여부
	2	본 조사가 2015년까지 진행되는 3년 패널임을 안내 받았는지 여부
	3	조사완료 후 문화상품권 3만원을 수령했는지 여부
면접원	1	응답자의 설문작성 성실도
	2	실사 진행 과정(문자메시지 활용, 답례품 전달 등)
	3	실사 진행 시 애로사항

7) 데이터 클리닝

(1) 부적격 응답자 삭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781명은 리스트를 활용한 조사대상 응답자 555명, 기관을 통해 접촉한 조사대상 응답자 2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220명으로 최종

조사완료 데이터 응답자 수는 총 1,001명이다. 리스트 확보 세부 경로별로 구분하여 보면 <표 IV-16>과 같다.

표 IV-16 패널 확보 경로별 응답자 수 (최종 조사완료 기준)

구분		1차조사 데이터 처리분석 표본 수	1차조사 데이터 미포함 표본 수	2차조사 추가 표본 수	최종 조사완료 패널 수	
개별 명단	정규학교	192	50	107	349	
	스노우볼링	19	14	16	49	
	상담복지센터	60	97	-	157	
기관 접촉	직업	직업훈련기관	33	17	-	50
		자활지원관	4	3	-	7
	학업	검정고시학원	148	2	-	150
		대안교육기관	18	1	-	19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소계		474	184	123	781	
기관	보호관찰소	190	30	-	220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소계		190	30	-	220	
전 체		664	214	123	1,001	

최종 조사완료 데이터 총 1,001명 중 중복응답과 불성실 응답 패널을 부적격 패널 응답자로 정하고 데이터를 삭제하였다. 중복응답은 개인 리스트를 활용한 접촉과 추가 기관접촉을 병행하면서 발생한 조사대상 중복 응답자를 의미한다. 불성실 응답은 본 조사의 중요 변수 중 하나인 최근 학업중단 시기가 부정확한 케이스가 해당된다. 해당 케이스는 전화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최근 학업중단 시기를 회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패널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본 종단연구에 활용할 패널은 부적격 케이스 5명(중복응답 4명, 불성실 응답 1명)을 삭제한 후 <표 IV-17>과 같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776명,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220명, 총 996명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한편, 2013년도 연구 패널 확보의 어려움으로 2차례 실사가 지연 진행됨에 따라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1차조사 응답자 중 데이터 처리가 완료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474명,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190명의 조사 표본만을 분석하고 있다¹⁵⁾.

표 IV-17 **패널 확보 경로별 응답자 수 (부적격 응답자 삭제 기준)**

구분		1차조사 데이터 처리분석 표본 수	1차조사 데이터 미포함 표본 수	2차조사 추가 표본 수	최종 조사완료 패널 수	
개별 명단	정규학교	192	50	107	349	
	스노우볼링	19	14	16	49	
	상담복지센터	60	94	-	154	
기관 접촉	직업	직업훈련기관	33	17	-	50
		자활지원관	4	3	-	7
	학업	검정고시학원	148	-	-	148
		대안교육기관	18	1	-	19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소계		474	179	123	776	
기관	보호관찰소	190	30	-	220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소계		190	30	-	220	
전 체		664	209	123	996	

(2) 데이터 클리닝

데이터 클리닝 리스트를 기준으로 설문지 문항과 연동하여 일차적으로 재확인하였다. 정확한 코딩을 위하여 설문지 응답구조에 대한 이해교육, 조사표와 조사지침서의 일관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하였다. 이후 각각의 데이터 클리닝 로직 리스트에 해당하는 오류 케이스를 추출하고,

15) 본 연구보고서 제 5장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학생 청소년의 비교분석, 제 6장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교분석의 표본으로 1차 조사가 완료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474명,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190명의 패널을 활용하고 있음.

오류 문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진행하였다. 타당한 최종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하여 8월초와 9월초 2차례에 걸쳐 데이터 클리닝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학업중단 패널 데이터클리닝 리스트

* 불치 제외한 문항은 일반 설문지 기준임
유형 설명 1-1: 반드시 누락되어 할 오류 / 2- 그 외 오류

연번	구분	문항	유형	내용	내용
1	오류	모든 문항	2	기타 요문간 코딩 필요	기타 요문간 코딩 필요
2	PD 필터링 0~2 인 개인리스트	문3	1	리스트 정보와 설문지 응답일(생년) 이틀 학업중단 시기 불일치 시 예외 체크	리스트 정보와 설문지 응답일(생년) 이틀 학업중단 시기 불일치 시 예외 체크
3	선문	5Q4	1	조사대상자가 '중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이므로 생년이 95~01년 범위 외인 경우는 예외 체크	생 95~01 범위 외인 경우 예외 체크
2			생년이 94년 또는 00년인 경우는 재확인(해문생성으로 입력한 경우 틀어 있으므로 일부 가늠)	생 94, 00 입력한 경우 재확인	
1			태어난 달이 1월~12월이 아닌 경우 예외 체크	달 01~12 범위 외인 경우 예외 체크	
6	문1	문1	1	문1 형제 학업중단자 ① 학교를 그만 둔 상태이면서 문8 학업중단 이후 복학상황을 ② 형제 복학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한 경우 예외 체크	문1+1 -> 문8+2인 경우 예외 체크
7			1	문1 형제 학업중단자 응답이 ① 학교를 그만 두었다가 중학교로 복학한 상태 이면서 문8 학업중단 이후 복학상황이 ② 복학한 경향이 있다 또는 ③ 복학한 경향이 없다 인 경우 예외 체크	문1+2 -> 문8+1 or 3인 경우 예외 체크
8	문2	문2	1	문2 최근 학업중단시기가 ② 일하게 고등학교 때 또는 ③ 전문계 고등학교 때 이면서 문2-1 최근 학업중단학년이 ④ 중학교 졸업이후 진학하지 않음인 경우 예외 체크	문2+2 or 3 -> 문2-1+4인 경우 예외 체크
9	문3	문3	1	최근 학업중단시기가 2008년~2013년이 아닌 경우 예외 체크	생 08~13 범위 외인 경우 예외 체크
10			1	최근 학업중단시기가 1월~12월이 아닌 경우 예외 체크	달 01~12 범위 외인 경우 예외 체크
11			1	2013년에 학업중단한 경우 1월~7월만 응답 가능	13년 응답 시 월 응답 범위는 01~07월임
12	학업중단 현황	문4	1	문3 최근 학업중단시기가 문2-1 최근 학업중단시기보다 빠른 경우 예외 체크 (단, 문3 학업중단 횟수가 1회이던 최근 및 최초 학업중단시기 응답이 같을 수 있음)	문3 응답시기(최근)가 문2-1 응답시기(최초) 보다 빠른 경우 예외 체크
13			1	학교를 그만둔 이후 1순위와 2순위를 같은 것으로 응답하면 예외 체크	1순위와 2순위 동일 보기 응답인 경우 예외 체크
14			1	학교를 그만둔 이후 1순위와 3순위를 같은 것으로 응답하면 예외 체크	1순위와 3순위 동일 보기 응답인 경우 예외 체크
15			1	학교를 그만둔 이후 2순위와 3순위를 같은 것으로 응답하면 예외 체크	2순위와 3순위 동일 보기 응답인 경우 예외 체크
16			1	학교를 그만둔 이후 1순위 응답이 99, 요름/무응답 인 경우 예외 체크	1순위 = 99인 경우 예외 체크
17			1	학교를 그만둔 이후 2순위 응답이 99, 요름/무응답 인데 99, 요름/무응답이 아닌 3순위 응답이 있는 경우 예외 체크	2순위 = 99, 3순위 1~15 인 경우 예외 체크
18			1	문3 학교를 그만 둔 시점 형태가 ①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하기 이면서 문2-1 학업중단학년이 ② 중학교 졸업이후 진학하지 않음 이 아닌 경우 예외 체크	문5+4 -> 문2+1+4인 경우 예외 체크
19	문7	문7	2	문7 학업중단횟수가 0회 이거나 4회 이상인 경우 재확인	문7+0 or 문7+4인 경우 재확인
20			1	문7 학업중단횟수가 3회 이상 이면서 문8 학업중단 이후 복학상황이 ③ 복학한 경향이 없었다 인 경우 예외 체크 (학업중단횟수가 2회 이상이라면 복학상황이 최소한 1회는 있어야 함)	문7+2 -> 문8+3인 경우 예외 체크

【그림 IV-13】 데이터 클리닝 리스트

3. 패널관리

1) 패널관리 통합시스템

패널과 직접 관계를 형성하는 면접원의 관리, 원활한 실사 진행을 위한 실사 관리, 상시적인 패널관리 활동 등을 유기적이고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패널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였다.

표 IV-18 패널관리 통합시스템

구분	내용
실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지 배부, 회수, 이관 상황 점검 - 각 지역별 사무소간 설문지 이관 처리 - 일별, 주간별, 면접원별 등 실사 진행 상황 확인 및 출력 - 패널 정보검색 및 수정 / 패널별 특이사항 기록
면접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에 투입된 면접원 정보(성, 연령, 지역, 학력, 연락처 등) - 면접원별 조사대상 배부 및 회수 상황 확인점검 - 면접원의 면접 수행 실적 평가 - 조사 진행 시 특이사항 및 면접원별 특이사항 기록 - 신규 면접원 등록
패널정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적 패널관리 활동 지원 - 주소, 전화번호, E-mail 정보 검색 - 축하 카드 발송용 레이블 출력 - 패널 정보 변동 상황 업데이트 / 패널 정보의 수정 이력 관리 - 인포시트 출력 기능

2) 패널관리 방안

본 조사에서는 효율적인 패널관리와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패널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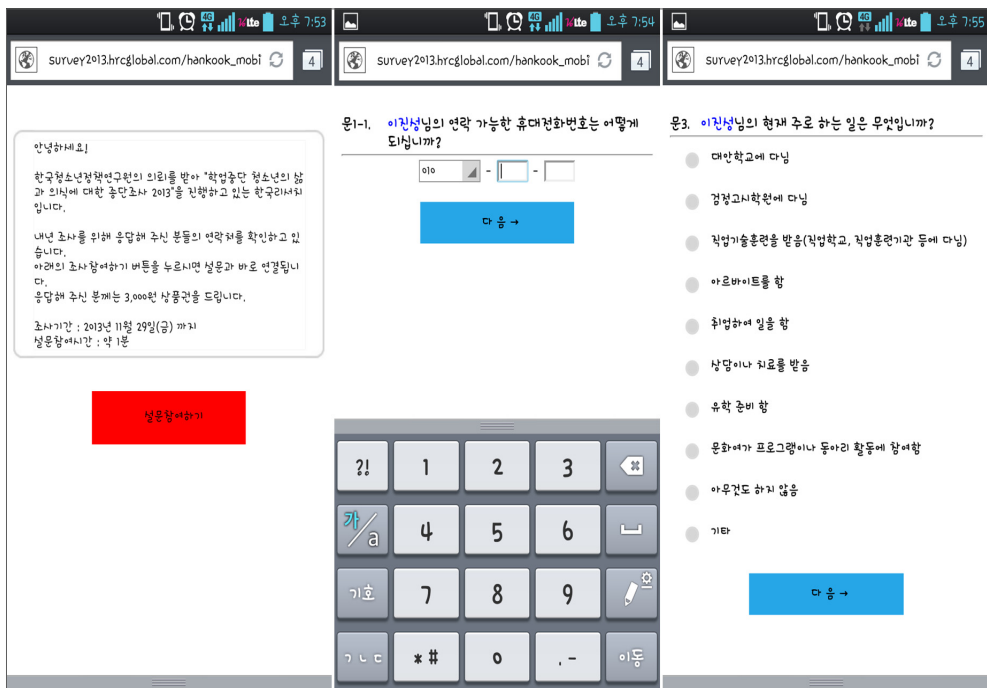
첫째, 라포 형성을 위해 면접원이 실사 및 패널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패널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가운데, 응답자를 직접 만나고 조사를 진행한 면접원이 패널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패널의 관리를 전담하도록 한다. 일대일 대면면접조사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지역 실사 사무소 팀장 및 수퍼바이저가 패널관리를 담당한다.

둘째, 패널 전용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하며, 한국리서치 연구원을 패널관리 전담으로 배치한다. 패널관리 전담 연구원은 경품이벤트 및 Q&A, 공지사항 전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는 3년간 진행되는 패널임을 감안할 때 외부 인력을 고용하는 것보다 안정적이고 라포 형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패널의 추적을 위해 주변인 연락처를 활용한다. 실사 시 패널 본인의 연락처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집, 친한 친구의 전화번호나 주소 등 주변인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 패널 추적을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2013년 실사 종료 2개월 후 그리고 2014년 실사 시작 1개월 전에 연락처 확인을 실시하여 연락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명절, 연말 등에는 감사 문자를 발송하여 패널과 꾸준한 연락을 이어나간다. 2013년 9월 추석경에는 해당 시점까지 조사가 완료된 패널 382명을 대상으로 추석인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013년 10월 3주부터 확정된 패널을 대상으로 연락처 변경 확인을 위한 이메일 활용 웹조사(CAWI), 휴대전화를 통한 웹조사(CAMI), 전화조사(CATI)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이 활발한 연령대인 만큼 휴대전화를 통한 웹조사(CAMI)에 중점을 두었다.



[그림 IV-14] 휴대전화를 통한 웹조사(CAMI) 예시

패널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면서 연락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 연락처를 모두 활용하여 접촉하였으며, 웹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패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여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모바일 상품권 지급 시 연락처 추가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는 접촉 가능한 연락처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표 IV-19 연락처 확인을 위한 패널 접촉 문항

구분	문항
연락처 확인	<p>문1. 000님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가 000-0000-0000가 맞습니까? 1. 맞음 → 문2 2. 틀림 → 문1-1</p> <p>문1-1. 000님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 _____ - _____</p> <p>문2. 000님의 연락 가능한 유선전화번호가 000-0000-0000가 맞습니까? 1. 맞음 → 문3 2. 틀림 → 문2-1</p> <p>문2-1. 000님의 연락 가능한 유선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 _____ - _____</p>
주로 하는 일 확인	<p>문3. 000님의 현재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1. 대안학교에 다님 2. 검정고시학원에 다님 3. 직업기술훈련을 받음(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 등에 다님) 4. 아르바이트를 함 5. 취업하여 일을 함 6. 상담이나 치료를 받음 7. 유학 준비 함 →문3-1 8. 문화여가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함 9. 아무것도 하지 않음 10. 기타(_____)</p> <p>문3-1. 유학 예정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월</p>

제 5 장

1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I :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1. 응답자의 특성
2. 학업중단 관련 실태
3.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학생 청소년 집단과의
비교결과
4. 학업중단 이후의 삶

제 5 장

1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I :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1. 응답자의 특성¹⁶⁾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¹⁷⁾,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전체 응답자 474명 중 남자는 274명으로 57.8%였고, 여자가 200명으로 42.2%를 차지하고 있어서 남자 학업중단 청소년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조사 당시 만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중학교 학령은 8.9%, 만 16세에서 18세 사이의 고등학교 학령이 대다수로 88.6%, 19세가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세인 경우는 고등학교시기에 학업을 중단한 후 18세가 넘어간 사례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가족구성 형태를 살펴보면,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3%로 가장 많았고, 한부모 가정은 28.1%, 부모 모두 안 계신다고 응답한 경우가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현상이 주로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 모두 안 계신 가정의 청소년에게서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을 나타낸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주관적 가정경제 수준에서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는 28.3%, 중간 정도가 39.5%, ‘잘 살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2.3%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졸 이하인 경우는 각각 60.5%, 63.4%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부모님 약 2/3 정도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의 학업중단 당시 주관적으로 느끼는 성적수준이 중상위권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23%, 중간 정도는 24.5%, 중하위권 이하로 답한 비율은 52.5%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학업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 이 장의 1절, 2절, 4절은 유성렬(백석대 교수), 3절은 김신영(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집필하였으며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수정·보완하였음.

16) 이 부분은 유성렬(백석대 교수)이 집필하였음.

1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장은 연구결과를 분석함에 있어 조사방법에 따른 집단특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시 보면, 47.5%의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당시의 성적이 중위권 이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학업중단은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국한된 현상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V-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 체		474	100.0
성별	남자	274	57.8
	여자	200	42.2
연령대	중학교 학령(만13-15세)	42	8.9
	고등학교 학령(만16-18세)	420	88.6
	19세	12	2.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286	60.3
	한 부모가정	133	28.1
	부모 모두 안계심	55	11.6
가정경제수준	상	134	28.3
	중	187	39.5
	하	153	32.3
부모학력(아버지)*	고졸 이하	234	60.5
	초대졸 이상	153	39.5
부모학력(어머니)*	고졸 이하	243	63.4
	초대졸 이상	140	36.6
학업성적	상	109	23.0
	중	116	24.5
	하	249	52.5
중학교 입학 이후 이사 횟수	없음	88	18.6
	1~5회	349	73.6
	6회 이상	37	7.7
현재 신분	학교를 그만 둔 상태	448	94.5
	학교를 그만 두었다가 복학한 상태	26	5.5

* 부모가 안 계신 경우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제외함.

조사 대상자들이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조사 시점까지 이사한 횟수를 살펴보면 전체의 18.6%는 이사한 경험이 없었으나, 73.6%는 최소 1~5회 정도 이사하였고, 6회 이상은 7.7%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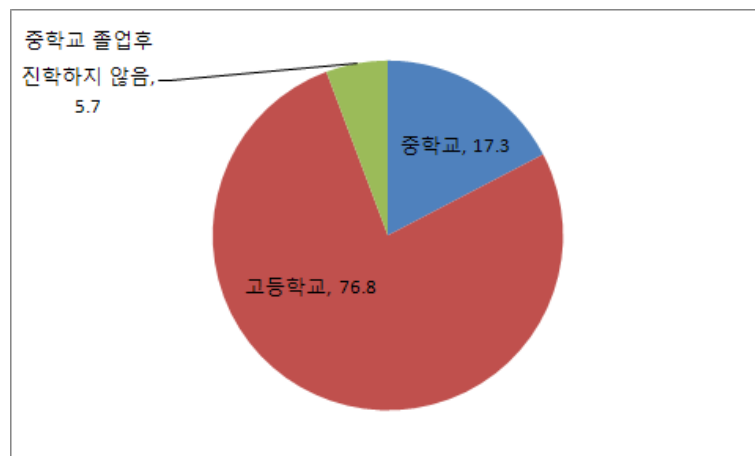
한편, 조사시점에 여전히 학교를 그만둔 상태인 청소년은 448명으로 전체 조사 응답자의 94.5%이며, 정규학교로 복학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업중단 관련 실태¹⁸⁾

1) 학업중단 시기

(1) 학업중단 시기

본 조사는 가장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학업중단 관련 경험에 대한 설문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학업중단 시기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17.3%가 중학교시기, 76.8%는 고등학교시기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중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는 5.7%에 해당한다.



【그림 V-1】 학업중단 시기 (단위: %)

18) 이 부분은 유성렬(백석대 교수)이 집필하였음.

<표 V-2>는 주요 배경변수별 학업중단 시기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 따른 학업중단 시기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연령대별로 보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포는 현 나이가 중고등학교 학령일 경우 1학년~3학년 시기를 모두 포함하므로 상급학년일수록 인원이 감소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급별 1학년은 특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시기인지라 비교적 높게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일 수도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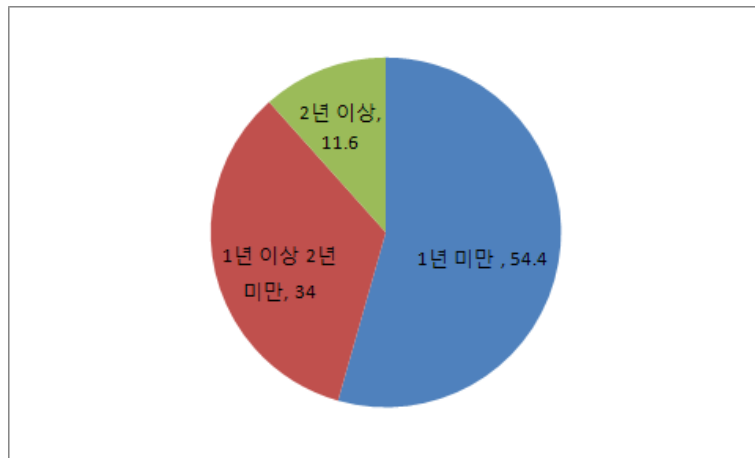
학교를 그만 둔 시기에 있어서 가족구성, 가정의 경제적 수준, 그리고 학업성적에 따른 분포는 연령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 학업중단 시기: 배경변수별 차이 (단위: %)

구 분	사례수 (명)	중등 1학년	중등 2학년	중등 3학년	중등 1학년	고등 2학년	고등 3학년	중학교 졸업 이후 미진학	계
전 체	474	5.9	4.6	6.8	48.5	26.2	2.3	5.7	100.0
성별									
남자	274	6.6	3.6	6.9	49.3	24.8	1.8	6.9	100.0
여자	200	5.0	6.0	6.5	47.5	28.0	3.0	4.0	100.0
연령대									
중학교 학령	42	42.9	33.3	14.3	4.8	0.0	0.0	4.8	100.0
고등학교 학령	420	2.4	1.9	6.2	53.8	28.1	1.9	5.7	100.0
19세	12	0.0	0.0	0.0	16.7	50.0	25.0	8.3	10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286	6.6	4.2	6.6	48.6	26.2	1.0	6.6	100.0
한부모가정	133	3.0	4.5	6.8	54.9	24.8	3.0	3.0	100.0
부모 모두 안계심	55	9.1	7.3	7.3	32.7	29.1	7.3	7.3	100.0
가정경제수준									
상	134	8.2	5.2	4.5	49.3	25.4	1.5	6.0	100.0
중	187	5.3	6.4	7.0	46.0	27.8	2.7	4.8	100.0
하	153	4.6	2.0	8.5	51.0	24.8	2.6	6.5	100.0
학업성적									
상	109	10.1	4.6	5.5	50.5	22.0	3.7	3.7	100.0
중	116	4.3	3.4	6.0	48.3	31.0	0.9	6.0	100.0
하	249	4.8	5.2	7.6	47.8	25.7	2.4	6.4	100.0

(2) 학업중단 기간

[그림 V-2]에서 본 조사에 참여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기간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에 학업을 중단한 이후 조사 시점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25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4.4%를 차지하고 있으며, 1년 이상 ~ 2년 미만이 34%, 그리고 2년 이상이 11.6%로 나타났다.



【그림 V-2】 학업중단 기간 (단위: %)

<표 V-3>에서 성별에 따른 학업중단 기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업중단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연령대에 따른 학업중단 기간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학업중단 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학업중단 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는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응답자의 연령을 적절히 통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일 수도 있으나, 실제 응답자의 연령과 학업중단 기간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만일 실제 연령과 학업중단 기간 간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이 된다면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V-3 학업중단 기간: 배경변수별 차이

(단위: %)

	사례수(명)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계
전 체	474	54.4	34.0	11.6	100.0
성별					
남자	274	51.1	34.3	14.6	100.0
여자	200	59.0	33.5	7.5	100.0
연령대					
중학교 학령(만13-15세)	42	50.0	40.5	9.5	100.0
고등학교 학령(만16-18세)	420	54.5	34.0	11.4	100.0
19세	12	66.7	8.3	25.0	10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286	51.4	37.4	11.2	100.0
한부모가정	133	59.4	28.6	12.0	100.0
부모 모두 안계심	55	58.2	29.1	12.7	100.0
가정경제수준					
상	134	55.2	32.1	12.7	100.0
중	187	53.5	37.4	9.1	100.0
하	153	54.9	31.4	13.7	100.0
학업성적					
상	109	56.9	31.2	11.9	100.0
중	116	56.0	32.8	11.2	100.0
하	249	52.6	35.7	11.6	100.0
학업중단 시점					
중학교때	109	33.9	33.0	33.0	100.0
고등학교때	365	60.5	34.2	5.2	100.0

학업중단 기간은 청소년들의 가족구성이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 그리고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학업중단 시점에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중학교시기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 학업중단 기간 차이가 별로 없으나, 고등학교시기의 학업중단은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조사대상자의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 학업중단 이유

본 조사에서는 학업을 중단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에 주어진 응답지 중에서 1순위 ~ 3순위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V-4>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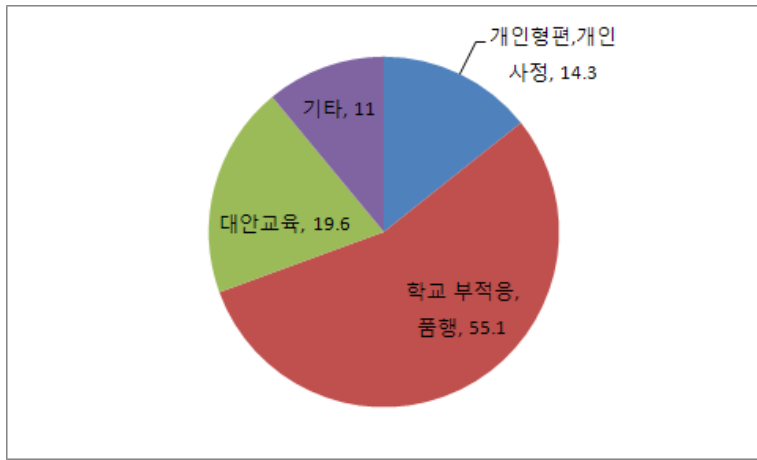
표 V-4 **학업중단 이유** (N=474명)

구분	응답유형	1순위		2순위		3순위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가정형편 /개인사정	건강상의 이유로	31	6.5	9	1.9	6	1.3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17	3.6	25	5.3	18	3.8
	가정불화 때문에	12	2.5	9	1.9	10	2.1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8	1.7	13	2.7	8	1.7
학교부적응 /품행문제	공부하기 싫어서	69	14.6	44	9.3	28	5.9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84	17.7	87	18.4	53	11.2
	친구들이 싫어서	20	4.2	19	4.0	15	3.2
	학교의 규칙이 엄해서	6	1.3	32	6.8	17	3.6
	학교를 그만둔 친구 따라 놀고 싶어서	7	1.5	15	3.2	10	2.1
	선생님이 싫어서	27	5.7	33	7.0	34	7.2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41	8.6	15	3.2	15	3.2
	비행으로 보호처분(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7	1.5	3	0.6	4	0.8
대안교육 선호	검정고시를 하려고	43	9.1	54	11.4	58	12.2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50	10.5	40	8.4	37	7.8
기타		52	11.0	7	1.5	8	1.7
모름/무응답		-	-	69	14.6	153	32.3

학업을 그만두게 된 이유 중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학교에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17.7%)’, ‘공부하기 싫어서(14.6%)’ 등의 학교요인(55.1%)이고, 다음은 ‘검정고시를 하려고’, ‘자신의 특기, 소질을 살리려고’ 등의 대안교육 선호(19.6%), 가정형편 등의 개인적 사정(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검정고시를 하려고’, ‘공부하기 싫어서’,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순위에서는 ‘검정고시를 하려고’,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는 1순위 ~ 3순위에서 각기 높은 응답빈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수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갖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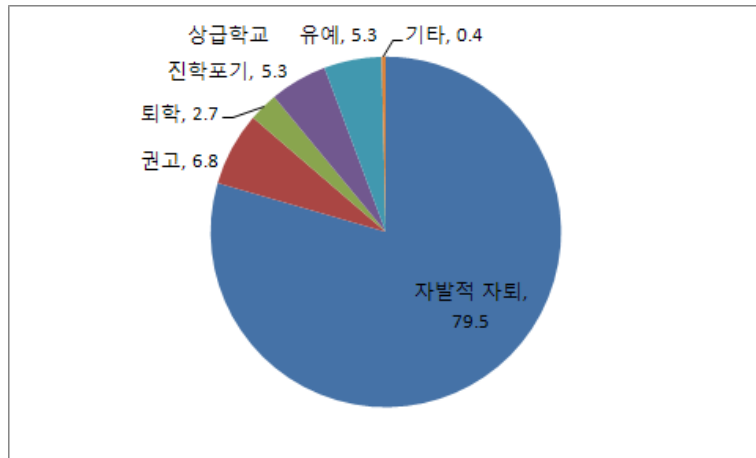
이처럼 학교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며, <표 V-4>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규학교를 통한 학업보다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자신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경우 또는 학교 선생님과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등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3】 학업중단 이유 (단위: %)

3) 학업중단의 행정처리 형태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대한 학교의 행정처리 형태를 살펴보면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 둔 경우가 79.5%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의 의지가 아닌 학교의 권고로 자퇴하는 경우가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학교로의 진학 포기는 5.3%, 징계로서 퇴학을 당한 경우는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4】 학업중단 행정처리 형태 (단위: %)

<표 V-5>에서 성별에 따른 학업중단의 행정처리 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에 따른 행정처리 형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39.511, p<.000$). 자발적 자퇴는 고등학교 학령기의 청소년에게서 가장 많았으며, 징계의 의미를 갖는 권고 자퇴나 퇴학도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학생이 퇴학처리 되는 것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기에 중학생 연령대는 고등학생 연령대와 다르게 유예를 받는 경우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업중단 시점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나는데, 중학교시기의 학업중단자는 주로 자발적 자퇴, 상급학교 진학 포기, 유예의 경우가 높은 반면, 고등학교시기의 학업중단자는 자발적 자퇴가 8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권고 자퇴와 퇴학은 각각 7.9%, 3.0%를 차지하고 있다.

학업중단의 행정처리 형태와 학업중단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정 형편 등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자발적 자퇴와 유예로 처리된 비율이 각각 80.2%, 7.0%인 반면, 학교 부적응이나 품행 문제로 인하여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는 권고 자퇴와 퇴학으로 처리됨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안교육을 원하는 등 제도적인 학교교육의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자퇴와 상급학교 진학포기로 처리되는 비율이 각각 83.5%, 12.2%로 다른 이유로 자퇴하는 경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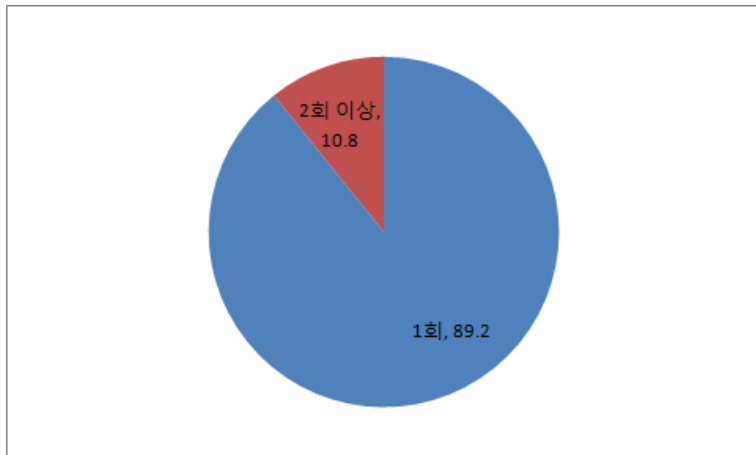
학업중단 행정처리 형태: 배경변수별 차이

(단위: %)

	사례수 (명)	자발적 자퇴	권고 자퇴	퇴학 (징계)	상급학교 진학포기	유예	기타
전 체	474	79.5	6.8	2.7	5.3	5.3	0.4
성별							
남자	274	76.6	8.0	3.6	6.6	5.1	0.0
여자	200	83.5	5.0	1.5	3.5	5.5	1.0
연령대							
중학교 학령(만13~15세)	42	64.3	4.8	0.0	7.1	21.4	2.4
고등학교 학령(만16~18세)	420	81.4	6.9	2.6	5.0	3.8	0.2
19세	12	66.7	8.3	16.7	8.3	0.0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286	80.1	6.6	2.8	6.3	3.5	0.7
한부모가정	133	80.5	6.8	3.0	3.0	6.8	0.0
부모 모두 안계심	55	74.5	7.3	1.8	5.5	10.9	0.0
가정경제수준							
상	134	84.3	6.0	3.7	5.2	0.7	0.0
중	187	78.1	7.5	3.2	5.3	5.3	0.5
하	153	77.1	6.5	1.3	5.2	9.2	0.7
학업성적							
상	109	85.3	5.5	2.8	4.6	0.9	0.9
중	116	82.8	5.2	2.6	5.2	4.3	0.0
하	249	75.5	8.0	2.8	5.6	7.6	0.4
학업중단 시점							
중학교때	109	50.5	2.8	1.8	22.9	21.1	0.9
고등학교때	365	88.2	7.9	3.0	0.0	0.5	0.3
학업중단 기간							
1년 미만	258	82.2	5.4	3.5	4.7	3.9	0.4
1년 이상~2년 미만	161	80.7	8.7	1.2	5.0	3.7	0.6
2년 이상	55	63.6	7.3	3.6	9.1	16.4	0.0
학업중단 사유							
가정형편 등 개인 사정으로	86	80.2	5.8	0.0	5.8	7.0	1.2
학교부적응/품행 문제로	273	77.7	8.8	4.8	2.2	6.2	0.4
대안교육을 원해서	115	83.5	2.6	0.0	12.2	1.7	0.0

4) 학업중단 횟수

[그림 V-5]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조사시점까지 응답자들의 학업중단 횟수를 살펴보면 1회가 전체의 89.2%, 2회 이상이 10.8%로 나타났다.



【그림 V-5】 학업중단 횟수 (단위: %)

<표 V-6>에서 성별, 연령대, 가족구성, 가정의 경제적 수준, 그리고 학업중단 당시의 학업성적 등에 따른 학업중단 횟수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학업중단 시점을 보면 중학교 때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보다 고등학교 때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경우에 학업중단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학업중단 시점 기준으로 응답한 것이기 아무래도 최근 학업중단 경험이 고등학교 때에 있는 경우, 최초 학업중단 경험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학업중단 경험이 고등학교 때인 청소년들 가운데 12.6%가 2회 이상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최근 학업중단이 중학교 때인 청소년들은 이 비율이 4.6%에 그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업중단 기간이 짧을수록 학업중단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들 중 최근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일수록 2회 이상의 중단자가 많음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분포상의 차이가 나타난 것에 대한 추후 분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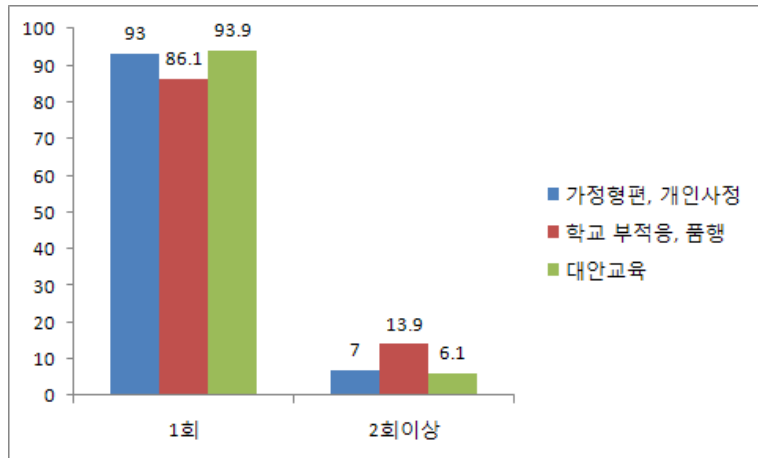
표 V-6 학업중단 횟수: 배경변수별 차이

(단위: %)

		사례수(명)	1회	2회 이상	계	χ^2
전 체		474	89.2	10.8	100.0	
성별	남자	274	87.2	12.8	100.0	2.744
	여자	200	92.0	8.0	100.0	
	연령대					
	중학교 학령(만13-15세)	42	92.9	7.1	100.0	3.107
	고등학교 학령(만16-18세)	420	89.3	10.7	100.0	
	19세	12	75.0	25.0	10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286	90.2	9.8	100.0	0.725
	한 부모가정	133	88.0	12.0	100.0	
	부모 모두 안 계심	55	87.3	12.7	100.0	
가정경제수준	상	134	88.8	11.2	100.0	1.824
	중	187	91.4	8.6	100.0	
	하	153	86.9	13.1	100.0	
학업성적	상	109	89.9	10.1	100.0	1.488
	중	116	86.2	13.8	100.0	
	하	249	90.4	9.6	100.0	
학업중단 시점	중학교 때	109	95.4	4.6	100.0	5.616*
	고등학교 때	365	87.4	12.6	100.0	
학업중단 기간	1년 미만	258	84.1	15.9	100.0	16.137***
	1년 이상~2년 미만	161	94.4	5.6	100.0	
	2년 이상	55	98.2	1.8	100.0	
학업중단 사유	가정 형편 등 개인 사정으로	86	93.0	7.0	100.0	6.735*
	학교 부적응 또는品行 문제로	273	86.1	13.9	100.0	
	대안교육을 원해서	115	93.9	6.1	100.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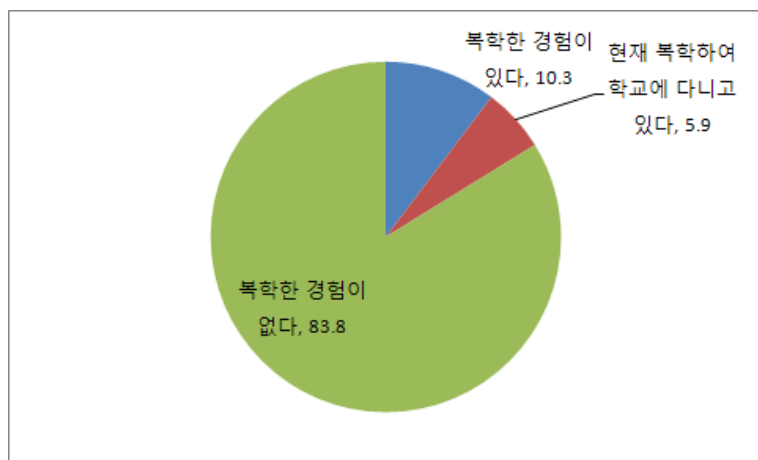
[그림 V-6]의 학업중단 사유에 따른 학업중단 횟수의 분포를 보면 학교부적응이나 품행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학업중단 경험이 2회 이상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자발적 자퇴보다는 권고자퇴나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할 시, 학업중단과 복교, 다시 학업중단 등의 과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V-6】 학업중단 사유에 따른 학업중단 횟수 (단위: %)

5) 학교 복귀 경험

[그림 V-7]을 보면 학업중단 이후 학교 복귀는 전체 응답자의 10.3%가 경험하였고, 5.9%는 현재 복학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으나 대다수인 83.8%는 복학 경험이 없었다.



【그림 V-7】 학교 복귀 경험 (단위: %)

표 V-7 학교 복귀 경험: 배경변수별 차이

(단위: %)

	사례수 (명)	복학 경험 있음	현재 복학, 학교 다님	복학 경험 없음	χ^2
전 체	474	10.3	5.9	83.8	
성별					
남자	274	12.4	6.9	80.7	4.599
여자	200	7.5	4.5	88.0	
연령대					
중학교 학령(만13-15세)	42	4.8	11.9	83.3	7.195
고등학교 학령(만16-18세)	420	10.5	5.2	84.3	
19세	12	25.0	8.3	66.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286	9.1	6.3	84.6	1.355
한 부모가정	133	12.0	5.3	82.7	
부모 모두 안 계심	55	12.7	5.5	81.8	
가정경제수준					
상	134	10.4	5.2	84.3	8.229
중	187	8.0	9.1	82.9	
하	153	13.1	2.6	84.3	
학업성적					
상	109	9.2	4.6	86.2	6.013
중	116	13.8	9.5	76.7	
하	249	9.2	4.8	85.9	
학업중단 시점					
중학교 때	109	3.7	5.5	90.8	6.972*
고등학교 때	365	12.3	6.0	81.6	
학업중단 기간					
1년 미만	258	15.1	3.9	81.0	17.808**
1년 이상~2년 미만	161	5.6	8.7	85.7	
2년 이상	55	1.8	7.3	90.9	
학업중단 사유					
가정 형편 등 개인 사정으로	86	5.8	7.0	87.2	7.301
학교 부적응 또는 품행 문제로	273	13.6	5.5	81.0	
대안교육을 원해서	115	6.1	6.1	87.8	

* p<.05, ** p<.01, *** p<.001

<표 V-7>의 학교 복귀 경험 배경변수별 차이에서 중학교시기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경우 9.2%가 복학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고등학교시기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18.3%가 복학 경험이 있거나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학업중단 경험이 고등학교 때인 청소년들 중에는 그 이전에 학업중단과 복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업중단 기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업중단이 길수록 학교에 복귀하는 경우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업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교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학업중단 후 빠른 시간 내에 복교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6) 최초 학업중단 관련 경험

본 조사에서는 학업중단 이후 복학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복학하여 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응답한 77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최초의 학업중단과 관련한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여기서는 최초 학업중단과 관련한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최초 학업중단 시기

복학경험이 있는 77명의 청소년들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최초로 학업을 중단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3학년 시기가 15.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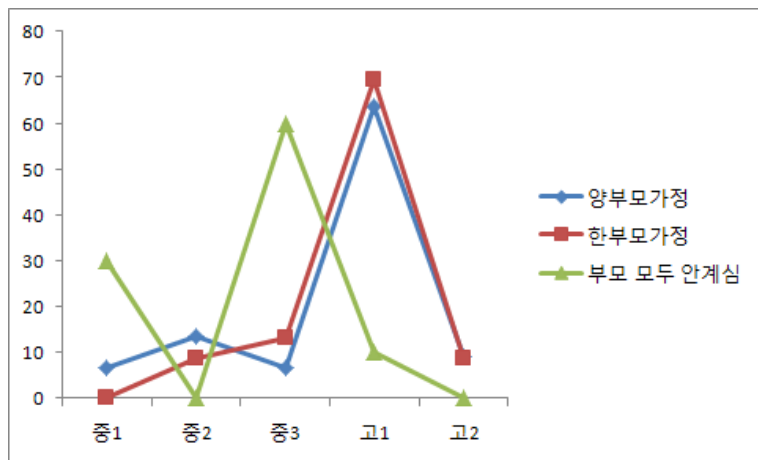
표 V-8 최초 학업중단 시기: 배경변수별 차이 (N=복학경험 있는 응답자 77명, 단위: %)

	사례수(명)	중1	중2	중3	고1	고2	χ^2
전 체	77	7.8	10.4	15.6	58.4	7.8	
성별							10.682*
남자	53	9.4	7.5	17.0	64.2	1.9	
여자	24	4.2	16.7	12.5	45.8	20.8	
연령대							31.361***
중학교 학령(만13-15세)	7	57.1	14.3	28.6	0.0	0.0	
고등학교 학령(만16-18세)	66	3.0	10.6	13.6	63.6	9.1	
19세	4	0.0	0.0	25.0	75.0	0.0	
가족구성							30.251***
양부모가정	44	6.8	13.6	6.8	63.6	9.1	
한부모가정	23	0.0	8.7	13.0	69.6	8.7	
부모 모두 안계심	10	30.0	0.0	60.0	10.0	0.0	
가정경제수준							11.813
상	21	19.0	14.3	9.5	52.4	4.8	
중	32	6.3	6.3	9.4	68.8	9.4	
하	24	0.0	12.5	29.2	50.0	8.3	
학업성적							3.081
상	15	13.3	13.3	13.3	46.7	13.3	
중	27	7.4	7.4	18.5	63.0	3.7	
하	35	5.7	11.4	14.3	60.0	8.6	
학업중단 시점							28.698***
중학교때	10	40.0	30.0	30.0	0.0	0.0	
고등학교때	67	3.0	7.5	13.4	67.2	9.0	
학업중단 기간							9.082
1년 미만	49	4.1	10.2	18.4	61.2	6.1	
1년 이상~2년 미만	23	13.0	13.0	4.3	56.5	13.0	
2년 이상	5	20.0	0.0	40.0	40.0	0.0	
학업중단 사유							11.853
가정 형편 등 개인 사정으로	11	9.1	18.2	18.2	45.5	9.1	
학교 부적응 또는 품행 문제로	52	3.8	5.8	17.3	67.3	5.8	
대안교육을 원해서	14	21.4	21.4	7.1	35.7	14.3	

* p<.05, ** p<.01, *** p<.001

<표 V-8>에서 최초 학업중단 시기가 배경 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남자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학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64.2%, 중학교 3학년 시기가 17.0%로 나타난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가 45.8%, 고등학교 2학년 시기가 20.8%로 나타남으로써 성별에 따라 최초 학업중단 시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최초 학업중단 시기의 분포는 <표 V-2> 학업중단 시기에서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응답자의 연령이 중학교 학령인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시기에 학업을 중단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고등학교 학령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처음으로 학업을 중단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사실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시기가 최초 학업중단이 발생하는 결정적 시기일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그림 V-8]의 가족 구성에 따른 분포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차이는 부모가 모두 안계신 가정의 경우 대부분 중학교시기에 처음 학교를 그만두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가 모두 안계신 가정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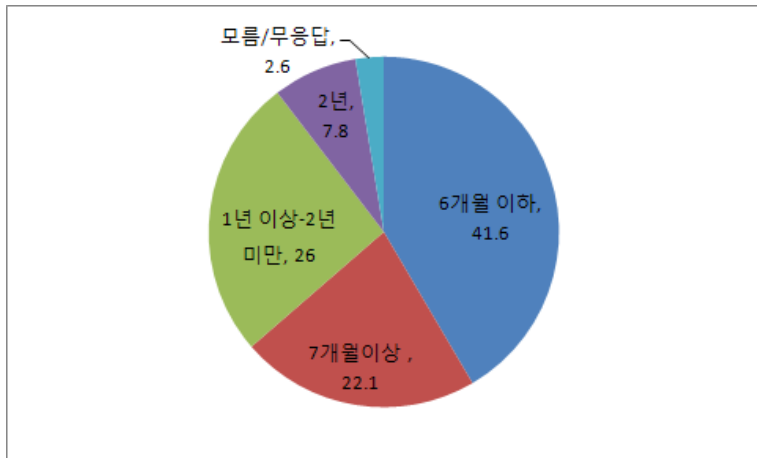


【그림 V-8】 가족구성에 따른 최초 학업중단 시기 (단위: %)

(2) 최초 학업중단 후 복교까지의 기간

[그림 V-9]에서 최초 학업중단 이후 학교로 복교하기까지 소요 기간을 살펴보면, 6개월 이내에 복교한 경우가 41.6%로 가장 많았으며, 복교하는데 1년 이상 2년 미만이 소요된 경우도

26%로 7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복교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업중단 기간 동안 배우지 못했던 내용을 보충하려는 의도도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9】 최초 학업중단 후 복교 소요기간 (단위: %)

<표 V-9>의 주요 배경 변수에 따른 학업중단 이후 복학까지의 소요기간의 분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V-9 최초 학업중단 후 복교 소요기간: 배경변수별 차이 (N=복학경험 있는 응답자 77명, 단위: %)

	사례수 (명)	6개월 이하	7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모름/무응답	계
전 체	77	41.6	22.1	26.0	7.8	2.6	100.0
성별							
남자	53	37.7	20.8	30.2	9.4	1.9	100.0
여자	24	50.0	25.0	16.7	4.2	4.2	100.0
연령대							
중학교 학령(만13-15세)	7	57.1	14.3	14.3	0.0	14.3	100.0
고등학교 학령(만16-18세)	66	40.9	22.7	27.3	7.6	1.5	100.0
19세	4	25.0	25.0	25.0	25.0	0.0	100.0

	사례수 (명)	6개월 이하	7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모름/ 무응답	계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44	45.5	20.5	25.0	6.8	2.3	100.0
한 부모가정	23	30.4	34.8	30.4	4.3	0.0	100.0
부모 모두 안 계심	10	50.0	0.0	20.0	20.0	10.0	100.0
가정경제수준							
상	21	33.3	23.8	14.3	23.8	4.8	100.0
중	32	50.0	18.8	25.0	3.1	3.1	100.0
하	24	37.5	25.0	37.5	0.0	0.0	100.0
학업성적							
상	15	46.7	33.3	6.7	0.0	13.3	100.0
중	27	37.0	11.1	33.3	18.5	0.0	100.0
하	35	42.9	25.7	28.6	2.9	0.0	100.0
학업중단 시점							
중학교 때	10	60.0	10.0	10.0	10.0	10.0	100.0
고등학교 때	67	38.8	23.9	28.4	7.5	1.5	100.0
학업중단 기간							
1년 미만	49	49.0	18.4	22.4	8.2	2.0	100.0
1년 이상~2년 미만	23	30.4	30.4	34.8	4.3	0.0	100.0
2년 이상	5	20.0	20.0	20.0	20.0	20.0	100.0
학업중단 사유							
가정 형편 등 개인 사정으로	11	45.5	18.2	36.4	0.0	0.0	100.0
학교 부적응 또는品行 문제로	52	46.2	23.1	21.2	7.7	1.9	100.0
대안교육을 원해서	14	21.4	21.4	35.7	14.3	7.1	100.0

(3) 복교 이유

최초 학업중단 이후 학교에 복학한 이유에 관한 문항에 대해 복학 경험이 있는 77명의 응답자 가운데 53.2%에 해당하는 41명은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20.8%는 '부모님이 원해서', 11.7%는 '집에 있기 심심해서(다른 할 일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즉 최초 학업중단 이후 학교 복학의 가장 큰 이유는 학업을 계속하여 졸업하고 싶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지속적인 권유도 복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집에 머무는 것에 싫증을 갖게 되어 복학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에서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거나 부모가 지속적으로 복교를 권유할 경우 상대적으로 복교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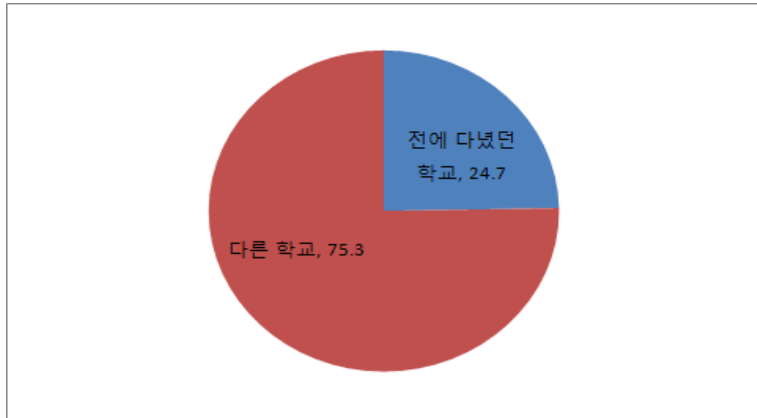
표 V-10 **최초 학업중단 후 복학 이유** (*N*=복학경험 있는 응답자 77명)

	사례수(명)	비율(%)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	41	53.2
부모님이 원해서	16	20.8
집에 있기 심심해서(다른 할 일이 없어서)	9	11.7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게 되어서	8	10.4
검정고시를 보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되어서	2	2.6
기타	1	1.3

주요 배경변수에 따른 최초 학업중단 이후 학교에 복학하는 이유의 분포 유형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4) 종전 학교로의 복귀 여부

학업중단 이후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전에 다니던 학교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사에 참여한 학업중단 청소년 가운데 복학경험이 있는 응답자 77명 중 24.7%가 종전 학교로 복학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복학을 하더라도 전에 다니던 학교로 다시 복학하는 경우는 1/4 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75.3%는 다른 학교로 복학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V-10】 중전 학교로의 복학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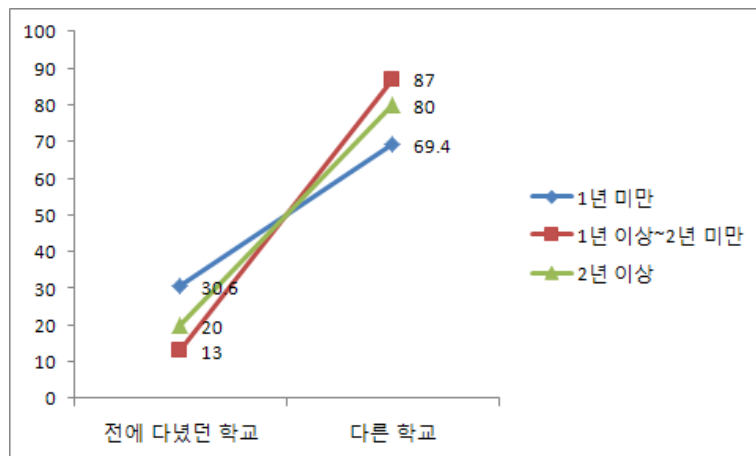
<표 V-11>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교 학령인 경우에는 다니던 학교로 복학하는 비율이 42.9%로 비교적 높은 편인 반면, 고등학교 학령인 경우에는 78.8%가 다른 학교로 복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성적의 경우 자신의 학업 성적이 중간 수준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다른 학교 복학 비율이 88.9%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V-11 중전 학교로의 복학 여부: 배경변수별 차이 (N=복학경험 있는 응답자 77명, 단위: %)

	사례수(명)	전에 다닌 학교	다른 학교	계	χ^2
전 체	77	24.7	75.3	100.0	
성별	남자	24.5	75.5	100.0	0.002
	여자	25.0	75.0	100.0	
연령대	중학교 학령(만13-15세)	42.9	57.1	100.0	3.051
	고등학교 학령(만16-18세)	21.2	78.8	100.0	
	19세	50.0	50.0	10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22.7	77.3	100.0	0.267
	한부모가정	26.1	73.9	100.0	
	부모 모두 안계심	30.0	70.0	100.0	

가정경제수준	상	21	23.8	76.2	100.0	1,581
	중	32	18.8	81.3	100.0	
	하	24	33.3	66.7	100.0	
학업성적	상	15	26.7	73.3	100.0	4,444
	중	27	11.1	88.9	100.0	
	하	35	34.3	65.7	100.0	
학업중단 시점	중학교때	10	30.0	70.0	100.0	0.175
	고등학교때	67	23.9	76.1	100.0	
학업중단 기간	1년 미만	49	30.6	69.4	100.0	2,662
	1년 이상~2년 미만	23	13.0	87.0	100.0	
	2년 이상	5	20.0	80.0	100.0	
학업중단 사유	가정 형편 등 개인 사정으로	11	27.3	72.7	100.0	0.122
	학교 부적응 또는品行 문제로	52	25.0	75.0	100.0	
	대안교육을 원해서	14	21.4	78.6	100.0	

학업중단 기간과 관련하여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에 다니던 학교로 복학하는 비율이 30.6%였지만,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에 다니던 학교로 복학하는 비율이 13.0%에 불과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V-11] 학업중단 기간에 따른 종전 학교로의 복귀 비율 (단위: %)

학업중단 후 복학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다른 학교로 복학한 학생들에게 종전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였는데, 응답자 중 19%는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는 학교로 가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교사 및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학업을 따라가는 문제 등 학교생활과 관련한 이유로 다른 학교로 복학한 비율은 36.2%로 나타나 학교를 옮겨서 복학하는 주된 이유가 종전 학교에서의 대인관계나 성적 등과 관련한 어려움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표 V-12 종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이유 (N=다른 학교로 복학한 응답자 58명)

	사례수(명)	비율(%)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는 학교로 옮기려고	11	19.0
선생님들에게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8	13.8
친구들에게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7	12.1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서	6	10.3
검정고시를 쳐서 학력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4	6.9
기타	22	37.9

7) 학업중단 시 고민상담 경험 및 주변 반응

(1) 학업중단에 대한 고민상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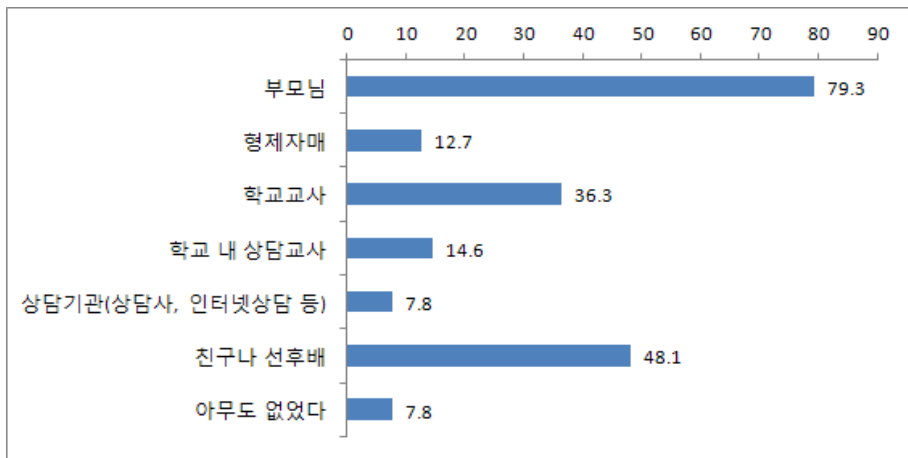
개인의 인생에서 교육이 갖는 의미를 감안할 때, 학교를 그만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생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학업중단 여부를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조사에서는 학업중단을 결정할 당시 이와 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의논한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

<표 V-13>, [그림 V-12]에서 본 조사에 참여한 학업중단 청소년들 가운데 79.3%인 376명은 학업중단 시 부모님과 의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나 선후배와 의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8.1%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나 선후배와 의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학교 교사와 상담했다고 응답한 비율인 36.3%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교 교사보다는 친구나 선후배가 더 중요한 의논 상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3 학업중단 시 상담자

	사례수(명)	없다		있다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부모님	474	98	20.7	376	79.3
형제자매	474	414	87.3	60	12.7
학교교사	474	302	63.7	172	36.3
학교 내 상담교사	474	405	85.4	69	14.6
상담기관(상담사, 인터넷상담 등)	474	437	92.2	37	7.8
친구나 선후배	474	246	51.9	228	48.1
아무도 없었다	474	437	92.2	37	7.8



【그림 V-12】 학업중단 시 상담자 (단위: %)

표 V-14

학업중단 시 부모와의 상담 경험: 배경변수별 차이

(단위: %)

	사례수(명)	없다		있다		χ^2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 체	474	98	20.7	376	79.3	
성별						
남자	274	71	25.9	203	74.1	10.861***
여자	200	27	13.5	173	86.5	
연령대						
중학교 학령(만13-15세)	42	9	21.4	33	78.6	0.162
고등학교 학령(만16-18세)	420	86	20.5	334	79.5	
19세	12	3	25.0	9	75.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286	47	16.4	239	83.6	20.829***
한부모가정	133	27	20.3	106	79.7	
부모 모두 안계심	55	24	43.6	31	56.4	
가정경제수준						
상	134	23	17.2	111	82.8	1.626
중	187	43	23.0	144	77.0	
하	153	32	20.9	121	79.1	
학업성적						
상	109	12	11.0	97	89.0	8.200*
중	116	26	22.4	90	77.6	
하	249	60	24.1	189	75.9	
학업중단 시점						
중학교때	109	24	22.0	85	78.0	0.156
고등학교때	365	74	20.3	291	79.7	
학업중단 기간						
1년 미만	258	54	20.9	204	79.1	0.117
1년 이상~2년 미만	161	32	19.9	129	80.1	
2년 이상	55	12	21.8	43	78.2	
학업중단 사유						
가정 형편 등 개인 사정으로	86	17	19.8	69	80.2	19.362***
학교 부적응 또는 품행 문제로	273	73	26.7	200	73.3	
대안교육을 원해서	115	8	7.0	107	93.0	

* p<.05, ** p<.01, *** p<.001

<표 V-14>에서 학업중단과 관련하여 상담한 경험이 있는 대상 가운데 가장 사례수가 많은 부모님과 상담 경험을 대상으로 주요 배경변수별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면 274명의 남자 가운데 부모와 상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03명으로 74.1%인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86.5%가 부모와 상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남자보다는 여자가 학업중단과 관련하여 부모와 상담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 가운데 83.6%가 부모와 상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데 비해, 한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79.7%가, 부모가 모두 안 계시는 청소년의 56.4%가 부모와 상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또한 학업성적이 높았던 청소년들 가운데 부모와 상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9%인 반면, 중간 수준인 경우는 77.6%, 학업성적이 낮았던 청소년들은 75.9%인 것으로 나타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업중단과 관련하여 부모와 상담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중단 사유와 관련하여 가정 형편 등 개인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80.2%가, 학교 부적응이나 품행 문제로 중단한 청소년들의 73.3%가, 그리고 대안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93%가 부모와 상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부적응/품행상의 문제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 비해 다른 형태의 대안교육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부모와 상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5>를 보면 친구나 선후배와의 상담 경험에 있어서도 배경변수별로 차이가 있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친구와 상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고등학교 학령인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친구나 선후배와의 상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친구나 선후배와 상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4%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시기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보다는 고등학교시기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 친구나 선후배와의 상담 경험이 더 많았으며, 학업 중단된 경우에도 학업중단 시기가 짧은 경우에, 그리고 대안교육을 위해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 친구나 선후배와의 상담 경험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V-15

학업중단 시 친구나 선후배와의 상담 경험: 배경변수별 차이

(단위: %)

	사례수(명)	없다		있다		x ²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 체	474	246	51.9	228	48.1	474
성별						
남자	274	157	57.3	117	42.7	7.587**
여자	200	89	44.5	111	55.5	
연령대						
중학교 학령(만13-15세)	42	32	76.2	10	23.8	16.540***
고등학교 학령(만16-18세)	420	204	48.6	216	51.4	
19세	12	10	83.3	2	16.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286	145	50.7	141	49.3	3.476
한부모가정	133	66	49.6	67	50.4	
부모 모두 안계심	55	35	63.6	20	36.4	
가정경제수준						
상	134	53	39.6	81	60.4	12.527**
중	187	111	59.4	76	40.6	
하	153	82	53.6	71	46.4	
학업성적						
상	109	53	48.6	56	51.4	1.560
중	116	57	49.1	59	50.9	
하	249	136	54.6	113	45.4	
학업중단 시점						
중학교때	109	71	65.1	38	34.9	9.938**
고등학교때	365	175	47.9	190	52.1	
학업중단 기간						
1년 미만	258	123	47.7	135	52.3	6.188*
1년 이상~2년 미만	161	87	54.0	74	46.0	
2년 이상	55	36	65.5	19	34.5	
학업중단 사유						
가정 형편 등 개인 사정으로	86	53	61.6	33	38.4	6.553*
학교 부적응 또는 품행 문제로	273	143	52.4	130	47.6	
대안교육을 원해서	115	50	43.5	65	56.5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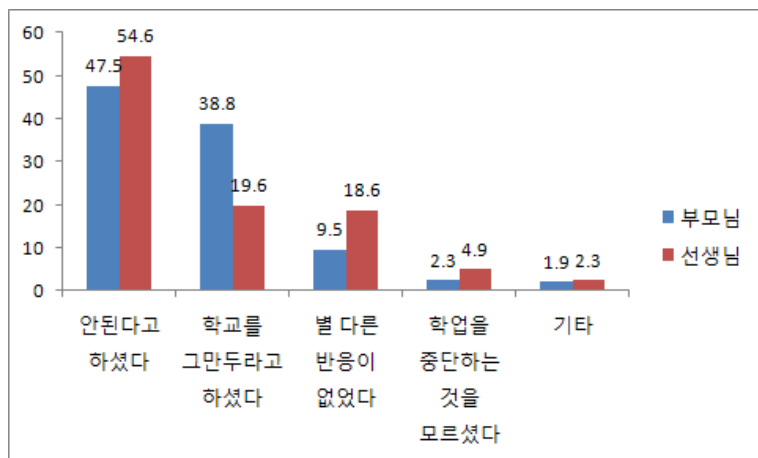
(2) 학업중단에 대한 주변의 반응

<표 V-16>, [그림 V-13]을 보면 학업을 중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업을 중단하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은 47.5%가 안 된다고 하였으며, 선생님들은 54.6%가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부모님들의 경우 38.8%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찬성한 반면,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19.6%만이 학교를 그만두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부모님과 선생님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모르셨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3%와 4.9%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에 직접적인 상호작용 관계에 있는 부모나 선생님조차 자신의 학업중단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V-16 학업중단 시 주변의 태도

(N=474명)

	부모님		선생님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안 된다고 하셨다	225	47.5	259	54.6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셨다	184	38.8	93	19.6
별 다른 반응이 없었다	45	9.5	88	18.6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모르셨다	11	2.3	23	4.9
기타	9	1.9	1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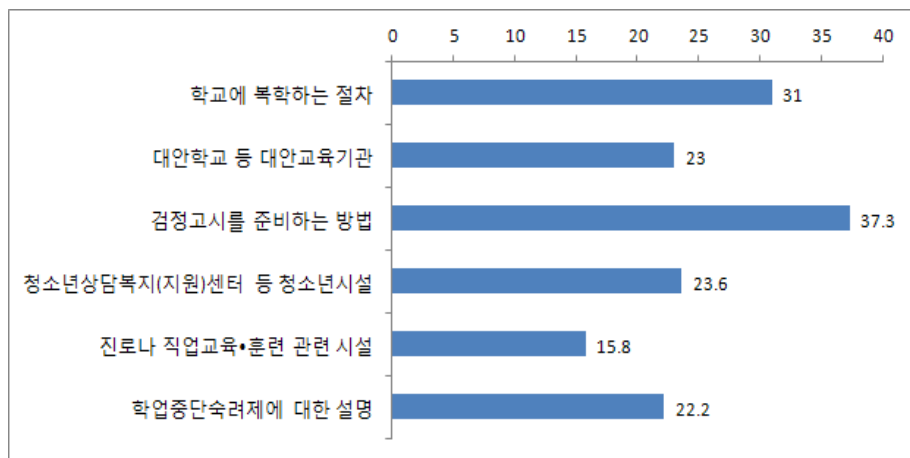
【그림 V-13】 학업중단 시 주변의 태도 (단위: %)

8) 학업중단 관련 정보제공

학업중단 시 학교에서 학업중단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서 응답자 중 31%는 학교 복학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37.3%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고시와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복학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인데,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학교의 대응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표 V-17 학업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 실태

	사례수(명)	없다		있다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474	327	69.0	147	31.0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474	365	77.0	109	23.0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474	297	62.7	177	37.3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	474	362	76.4	112	23.6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	474	399	84.2	75	15.8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설명	474	369	77.8	105	22.2



【그림 V-14】 학업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 (단위: %)

그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이나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3.6%와 23.0%였으며, 진로나 직업교육 또는 훈련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비율은 15.8%로 가장 낮았다.

특히 학업중단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2.22%에 그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 가운데 약 1/5 정도만이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 학업중단 숙려제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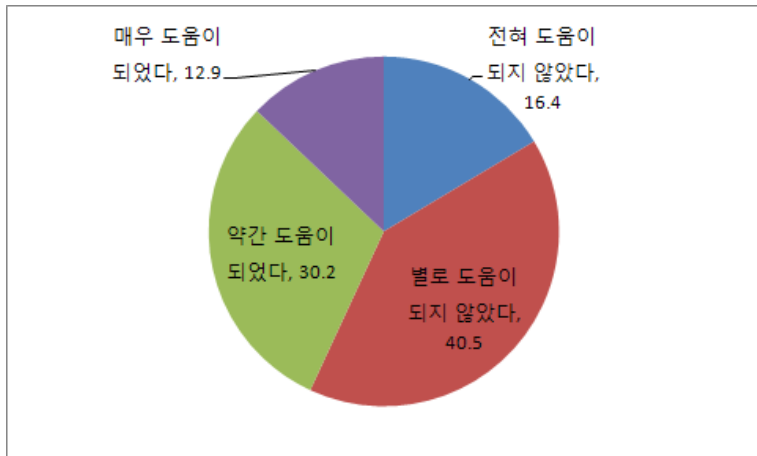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클래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써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가 주관이 되어 2012년 6월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청소년들이 충분한 고민 없이 충동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학업중단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에서는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들은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을 받게 되며, 학업복귀를 권고하고, 학업중단 이후 상황을 안내하며 진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표 V-18>를 보면 본 조사에 참여한 학업중단 청소년들 가운데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474명 중 116명인 24.5%로 전체 응답자의 1/4 가량이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본 조사에 참여한 학업중단 청소년들 가운데 이 제도가 시작하기 전에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은 아직 학교 현장에서 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V-18 학업중단 숙려제 경험 여부

	사례수(명)	없다		있다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학업중단 숙려제 경험	474	358	75.5	116	24.5

학업중단 숙려제를 경험한 116명을 대상으로 이 제도가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었는데, 이 가운데 56.9%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15] 참조).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청소년들 가운데 학업중단 숙려제를 경험하는 비율도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숙려기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비율도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업중단 숙려제의 당초 시행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 제도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도 학업중단을 앞에 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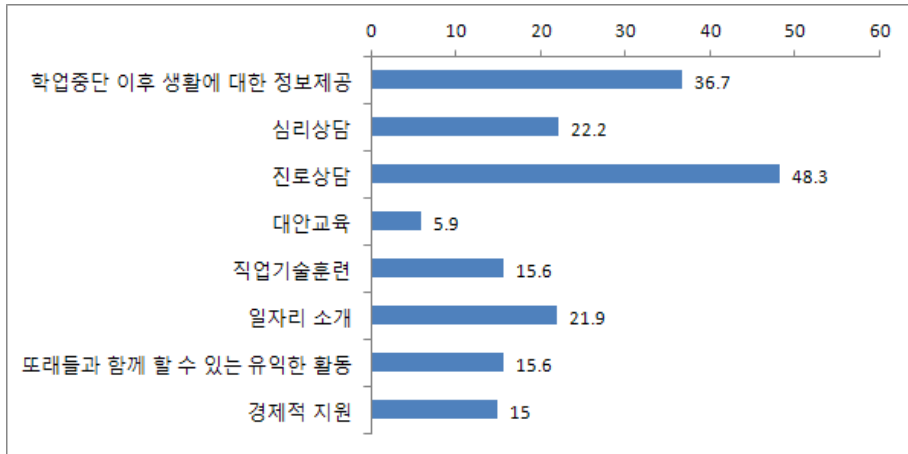
【그림 V-15】 학업중단 숙려제의 유용성 (N=학업중단 숙려제 이용 경험자 116명, 단위: %)

10) 학업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

학교를 그만 둘 당시에 가장 필요했던 도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 가운데 48.3%는 향후 진로와 관련된 상담이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이 36.7%로 나타났으며, 심리 상담과 일자리 소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2.2%와 21.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9 학업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

	사례수(명)	없다		있다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474	300	63.3	174	36.7
심리상담	474	369	77.8	105	22.2
진로상담	474	245	51.7	229	48.3
대안교육	474	446	94.1	28	5.9
직업기술훈련	474	400	84.4	74	15.6
일자리 소개	474	370	78.1	104	21.9
또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	474	400	84.4	74	15.6
경제적 지원	474	403	85.0	71	15.0



【그림 V-16】 학업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 (단위: %)

청소년기의 일반적이고 규범적인 인생 과정(life course)은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이다. 물론 고등학교 입시나 대학 입시라는 관문이 있지만, 보편적인 인생과정을 밟아간다는 것은 다른 학생들이 가는 길을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를 그만 둔다는 것은 이러한 보편적인 인생과정에서 벗어나 다른 학생들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업중단을 눈앞에 둔 학생에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혹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와 관련한 정보는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학교를 그만 둔다는 것은 정해진 일상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일상을 만들어가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학교라는 일상의 틀 속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벗어나오게 된다는 것은 일시적인 해방감을 줄 수 있겠지만, 결국 자기 자신만의 일정한 일상을 구축하지 못하면 오히려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이나 심리 상담 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도록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그만두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고, 학업 중단 이후의 삶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꾸려 나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학생 청소년 집단과의 비교결과¹⁹⁾

본 절에서는 2013년 학업중단 청소년패널 1차년도 조사를 통해 밝혀진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을 학생 청소년들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비교에 활용된 집단표본은 2012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조사대상,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1차 및 2차년도 응답자, 한국교육중단연구 1 및 4차년도 조사자료 등이다. 학업중단 1차 패널조사 대상자는 중등학령기 청소년(13세-15세)과 고등학령기 청소년들(15세-18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조사 응답자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일반계 및 전문계)들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1차 및 2차년도 응답자들은 각각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로, 2012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는 중고등학생 청소년, 한국교육중단연구 1 및 4차년도 조사는 중고등학교 학령기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변수들에 대한 학생 청소년들과의 비교분석 작업은 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측면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 준거점이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학생 청소년이기 때문이다. 비교 대상으로서 학생 청소년 데이터를

19) 이 부분은 김신영(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집필하였음.

선정하는 할 때에는 몇 가지 기준이 존재한다.

첫째, 비교대상 데이터는 방법론적으로 엄정한 과정을 거친 전국 단위 청소년 조사여야 한다. 방법론적으로 엄정하다 함은 공인된 기관을 통해 조사가 수행, 감독되었으며 통계청의 공식적 승인을 받은 조사자료여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조사문항은 유사한 수준이 아닌 완벽하게 일치하는 문항이어야 한다.

셋째, 조사대상 연령대는 가능한 일치해야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은 모든 비교대상 자료들이 만족시키고 있으나, 세 번째 기준은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비교대상 집단의 연령불일치는 비교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요구케 하며 또한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을 학생 청소년과 비교하고자 할 때 주요 특성은 크게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특성은 주로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감, 그리고 문제행동 가해경험과 게임중독 성향 등이다. 환경적 특성으로는 부모의 정서적 및 경제적 지원,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습부적응 등이 있다. 비교 순서는 먼저 문항별로 평균치 또는 각 항목의 빈도를 비교한 후²⁰⁾ 각 집단들의 요인별 신뢰도 수치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집단별 평균값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수행하고자 한다.²¹⁾

1) 개인적 특성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총 다섯 개의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학생 청소년들의 경우 2012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이하 2012 정신건강 연구) 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20) 응답항목이 Likert-scale 형태의 등간척도일 경우 평균치를, 순위변수의 성격이 강할 경우(예를 들어, 규정 위반 경험 정도) 응답 빈도를 비교하도록 함.

21) 두 독립표본 t-검정(two independent samples t-test)이란 각기 다른 두 모집단의 속성인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두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들을 독립적으로 추출하여 표본 평균들의 비교를 통하여 모집단간의 유사성을 검정하는 방법을 말함. 현실적으로 두 모집단의 분산을 알지 못하기에 두 독립표본 Z 검정과 유사하나 표준오차 계산 시 각 표본의 분산을 활용하여 그것들의 대푯값을 모집단 분산의 추정치로 사용하는 것이 다른 점임. 표준오차 및 통합분산의 계산공식은 각각 다음과 같음.

$$\sigma_{(\bar{Y}_1 - \bar{Y}_2)} = \sqrt{\frac{\Delta_1^2}{n_1} + \frac{\Delta_2^2}{n_2}} = \sqrt{\Delta_p^2 \left(\frac{1}{n_1} + \frac{1}{n_2} \right)} \quad \Delta_p^2 = \frac{n_1 \Delta_1^2 + n_2 \Delta_2^2}{n_1 + n_2}$$

두 조사에서 활용된 조사문항들은 ①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②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③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④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⑤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등이며 문항 간 일관성을 보여주는 Cronbach alpha 값은 각각 .840(학업중단)과 .920(2012 정신건강)으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V-20 자아존중감 집단비교: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문항	학업중단(N=479)		학생(N=8732)		t값
	Mean	SD	Mean	SD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05	.683	3.11	.851	1.3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2.91	.676	3.03	.852	8.89*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3.14	.607	3.22	.789	1.83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2.94	.763	3.13	.847	4.0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2.88	.785	3.16	.848	5.92*

* p <.05

<표 V-20>과 같이 문항별로 비교해 보면 모든 문항에서 학생 청소년들의 평균치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①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mean = 3.11, sd = .851 vs mean = 3.05, sd = .683; ②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mean = 3.03, sd = .852 vs mean = 2.91, sd = .676; ③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mean = 3.22, sd = .789 vs mean = 3.14, sd = .607; ④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mean = 3.13, sd = .847 vs mean = 2.94, sd = .763; ⑤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mean = 3.16, sd = .848 vs mean = 2.88, sd = .785).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결과 ①번과 ③번 문항의 차이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문항들은 두 집단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과 같이 다섯 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살펴 본 결과 역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학생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학업중단:mean = 14.90, sd = 2.75 vs 학생: mean = 15.66, sd = 3.64). 그러나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두 집단의 자아존중감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21 자아존중감 집단비교: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요인	학업중단(N=479)		학생(N=8732)		t값
	Mean	SD	Mean	SD	
자아존중감	14.90	2.75	15.56	3.64	0.90

* p < .05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총 다섯 개의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학생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2차년도 조사 자료가(이하 아동청소년 2차 자료) 활용되었다.²²⁾ 두 조사에서 활용된 조사문항들은 ①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②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③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④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⑤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등이며 문항 간 일관성을 보여주는 Cronbach alpha 값은 각각 .728(학업중단)과 .732(아동청소년 2차 자료)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 자아탄력성 집단비교: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문항	학업중단(N=479)		학생(N=2350)		t값
	Mean	SD	Mean	SD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2.86	.739	2.95	.699	1.32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2.98	.782	3.12	.767	1.96*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2.60	.847	2.55	.824	-0.75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3.07	.773	2.93	.804	-1.93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2.82	.786	2.99	.768	2.48*

* p < .05

22) 아동청소년 2차 자료의 경우 응답항목을 역순으로 리코드하여 학업중단 자료의 응답항목과 일치시킴.

먼저 <표 V-22>와 같이 문항별로 비교해 보면 자아탄력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학생 청소년들의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①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낸다: mean = 2.86, sd = .739 vs mean = 2.95, sd = .699; ②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mean = 2.98, sd = .782 vs mean = 3.12, sd = .767; ③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mean = 2.60, sd = .847 vs mean = 2.55, sd = .824; ④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mean = 3.07, sd = .773 vs mean = 2.93, sd = .804; ⑤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mean = 2.82, sd = .786 vs mean = 2.99, sd = .768).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⑤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에서는 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3>과 같이 다섯 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살펴 본 결과 학생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 정도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학업중단:mean = 14.32, sd = 2.71 vs 학생: mean = 14.57 sd = 2.68). 그러나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두 집단의 자아탄성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23 자아탄력성 집단비교: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요인	학업중단(N=479)		학생(N=2350)		t값
	Mean	SD	Mean	SD	
자아탄력성	14.32	2.71	14.57	2.68	0.34

* p < .05

(3) 우울감

우울감은 총 10개의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학생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차년도 조사 자료가(이하 아동청소년 2차 자료) 활용되었다²³⁾. 두 조사에서 활용된 조사문항들은 ①기운이 별로 없다, ②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③걱정이 많다, ④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⑤울기를 잘한다, ⑥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⑦ 외롭다, ⑧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⑨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⑩모든 일이 힘들다 등이며 문항 간 일관성을 보여주는 Cronbach alpha 값은 각각 .911(학업중단)과

23) 아동청소년 2차 자료의 경우 응답항목을 역순으로 리코드하여 학업중단 자료의 응답항목과 일치시킴.

.890(아동청소년 2차 자료)으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먼저 <표 V-24>와 같이 문항별로 비교해 보면 우울감을 측정하는 거의 문항에서(문항 5 제외)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평균치가 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①기운이 별로 없다: mean = 2.15, sd = .817 vs mean = 1.99, sd = .784; ②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mean = 2.03, sd = .863 vs mean = 1.94, sd = .827; ③걱정이 많다: mean = 2.66, sd = .869 vs mean = 2.27, sd = .923; ④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mean = 1.72, sd = .812 vs mean = 1.68, sd = .792; ⑤울기를 잘한다: mean = 1.84, sd = .896 vs mean = 1.96, sd = .893; ⑥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mean = 2.18, sd = .856 vs mean = 2.04, sd = .850; ⑦외롭다: mean = 2.11, sd = .966 vs mean = 1.92, sd = .899; ⑧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mean = 1.80, sd = .767 vs mean = 1.75, sd = .754; ⑨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mean = 1.95, sd = .892 vs mean = 1.87, sd = .847; ⑩모든 일이 힘들다: mean = 2.04, sd = .852 vs mean = 1.83, sd = .815).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문항 ③번과 ⑩번 즉 ‘걱정이 많다’와 ‘모든 일이 힘들다’문항들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평균값이 학생 청소년들의 그것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문항들의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24 **우울감 집단비교: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문항	학업중단(N=479)		학생(N=2,280)		t값
	Mean	SD	Mean	SD	
기운이 별로 없다.	2.15	.817	1.99	.784	-1.57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2.03	.863	1.94	.827	-0.91
걱정이 많다.	2.66	.869	2.27	.923	-3.31*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1.72	.812	1.68	.792	-0.47
울기를 잘한다.	1.84	.896	1.96	.893	1.23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2.18	.856	2.04	.850	-1.34
외롭다.	2.11	.966	1.92	.899	-1.42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1.80	.767	1.75	.754	-0.56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1.95	.892	1.87	.847	-0.85
모든 일이 힘들다.	2.04	.852	1.83	.815	-2.23*

* p <.05

<표 V-25>와 같이 열 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살펴 본 결과 역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우울감 정도가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학업중단: mean = 20.49, sd = 5.93 vs 학생: mean = 19.30 sd = 6.15). 그러나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두 집단의 우울감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25 **우울감 합산 집단비교: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요인	학업중단(N=479)		학생(N=2280)		t값
	Mean	SD	Mean	SD	
우울감	20.49	5.93	19.30	6.15	1.34

* p <.05

(4) 충동성

충동성은 총 다섯 개의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조사에서 활용된 조사문항들은 ①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mean = 1.7, sd = .770), ②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mean = 2.1, sd = .824), ③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mean = 2.1, sd = .898), ④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mean = 1.7, sd = .735), ⑤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mean = 2.3, sd = .018) 등이다. 충동성의 문항별 결과는 <표 V-26>과 같다. 충동성 문항은 학생 집단과의 비교 자료가 없어 비교는 생략하였다.

표 V-26 **충동성**

	사례수(명)	MEAN(점)	SD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474	1.7	0.770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474	2.1	0.824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474	2.1	0.898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474	1.7	0.735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474	2.3	1.018

(5) 문제행동 경험

문제행동 경험은 총 여덟 개의 문항을 통해 조사되었다. 학생 청소년들의 경우 2012 정신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²⁴⁾. 조사에 활용된 문제 행동들로는 ‘담배피우기’, ‘술 마시기’, ‘남의 물건이나 돈 훔치기’,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남의 물건이나 돈 뺏기기’, ‘음란물 보기’, ‘돈내기 도박하기’,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 파손’등이다. 각각의 문제행동은 명목척도로 응답항목이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평균치가 아닌 응답 빈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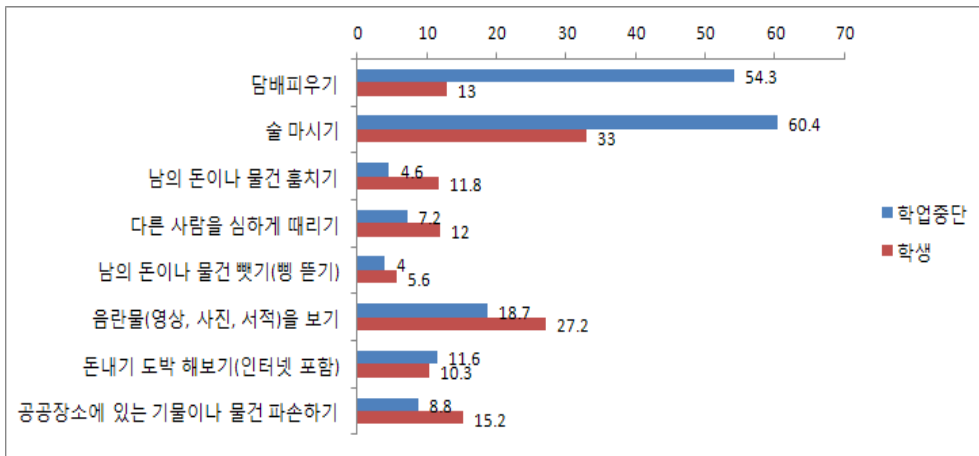
먼저 <표 V-27>, [그림 V-17]에서 ‘담배피우기’는 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학생 청소년 13.0% vs 학업중단 청소년 54.3%). ‘술 마시기’역시 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학생 청소년 33.0% vs 학업중단 청소년 60.4%). 다음으로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는 학생 청소년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학생 청소년 11.8% vs 학업중단 청소년 4.6%; 학생 청소년 12.0% vs 학업중단 청소년 7.2%). ‘남의 물건이나 돈 뺏기기’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학생 청소년 5.6% vs 학업중단 청소년 4.0%), 음란물(영상, 서적 등) 보기는 학생 청소년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학생 청소년 27.2% vs 학업중단 청소년 18.7%). ‘돈내기 도박 경험’은 두 집단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학생 청소년 11.6% vs 학업중단 청소년 10.3%), 마지막으로 ‘공공기물 파손’은 학생 청소년 집단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학생 청소년 15.2% vs 학업중단 청소년 8.8%). 이상과 같은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비교적 상식적 수준의 가설에 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주에서 밝힌바와 같이, 응답항목의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것 일수도 있다.

24) 학업중단 조사에는 ‘자살시도’가, 2012 정신건강 조사 자료에는 ‘학교 빼먹기’와 ‘가출’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비교가 불가능하여 분석에서 제외함. 또한 2012 정신건강 조사는 응답항목이 순위척도로 되어 있어 비교를 위해 명목척도(‘있다’ vs ‘없다’)로 재구성함.

표 V-27 문제행동 경험: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단위: %)

문항	학업중단	학생
담배피우기	54.3	13.0
술 마시기	60.4	33.0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4.6	11.8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7.2	12.0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뺨 뜯기)	4.0	5.6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보기	18.7	27.2
돈내기 도박 해보기(인터넷 포함)	11.6	10.3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8.8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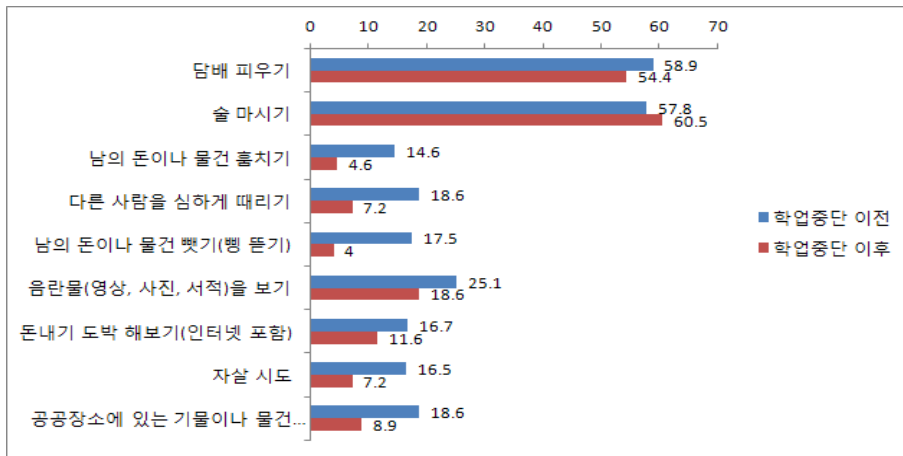
【그림 V-17】 문제행동 경험: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단위: %)

이에 더하여 음주와 흡연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행동의 유형들은 학업중단 청소년과 학생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판별해내지 못한다는 해석과 학교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문제행동들은 오히려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적게 발생할 수 있다는 추측 또한 가능하다.

후자의 해석이 더 설득력 있는 것은 학업중단 전후 문제행동 경험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학업중단 후 흡연과 음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제행동이 현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학업중단 후 문제행동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역으로 학교라는 사회적 장이 청소년들에게 문제행동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표 V-28>, [그림 V-18] 참고).

표 V-28 학업중단 전후 문제행동 경험

	사례수 (명)	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이후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담배 피우기	474	195	41.1	279	58.9	216	45.6	258	54.4
술 마시기	474	200	42.2	274	57.8	187	39.5	287	60.5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474	405	85.4	69	14.6	452	95.4	22	4.6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474	386	81.4	88	18.6	440	92.8	34	7.2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	474	391.0	82.5	83.0	17.5	455	96.0	19	4.0
음란물 보기	474	355	74.9	119	25.1	386	81.4	88	18.6
돈내기 도박 해보기	474	395	83.3	79	16.7	419	88.4	55	11.6
자살 시도	474	396	83.5	78	16.5	440	92.8	34	7.2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474	386	81.4	88	18.6	432	91.1	42	8.9



【그림 V-18】 학업중단 전후 문제행동 경험 (단위: %)

(6) 게임중독

게임중독은 총 8개의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고, 학생 청소년은 2012년 정신건강 연구 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두 조사에서 활용된 조사문항들은 ①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가는 줄 모른다, ②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③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④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⑤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⑥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⑦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⑧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등이다. 이 문항들은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을 측정하는 문항으로써 문항 간 일관성을 보여주는 Cronbach alpha 값은 각각 .925(학업중단)과 .899(학생)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V-29 게임중독 집단비교: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문항	학업중단(N=479)		학생(N=8703)		t값
	Mean	SD	Mean	SD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1.68	.829	1.20	.516	8.31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1.54	.744	1.28	.557	-4.27*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1.45	.766	1.24	.551	-3.57*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1.32	.684	1.19	.517	-2.31*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1.37	.695	1.26	.568	-1.85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1.33	.663	1.22	.543	-1.91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1.48	.736	1.28	.600	-3.30*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1.37	.707	1.20	.504	-2.99*

* p < .05

먼저 <표 V-29>와 같이 문항별로 비교해 보면 게임 중독을 측정하는 모든 문항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평균치가 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①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mean = 1.68, sd = .829 vs mean = 1.20, sd = .516; ②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mean = 1.54, sd = .744 vs mean = 1.28, sd = .557; ③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mean = 1.45, sd = .766 vs mean = 1.24, sd = .551; ④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mean = 1.32, sd = .684 vs mean = 1.19, sd = .517; ⑤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mean = 1.37, sd = .695 vs mean = 1.26, sd = .568; ⑥게임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mean = 1.33, sd = .663 vs mean = 1.22, sd = .543; ⑦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mean = 1.48, sd = .736 vs mean = 1.28, sd = .600; ⑧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mean = 1.37, sd = .707 vs mean = 1.20, sd = .504).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결과 대부분의 문항들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⑤번, ⑥번 문항은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²⁵⁾

다음으로 <표 V-30>과 같이 여덟 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살펴 본 결과 역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정도가 학생들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학업중단: mean = 11.54, sd = 4.72 vs 학생: mean = 9.84 sd = 3.37).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수준은 학생 청소년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0 게임중독 집단비교: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요인	학업중단(N=479)		학생(N=8703)		t값
	Mean	SD	Mean	SD	
게임중독	11.54	4.72	9.84	3.37	-3.64*

* p <.05

2) 환경적 특성

(1) 부모관계

① 부모의 정서적 지원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총 다섯 개의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학생 청소년들의 경우 2012 정신건강 연구 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두 조사에서 활용된 조사항목들은 ①부모님은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②부모님은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③부모님은 나의 고민을 들어 주신다, ④부모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⑤부모님은 내가 실망하거나

25) 보통의 경우 유의수준을 .05로 정하지만 이 경우 검정력(statistical power)을 높이기 위해 유의수준을 .1로 변경한다면 이 두 문항의 평균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으나 표본의 크기가 충분함을 고려할 때, 유의수준의 변화를 주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임.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등이며 문항 간 일관성을 보여주는 Cronbach alpha 값은 각각 .931(학업중단)과 .945(2012 정신건강)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V-31 부모의 정서적 지원 집단비교(문항):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문항	학업중단(N=479)		학생(N=8397)		t값
	Mean	SD	Mean	SD	
부모님은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3.03	.754	3.17	.849	0.93
부모님은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3.11	.724	3.32	.754	1.35
부모님은 나의 고민을 들어 주신다.	2.95	.818	3.12	.849	1.16
부모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3.06	.777	3.28	.799	1.43
부모님은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2.92	.814	3.20	.855	1.87

* p <.05

먼저 <표 V-31>과 같이 문항별로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모든 문항에서 학생 청소년들의 부모의 정서적 지원의 평균치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①부모님은 나를 잘 알고 이해해주신다: mean = 3.17, sd = .849 vs mean = 3.03, sd = .754; ②부모님은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신다: mean = 3.32, sd = .754 vs mean = 3.11, sd = .724; ③부모님은 나의 고민을 들어 주신다: mean = 3.12, sd = .849 vs mean = 2.95, sd = .818; ④부모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mean = 3.28, sd = .799 vs mean = 3.06, sd = .777; ⑤부모님은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주신다: mean = 3.20, sd = .855 vs mean = 2.92, sd = .814). 그러나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문항별 평균값의 두 집단 차이는 어느 문항에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V-32>와 같이 다섯 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살펴 본 결과 역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학생 청소년들의 부모의 정서적 지원 정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학업중단: mean = 15.07, sd = 3.44 vs 학생: mean = 16.08, sd = 3.76). 그러나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두 집단의 부모의 정서적 지원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32 부모의 정서적 지원 집단비교(합산):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요인	학업중단(N=479)		학생(N=8397)		t값
	Mean	SD	Mean	SD	
부모의 정서적 지원	15.07	3.44	16.08	3.76	1.34

* p <.05

② 부모의 경제적 지원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총 세 개의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학생 청소년들의 경우 2012 정신건강 연구 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두 조사에서 활용된 조사문항들은 ①부모님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②부모님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③부모님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등이며 문항 간 일관성을 보여주는 Cronbach alpha 값은 각각 .797(학업중단)과 .694(2012 정신건강)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먼저 <표 V-33>과 같이 문항별로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모든 문항에서 학생 청소년들의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평균치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①부모님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mean = 3.27, sd = .886 vs mean = 3.01, sd = .876; ②부모님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mean = 3.48, sd = .691 vs mean = 3.16, sd = .757; ③부모님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mean = 3.33, sd = .799 vs mean = 2.92, sd = .918).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②번 문항과 ③번 문항은 두 집단의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3 부모의 경제적 지원 집단비교(문항):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문항	학업중단(N=479)		학생(N=8385)		t값
	Mean	SD	Mean	SD	
부모님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3.01	.876	3.27	.866	1.69
부모님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3.16	.757	3.48	.691	2.14*
부모님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2.92	.918	3.33	.799	2.63*

* p <.05

다음으로 <표 V-34>와 같이 세 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살펴 본 결과 역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학생 청소년들의 부모의 경제적 지원 정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학업중단: mean = 9.09, sd = 2.15 vs 학생: mean = 10.08, sd = 1.88).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학생 청소년들의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수준이 학업중단청소년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4 부모의 경제적 지원 집단비교(합산):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요인	학업중단(N=479)		학생(N=8385)		t값
	Mean	SD	Mean	SD	
부모의 경제적 지원	9.09	2.15	10.08	1.88	2.10*

* p <.05

③ 부모의 방임

부모의 방임은 총 다섯 개의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조사에서 활용된 조사문항들은 ①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일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mean = 2.9, sd = .863), ②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셨다(mean = 1.7, sd = .761), ③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셨다(mean = 1.9, sd = .833), ④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았다(mean = 1.8, sd = .909), ⑤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mean = 1.5, sd = .721) 등이다. 부모 방임의 문항별 결과는 <표 V-35>와 같다. 부모 방임의 문항은 학생 집단과의 비교 자료가 없어 비교는 생략하였다.

표 V-35 부모의 방임

	사례수(명)	MEAN(점)	SD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일이나 바깥일) 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474	2.9	0.863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셨다.	474	1.7	0.761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셨다.	474	1.9	0.833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았다.	474	1.8	0.909
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	474	1.5	0.721

④ 부모의 학대

부모의 학대는 총 네 개의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조사에서 활용된 조사문항들은 ①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셨다(mean = 1.7, sd = .867), ②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셨다(mean = 1.9, sd = .932), ③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때린 적이 많다(mean = 1.6, sd = .842), ④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mean = 1.9, sd = .992) 등이다. 부모 학대의 문항별 결과는 <표 V-36>과 같다. 부모 학대의 문항은 학생집단과의 비교 자료가 없어 비교는 생략하였다.

표 V-36 부모의 학대

	사례수(명)	MEAN(점)	SD
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셨다.	474	1.7	0.867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셨다.	474	1.9	0.932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때린 적이 많다.	474	1.6	0.842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474	1.9	0.992

(2) 친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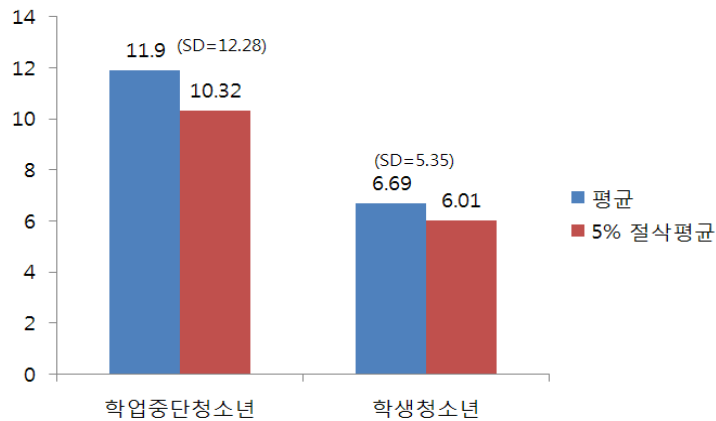
① 친한 친구 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친한 친구의 수는 2011년도에 수행된 한국청소년패널 5차년도 조사(이하 청소년 패널 2차 자료)를 통해 수집된 당시 고3 청소년들의 친한 친구수와 비교되었다. 일반적으로 친한 친구수를 묻는 질문에는 진실되지 못한 답변으로 인해 이상치들이(outliers) 발생하곤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두 조사의 친한 친구수를 평균치와 5% 절삭 평균치(5% trimmed mean)²⁶⁾를 통해 비교하고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친한 친구수의 평균치를 비교하면,

26) 기술통계상의 평균치 분석시 이상치가 의심될 경우 양 극단 5%에 해당하는 값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을 통해 평균을 구하는 것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친한 친구수가 학생 청소년들의 친한 친구 수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학업중단: mean = 11.90, sd = 12.28 vs 학생: mean = 6.69, sd = 5.35).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역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친구수가 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절삭 평균 역시 학생 청소년에 비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학업중단: 10.32명 vs 학생: 6.01명).

친한친구수



【그림 V-19】 친한 친구 수 집단비교: 평균 및 5% 절삭 평균

② 또래 애착

또래 애착은 총 세 개의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조사에서 활용된 조사문항들은 ①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mean = 3.1, sd = .611), ②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mean = 3.2, sd = .763), ③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mean = 3.2, sd = .667) 등이다. 또래 애착의 문항별 결과는 <표 V-37>과 같다. 또래 애착의 문항은 학생집단과의 비교 자료가 없어 비교는 생략하였다.

표 V-37 또래 애착

	사례수(명)	MEAN(점)	SD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474	3.1	0.611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474	3.2	0.763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474	3.2	0.667

③ 친구의 비행성향

친구의 비행성향은 총 세 개의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조사에서 활용된 조사문항들은 ①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mean = 1.8, sd = .770), ②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mean = 1.7, sd = .750), ③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mean = 1.5, sd = .633) 등이다. 친구의 비행성향의 문항별 결과는 <표 V-38>과 같다. 친구의 비행성향 문항은 학생집단과의 비교 자료가 없어 비교는 생략하였다.

표 V-38 친구의 비행성향

	사례수(명)	MEAN(점)	SD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474	1.8	0.770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	474	1.7	0.750
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	474	1.5	0.633

(3) 학교생활

① 교사와의 관계

학교 교사와의 관계는 총 세 개의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학생 청소년들의 경우 2012 정신건강 연구 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두 조사에서 활용된 조사문항들은 ①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있었다, ②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다, ③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이며 문항

간 일관성을 보여주는 Cronbach alpha 값은 각각 .880(학업중단)과 .903(2012 정신건강)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먼저 <표 V-39>와 같이 문항별로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모든 문항에서 학생 청소년들의 교사와의 관계 수준의 평균치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①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mean = 3.00, sd = .862 vs mean = 2.75, sd = .925; ②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다: mean = 2.69, sd = .974 vs mean = 2.45, sd = .947; ③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mean = 2.82, sd = .940 vs mean = 2.56, sd = .940).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③번 문항만이 학생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9 학교교사와의 관계 집단비교(문항):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문항	학업중단(N=479)		학생(N=8722)		t값
	Mean	SD	Mean	SD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2.75	.925	3.00	.862	1.78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다.	2.45	.947	2.69	.974	1.90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2.56	.940	2.82	.940	1.97*

* p <.05

다음으로 <표 V-40>과 같이 세 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살펴 본 결과 역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학생 청소년들의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학업중단: mean = 7.75, sd = 2.55 vs 학생: mean = 8.51, sd = 2.54). 그러나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두 집단의 교사와의 관계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40 학교교사와의 관계 집단비교(합산):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요인	학업중단(N=479)		학생(N=8722)		t값
	Mean	SD	Mean	SD	
학교교사와의 관계	7.75	2.55	8.51	2.54	1.91

* p <.05

② 학교친구와의 관계

응답자의 친구관계는 총 세 개의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학생 청소년들의 경우 2012 정신건강 연구 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두 조사에서 활용된 조사문항들은 ①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었다, ②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했다, ③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등이며 문항 간 일관성을 보여주는 Cronbach alpha 값은 각각 .880(학업중단)과 .872(2012 정신건강)로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먼저 <표 V-41>과 같이 문항별로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모든 문항에서 학생 청소년들의 친구관계의 평균치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높게, 즉 양호하게 나타났다(①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었다: mean = 3.37, sd = .748 vs mean = 3.18, sd = .846; ②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했다: mean = 3.32, sd = .757 vs mean = 2.96, sd = .918; ③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mean = 3.37, sd = .746 vs mean = 3.20, sd = .800). 그러나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는 ②번 문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1 학교친구와의 관계 집단비교(문항):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문항	학업중단(N=479)		학생(N=8727)		t값
	Mean	SD	Mean	SD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었다.	3.18	.846	3.37	.748	1.20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했다.	2.96	.918	3.32	.757	2.32*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3.20	.800	3.37	.746	1.07

* p < .05

다음으로 <표 V-42>와 같이 세 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살펴 본 결과 역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학생 청소년들의 학교친구관계의 긍정적 정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학업중단: mean = 9.33, sd = 2.29 vs 학생: mean = 10.05, sd = 2.00). 그러나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두 집단의 친구관계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42 학교친구와의 관계 집단비교(합산):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요인	학업중단(N=479)		학생(N=8727)		t값
	Mean	SD	Mean	SD	
친구관계	9.33	2.29	10.05	2.00	1.53

* p <.05

③ 학습부적응

학습부적응 정도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교할 수 있는 학생 청소년 조사 자료는 2008년에 수행된 한국교육종단연구 4차년도 조사자료(이하 교육종단 4차 자료)이다. 두 조사 모두 학습부적응을 조사하고는 있으나 조사 문항에 차이가 존재하여²⁷⁾ 문항별 비교는 하지 않고 문항을 묶어 구성된 요인의 평균치만을 비교하도록 한다. 문항 간 일관성을 보여주는 Cronbach alpha 값은 각각 .747(학업중단)과 .824(교육종단 4차 자료)로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V-43>과 같이 세 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살펴 본 결과 역시 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습부적응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학업중단: mean = 7.67, sd = 2.23 vs 학생: mean = 5.47, sd = 1.61).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습부적응 정도가 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3 학습부적응 집단비교(합산):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요인	학업중단(N=479)		학생(N=3311)		t값
	Mean	SD	Mean	SD	
학습부적응	7.67	2.23	5.47	1.61	-7.76*

* p <.05

④ 학교규정 위반 경험

학업중단 청소년의 규정위반 경험은 2005년 수행된 한국교육종단연구 1차년도 조사자료(이하

27) 학업중단 자료의 경우 “학교 수업내용은 내 관심, 흥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학교 수업내용은 내 수준에 맞지 않았다”, “학교 수업을 알아듣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다” 등이 사용되었으며 교육종단 4차 자료의 경우 “수업내용은 나에게 무의미하다”, “학교 수업은 내가 따라잡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 “수업시간을 견디기 힘들다” 등이 사용되었다. 액면타당도 차원에서 중복되는 의미가 없지 않으나 엄밀한 비교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중단 1차 자료)의 학생 청소년 집단과 비교되었다. 교육중단 1차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해 2005년도부터 수행된 패널자료이며 1차년도는 중1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비교 대상으로서 학생 청소년들의 연령이 지나치게 제한적 일수 있으나 조사문항 및 응답항목이 일치하기 때문에 비교를 수행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해석은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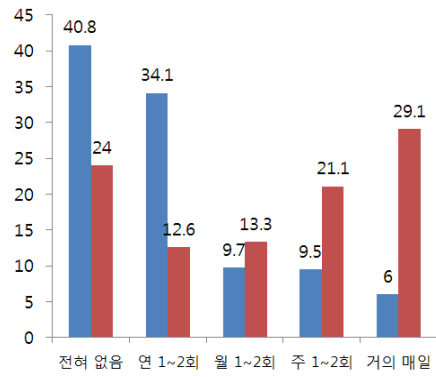
비교가 이루어 질 규정위반 사항은 '지각', '무단결석', '두발 및 복장위반', '숙제 안 해옴', '수업 빼먹음' 등이며 응답항목이 명백하게 순위척도임에 따라 위반내용별로는 응답빈도를 비교하고 이후 합산하여 평균치를 비교하도록 한다. 먼저 [그림 V-20]에서 '지각'을 살펴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거의 매일'과 '주 1-2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 반해 학생 청소년들은 15%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0.8%로 나타났다. 무단결석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거의 매일'과 '주 1-2회'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에 반해 학생 청소년들은 0.3%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3.3%로 나타났다.

두발 및 복장 위반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거의 매일'과 '주 1-2회'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에 반해 학생 청소년들은 4.6%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4.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숙제 안 해옴'을 살펴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거의 매일'과 '주 1-2회'가 약 43%를 차지하고 있음에 반해 학생 청소년들은 18.6%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오히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34.3%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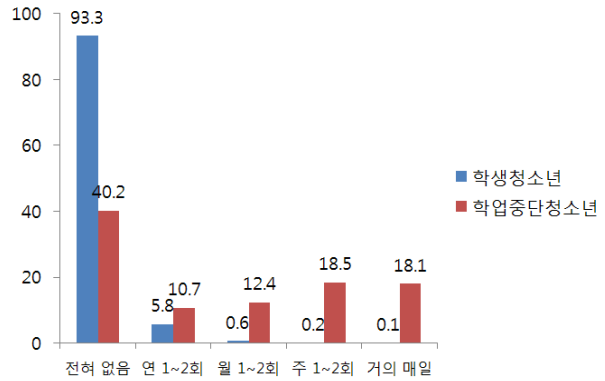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수업을 몰래 빼먹은 비율을 살펴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거의 매일'과 '주 1-2회'가 26.9%를 차지하는데 반해 학생 청소년들은 0.6%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전혀 없다'가 94.2%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에서 규정위반 경험은 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에서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은 전술하였다시피, 두 집단의 연령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5개의 규정위반 경험 정도를 합산하여 살펴 본 결과 역시 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규정위반 경험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학업중단: mean = 13.57, sd = 5.97 vs 학생: mean = 8.01, sd = 2.45).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규정위반 정도가 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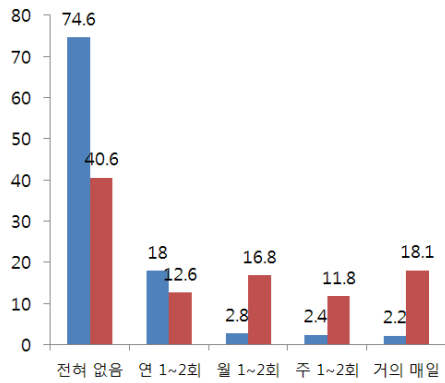
학교규정위반_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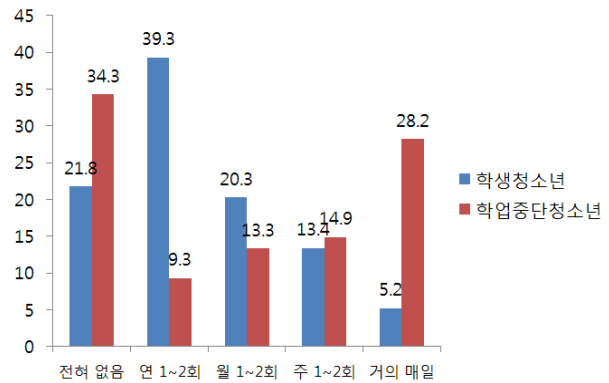
학교규정위반_무단결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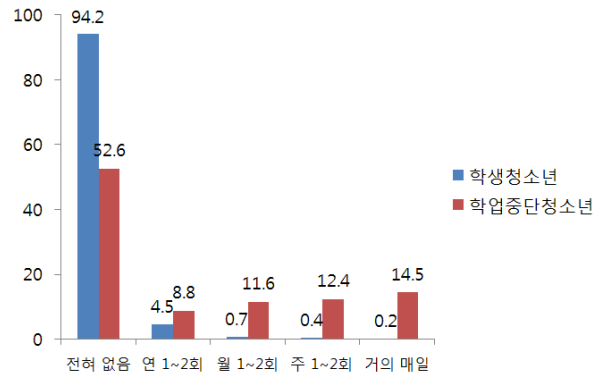
학교규정위반_두발복장위반



학교규정위반_숙제 안 해옴



학교규정위반_수업 빼먹음



【그림 V-20】 학교규정 위반 경험 집단비교

표 V-44 학교규정 위반 경험 집단비교(합산): 일반 학업중단 vs 학생

요인	학업중단(N=479)		학생(N=6735)		t값
	Mean	SD	Mean	SD	
규정위반경험	13.57	5.97	8.01	2.45	-13.84*

* p < .05

(4) 지역사회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학생 청소년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은 배경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만하다.

① 지역사회 사회통합

지역사회 사회통합은 총 네 개의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조사에서 활용된 조사문항들은 ①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냈다(mean = 2.4, sd = .892), ②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mean = 2.1, sd = .808), ③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었을 것이다(mean = 2.3, sd = .913), ④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말렸을 것이다(mean = 2.4, sd = .824) 등이다. 지역사회 사회통합의 문항별 결과는 <표 V-45>와 같다. 지역사회 사회통합 문항은 학생집단과의 비교 자료가 없어 비교는 생략하였다.

표 V-45 지역사회 사회통합

	사례수(명)	MEAN(점)	SD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냈다.	474	2.4	0.892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474	2.1	0.808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었을 것이다.	474	2.3	0.913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말렸을 것이다.	474	2.4	0.824

② 지역사회 무질서

지역사회 무질서는 총 네 개의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조사에서 활용된 조사문항들은 ①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빈집이나 공터가 많았다(mean = 2.0, sd = .781), ②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mean = 2.2, sd = .902), ③우리 동네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녔다(mean = 2.2, sd = .923), ④우리 동네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mean = 2.4, sd = .931) 등이다. 지역사회 무질서의 문항별 결과는 <표 V-46>과 같다. 지역사회 무질서 문항은 학생집단과의 비교 자료가 없어 비교는 생략하였다.

표 V-46 지역사회 무질서

	사례수(명)	MEAN(점)	SD
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빈집이나 공터가 많았다.	474	2.0	0.781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474	2.2	0.902
우리 동네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녔다.	474	2.2	0.923
불량한 청소년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474	2.4	0.931

③ 지역사회 유익환경

지역사회 유익환경은 총 두 개의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조사에서 활용된 조사문항들은 ①우리 동네에는 여가문화시설(청소년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했다(mean = 2.3, sd = .916), ②우리 동네는 산, 공원, 하천 둔치 등이 있어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았다(mean = 2.8, sd = .8473) 등이다. 지역사회 유익환경 문항별 결과는 <표 V-47>과 같다. 지역사회 유익환경 문항은 학생집단과의 비교 자료가 없어 비교는 생략하였다.

표 V-47 지역사회 유익환경

	사례수(명)	MEAN(점)	SD
여가문화시설(청소년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했다.	474	2.3	0.916
산, 공원, 하천둔치 등이 있어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았다.	474	2.8	0.847

지금까지 2013 학업중단 청소년패널 1차년도 조사 자료를 학생 청소년 집단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비교특성은 응답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들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감, 그리고 문제행동경험, 게임중독정도, 부모의 정서적 및 경제적 지원,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습부적응 등이며, 분석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논의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자면, 먼저 응답자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그리고 우울감 등은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학생 청소년들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학업중단 청소년과 학생 청소년 두 집단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요인들은 주로 학교와 문제행동 관련 요인들로 나타났다. 학습부적응, 규정위반경험, 게임중독 등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예상했던 대로, 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문제성을 드러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대략 ‘정신 및 심리적으로 문제 상황에 직면해 있고,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집단’ 정도일 것이다. 범죄학 이론 중 낙인이론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위와 같은 일반적 정의내림은 그들을 보통의 청소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보통의 청소년들로부터 분리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또래집단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의 낙인을 부여받게 되며 이러한 낙인화 과정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스스로의 자기규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문제행동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의 기존 사고방식에 문제를 제기함에 부족함이 없다.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과연 보통의 청소년들과 다른 집단인가? 만약 다르다면 어떤 특성들이 다르게 나타나는가?’이다. 분석결과 많은 측면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보통의 청소년들과 그리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감 등 많은 학자들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활용해온 심리적 특성은 학생 청소년들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개인의 안정적 성향으로서 심리적 특성과 학업중단간의 관계에 대하여 보다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생 청소년들과 모든 측면에서 동일하지는 않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보통의 청소년들과 구별되는 지점은 문제행동 가운데 ‘술 마시기’와 ‘담배 피우기’, ‘친한 친구 수’, ‘학교 규정 위반 경험’, ‘학습부적응’, ‘게임 중독’,

‘부모의 경제적 지원’ 등이었다. 핵심적 차이는 먼저 학교생활에서 발견된다. 즉 학교에서의 부적응(학습을 포함한 학교생활 전반)은 학업의 중단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구별되는 지점은 비행을 포함한 문제행동이다. 게임중독 또한 넓은 의미에서 문제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친한 친구수가 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범죄학 이론 중 차별적 교제이론의 적용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학업 중단 청소년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지점은 가정의 경제적 상황 역시 학업중단이라는 선택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4. 학업중단 이후의 삶²⁸⁾

본 조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후 삶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다양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본 절에서는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과 관계망의 변화, 진로 계획, 일상생활과 가치관 등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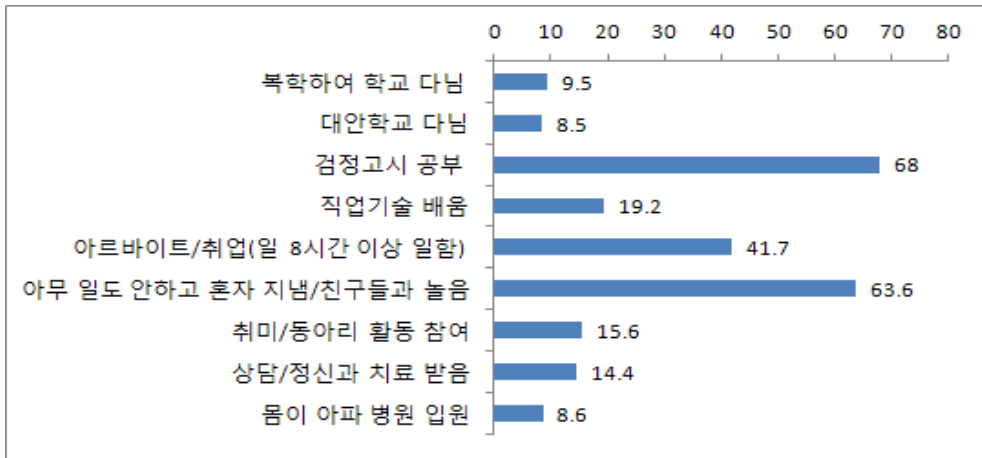
1)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과 인식

(1) 학업중단 이후 경험

학업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학업중단에 이르는 과정에 주로 초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실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어떤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왜 학업중단을 하게 되는가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들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비로소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본 조사에서는 가장 최근의 학업중단 이후 지난 1년(2012년 7월 ~ 2013년 7월, 총 13개월)동안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

28) 이 부분은 유성렬(백석대 교수)이 집필하였음.



【그림 V-2】 학업중단 이후 경험 (단위: %)

우선 복학하여 학교에 다니는 여부는 전체 응답자 474명 가운데 45명인 9.5%가 복학하여 학교에 다니며, 대안학교에 다닌다고 응답한 비율은 8.5%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검정고시 공부 경험을 68%로²⁹⁾ 전체 응답자의 약 2/3 정도가 학업중단 이후 검정고시 공부를 하였으며, 그 기간을 살펴보면 3개월 이내는 23.2%, 4~6개월은 20.5%, 7개월 이상은 24.3%인 것으로 분포되어 있다. 본 조사에 참여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상당수는 학교를 그만둔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검정고시 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⁰⁾

학업중단 이후 직업기술을 배운 경험은 19.2%이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한 경험자는 41.7%로 학업중단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시간제 혹은 전일제 일자리를 통해 돈을 번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며 시간을 보낸 경험을 가진 학업중단 청소년은 63.6%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학업중단 이후 갑자기 증가한 개인시간을 소비하는데 공부나 일을 하기 보다는 혼자 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이러한 생활을 7개월 이상 지속하는 청소년이 21.7%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학업중단 청소년들 중 적지 않은 인원이 특정한 목표의식 없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 밖에 취미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15.6%,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9) 검정고시 학원에서 구한 표본 수(150명)를 제외하고 산출한 순 검정고시 경험률은 15.1%로 나타남.

30) 직업훈련기관에서 구한 표본 수(49명)를 제외한 순 직업훈련 경험률은 8.8%로 나타남.

14.4%,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8

학업중단 이후 경험

(N=474)

	없음		3개월 이내		4개월~6개월		7개월 이상		평균 월	표준 편차
	N	%	N	%	N	%	N	%		
복학하여 학교에 다님	429	90.5	19	4.0	19	4.0	7	1.5	4.0	3.097
대안학교에 다님	434	91.6	18	3.8	5	1.1	17	3.6	6.0	4.788
검정고시 공부를 함	152	32.1	110	23.2	97	20.5	115	24.3	5.6	3.481
직업기술을 배움	383	80.8	30	6.3	44	9.3	17	3.6	4.9	3.053
아르바이트/취업하여 하루 8 시간 이상 일을 함	276	58.2	95	20.0	59	12.4	44	9.3	4.5	3.400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놀	172	36.3	123	25.9	76	16.0	103	21.7	5.3	3.599
취미나 동아리활동 참여	400	84.4	25	5.3	22	4.6	27	5.7	5.9	3.824
상담/정신과 치료를 받음	406	85.7	43	9.1	14	3.0	11	2.3	3.8	3.553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433	91.4	40	8.4	1	0.2	-	-	1.6	0.997

위에서 언급된 여러 경험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험 응답비율이 높은 4가지 즉, 검정고시 공부, 직업기술을 배움, 아르바이트나 취업,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친구들과 어울린 경험이 주요 배경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① 검정고시 공부 경험

우선 <표 V-49> 검정고시 경험의 배경변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험률은 여자가 남자 보다, 양부모가정 청소년이 '한부모' 또는 '부모가 모두 안 계신 가정' 청소년 보다, 가정 경제수준 귀속의식이 상층인 청소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 집단 보다, 학업성적이 상위권이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일수록, 중단기간이 길수록, 학업중단 사유가 대안교육 선호, 개인사정, 학교부적응/품행문제 순으로 검정고시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공부기간은 중학교 때 중단한 청소년집단에서 조금 더 길었고 학업중단 기간이 1년 이상인 집단이 1년 미만인 집단보다 길었고 다른 차이는 없었다.

표 V-49

학업중단 이후 경험 - 검정고시 공부를 함: 배경변수별 차이

(단위: %)

	전체 (명)	없음		있음		χ^2	평균 (개월)	표준 편차	t (F) (Scheffe)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 체	474	152	32.1	322	67.9		5.6	3.5	
성별									
남자	274	106	38.7	168	61.3	13.058***	5.9	3.6	1.322
여자	200	46	23	154	77		5.3	3.4	
연령대									
중학교학령(만13-15세)	42	15	35.7	27	64.3	0.843	6.1	4.0	0.795
고등학교학령(만16-18세)	420	132	31.4	288	68.6		5.5	3.4	
19세	12	5	41.7	7	58.3		6.9	3.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286	79	27.6	207	72.4	6.758*	6	3.6	3.213*
한부모가정	133	53	39.8	80	60.2		4.9	3.2	
부모 모두 안계심	55	20	36.4	35	63.6		5.3	3.0	
가정경제수준									
상	134	28	20.9	106	79.1	10.738**	6.2	3.6	2.818
중	187	69	36.9	118	63.1		5.5	3.5	
하	153	55	35.9	98	64.1		5.1	3.2	
학업성적									
상	109	27	24.8	82	75.2	6.922*	5.5	3.4	0.472
중	116	32	27.6	84	72.4		5.9	3.3	
하	249	93	37.3	156	62.7		5.5	3.6	
학업중단 시점									
중학교때	109	32	29.4	77	70.6	0.477	6.5	3.6	2.647**
고등학교때	365	120	32.9	245	67.1		5.3	3.4	
학업중단 기간									
1년 미만(a)	258	99	38.4	159	61.6	10.358**	4.6	2.8	14.143***
1년 이상~2년 미만(b)	161	40	24.8	121	75.2		6.5	3.9	(a<b, c)
2년 이상(c)	55	13	23.6	42	76.4		6.8	3.4	
학업중단 사유									
가정 형편 등 개인 사정	86	23	26.7	63	73.3	11.303**	5.7	3.7	0.593
학교 부적응 / 품행 문제	273	104	38.1	169	61.9		5.8	3.7	
대안교육을 원해서	115	25	21.7	90	78.3		5.3	2.9	

* p<.05, ** p<.01, *** p<.001

② 직업기술훈련 경험

표 V-50 학업중단 이후 경험 - 직업기술을 배움: 배경변수별 차이 (단위: %)

	전체 (명)	없음		있음		X ²	평균 (개월)	표준 편차	t (F) (Scheffe)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 체	474	383	80.8	91	19.2		4.9	3.1	
성별									
남자	274	217	79.2	57	20.8	1.078	5.6	2.7	2.970**
여자	200	166	83	34	17		3.8	3.3	
연령대									
중학교학령(만13-15세)	42	35	83.3	7	16.7	0.252	5.1	3.6	0.016
고등학교학령(만16-18세)	420	338	80.5	82	19.5		4.9	3.1	
19세	12	10	83.3	2	16.7		5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286	237	82.9	49	17.1	3.773	5.2	3.4	0.607
한부모가정	133	100	75.2	33	24.8		4.5	2.7	
부모 모두 안계심	55	46	83.6	9	16.4		5	2.1	
가정경제수준									
상	134	109	81.3	25	18.7	0.594	5.5	3.8	2.222
중	187	148	79.1	39	20.9		5.3	3.0	
하	153	126	82.4	27	17.6		3.9	2.0	
학업성적									
상	109	88	80.7	21	19.3	3.179	5.3	3.6	0.768
중	116	100	86.2	16	13.8		4.1	3.2	
하	249	195	78.3	54	21.7		5	2.8	
학업중단 시점									
중학교때	109	77	70.6	32	29.4	9.418**	5.8	3.6	1.954
고등학교때	365	306	83.8	59	16.2		4.5	2.7	
학업중단 기간									
1년 미만	258	216	83.7	42	16.3	4.111	4.4	2.5	1.636
1년 이상~2년 미만	161	127	78.9	34	21.1		5.7	3.5	
2년 이상	55	40	72.7	15	27.3		4.7	3.2	
학업중단 사유									
가정 형편 등 개인 사정	86	73	84.9	13	15.1	1.13	4.8	2.4	0.120
학교 부적응 / 품행 문제	273	218	79.9	55	20.1		5.1	3.2	
대안교육을 원해서	115	92	80	23	20		4.7	3.1	

* p<.05, ** p<.01, *** p<.001

<표 V-50>은 직업기술을 배운 경험에 대한 배경변수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학업중단 시점이 중학교 때인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때인 청소년보다 경험률이 높았으며 배운 기간도 더 길었다. 직업기술을 배운 기간은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배운 기간이 약간 더 길었다.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 둔 경우에 직업기술 습득에 투자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찍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 학업을 지속하기 보다는 직업기술을 익히는데 더 관심을 갖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시간제 근로/취업 경험

<표 V-51>를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하여 일을 한 경험률은 성, 연령, 가족구성, 가정경제수준, 학업중단시점, 학업중단사유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구성이 부모 모두 안계신 가정, 한부모 가정, 양부모 가정의 순으로, 가정경제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학업중단시점이 고등학교일 때, 학업중단 사유가 학교부적응/품행 문제 등일 때가 그렇지 않을 때 보다 근로 경험률이 더 높았다. 근로기간은 학업중단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중단한 청소년이 근로기간이 더 길었다.

조사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18%인 86명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86명 중 패스트푸드점이나 분식점 등에서 서빙/카운터/배달 (47.7%) 일을 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편의점이나 일반상점에서 점원(11.6%)으로 일하고 있거나, 신문이나 우유배달 (5.8%), 카페나 주점에서의 서빙(5.8%), 이삿짐 운반이나 포장/ 건설 현장이나 공장노동(8.1%) 등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작업 강도를 살펴보면, 이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4.7일, 하루 7.8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들이 노동시장 참여 수준에 근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평균 시급은 6,02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1

학업중단 이후 경험

-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배경변수별 차이

	전체 (명)	없음		있음		X ²	평균 (개월)	표준 편차	t (F) (Scheffe)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 체	474	276	58.2	198	41.8		4.5	3.4		
성별	남자	274	146	53.3	128	46.7	6.524*	4.3	3.1	-1.486
	여자	200	130	65	70	35		5	3.8	
연령대	중학교학령(만13-15세)	42	37	88.1	5	11.9	21.568***	2.8	1.9	0.662
	고등학교학령(만16-18세)	420	236	56.2	184	43.8		4.6	3.4	
	19세	12	3	25	9	75		4.6	3.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286	185	64.7	101	35.3	13.749**	4.1	3.3	2.057
	한부모가정	133	68	51.1	65	48.9		4.8	3.4	
	부모 모두 안계심	55	23	41.8	32	58.2		5.4	3.5	
가정경제수준	상	134	90	67.2	44	32.8	9.030*	4.6	3.2	0.050
	중	187	110	58.8	77	41.2		4.4	3.3	
	하	153	76	49.7	77	50.3		4.6	3.6	
학업성적	상	109	69	63.3	40	36.7	2.421	4.4	2.6	1.588
	중	116	70	60.3	46	39.7		5.3	3.9	
	하	249	137	55	112	45		4.3	3.4	
학업중단 시점	중학교때	109	81	74.3	28	25.7	15.055***	3	2.0	-2.671**
	고등학교때	365	195	53.4	170	46.6		4.8	3.5	
학업중단 기간	1년 미만	258	158	61.2	100	38.8	2.532	3.9	2.5	4.684*
	1년 이상~2년 미만	161	90	55.9	71	44.1		5.5	4.2	
	2년 이상	55	28	50.9	27	49.1		4.2	3.3	
학업중단 사유	가정 형편 등 개인 사정	86	56	65.1	30	34.9	6.923*	4.4	3.7	0.102
	학교 부적응 / 품행 문제	273	145	53.1	128	46.9		4.5	3.5	
	대안교육을 원해서	115	75	65.2	40	34.8		4.7	3.1	

* p<.05, ** p<.01, *** p<.001

④ 무위도식 경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논 경험은 학업중단 사유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가정형편 등 개인사정'이나 '학교부적응/품행문제'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대안교육을 이유로 하는 청소년 보다 무위도식하는 경험률이 더 높았다.

표 V-52

학업중단 이후 경험

-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놀음: 배경변수별 차이

	전체 (명)	없음		있음		χ^2	평균 (개월)	표준 편차	t (F) (Scheffe)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 체	474	172	36.3	302	63.7		5.3	3.6	
성별									
남자	274	97	35.4	177	64.6	0.22	5.3	3.6	0.409
여자	200	75	37.5	125	62.5		5.2	3.6	
연령대									
중학교학령(만13-15세)	42	18	42.9	24	57.1	1.466	4.7	2.8	4.194*
고등학교학령(만16-18세)	420	151	36	269	64		5.3	3.7	
19세	12	3	25	9	75		5.6	3.9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286	112	39.2	174	60.8	3.897	5.3	3.7	4.828*
한부모가정	133	39	29.3	94	70.7		5.3	3.6	
부모 모두 안계심	55	21	38.2	34	61.8		5	3.1	
가정경제수준									
상	134	53	39.6	81	60.4	3.067	4.9	3.6	1.239
중	187	72	38.5	115	61.5		5.4	3.6	
하	153	47	30.7	106	69.3		5.4	3.6	
학업성적									
상	109	42	38.5	67	61.5	1.051	4.8	3.3	0.272
중	116	45	38.8	71	61.2		5.1	3.7	
하	249	85	34.1	164	65.9		5.5	3.7	
학업중단 시점									
중학교때	109	47	43.1	62	56.9	2.858	5.9	3.8	0.311
고등학교때	365	125	34.2	240	65.8		5.1	3.5	
학업중단 기간									
1년 미만	258	96	37.2	162	62.8	0.495	4.3	2.9	2.685
1년 이상~2년 미만	161	55	34.2	106	65.8		6.7	4.0	
2년 이상	55	21	38.2	34	61.8		5.4	3.8	
학업중단 사유									
가정 형편 등 개인 사정	86	25	29.1	61	70.9	12.009**	5	3.4	0.277
학교 부적응 /品行 문제	273	90	33	183	67		5.4	3.6	
대안교육을 원해서	115	57	49.6	58	50.4		5.1	3.8	

* p<.05, ** p<.01, *** p<.001

⑤ 학업중단 이후 주거 공간 및 비행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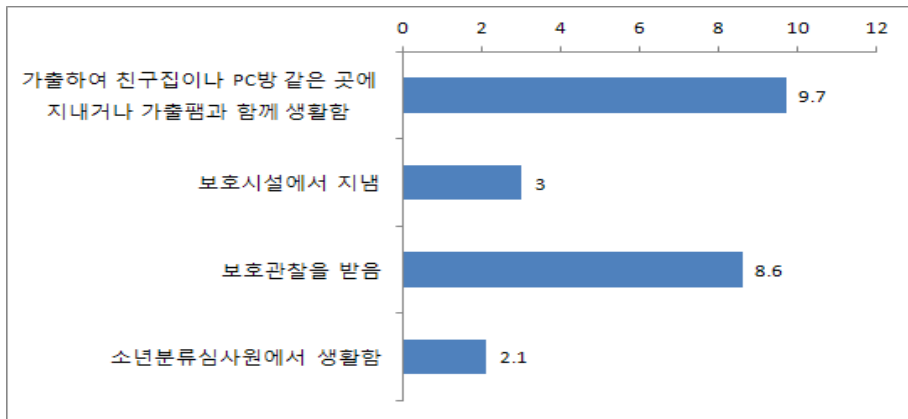
<표 V-53>에서 학업중단 이후 주거 공간 및 비행 경험과 관련한 추이를 살펴보면, 가출을 하여 친구 집이나 PC방에서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7%로 특히 보호관찰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8.6%에 달하였으며, 보호시설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 2.1%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PC방, 가출팸 등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하는 경험이 10% 수준인 반면 보호시설 등 이용 경험은 2% 수준에 불과해 많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가출 시 시설 이용률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평균 가출 기간은 2.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시설에서 지내거나 보호관찰을 받은 기간은 평균 5.0개월과 6.4개월로 나타났다.

표 V-53 학업중단 후 주거 공간 및 비행추이

	없음		있음		평균 (개월)	표준 편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가출하여 친구 집이나 PC방 같은 곳에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	428	90.3	46	9.7	2.6	2.0
보호시설에서 지냄	460	97.0	14	3.0	5.0	3.6
보호관찰을 받음	433	91.4	41	8.6	6.4	4.0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464	97.9	10	2.1	2.2	1.1

* 주: 평균 개월 수는 '없음' 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 (최소 1개월 이상 응답자)로 산출하였음. 0개월은 미포함



[그림 V-22] 학업중단 후 주거 공간 및 비행추이 (단위: %)

(2) 학업중단 이후의 사회적 관계

학업중단은 단순히 학교를 그만 두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생활공간의 변화를 동반한다. 이러한 생활공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학업중단으로 인해 주요 생활공간이었던 학교가 사라지고 대신에 학원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장 등의 새로운 공간이 들어오거나 혹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새로운 공간마저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① 친한 친구 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친구 관계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현재 친한 친구의 수와 학업중단 이후 새롭게 사귀 친구 수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표 V-54>에서 현재 친한 친구 수의 경우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7%에 불과했고, 나머지 경우에는 30% 전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학업중단 이후 새로 사귀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6.3%로 전체 응답자의 약 1/3 정도는 학업중단 이후 변화된 생활공간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새롭게 친구를 사귀는 경우에도 5명 이하인 경우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새로운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표 V-54 학업중단 이후 친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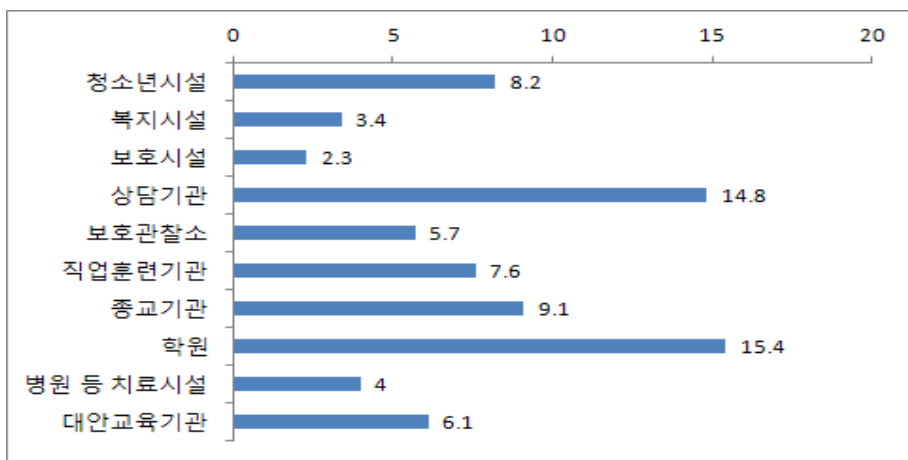
	현재 친한 친구 수		학업중단 후 새로 사귀 친구 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없음	8	1.7	172	36.3
1명 이상 5명 이하	146	30.8	194	40.9
6명 이상 10명 이하	172	36.3	70	14.8
11명 이상	148	31.2	38	8.0

② 지역사회기관의 성인 멘토 경험여부

학업중단 이후 멘토로서의 학교 선생님의 역할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성인을 만나는 것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 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기관별로 학업중단 이후 자신을 이해하고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V-55 학업중단 이후 만난 성인 멘토

	사례수 (명)	없다		있다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청소년시설	474	435	91.8	39	8.2
복지시설	474	458	96.6	16	3.4
보호시설	474	463	97.7	11	2.3
상담기관	474	404	85.2	70	14.8
보호관찰소	474	447	94.3	27	5.7
직업훈련기관	474	438	92.4	36	7.6
종교기관	474	431	90.9	43	9.1
학원	474	401	84.6	73	15.4
병원 등 치료시설	474	455	96.0	19	4.0
대안교육기관	474	445	93.9	29	6.1



【그림 V-23】 학업중단 이후 만난 성인 멘토 (단위: %)

<표 V-55>, [그림 V-23]과 같이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이 성인 멘토를 만난 주요 기관은 학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 중 15.4%가 학원에서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인 멘토를 만났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상담기관에서 성인 멘토를 만났다고 응답한 경우가 14.8%로 많았고, 종교기관, 청소년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3) 학업중단 이후 진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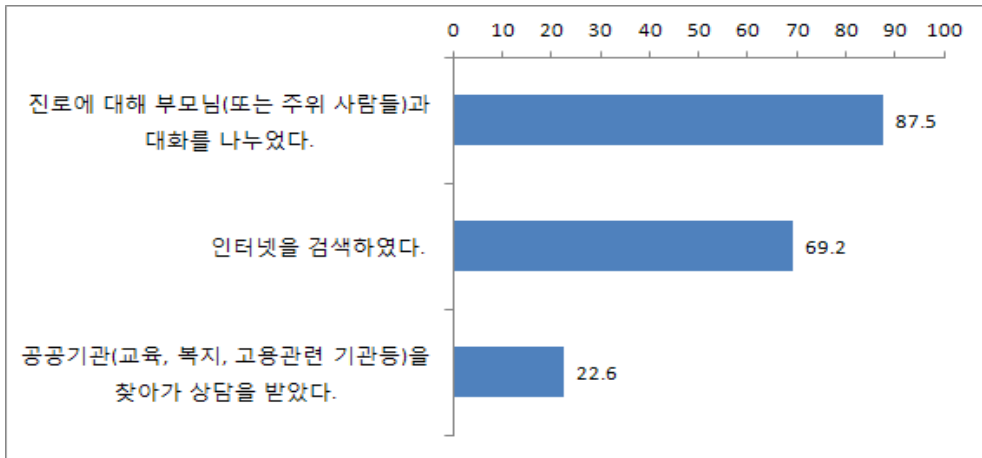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둘 당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도움은 앞으로의 진로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것이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 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하였다.

① 진로 정보의 탐색

<표 V-56>과 [그림 V-24]에서 학교를 그만 둔 후 진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무슨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과 진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87.5%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69.2%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진로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교육이나 복지, 또는 고용 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2.6%에 그쳐 약 5명 중 1명 정도가 진로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6 **진로 정보의 탐색** (단위: %)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진로에 대해 부모님과 대화 나눴다.	474	5.3	7.2	50.6	36.9	3.2	0.8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474	14.1	16.7	44.3	24.9	2.8	1.0
공공기관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474	53.8	23.6	16.7	5.9	1.7	1.0



【그림 V-24】 진로 정보의 탐색 (단위: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앞에서 학업 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와 관련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청소년 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비율이 23.6%,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등과 관련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비율이 15.8%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진로와 관련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향후 진로 계획

<표 V-57>과 같이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앞으로의 진로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17.5%에 해당하는 83명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응답한 반면, 대학 진학을 포함한 정규학교로 복학하거나 대안학교로 진학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1%로 나타났다. 또한 대안학교 등에 다니지 않고 스스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0.4%로 나타나 해외유학을 가겠다고 응답한 4.6%를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65.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 가운데

약 2/3 정도는 비록 학교를 그만 두었다 하더라도 공부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달리 취업할 예정이거나 취업 준비 혹은 아르바이트 등을 하겠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16.4%로 나타났다. 즉 학업 중단 이후 학업은 포기하고 직업과 관련한 활동에 전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오히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둔 이후에도 학업의 중요성 또는 필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V-57 **향후 진로 계획** (N=474명)

	사례수(명)	비율(%)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임	83	17.5
정규학교로 복학(대학 진학 포함)	139	29.3
대안학교 진학	8	1.7
해외 유학	22	4.6
(대안학교 등을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준비	144	30.4
진학하지 않고 취업(창업)할 예정임	27	5.7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임	29	6.1
취업과 진학 병행(방송통신고 등)	11	2.3
진학이나 취업은 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임	8	1.7
당분간 무보수로 가업(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 등)을 도울 예정임	3	0.6

③ 진로 계획 달성 예측

진로 계획과 관련하여 자신이 세운 진로 계획을 얼마나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실제 그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심리적 동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 가운데 향후 진로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392명에게 자신들이 세운 계획이 얼마나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응답자의 93.1%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함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학업중단 자신의 계획이 달성될 것이라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본인의 교육 기대수준

이와 더불어 <표 V-58>과 같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향후 자신이 어느 수준까지 교육을 받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43.2%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28.1%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10.1%는 대학원까지 다니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2~3년제 대학을 포함하여 대학 교육까지 받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69.1%로 나타났다. 이 문항이 묻고 있는 것이 현실을 고려한 상황에서의 교육 열망이 아닌 단순히 어느 수준까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학업중단 청소년들도 우리 사회에서 대학교육이 지니는 의미를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58 **본인의 교육 기대수준** **(N=47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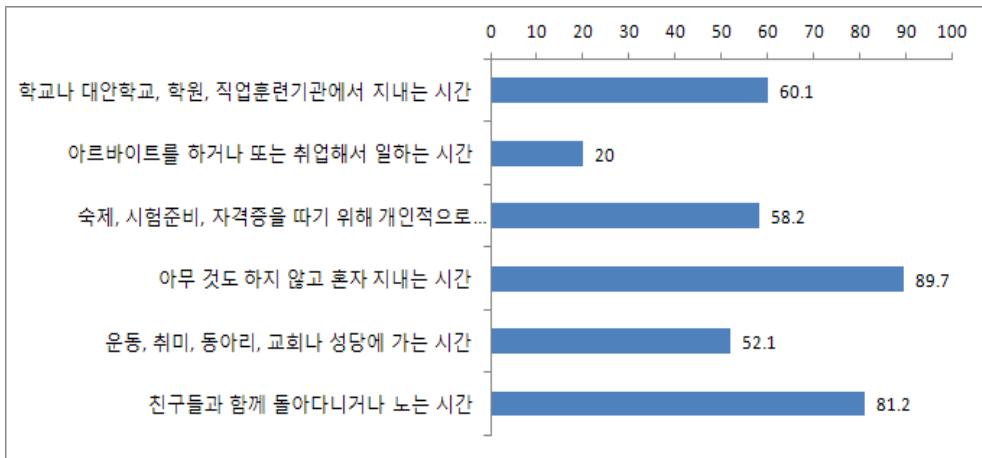
	사례수(명)	비율(%)
중졸	13	2.7
고졸	133	28.1
초대졸(2~3년제)	75	15.8
대졸(4년제)	205	43.2
대학원 졸(석사 및 박사)	48	10.1

(4) 학업중단 후 일상생활 및 가치관

① 생활영역 및 생활시간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후 일상생활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주요 생활 영역별로 하루 동안 생활하는 시간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림 V-25>를 보면 하루 생활시간 영역 중 학업·직업훈련을 받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0.1%,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이 있다는 청소년이 20%으로 학업·직업훈련을 받는 청소년들이 일하고 있는 청소년보다 많았다. 여가시간에 숙제 등 개인공부를 하는 청소년이 58.2%,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청소년이 89.7%,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노는 시간이 있는 청소년이 81.2%, 운동, 취미, 동아리, 종교 활동 등 긍정적 활동시간이 있는 청소년은 52.1%였다. 여가시간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는 청소년들이 개인공부나 운동 등 긍정적 활동을 하는 청소년보다 많았다. 응답자 중 50~60%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이나 직업훈련에 시간을 쏟고 있으며 여가시간에 개인적인 숙제나 공부, 운동 등 긍정적이고 유익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가시간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보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청소년들은 80~90% 수준에 있다.



【그림 V-25】 일상 생활시간 영역별 경험빈도 (단위: %)

<표 V-59>에서 평일의 일상 시간을 살펴보면 학교나 학원 등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 5.7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일하는 시간은 6.5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여가시간에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3.5시간으로 나타났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4.3시간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들과 노는 시간도 3.3시간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집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데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았다. 주말의 경우에는 평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면시간과 혼자 보내는 시간,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노는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9 생활영역별 일상시간

	사례 수 (명)	없음		있음		평일		휴일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평균 (시간)	표준 편차	평균 (시간)	표준 편차
수면시간	-	-	-	-	-	7.8	1.8	9.0	2.1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에서 지내는 시간	474	189	39.9	285	60.1	5.7	2.9	1.2	2.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	474	379	80.0	95	20.0	6.5	3.5	4.4	4.5
숙제, 시험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474	198	41.8	276	58.2	3.5	2.2	3.2	3.1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	474	49	10.3	425	89.7	4.3	3.2	4.8	3.3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에 가는 시간	474	227	47.9	247	52.1	1.8	1.5	2.3	1.8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노는 시간	474	89	18.8	385	81.2	3.3	2.8	5.1	3.3

② 식생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식생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7일 동안의 식사 형태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표 V-60>에서 최근 주 5일 결식률은 아침식사가 39.2%로 5명 중 2명 정도는 아침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점심이나 저녁식사의 경우에는 주5일 결식률이 각각 18.4%와 16.2%였다. 또한 라면이나 컵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의 주 3회 섭취율은 26.6%로 약 1/4 정도가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0 식생활 유형: 주 5일 결식률과 인스턴트 음식 섭취율

	사례수 (명)	아니다		그렇다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아침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474	288	60.8	186	39.2
점심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474	387	81.6	87	18.4
저녁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474	397	83.8	77	16.2
라면이나 컵라면을 주 3회 이상 먹었다	474	348	73.4	126	26.6

표 V-61 아침식사 주5일 결식률: 배경변수별 차이

	사례수 (명)	아니다		그렇다		t (F)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 체	474	288	60.8	186	39.2	
성별						
남자	274	174	63.5	100	36.5	2.051
여자	200	114	57.0	86	43.0	
연령대						
중학교 학령(만13-15세)	42	35	83.3	7	16.7	10.229**
고등학교 학령(만16-18세)	420	247	58.8	173	41.2	
19세	12	6	50.0	6	5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286	192	67.1	94	32.9	14.084***
한부모가정	133	72	54.1	61	45.9	
부모 모두 안계심	55	24	43.6	31	56.4	
가정경제수준						
상	134	85	63.4	49	36.6	6.981*
중	187	123	65.8	64	34.2	
하	153	80	52.3	73	47.7	
학업성적						
상	109	75	68.8	34	31.2	6.675*
중	116	75	64.7	41	35.3	
하	249	138	55.4	111	44.6	
학업중단 시점						
중학교때	109	81	74.3	28	25.7	10.904***
고등학교때	365	207	56.7	158	43.3	
학업중단 기간						
1년 미만	258	153	59.3	105	40.7	0.774
1년 이상~2년 미만	161	99	61.5	62	38.5	
2년 이상	55	36	65.5	19	34.5	
학업중단 사유						
가정 형편 등 개인 사정으로	86	53	61.6	33	38.4	0.040
학교 부적응 또는品行 문제로	273	165	60.4	108	39.6	
대안교육을 위해서	115	70	60.9	45	39.1	

* p<.05, ** p<.01, *** p<.001

<표 V-61>과 같이 아침식사 주 5일 결식률에 대하여 주요 배경변수에 따른 응답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우선 학업중단 청소년의 나이가 많을수록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학령의 청소년의 경우 16.7%만이 아침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고등학교 학령의 청소년은 41.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간섭과 통제의 범위 안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가족구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 중 32.9%가 아침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은 45.9%, 부모 모두 안 계신 가정의 청소년은 56.4%가 아침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아침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의 경우에도 학업중단 당시 성적이 낮을수록 현재 아침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아침식사를 제대로 먹기 위해서는 우선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줄 수 있는 부모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며, 동시에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개입하는 것에 청소년들이 일정 정도 순응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동시에 가족 구성이나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게 되면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③ 학력에 대한 생각

다음으로 본 조사에서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학력의 중요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표 V-62>를 보면 우선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 받는다’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의 87.8%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차별 받는다’는 문항에서는 77.6%가, ‘중고등학교 중퇴자의 취업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문항에서는 62.7%가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 사회적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2 학력에 대한 생각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사회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	474	3.0	9.3	39.5	48.3
우리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	474	3.6	18.8	46.2	31.4
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474	9.1	28.3	35.7	27.0

④ 자신의 미래에 대한 태도

다음으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문항을 질문하였다. <표 V-63> 결과를 살펴보면 본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 진학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73.8%, 미래가 희망적인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92.6%, 그리고 성공가능성에 대한 문항에서는 84.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V-63 자신의 미래에 대한 태도(문항)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내가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474	5.7	20.5	49.2	24.7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474	2.5	4.9	57.4	35.2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474	2.1	13.1	51.9	32.9

<표 V-64>와 같이 미래에 관한 3개의 문항 값을 합산하여 문항 수로 나눈 값에 대해 주요 배경변수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우선 학업중단 청소년의 연령이 19세인 경우 상대적으로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사유와 관련하여 학교 부적응이나 품행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그만두게 된 청소년들에 비해 대안교육을 원해서 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4 자신의 미래에 대한 태도: 배경변수별 차이

	사례수(명)	MEAN(점)	SD	t (F) (Scheffe)
전 체	474	3.1	0.636	
성별				
남자	274	3.1	0.654	-0.365
여자	200	3.1	0.612	
연령대				
중학교 학령(만13-15세)(a)	42	3.1	0.622	3.100* (c)a,b
고등학교 학령(만16-18세)(b)	420	3.1	0.632	
19세(c)	12	2.7	0.72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286	3.1	0.632	0.918
한부모가정	133	3.1	0.632	
부모 모두 안계심	55	3.0	0.669	
가정경제수준				
상	134	3.3	0.561	9.890*** (상)중,하
중	187	3.1	0.660	
하	153	3.0	0.632	
학업성적				
상	109	3.4	0.582	15.665*** (하)중,상
중	116	3.2	0.558	
하	249	3.0	0.657	
학업중단 시점				
중학교때	109	3.1	0.698	-0.160
고등학교때	365	3.1	0.617	
학업중단 기간				
1년 미만	258	3.1	0.623	0.386
1년 이상~2년 미만	161	3.1	0.663	
2년 이상	55	3.1	0.624	
학업중단 사유				
가정 형편 등 개인 사정으로(a)	86	3.1	0.643	14.693*** (c)a,b
학교 부적응 또는 품행 문제로(b)	273	3.0	0.645	
대안교육을 원해서(c)	115	3.4	0.528	

* p<.05, ** p<.01, *** p<.001

(5)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학업중단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적인 발달과정에서의 일탈을 의미한다. 비규범적 발달 이행(developmental transitions)은 대부분의 규범적 이행을 경험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름'은 곧 다른 사람들은 물론 비규범적 이행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도 일탈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본 조사에서는 학업중단에 대해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V-65>를 보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주변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가의 여부에 대해 48.9%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취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58.4%가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본 조사에 참여한 학업중단 청소년 가운데 절반 정도는 자신의 학업중단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학업중단에 대한 주변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속된 곳이 없어짐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27%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학교 이외의 다른 집단 혹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학업중단 이후 현재 생활에 만족하거나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0.4%, 74.3%로 나타나 상당수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생활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업 중단에 대해 후회하는가와 관련한 문항에서는 59.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전체 응답자의 약 2/3 정도는 자신이 학교를 그만 둔 것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474	16.9	34.2	35.4	13.5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아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474	13.3	28.3	40.7	17.7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였)다.	474	32.9	40.1	22.2	4.9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하(했)다.	474	4.0	15.6	50.8	29.5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하(했)다.	474	26.4	33.3	26.6	13.7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였)다.	474	5.7	20.0	49.8	24.5

학업중단에 관한 인식 문항 가운데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 행복한가의 2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역코딩하여 나머지 4개 문항과 합산한 후 문항 수로 나누어 학업중단 인식을 측정하고 주요 배경변수에 따른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는 <표 V-66>과 같다. 이 측정치의 값이 높을수록 학업중단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V-66>에서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가정 경제적 수준, 학업중단 당시의 학교 성적, 그리고 학업중단 사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또 학업 중단 당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학업중단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높은 상태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학업을 위해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가기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학업중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업중단 사유와 관련해서는 대안교육은 원해서 학업을 중단한 경우의 평균값은 가정 형편 등 개인적 사정이나 학교부적응 또는 품행 문제로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중단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결과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학업중단에 대해 덜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는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66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배경변수별 차이

	사례수(명)	MEAN(점)	SD	t (F) (Scheffe)
성별	남자	274	2.3	0.173
	여자	200	2.2	
연령대	중학교 학령(만13-15세)	42	2.1	2.091
	고등학교 학령(만16-18세)	420	2.2	
	19세	12	2.4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286	2.2	1.152
	한부모가정	133	2.2	
	부모 모두 안계심	55	2.3	
가정경제수준	상	134	2.1	7.334** (상)하)중)
	중	187	2.2	
	하	153	2.3	
학업성적	상	109	2.1	5.352** (상)하)중)
	중	116	2.2	
	하	249	2.3	
학업중단 시점	중학교때	109	2.2	0.283
	고등학교때	365	2.2	
학업중단 기간	1년 미만	258	2.2	1.678
	1년 이상~2년 미만	161	2.3	
	2년 이상	55	2.1	
학업중단 사유	가정 형편 등 개인 사정으로(a)	86	2.3	16.655*** (c)a,b)
	학교 부적응 또는品行 문제로(b)	273	2.3	
	대안교육을 원해서(c)	115	2.0	

* p<.05, ** p<.01, *** p<.001

2) 학업중단 이후 경로

본 조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삶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최근의 학업중단 이후를 기준으로 2012년 7월부터 조사 시점인 2013년 7월까지 복학하여 학교에 다니는 경우, 대안학교에 다니는 경우, 검정고시 공부(학원)를 하는 경우, 직업기술을 배우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논 경우, 가출을 하거나 비행 등에 대하여 월별로 해당 활동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앞에 제시된 여러 경우들은 동일한 시기에도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13개월 기간 동안 특정 달에 특정 활동을 한 것은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다.

조사 설문지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13개월 동안 최근의 학업중단 이후 경험을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최근 학업중단 시점이 응답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표시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합산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학업중단 시점을 감안하여 경험 기간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응답자별로 학업중단 시점을 산출하고 학업중단 시점이 2012년 7월 이전인 경우에는 13개월에 대한 응답을 모두 사용하고, 그 이후인 경우에는 학업을 중단한 달로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응답만을 선택하여 경험 정도를 측정하였다.

설문지에 주어진 여러 경험들을 범주화하여 복학, 대안학교, 검정고시 공부의 경우는 학업형, 직업기술을 배우거나 아르바이트 또는 취업하여 일하는 경우는 직업형,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경우는 니트형, 가출을 하거나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비행형으로 묶어 각각의 유형별로 가출이후 2013년 8월까지 한 달이라도 해당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한 사례를 계수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체 474명의 학업중단 청소년 가운데 76.2%인 361명은 학업중단 이후 조사 시점까지 적어도 1달 이상 복학하여 학교에 다니거나 대안학교 또는 검정고시 공부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유형의 경험보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직업학교에 다니거나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6%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소일하며 지냈다고 응답한 비율도 63.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최근의 학업중단 이후 조사시점까지 적어도 한 달 이상 가출, 청소년 시설에 거주, 보호관찰,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8.1%로 나타났다.

표 V-67 학업중단 이후 경험

(N=474)

해당 문항		해당 경험	
		사례수(명)	비율(%)
학업형	복학하여 학교에 다님	361	76.2
	대안학교에 다님		
	검정고시 공부를 함(검정고시 학원 등)		
직업형	직업기술을 배움(직업학교나 학원,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	254	53.6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니트형 (NEET)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302	63.7
비행형	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 같은 데서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	86	18.1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쉼터 등)에서 지냄		
	보호관찰을 받음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최근의 학업중단 이후 2013년 7월까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생활이 <표 V-67>에 제시된 특정 구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그리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같은 기간 동안에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위의 4가지 유형이 중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표 V-67>에 제시된 수치는 학업중단 이후 현재까지 적어도 한 달 이상 해당 경험을 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7월에 학교를 그만 둔 이후 2013년 7월까지 한 달만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구분에서는 직업형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을 보다 의미 있게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이후 2013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위의 유형들이 발생한 비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학업중단 이후 2013년 7월까지 각각의 유형을 경험한 개월 수를 동일한 기간 동안의 개월 수로 나누어 학업중단 이후 기간 동안 각 유형을 경험한 비율을 산출하고, 그 비율값을 0.5를 기준으로 하여 집단을 다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에 학교를 그만 둔 학생이 년 7월까지 검정고시 공부를 한 개월 수가 4개월이라면, 학업형의 발생 비율은 4/7이 되고, 이 비율이 0.5를 초과하므로 이 학생을 학업형으로 분류하였다.

구 분		해당 경험	
		사례수(명)	비율(%)
학업	학업형	224	47.3
	비학업형	250	52.7
직업형	직업형	127	26.8
	비직업형	347	73.2
니트형 (NEET)	니트형	171	36.1
	비니트형	303	63.9
비행형	비행형	42	8.9
	일반형	432	91.1

이와 같은 방식을 앞의 4개의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분류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중단 이후 2013년 7월까지의 기간 중 절반 이상의 기간을 학업과 관련한 경험에 투자한 청소년의 비율은 47.3%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간 동안 절반 이상의 기간에서 직업기술을 배우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일을 한 청소년의 비율은 26.8%였고, 학업중단 이후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경우는 36.1%, 비행과 관련한 경험을 한 비율은 8.9%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에서 이 4가지 유형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중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4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조합이 가능한 유형은 모두 16가지가 있는데, 분석의 명확성을 위해서 이 16가지 유형을 학업형, 직업형, 니트형, 비행형, 혼합형의 5가지로 최종적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의 기준은 우선 각각의 유형 중 한 가지만 경험한 경우는 해당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학업형과 직업형 또는 학업형과 니트형이 동반하는 경우는 학업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직업형과 니트형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직업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비행형은 경험의 성격상 다른 유형과의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비행형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도 이 학업중단 기간의 절반 이상에서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그 반대로 적어도 3개 이상의 유형이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발생한 경우는 모두 혼합형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혼합형은 학업중단 이후 2013년 7월까지 기간 동안 4개의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절반 이상의 기간에서 경험하지 않은 경우와 절반 이상의 기간에서 3개 유형 이상의 경험을 한 경우를 포함하는데, 이는 특별한 목표를 갖고 생활하였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험을 탐색하면서 시간을 보냈거나 적어도 3개

이상의 경험을 동시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시간을 보낸 청소년들을 모두 포함한다.

표 V-69 **학업중단 이후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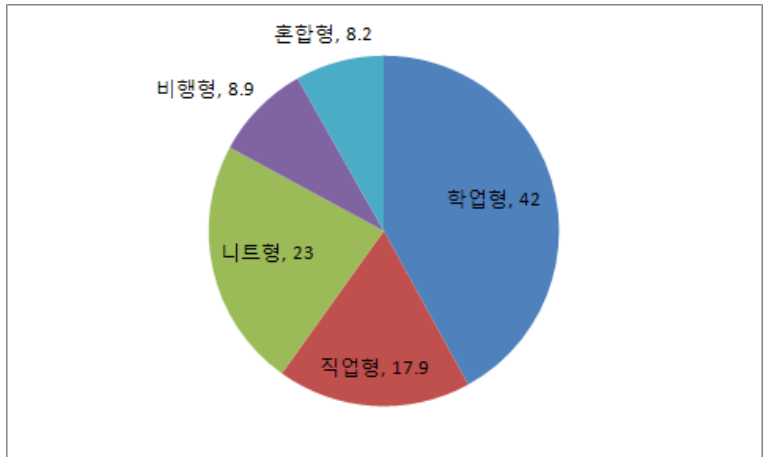
학업중단 이후 경험 유무	경로 유형	사례수(명)	비율(%)
학업형	학업형	199	42.0
학업형 + 직업형			
학업형 + 니트형			
직업형	직업형	85	17.9
직업형 + 니트형			
니트형	니트형	109	23.0
비행형	비행형	42	8.9
비행형과 다른 하나의 유형			
비행형과 다른 두 개의 유형			
4개 유형 모두 해당 없음	혼합형	39	8.2
학업형 + 직업형 + 니트형			
합계		474	100.0

①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표 V-69>와 같이 분류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학업중단 이후 학교에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학업에 초점을 두어 생활한 청소년들은 전체 응답자의 4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가운데 10명 중 4명은 비록 학교를 그만두기는 했지만 학업까지 그만 둔 것은 아니며 환경을 바꾸어 다시 학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또한 학업중단 이후 비록 학업을 지속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낸 청소년들도 17.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학업중단 이후 특별한 계획이나 목표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 중 23%는 학업중단 이후 학업을 계속하거나 직업과 관련된 활동도 하지 않은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들 가운데 1/5 정도는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세우지 못한 채 소중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그림 V-26] 참고).



【그림 V-26】 학업중단 이후 경로 (단위: %)

② 학업중단 이후 경로: 배경변수별 차이

<표 V-70>과 같이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 분포가 주요 배경변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흥미로운 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8개의 배경변수에 따른 학업중단 이후 경로의 분포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그림 V-27]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직업형과 니트형, 그리고 비행형을 갖는 비율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혼합형과 학업형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남자 청소년들은 비행과의 접촉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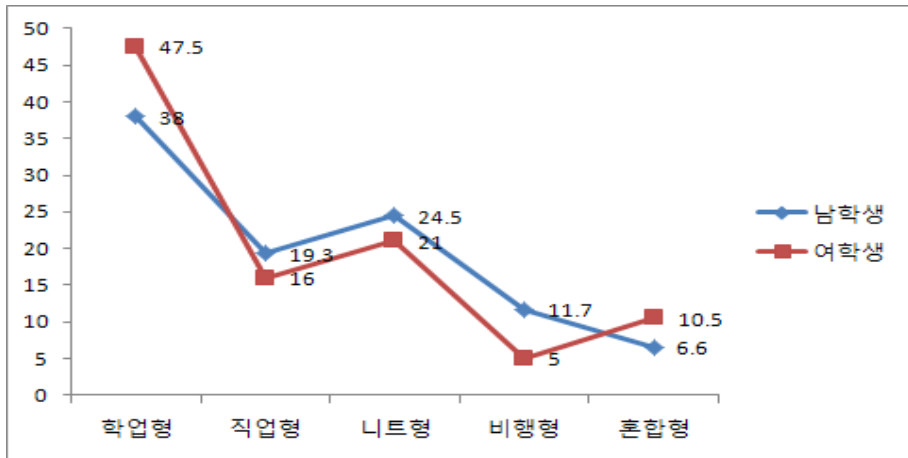
표 V-70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배경변수별 차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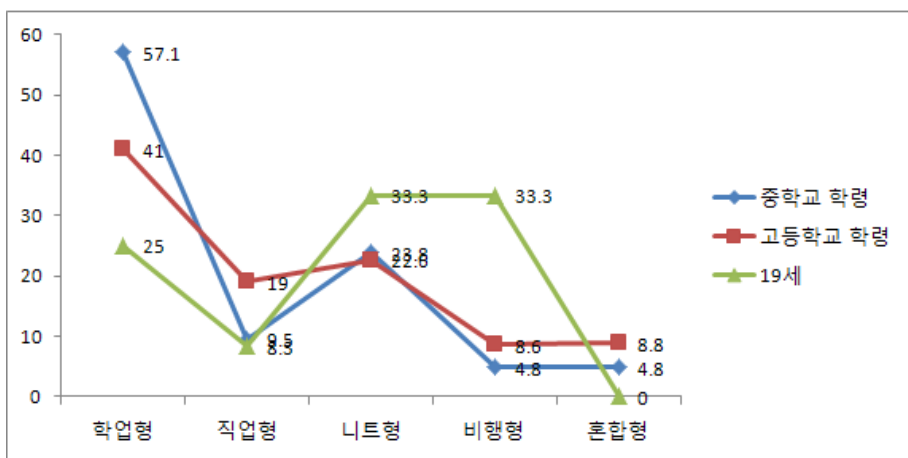
	사례수(명)	학업형	직업형	니트형	비행형	혼합형	χ^2
전 체	474	42.0	17.9	23.0	8.9	8.2	
성별							
남자	274	38.0	19.3	24.5	11.7	6.6	11.819*
여자	200	47.5	16.0	21.0	5.0	10.5	
연령대							
중학교 학령(만13~15세)	42	57.1	9.5	23.8	4.8	4.8	17.110*
고등학교 학령(만16~18세)	420	41.0	19.0	22.6	8.6	8.8	
19세	12	25.0	8.3	33.3	33.3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286	48.6	14.0	21.7	7.7	8.0	24.799**
한부모가정	133	31.6	22.6	29.3	7.5	9.0	
부모 모두 안계심	55	32.7	27.3	14.5	18.2	7.3	
가정경제수준							
상	134	53.0	11.9	17.2	8.2	9.7	17.564*
중	187	42.2	20.3	21.4	9.1	7.0	
하	153	32.0	20.3	30.1	9.2	8.5	
학업성적							
상	109	48.6	16.5	17.4	1.8	15.6	40.734***
중	116	52.6	16.4	19.8	3.4	7.8	
하	249	34.1	19.3	26.9	14.5	5.2	
학업중단시점							
중학교 때	109	54.1	10.1	20.2	9.2	6.4	10.890*
고등학교 때	365	38.4	20.3	23.8	8.8	8.8	
학업중단기간							
1년 미만	258	42.6	20.9	21.7	10.5	4.3	23.295**
1년 이상 2년 미만	161	37.9	16.1	28.0	5.6	12.4	
2년 이상	55	50.9	9.1	14.5	10.9	14.5	
학업중단사유							
가정 형편 등 개인 사정으로	86	46.5	14.0	27.9	3.5	8.1	24.188**
학교 부적응 또는品行 문제로	273	35.9	19.0	24.9	12.8	7.3	
대안교육을 원해서	115	53.0	18.3	14.8	3.5	10.4	

a p<.1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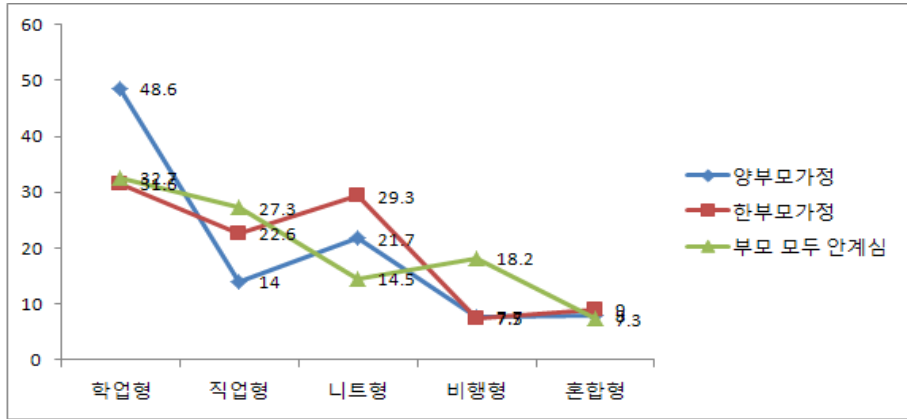
【그림 V-27】 성별에 따른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단위: %)

[그림 V-28]과 같이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업형의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학업중단 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른 청소년일수록 학업을 지속하는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면에 직업형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령의 청소년들에게서 높게 나타난 반면, 니트형과 비행형은 고등학교 학령 이상의 연령에서 높게 나타났다. 본 조사에 참여한 19세 청소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업중단 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학업중단 이후의 기간이 증가할수록 무력해지거나 비행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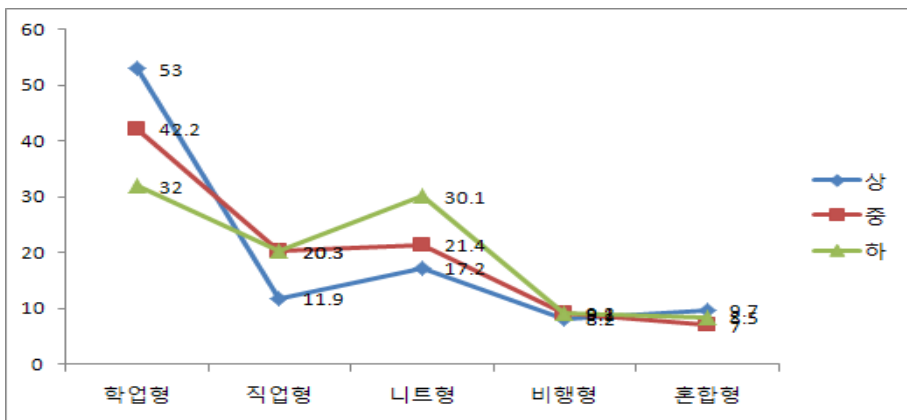
【그림 V-28】 연령대에 따른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단위: %)

[그림 V-29]와 같이 가족 구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의 경우 학업형이 가장 높지만,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 모두 안 계신 가정에서는 직업형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부모 모두 안 계신 가정의 청소년이 비행형인 비율은 다른 가족구성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중단 이후의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모역할이 여전히 중요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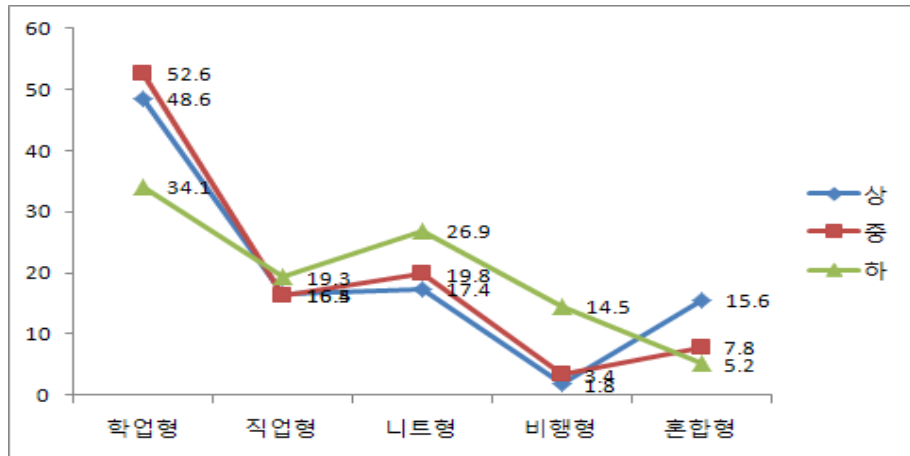
【그림 V-29】 가족구성에 따른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단위: %)

[그림 V-30]과 같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형이 나타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니트형의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이후 학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의 이루어질 수 있는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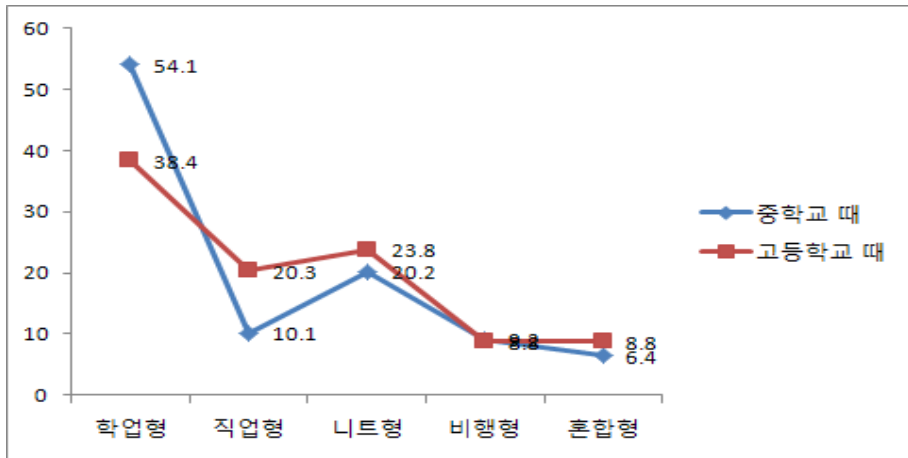
【그림 V-30】 가정 경제수준에 따른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단위: %)

또한 [그림 V-31]과 같이 학업성적의 경우를 살펴보면, 학업중단 당시의 성적이 중위권 이상인 경우에 학업형이 나타나는 비율이 하위권이었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적인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이다. 그러나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에서 혼합형의 비율이 다른 집단의 경우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업중단 당시 학업성적이 높았던 집단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탐색적으로 시도해보거나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경험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반면에 학업중단 당시 학업성적이 낮았던 집단에서는 니트형과 비행형의 발생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학업 중단 이후 학업을 지속할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아무런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있거나 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V-31】 학업성적에 따른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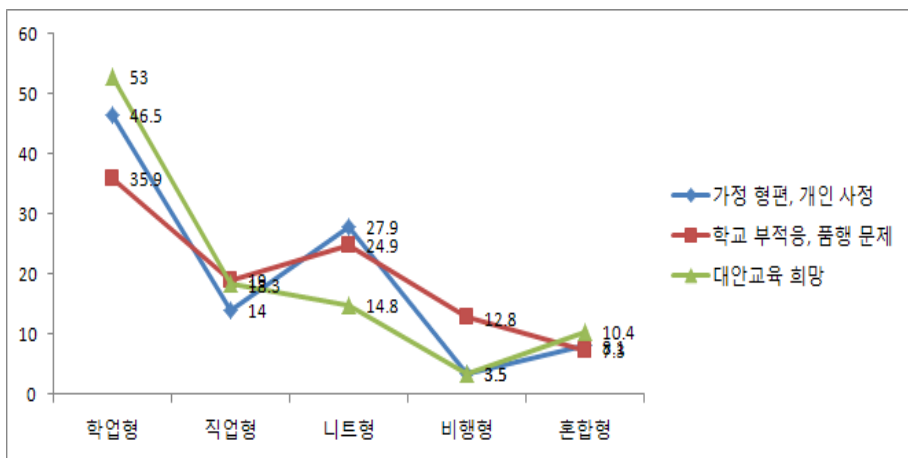
[그림 V-32]와 같이 학업중단 시점과 관련하여 중학교시기에 학업을 중단한 집단에서는 학업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고등학교시기에 학업을 중단한 집단에서는 직업형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업중단 시기가 이룰수록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고등학교 시기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학업의 궁극적 목표인 대학입시보다는 직업과 관련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학업중단 기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업중단 기간이 길수록 혼합형과 학업형이 높게 나타난 반면, 직업형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V-32】 학업중단 시점에 따른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단위: %)

③ 생애사건 경험과 학업중단 후 경로

[그림 V-33]과 같이 학업중단 사유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안교육을 위해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학업형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에 가정 형편 등 개인 사정으로 학업을 그만 둔 경우에는 니트형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업중단의 이유가 본인의 적극적인 선택이라기보다 주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학업중단 이후의 삶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V-33】 학업중단 사유에 따른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단위: %)

다음으로 본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생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생활사건(life events)을 경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러한 질문들을 크게 범주화해보면, 우선 부모의 사망, 별거, 이혼, 재혼, 가출 등으로 인한 가족 구성의 변화, 부모의 사업실패, 실직, 오랜 병상생활 등으로 초래되는 가정경제의 변화, 부모의 심각한 부부싸움, 부부간의 폭력, 부모의 구타 등의 가족 간의 갈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학업중단 이후 현재까지 집단 따돌림, 성적인 놀림, 음란물 받기, 돈이나 물건 빼기, 폭행, 성폭력 등의 피해 경험과 흡연, 음주, 절도, 구타, 뺑 뜯기, 음란물 보기, 도박, 자살 시도, 기물 파손 등의 비행 경험 등에 관한 문항도 포함하고 있다.

본 조사에 참여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이러한 중요한 사건들을 얼마나 경험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문항에 대해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해당 영역에서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수하였다. <표 V-71>을 살펴보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가족구성 변화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44.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실직 등으로 인해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도 36.5%였으며, 특히 부부간의 갈등이나 부모로부터의 구타 등 가정의 불화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달해 2명 중 1명은 성장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가정의 불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및 비행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27.2%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무려 73.2%는 비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러한 수치는 비행 경험에 포함된 문항이 심각한 수준의 비행에서부터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비행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3.2%가 비행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실은 본 조사에 참여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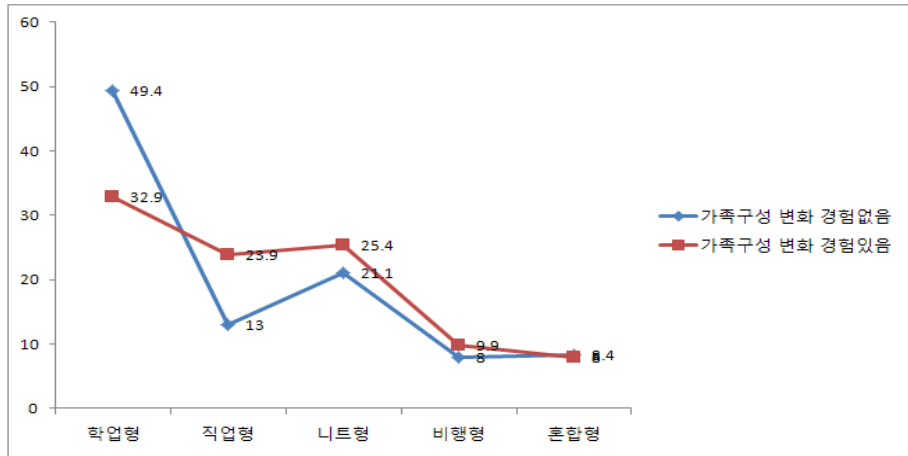
구분	해당 문항	발생 경험	
		사례수	비율
가족구성 변화	친아버지(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심	213	44.9
	친부모님의 별거		
	친부모님의 이혼		
	친아버지(또는 친어머니)의 재혼		
	친아버지(또는 친어머니)의 가출		
가정경제 악화	친아버지(또는 친어머니)의 사업실패	173	36.5
	친아버지(또는 친어머니)의 실직		
	친아버지(또는 친어머니)의 오랜 병상상황(질병, 교통사고 등)		
가정 불화	기억에 남을 만한 심한 부모님의 부부싸움	240	50.6
	친아버지가 친어머니를 심하게 때림		
	친아버지(또는 친어머니)로부터 심하게 맞음		
피해 경험	집단(따돌림) 당하기	129	27.2
	성적인 놀림당하기		
	문자나 메신저로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상납)		
	심하게 얻어맞기(폭행)		
	성폭력 당하기		
비행 경험	담배 피우기	347	73.2
	술 마시기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뺑 뜯기)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보기		
	돈내기 도박 해보기(인터넷 포함)		
	자살 시도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표 V-72>는 주요 인생 사건의 경험 여부에 따라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가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성장과정에서 가족구성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직업형과 니트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학업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V-34]와 같이 가족구성의 변화를 경험한 경우에는 학업중단 이후 학업을 계속하기 보다는 직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재정적·정서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족구성의 변화를 통해 이러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상대적으로 학업보다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72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생애사건 경험여부별 차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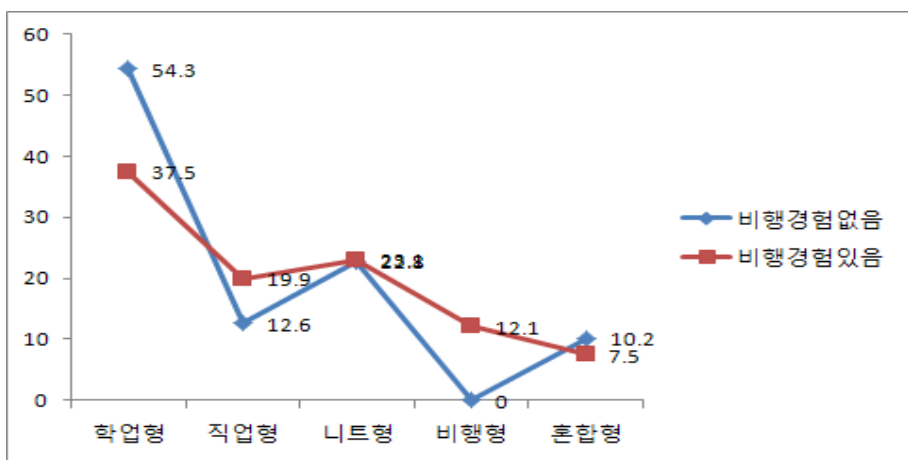
	사례수(명)	학업형	직업형	니트형	비행형	혼합형	χ^2
전 체	474	42.0	17.9	23.0	8.9	8.2	
가족구성 변화							
경험없음	261	49.4	13.0	21.1	8.0	8.4	16.855**
경험있음	213	32.9	23.9	25.4	9.9	8.0	
가정경제 악화							
경험없음	301	44.2	16.3	22.9	9.0	7.6	2.569
경험있음	173	38.2	20.8	23.1	8.7	9.2	
가정 불화							
경험없음	234	47.9	15.8	22.2	6.8	7.3	7.741
경험있음	240	36.3	20.0	23.8	10.8	9.2	
피해 경험							
경험없음	345	40.0	19.4	23.8	9.0	7.5	4.509
경험있음	129	47.3	13.2	20.9	8.5	10.1	
비행 경험							
경험없음	127	54.3	12.6	22.8	0.0	10.2	25.277***
경험있음	347	37.5	19.9	23.1	12.1	7.5	

* p<.05, ** p<.01, *** p<.001



【그림 V-34】 가족구성 변화경험 여부별 학업종단 이후 경로 분포 (단위: %)

가정 경제의 악화, 가정불화 및 피해 경험에 따른 학업종단 이후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비행 경험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V-35]와 같이 비행 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 학업형이 나타난 비율이 54.3%인 반면, 비행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37.5%에 불과했다. 또한 비행 경험이 없는 집단의 직업형은 12.6%인데 비해 비행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19.9%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종단 이후 학업을 지속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비행에 접촉할 시간적 여유나 기회가 적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V-35】 비행경험 유무별 학업종단 이후 경로 분포 (단위: %)

제 6 장

1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II :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1. 조사목적 및 조사방법
2. 조사결과

제 6 장

1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II

: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1. 조사목적 및 조사방법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중단조사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을 비교하고 학업중단 후 이행과정에 있어 사회적응과 부적응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변화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재비행(혹은 사회적응) 및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3년도 1차년도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패널을 구축하고, 이들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이들의 변화과정, 재비행(혹은 사회적응) 및 관련 요인들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의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징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은 학업중단이 시작되는 시기인 중학생 연령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3개년간의 종단적 조사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 보호관찰대상자이면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보호관찰 기간이 1년 미만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2014년도 조사기간 중 보호관찰 상태이므로 조사가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보호관찰소는 수도권 6개 기관과 그 밖의 주요 지역 5개 기관 등 총 11개이다. 각 보호관찰소에서 총 2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 후 폐기부수를 제외한

* 이 장은 본 연구의 협동연구과제인 전영실, 김지영, 박성훈의 '201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중단조사 및 지원방안 I' 을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요약함. 보호관찰 청소년의 특성 파악을 위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별책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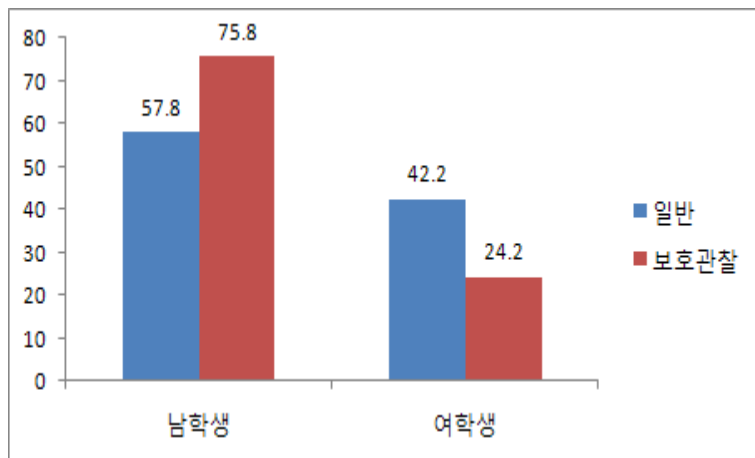
최종 완료부수는 226부였다. 이 중 설문지 리뷰과정에서 응답자가 접촉되지 않는 36명을 제외하고 본 연구 보고서는 총 190명을 분석하였다³¹⁾. 조사 시기는 2013년 7~8월이었고, 9월 초까지 설문지 회송을 완료하였다. 조사내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과 대부분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보호관찰 관련사항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2. 조사결과

1) 응답자의 특성

먼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교되는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학업중단관련 특성을 살펴보았다³²⁾.

성별을 보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남자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성비차이를 보인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남자 57.8%, 여자 42.2%로 남자가 다소 많기는 하지만 남녀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남자 75.8%, 여자 24.2%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VI-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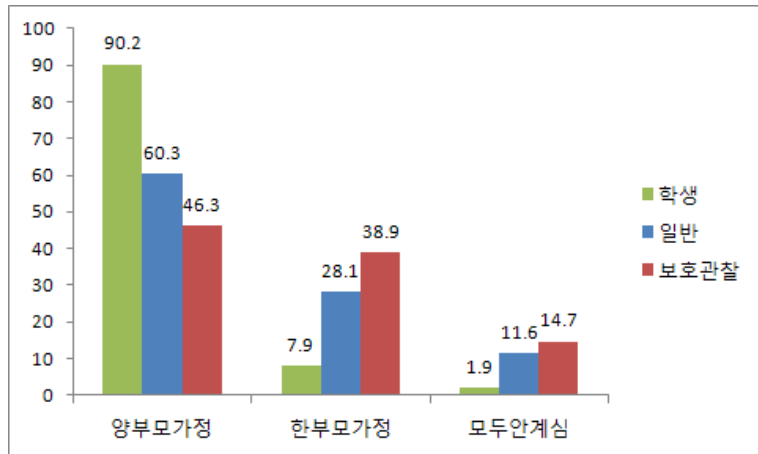
【그림 VI-1】 성별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31) 향후에 접촉되지 않았던 응답자 36명에 대한 추가 접촉을 시도하고, 가능한 사례들을 패널에 포함시켜 분석하고자 함.

32) 본 장에서는 2013년 1차년도 조사 패널 중 데이터 처리가 완료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474명,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190명의 응답결과만을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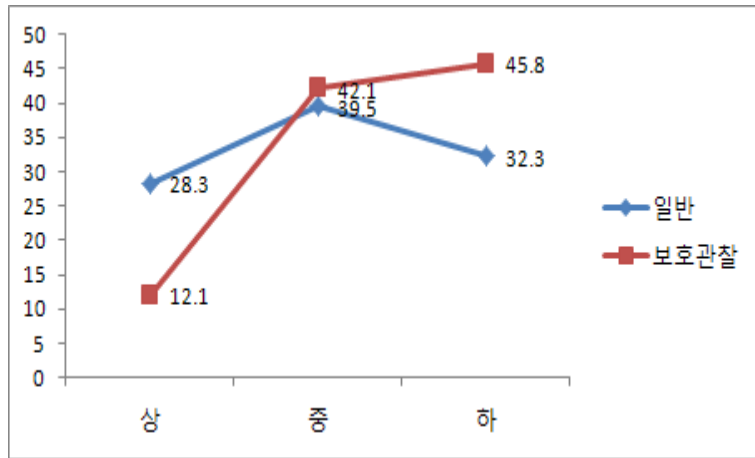
둘째, 연령별로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모두 만 16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학령 비율이 각각 88.6%, 88.9%로 만 13세부터 15세에 해당하는 중학교 학령보다 높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학령의 비율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3% 포인트 가량 높아 저연령의 청소년이 더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에는 19세 이상 청소년도 일부 포함되었다.

셋째,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가족구성은 학생 청소년이나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달리 양부모가정 비율이 현격히 낮았으며,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 모두 안계신 가정의 비율이 높았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역시 학생 청소년에 비해서 양부모가정 비율이 낮고,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 모두 안계신 가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VI-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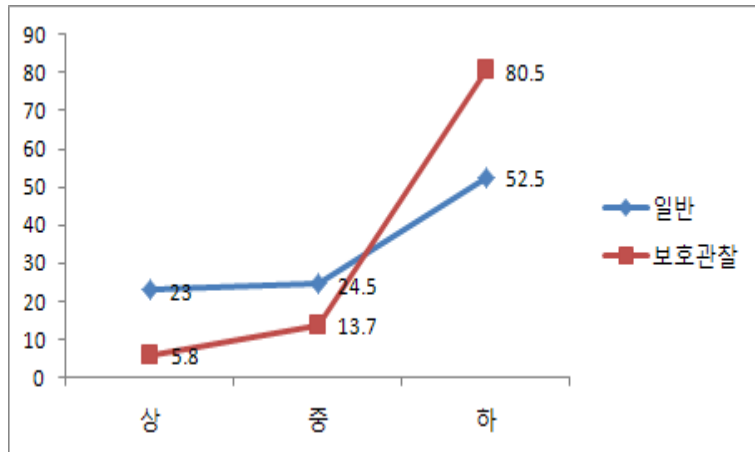
【그림 VI-2】 가족구성 집단비교: 학생 vs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넷째,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본인의 가정경제 수준을 훨씬 더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정경제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에 대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상' 28.3%, '중' 39.5%, '하' 32.3%로 비교적 고른 계층 의식을 보인 반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상' 12.1%, '중' 42.1%, '하' 45.8%의 응답비율을 보여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상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훨씬 더 낮고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현격히 높았다([그림 VI-3] 참조).



【그림 VI-3】 주관적 경제수준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다섯째,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자신의 학업성적에 대해 ‘하위권’이었다고 인식 경향이 훨씬 더 높았고, ‘상위권’이나 ‘중위권’으로 인식하는 응답비율은 매우 낮았다. 학업성적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일반 청소년의 경우 ‘상’23.0%, ‘중’24.5%, ‘하’52.5%인 반면, 보호관찰 청소년은 ‘상’5.8%, ‘중’13.7%, ‘하’80.5%로 응답비율의 편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10명 중 5명이 주관적 학업성적을 ‘하위권’으로 본다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10명 중 8명이 자신의 성적을 하위권이라고 응답했다([그림 VI-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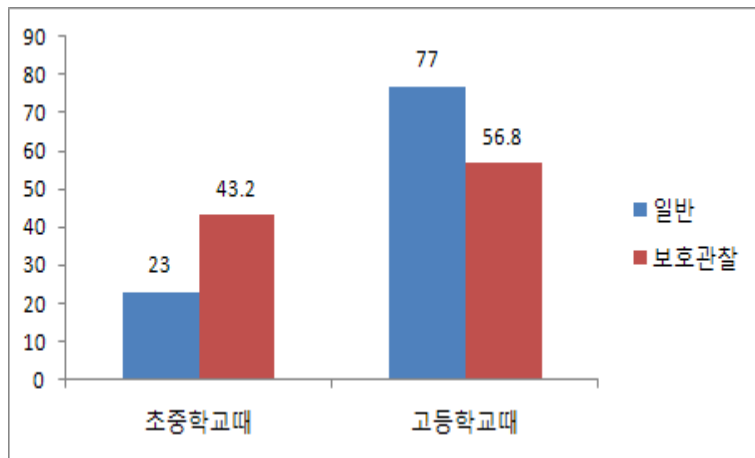


【그림 VI-4】 주관적 학업성적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2)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업중단 특징 :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의 비교

(1) 학업중단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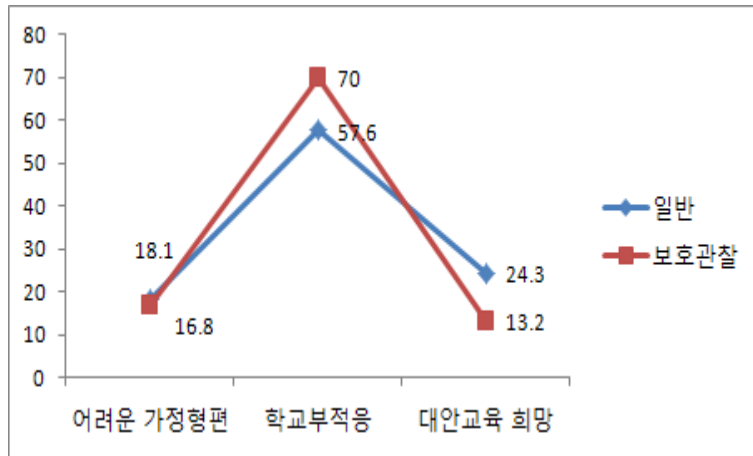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점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더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초·중학교 때’라는 응답이 23.0%, ‘고등학교 때’라는 응답이 77.0%인데 비하여,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초·중학교 때’가 43.2%, ‘고등학교 때’가 56.8%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VI-5] 참조).



[그림 VI-5] 학업중단 시점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2) 학업중단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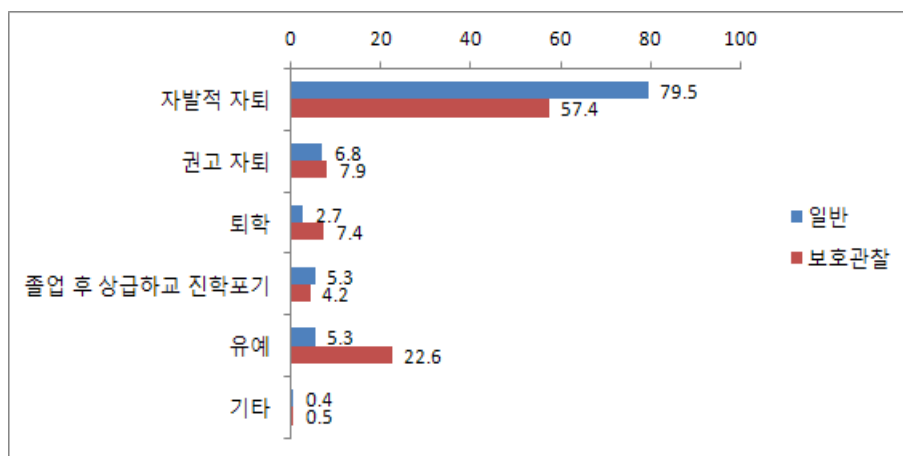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학업중단의 이유로 ‘학교 부적응’ 사유가 많았다(일반 57.6%, 보호관찰 70.0%). 전반적으로 두 집단 모두 학교부적응이 학업중단 제 1사유이나,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공부하기 싫거나, 선생님이 싫다’는 부적응 사유가 많다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교에 가야할 필요를 못 느껴서’,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중 ‘대안교육을 원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에 비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학업중단에 대한 분명한 목적성과 적극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일반 24.3%, 보호관찰 13.2%).



【그림 VI-6】 학업중단 사유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3) 학업중단의 행정처리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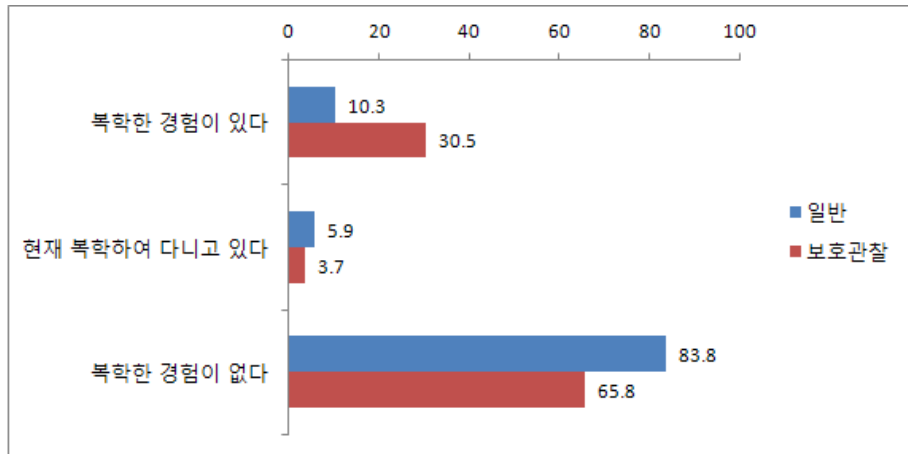
[그림 VI-7]에서 학업중단을 중단하게 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형태 1순위는 일반 청소년이든 보호관찰 청소년이든 상당 비율로 '자발적 자퇴'이지만(일반 79.5%, 보호관찰 57.4%),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발적 자퇴' 비율이 상대적으로 현격히 낮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유예' 22.6%, 학교의 '권고자퇴' 7.9%, '징계로서의 퇴학'이 7.4%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 학업중단 과정에서의 타의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VI-7】 학업중단 형태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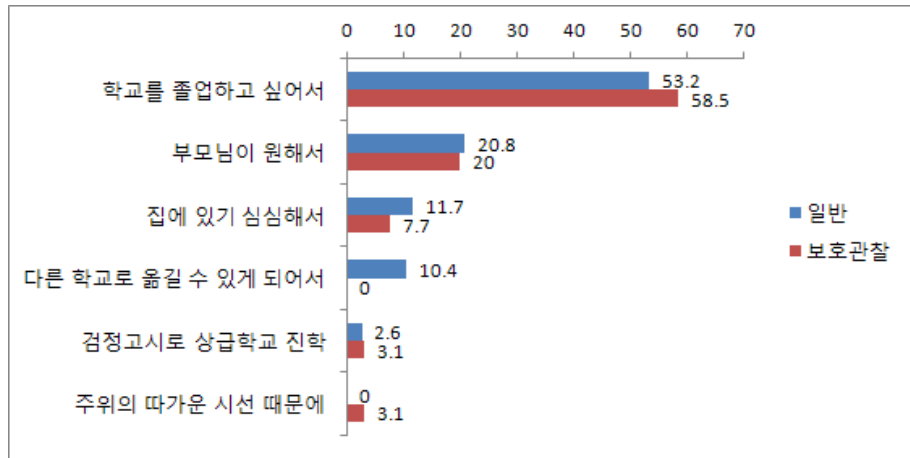
(4) 학교 복귀 경험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에 복학하는 경험 여부는 [그림 VI-8]과 같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83.8%,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65.8%가 복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학 경험이 있는 경우는 반대로 일반 청소년(10.3%) 보다 보호관찰 청소년(30.5%)에게서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3배 정도 복학 경험이 높았다. 이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업중단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표본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어 추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보호관찰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자퇴와 복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8】 복학경험 여부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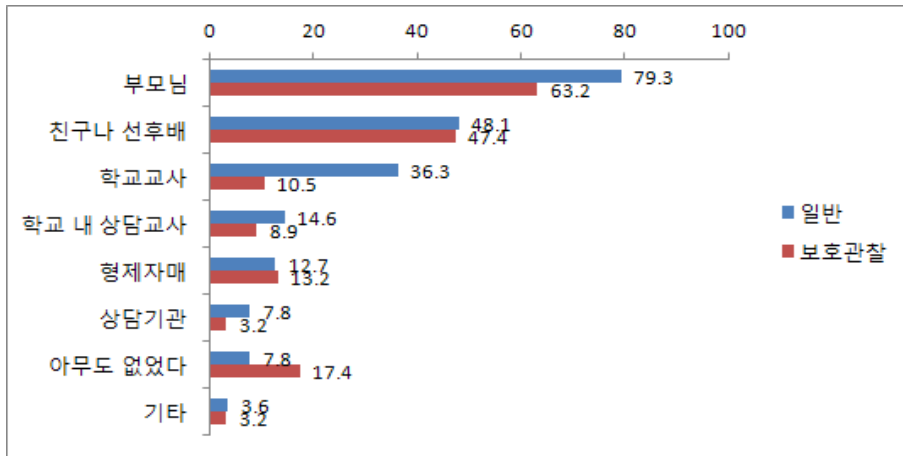
학교 복학의 이유는 양 집단 모두 두드러지게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이며(일반 53.2%, 보호관찰 58.2%), 다음으로 ‘부모님이 원해서’(일반 20.8%, 보호관찰 2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10.4%는 ‘타 학교로 옮길 수 있게 되어’ 복학하였고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응답 사례가 없었으며,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3.1%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복학하였으나,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해당 응답 사례가 없다는 차이를 보인다([그림 VI-9] 참조).



【그림 VI-9】 최초 학업중단 이후 복학 이유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5) 학업중단 시 고민 상담 경험 및 주변인의 반응

청소년이 학업중단에 대해 고민할 시 이와 관련된 고민을 나누는 대상에 관한 응답 결과는 [그림 VI-10]과 같다. 조사에 참여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부모님’ 79.3%, ‘친구나 선후배’ 48.1%, ‘학교 교사’ 36.3%, ‘학교 내 상담교사’ 14.6%, ‘형제자매’ 12.7%, ‘상담기관’ 7.8%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부모님’ 63.2%, ‘친구나 선후배’ 47.4%, ‘아무도 없었다’ 17.4%, ‘형제자매’ 13.2% 순으로 답하였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업중단과 관련하여 학교교사나 상담교사와의 상담 경험 비율이 비교적 낮고, 상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냥 그만두게 되는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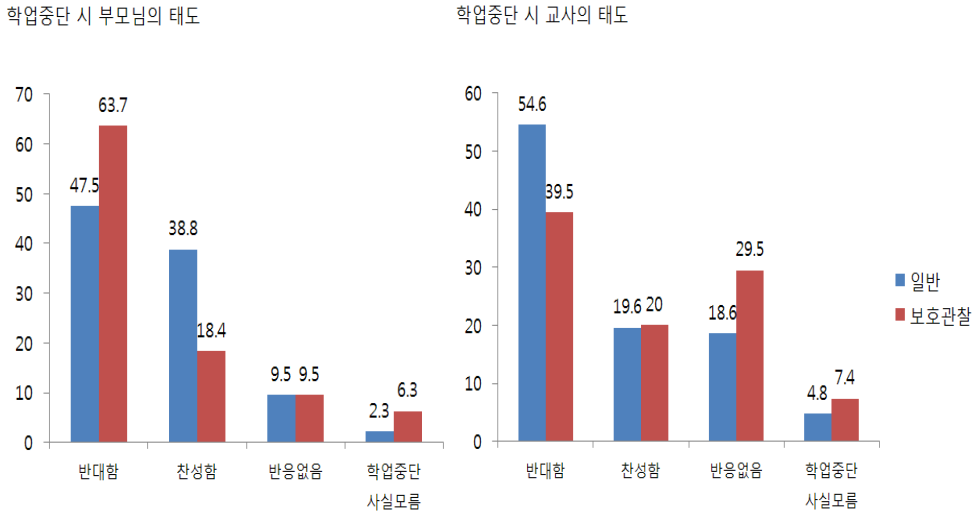


【그림 VI-10】 학업중단 시 고민 상담자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한편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주변인의 반응은 [그림 VI-11]과 같다. 청소년의 부모님과 담당교사는 학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혹은 주변인물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대해 부모의 47.5%가 '반대', 부모의 38.8%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63.7%가 '반대', 부모의 18.4%는 '찬성'하는 것으로 보아,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부모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부모에 비해 자녀의 학업중단에 대해 더 반대하고 있지만 보호관찰 학업중단 부모 중에는 자녀의 학업중단 사실을 모르고 있는 비율도 6.3%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반대는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보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보호관찰 39.5%, 일반 54.6%)에게서 더 강했다.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경우도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더 강했다(보호관찰 29.5%, 일반 18.6%).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더 교사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 학업을 중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VI-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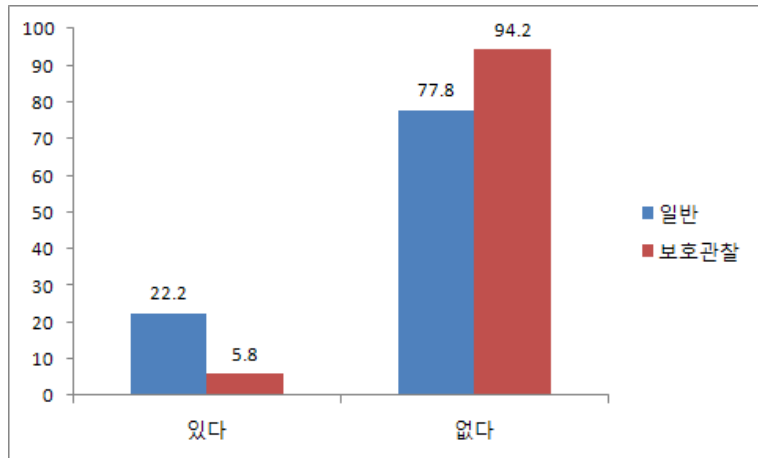
[그림 VI-11] 학업중단 시 부모님과 교사의 태도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6) 학업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 시 복학 절차,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준비,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의 청소년 시설, 진로나 직업교육 훈련 관련 시설, 학업중단숙려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 받았는지에 대한 각각의 설문문항에서 양 집단이 동일하게 6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50% 이상이었으며, 제공받은 정보 중 '검정고시 준비'가 가장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37.3%, 보호관찰 42.1%).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검정고시 준비'으로 '복학 절차'(35.8%), '대안교육기관'(22.1%), '청소년시설'(14.2%), '진로, 직업교육 훈련 시설'(12.6%) 순으로 정보를 제공받았다.

한편, 양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정보 제공 분야는 '학업중단 숙려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설명을 거의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77.8%, 보호관찰 94.2%, [그림 VI-12] 참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실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유예'처리 비율이 높아 교사로부터 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학업중단숙려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시점이 2012학년도 2학기부터이므로 그 이전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비율이 높은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본 조사에서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학업중단숙려제가 '자퇴'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권고자퇴', '퇴학'형태의 비율이 높은 보호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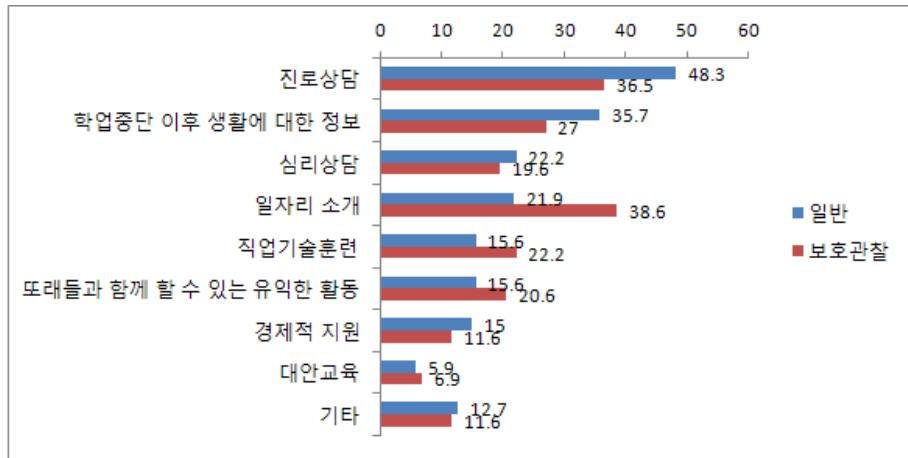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실제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또한 학업중단숙려제의 경험이 있는 학생은 총 보호관찰 청소년 응답자 중 총 4명(2.1%)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학업중단 숙려제의 유용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림 VI-12】 학업중단 숙려제 설명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7) 학업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

학교를 그만 둘 당시 가장 필요했던 도움으로 일반 청소년은 ‘진로상담’(48.3%),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자리 소개’(38.6%)를 선택하였다. 일반 청소년은 이어서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정보’(35.7%), ‘심리상담’(22.2%), ‘일자리 소개’(21.9%)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으나,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진로상담’(36.5%),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정보’(27%), ‘직업기술훈련’(22.2%), ‘또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20.6%) 순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더 필요로 하고 있는 도움으로 응답한 것은 ‘일자리 소개’, ‘직업기술훈련’, ‘또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 등이었다. 진로상담, 학업중단 이후 생활정보와 더불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는 일자리 소개, 직업기술훈련, 그리고 또래모임 지원 등이 필요하다([그림 VI-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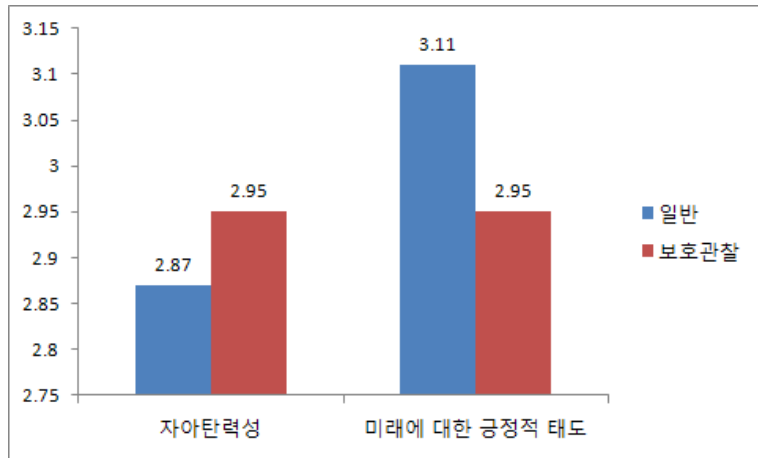
【그림 VI-13】 학업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3)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1) 개인 심리적 특성

보호관찰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과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 심리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자아존중감’, ‘우울감’, ‘자기 통제력’, ‘게임 중독성’ 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자아탄력성’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일반 2.87점, 보호관찰 2.95점), 미래에 대한 태도에서는 일반 청소년보다 약간 낮지만 비교적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3.11점, 보호관찰 2.95점, [그림 VI-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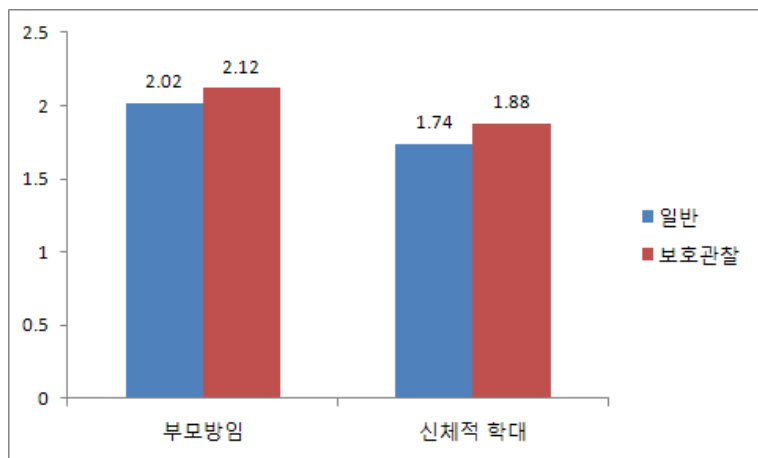


【그림 VI-14】 개인 심리적 특성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평균 (단위: 점)

(2) 환경적 특성

① 부모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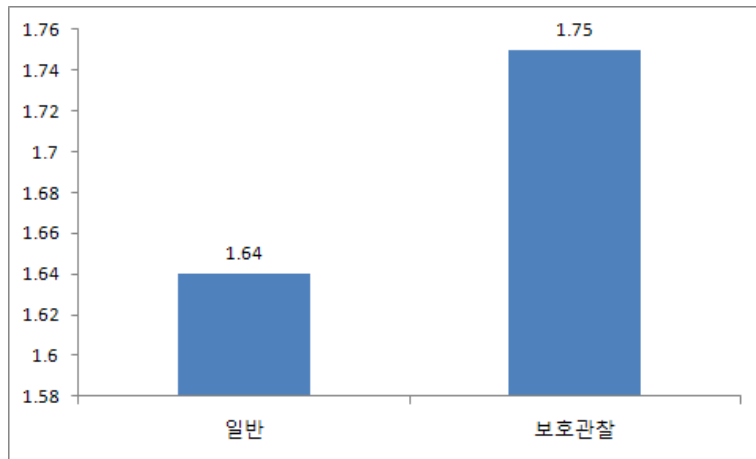
부모와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지원, 정서적 학대 면에서는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이나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 보다 '부모의 방임'을 더 많이 경험하였고(일반 2.02점, 보호관찰 2.12점), '신체적 학대' 경험이 역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1.74점, 보호관찰 1.88점).



【그림 VI-15】 부모관계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평균 (단위: 점)

② 친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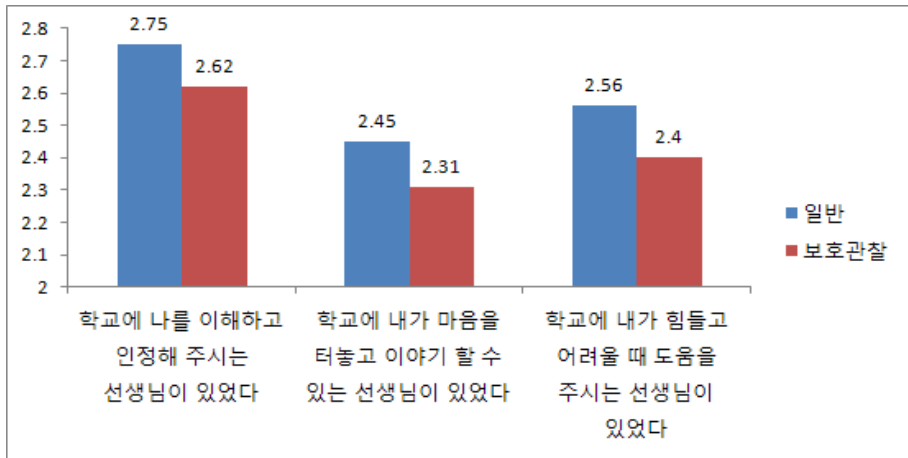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친한 친구 수, 학업중단 이후 새로 사귀 친구수가 적고, 친한 친구 중에 학업중단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 점수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친구의 비행성향은 차이를 보였다. [그림 VI-16]과 같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또래집단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또래집단에 비해 비행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다(보호관찰 1.75, 일반 1.64).



【그림 VI-16】 친구의 비행성향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평균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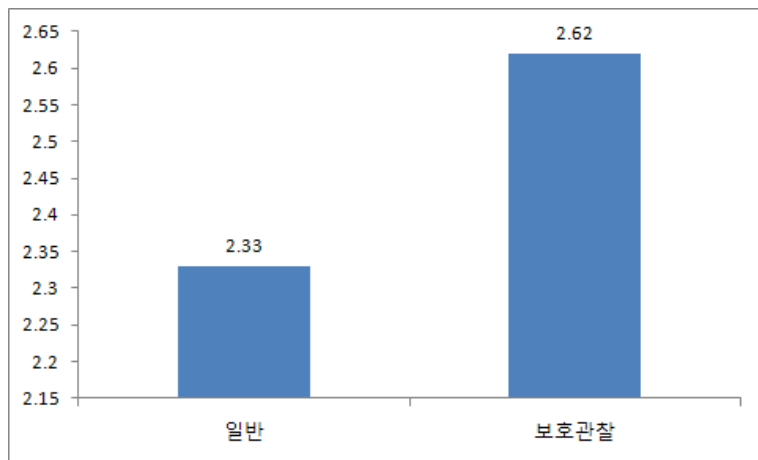
③ 학교생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생활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학교 교사와의 관계, 학습부 적응, 학교규정 위반경험 면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학교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학교 교사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 VI-17]을 보면 모든 문항에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보다 평균점이 낮아 교사와 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I-17】 교사관계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평균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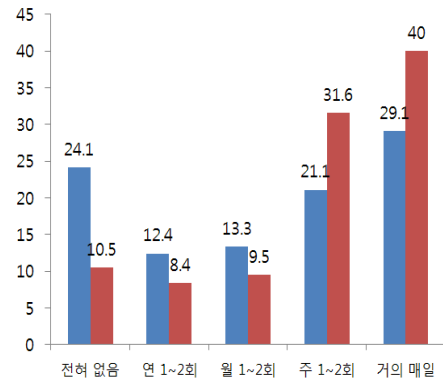
‘학습부적응’ 관련 문항 중 ‘학교 수업을 이해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었다’는 부분에서만 보호관찰 청소년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평균점이 높았다(보호관찰 2.62점, 일반 2.33점, [그림 VI-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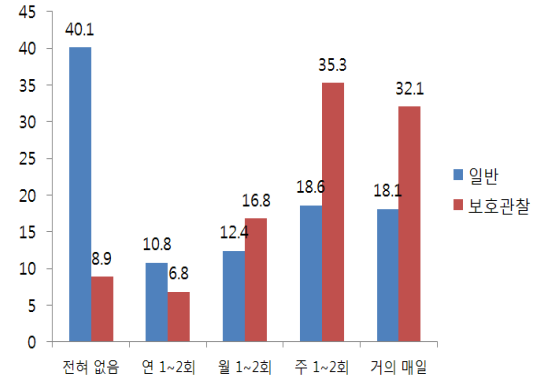
【그림 VI-18】 학습부적응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평균 (단위: 점)

학교 규정위반 경험은 ‘지각’, ‘무단결석’, ‘두발 및 복장위반’, ‘숙제 안 해옴’, ‘수업 빼먹음’, ‘선생님에게 대들었음’, ‘잘못된 행동을 하여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감’ 등 모든 행동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문제행동 빈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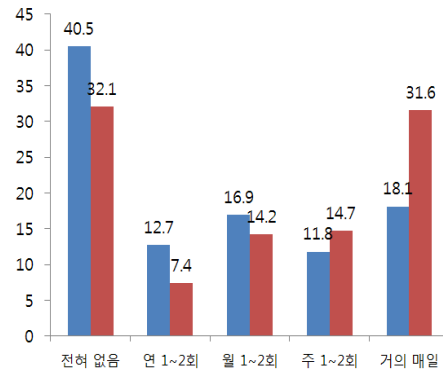
학교규정위반_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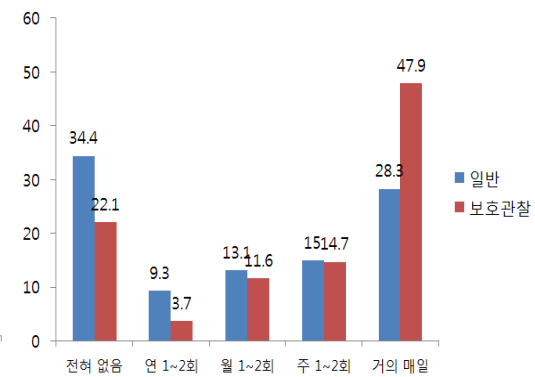
학교규정위반_무단결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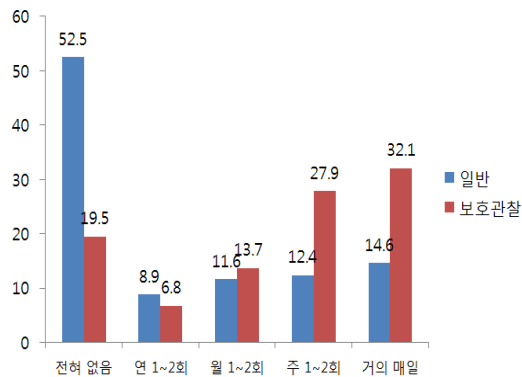
학교규정위반_두발복장위반



학교규정위반_숙제 안 해옴



학교규정위반_수업 빼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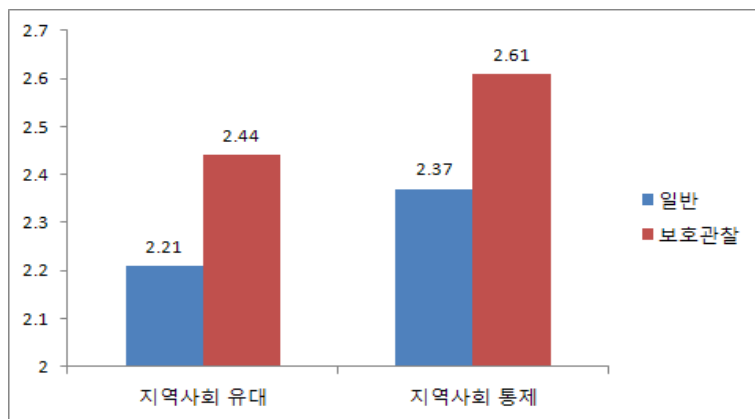


【그림 VI-19】 학교규정 위반 경험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이러한 점은 다음 [그림 VI-19]를 보면 알 수 있으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모든 종류의 학교규정위반 행동을 더하고 있지만 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무단결석’임을 알 수 있다. 무단결석 횟수에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40.1%가 ‘무경험’인데 반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중 ‘무경험자’는 8.9%에 그치고 있으며, ‘주 1~2회 이상, 거의 매일 무단결석’을 했다고 답한 보호관찰 청소년이 67.4%로 절반이 넘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수업을 몰래 빼먹는 빈도에서도 일반 청소년은 52.2%가 수업을 전혀 빼먹지 않는 데 반해 보호관찰 청소년은 19.5%로 나타나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빈번히 수업을 빼먹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흥미가 없어 빠지기도 하고 수업을 빼먹기 때문에 학습부적응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지역사회환경

지역사회 환경은 지역사회 통합(지역사회 유대, 비공식 통제)과 지역사회 무질서(물리적, 사회적 무질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양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그림 VI-20]에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학업중단 당시 본인이 거주했던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서로 잘 알고 지낸다거나 어려운 일을 서로 잘 도왔다던가 하는 지역사회의 ‘유대’ 수준이 더 높다고 인식하며(보호관찰 2.44점, 일반 2.21점), 지역주민이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싸움에 개입하는 등 ‘지역사회 비공식 통제’수준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일반 2.37점, 보호관찰 2.6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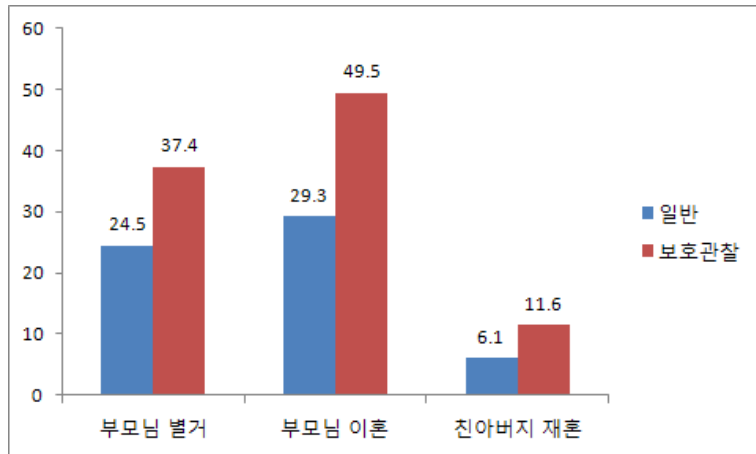


[그림 VI-20] 지역사회환경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평균 (단위: 점)

(3) 생애사건 경험 특성

① 가족구성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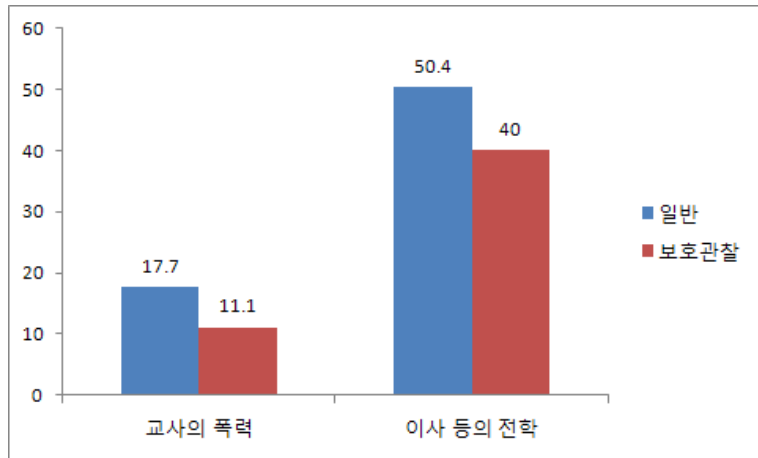
생애사건 경험 중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가족구성 변화였다. [그림 VI-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호관찰 청소년은 친부모님의 별거와 이혼을 경험한 보호관찰 청소년은 86.9%였으며, 친아버지의 재혼 경험 비율도 일반 청소년의 2배에 가까운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의 악화나 가정불화 경험은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 양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VI-21】 가족구성 변화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② 교사 폭력 및 전학

생애사건 경험 중 양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학교 교사로부터 치욕적인 대우나 구타 경험이었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비해 이러한 경험을 한 비율이 더 높았다. 학교 교사로부터의 구타 경험은 일반 17.7%, 보호관찰 11%이며, 이사 등으로 인한 전학 경험은 일반 청소년은 50.4%, 보호관찰 청소년은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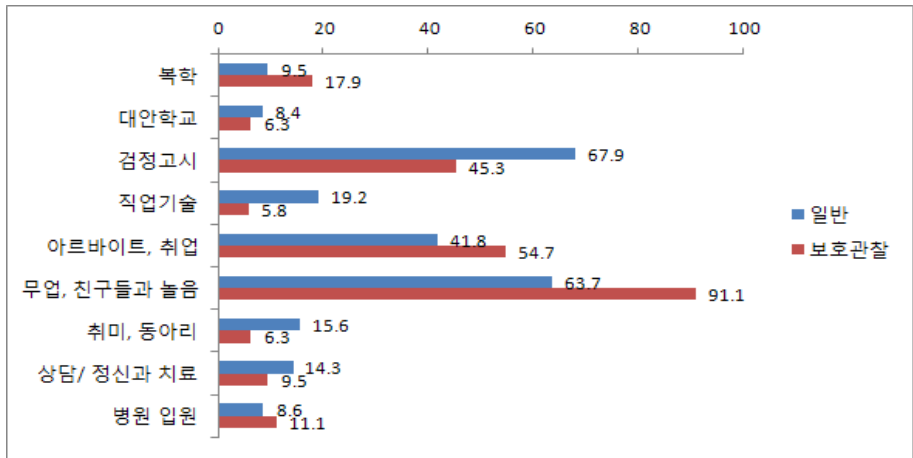
【그림 VI-22】 교사의 폭력 및 전학 경험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4) 학업중단 이후의 삶

(1)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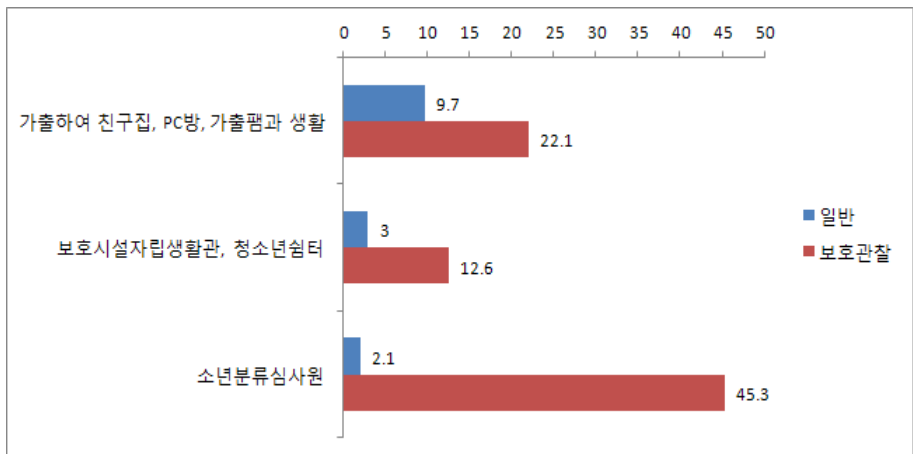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 실제로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림 VI-23]과 같다. 조사결과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67.9%는 ‘검정고시 공부’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91.1%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 노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제도권에서 벗어난 양 청소년 집단의 삶에 차이가 있었다.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중단 이후 더 많이 하는 경험으로는 무위도식, 아르바이트/취업, 복학, 병원 입원이었다. 이에 비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대안학교, 직업기술 훈련, 취미나 동아리 활동, 상담/치료 등의 경험 비율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보다 더 높았다.



【그림 VI-23】 학업중단 이후 생활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그림 VI-24] 와 같이 학업중단 이후의 청소년의 삶에서는 양 집단 간 생활의 차이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과 비행 경험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5.3%가 소년분류심사원 생활을 경험하고, ‘가출 후 친구 집이나 PC방, 가출팸 생활’(22.1%)을 하거나 ‘보호시설이나 쉼터 생활’(12.6%)을 한 것으로 응답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상당한 비율이 가정에서 벗어난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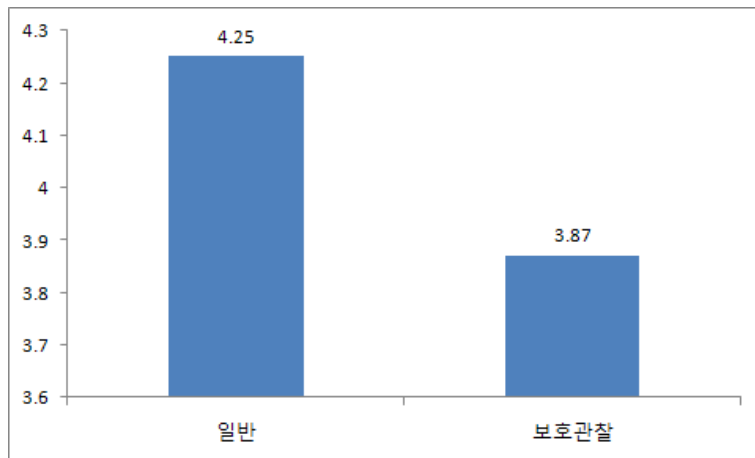


【그림 VI-24】 학업중단 이후 주거 공간 및 비행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2)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 관계

① 친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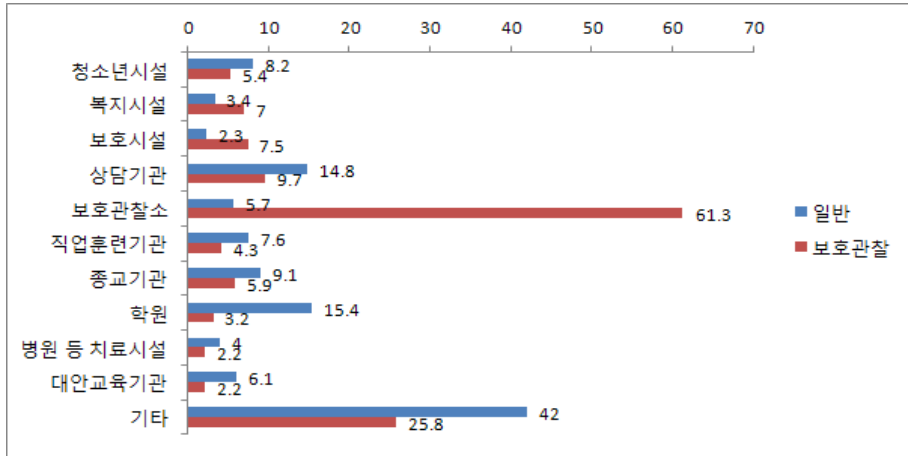
학교라는 사회적 장을 떠나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유추된다. 학업중단 후 어떠한 사회관계를 맺게 되는 지가 이후 경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평균 3.87명,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4.25명으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이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VI-25】 학업중단 이후 새롭게 사귀 친구 수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명)

② 성인 멘토

[그림 VI-26]을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각 지역사회기관에서 성인 멘토를 만나는 경험은 많아야 15% 내외로 대부분 10%에 못 미치고 있다.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61.3%가 보호관찰소인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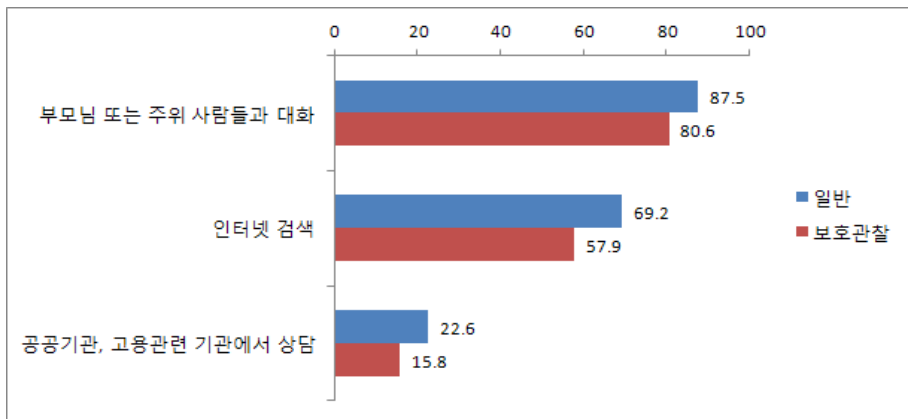


【그림 VI-26】 학업중단 이후 만난 성인 멘토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3) 학업중단 이후 진로계획

① 진로정보의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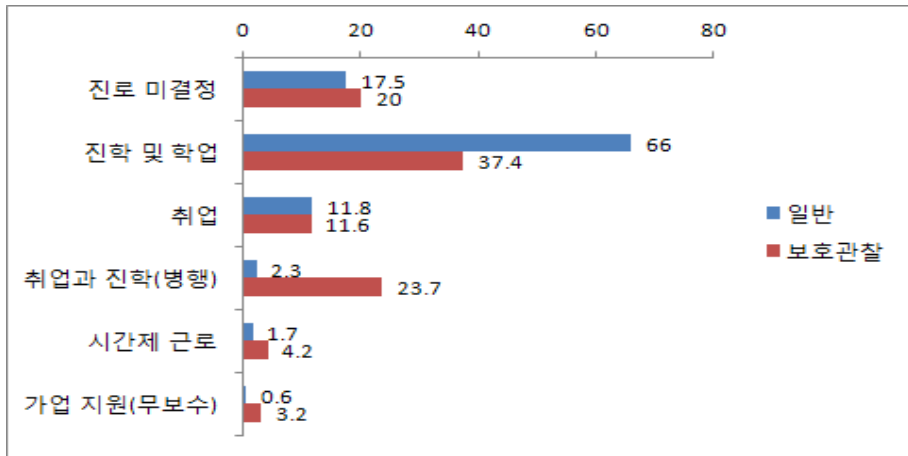
학업중단 후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활동으로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 모두 '부모님 또는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를 가장 많이 하였으며(일반 87.5%, 보호관찰 80.6%), 이어서 동일하게 '인터넷 검색', '공공기관 및 고용관련 상담' 순으로 나타났지만 보호관찰 청소년의 진로탐색활동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덜 적극적인 편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진로에 관한 전문정보 기관보다 대인관계에 의한 진로정보탐색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I-27】 학업중단 이후 진로정보의 탐색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② 향후 진로계획

[그림 VI-28]을 살펴보면 일반 학업중단자 중에는 향후 진로로 ‘진학과 학업’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66%로 가장 많으며, 뒤이어 ‘미결정’ 17.5%, ‘취업’ 11.8%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진학 및 학업’이 37.4%를 차지해 일순위이긴 하지만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비율이고, 뒤이은 ‘취업과 학업 병행’ 계획은 23.7%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약 10배 높은 응답비율 나타내고 있다.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업 외에 취업/진학 병행, 취업준비 등 비교적 분산된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진로추이가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VI-28】 학업중단 이후 향후 진로계획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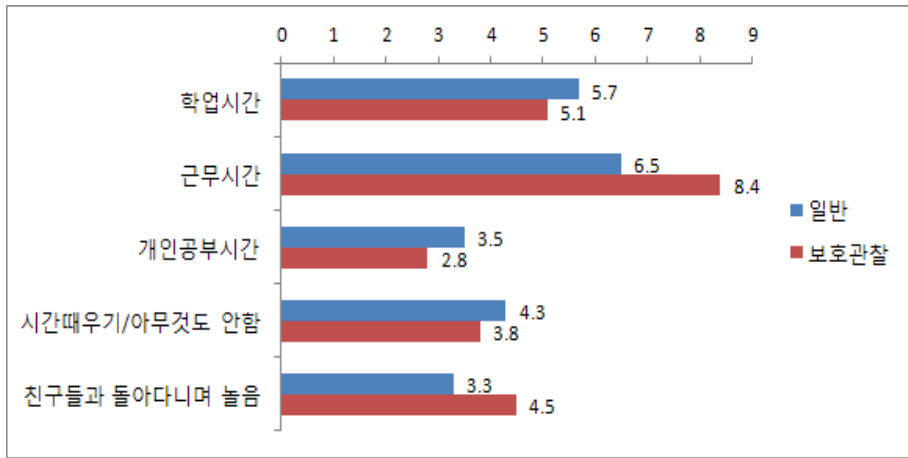
(4) 학업중단 후 일생생활 및 가치관

① 생활영역별 일상시간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일상생활시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보호관찰 청소년은 학업시간 경험이 더 적고(보호관찰 13.7%, 일반 60.1%), 근무시간 경험은 더 크다(보호관찰 28.4%, 일반 20.0%). 여가시간에서는 개인공부시간 경험(보호관찰 24.7%, 일반 58.2%)과 운동·취미 등 긍정적 활동시간경험(보호관찰 35.8%,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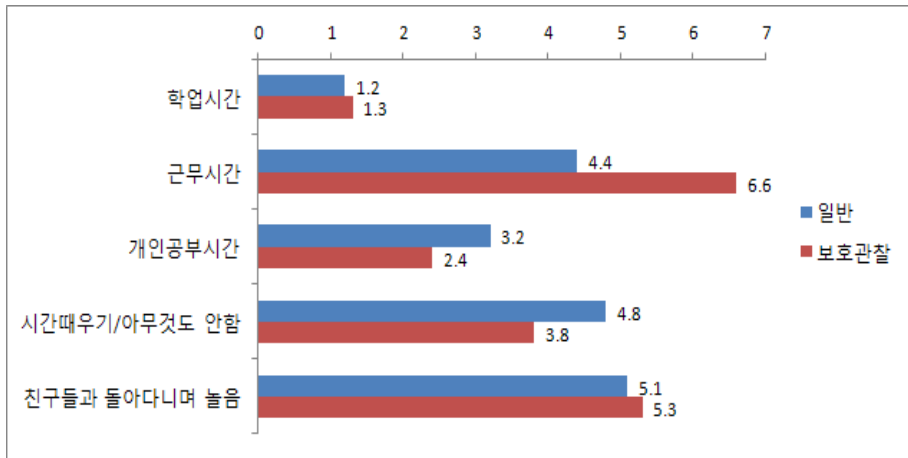
52.1%)이 더 적었다. 시간 때우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시간의 경험에서는 양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림 VI-29]는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일상시간을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교한 것이다.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근무시간이 8.4시간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학업’이 5.1시간,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시간’이 4.5시간이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일상시간에서 근무 시간과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시간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길었다.



【그림 VI-29】 생활영역별 일상시간 집단비교(평일):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시간)

한편 휴일의 일상시간을 보면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휴일에도 여전히 ‘근무시간(6.6시간)’ 비중이 가장 많았다. 일반 청소년은 평일에 비해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거나(5.1시간)’, ‘시간 때우기/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4.8시간)’이 증가하는 변화가 있었다.



【그림 VI-30】 생활영역별 일상시간 집단비교(휴일):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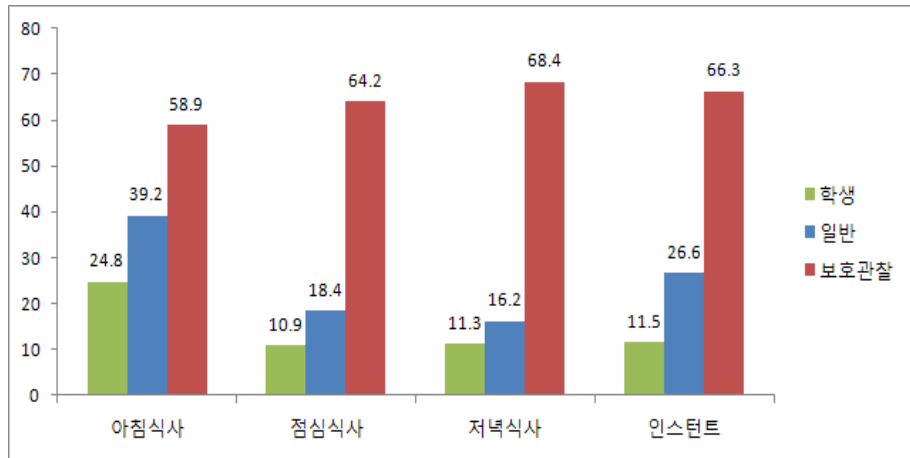
② 식생활 습관 : 결식률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 점심, 저녁식사를 각기 5일 이상 거른 적이 있거나, 주 3회 이상 라면을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림 VI-31]과 같다.

학생 청소년과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결식률은 현저히 높다.³³⁾ 학생 청소년이나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아침 결식률이 가장 높지만,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주 5일 이상 저녁 결식률은 68.4%에 도달하므로 10명 중 7명꼴로 저녁식사를 굶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1일 3식 기준, 매 식사마다 50%이상의 확연하게 높은 결식률을 보이고 있어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굶주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호관찰 청소년의 인스턴트 음식 섭취율도 66.3%로 일반 청소년의 약 2.5배(11.5%), 학생 청소년의 약 6배 정도(26.6%)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불규칙하고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학생 청소년 결식률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p. 25를 참조함.



【그림 VI-31】 주 5일 이상 결식을 집단비교: 학생 vs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5)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학업중단 청소년 본인의 관련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문항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일반 청소년은 48.9%, 보호관찰 청소년은 69.5%였으며, ‘학교에 다니지 않아 주위사람들이 문제아 취급을 하는 것 같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일반 청소년은 58.4%, 보호관찰 청소년은 66.3%로 나타나 보호관찰 청소년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주위사람의 평가를 더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어 불안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더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호관찰 37.4%, 일반 27.1%).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80.3%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절반에 못 미치는 47.9%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 여부에 대해서도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59.7%) 보다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72.1%)이 더 후회하는 것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 행복하였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도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42.6%)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74.3%)과 달리 행복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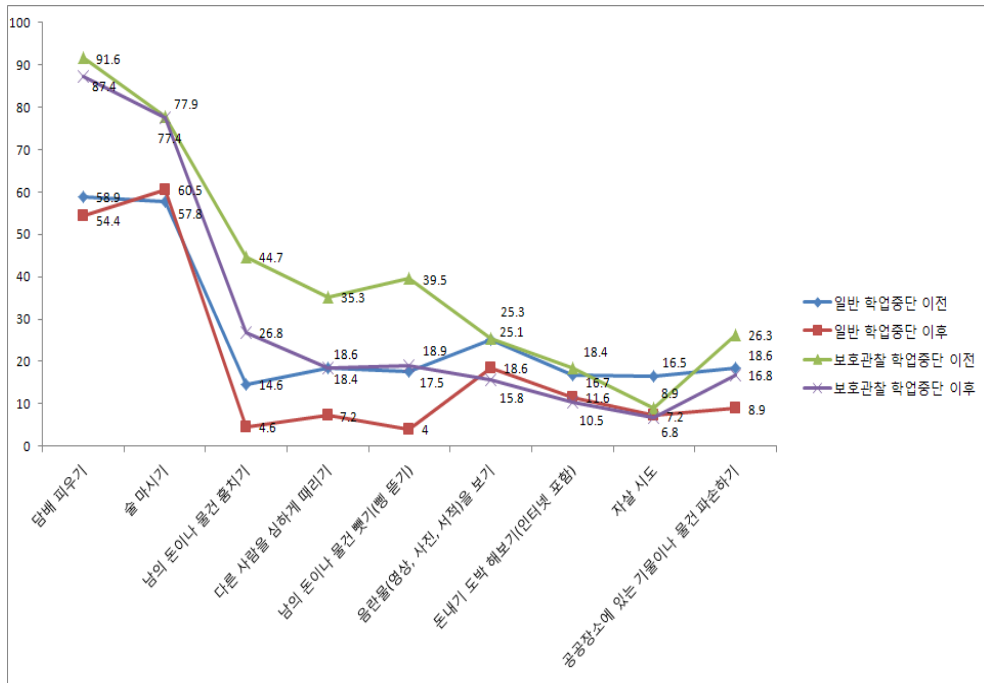
5) 학업중단과 문제행동

(1)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의 피해경험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의 피해경험을 보면, 집단따돌림(왕따) 피해를 제외하고 피해 경험에 있어서는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간에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에서 모두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17.5%가 학업중단 이전에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것에 비해 보호관찰 청소년은 4.7%만이 경험했다고 답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학업중단 이후에는 두 집단 모두 집단 따돌림을 거의 경험하지 않아 차이가 없었다.

(2)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의 비행경험

반면 비행경험에 있어서는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자살시도 외 흡연, 음주,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 빼앗기 등 여러 비행유형에서 보호관찰 청소년의 비행률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학업중단 이후 보호관찰 청소년은 물론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도 음주, 흡연 외에는 모든 비행유형에서 비행이 현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이후 보호관찰 청소년의 비행률은 '자살 시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비행유형에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시도' 경험은 일반적인 비행유형과 다른 경향을 보였다. 학업중단 이전 일반 청소년의 자살시도 경험률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두 배 정도 되었는데, 학업중단 후 일반 청소년의 1/2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살시도 경험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변화하였다.



【그림 VI-32】 학업중단 전후 비행경험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단위: %)

제 7 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제언

제 7 장 결 론*

1. 요약

1) 연구개요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후 경로 유형 및 생활실태와 의식의 변화를 파악하고, 학업중단 이후 이행과정(사회적응 및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양적조사로 정규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본 패널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776명, 비교집단 패널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220명, 총 996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조사 패널로 구축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향후 2015년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보고서의 조사 분석은 1차 데이터 처리가 종료된 조사응답자의 응답결과만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협동연구과제로 수행되었으며, 실사는 한국리서치가 담당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상담복지센터 등의 협조 하에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패널 구축을 담당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보호관찰 청소년패널 구축을 담당하였다.

조사도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개인명부 대상자는 일대일 대면면접, 기관 접촉을 통한 조사대상자는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조사도구는 2012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발한 것을 검토,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으며,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 간 특성과 학업중단 이후 경로 비교를 위해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학생 청소년 집단과의 비교를 위해 본 연구의 조사문항은 일반 학생에 관한

* 제 7장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데이터가 축적된 선행연구의 조사문항과 가능한 일치시키도록 하였다.

2) 학업중단 현황

학령인구 대비 학업중단자 규모를 추정해보면 우선 출생인구에 대비한 2012년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령인구 격차는 404,922명이며, 해당 기간 해외유입으로 인한 증가인구와 기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를 감안하면 총 361,605명이다. 여기에 정규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시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해외이주, 소년원, 보호관찰소, 병원에 있는 83,345명의 학령인구를 제하면, 총 278,260명의 학령인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추정하건데 이들은 순수 취업/아르바이트 또는 무업자(은둔형/배회형)이거나 학원(검정고시나 직업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기타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훈련 받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인구 분포가 어떠한지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급별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높아지며,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중학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학업중단율의 변화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학업중단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초·중학교의 경우 201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증가폭이 가장 컸다.

시도별 학업중단율을 보면 의무교육단계인 중학교까지의 학업중단 현상은 대체로 수도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0.6%)과 경기(0.4%), 중학교는 서울(1.1%), 인천(0.9%)과 경기(0.9%) 순으로 높은 학업중단율을 보인다. 그러나 고등학교인 경우 그 양상이 다소 상이하였다. 일반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대체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특성화고등학교는 학업중단율이 높을 뿐 아니라 지역별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대전지역의 학업중단율은 6.5%, 강원지역은 6.1%로 가장 높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서울 2.6%, 인천·제주 2.9%, 광주 3.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물론 절대적인 학업중단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경기와 서울지역의 학업중단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남 지역에서는 중학교나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인원이 더 많았으므로, 이들 지역의 특성화고에 재학하는 청소년의 학업중단이 더 심각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학업중단 사유를 살펴본 결과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계/특성화고 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3) 주요 조사결과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패널연구로서 1차년도에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474명,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1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 관련 실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조사 중 가장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경험을 기준으로 학업중단 시기를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 474명의 76.8%가 고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두었으며, 중학교 시기인 청소년은 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으로 보면 중학교 학령 집단과 고등학교 학령 집단 모두 각 학교에서 1학년일 당시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학교환경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학업중단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학교에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17.7%)’, ‘공부하기 싫어서(14.6%)’ 등의 학교요인(55.1%)이었고, 다음으로 ‘검정고시를 하려고’, ‘자신의 특기, 소질을 살리려고’ 등의 대안교육 선호(19.6%), 가정형편 등 개인적 사정(14.3%)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1순위 기준). 그러나 복수응답 1순위 기준뿐 아니라 2순위와 3순위에 서도 ‘학교에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의미를 두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학업중단 시 학교의 행정처리 형태는 대부분 자발적 자퇴(79.5%)였으며, 권고자퇴(6.8%), 상급학교 진학포기(5.3%), 퇴학(2.7%)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예처리 비율이 높았고, 고등학생이 중단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퇴나 권고자퇴 처리가 많았다. 학업중단 이유로는 가정형편 등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에 유예 비율이, 학교부적응/품행 문제로 그만두는 경우 권고자퇴와 퇴학 처리 비율이, 대안교육을 원해서 그만 두는 경우에는 상급학교 진학 포기로 행정처리 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학업중단 횟수는 1회(89.2%)가 다수였으며, 2회 이상은 10.8%였다. 학업중단 사유가 학교부적응이나 품행문제인 집단에서 학업중단 경험이 2회 이상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에서는 학업중단과 복교, 재 학업중단의 반복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복학 여부와 관련하여 ‘복학한 경험이 없다’(83.8%), ‘복학한 경험이 있다’(10.3%), ‘현재 복학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다’(5.9%)의 순으로 응답하여, 일반 학업중단자의 16.1%가 학교복귀자(학교복귀를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다. 학교복귀 경험과 학업중단 기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업중단이 길수록 학교에 복귀하는 경우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교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학업중단 후 빠른 시간 내에 복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조사응답자 중 학교복귀자 총 77명을 살펴보면, 최초 학업중단 시기는 고1(58.4%), 중3(15.6%) 순으로 많았으며, 남자 청소년은 고1, 중3 순으로, 여자 청소년은 고1, 고2 순으로 최초 학업중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 구분 또한 최근 학업중단 경험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학령은 중1 때, 고등학교 학령은 고1 때 학업중단 경험자가 많았다. 본 조사 응답자에 고등학교 학령자가 많아서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최초로 학업을 중단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는 최초 학업중단이 발생하는 결정적 시기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의 가족구성은 최초 학업중단 시기와 긴밀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가족원의 구성에 따라 청소년의 최초 학업중단 시기에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양부모나 한부모 가정에 소속된 청소년은 고1 시기에 집중되는 것과 달리, 부모님 모두 안 계신 가정에 속한 청소년의 최초 학업중단은 상대적으로 더 이른 중학교 때 발생하고 있었다.

복학을 경험한 청소년이 최초 학업중단 후 복교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6개월 이하(41.6%)’가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2년 미만(26.0%)’, ‘7개월 이상 1년 미만(22.1%)’, ‘2년 이상(7.8%)’ 순으로 나타났다. 복교이유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53.2%)’였으며, 다음으로 ‘부모님이 원해서(20.8%)’, ‘집에 있기 심심해서(11.7%)’로 나타나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거나 부모가 지속적으로 복교를 권할 경우 상대적으로 복교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학교복귀자 대부분은 이전에 다니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복학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큰 많은 이유는 ‘선생님이나 친구, 또는 공부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36.2%)’이며,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는 학교로 옮기려고 또는 검정고시를 쳤기 때문에(25.9%)’ 등의 적극적인 이유는 더 적었다. 한편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일수록, 중단기간이 1년 미만일수록 종전 학교로 복귀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학업중단 결정 당시 상담대상과 상담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그 대상으로는 부모님이 79.3%로 가장 많았고, 친구나 선후배(48.1%), 학교 교사(36.3%) 순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학업중단 결정과정에서 교사보다는 친구나 선후배가 더 중요한 상담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모님과 상담경험은 여자가 남자보다, 양부모가정, 한부모 가정, 부모님이 안계신 가정의 순으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업중단 사유가 대안교육 선호, 개인사정, 학교 부적응/폭행문제인 순으로 많았다. 상담대상이 아무도 없었다는 청소년은 7.8%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시 부모님의 태도는 반대 47.5%, 찬성이 38.8%였으며, 선생님은 반대 54.6%, 찬성 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 교사 모두 반대 입장이 많지만 찬성하는 입장은 부모님이 교사보다 2배 정도 많았다. 교사가 담당 청소년의 학업중단 사실을 몰랐거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23.5%로 부모보다 2배 정도 높아 교사의 학업중단에 대한 무관심 정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학업중단 시 학교에서 제공한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받지 않은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 이상으로 학교의 정보제공 역할이 매우 취약했다. 청소년이 학업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유형으로 ‘검정고시 준비방법(37.3%)’, ‘복학 절차(31.0%)’가 많았고 학업중단자의 1/3 정도가 이러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학교가 청소년의 복학을 전제하지 않는 태도로도 볼 수 있다. 정보유형 중 진로나 직업교육 또는 훈련 관련시설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은 15.8%로 가장 취약한 정보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업중단 전후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고자 국가정책으로 도입한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정보 습득경험은 22.2%에 불과했다. 이중 숙려제도 이용자는 24.6% 수준이고 이용자 중 숙려제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3.1%에 불과하므로, 실제 숙려제를 이용하고 도움을 느낀 청소년은 1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업중단 시 청소년이 필요했던 도움으로 과반수정도가 ‘진로상담(48.3%)’이라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학업중단 이후 생활의 정보제공(36.7%)’, ‘심리상담(22.2%)’, ‘일자리 소개(21.9%)’, 직업기술훈련/또래와 함께하는 유익한 활동(15.6%), 경제적 지원(15.0%), 대안교육(5.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중단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에 유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다양한 실천 사례와 선배들의 조언 등을 제공하는 진로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 학생 청소년과의 비교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 청소년,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교한 결과는 <표 VII-1>과 같다.

우선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학생 청소년을 비교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감, 문제행동 경험, 게임중독 수준 등의 개인적 특성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게임중독 수준뿐이었으며,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게임중독 정도가 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은 학생이 더 높고, 우울감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다양한 문제행동 경험을 경향치로 볼 때, 흡연, 음주 비율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이 훨씬 높았지만,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음란물 보기, 공공기물 파손 등의 문제행동 비율은 학생 청소년이 더 높았다. 이는 학업중단으로 학교라는 사회적 장을 떠나게 되어 동료들과 함께 저지르는 사회적 비행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환경적 특성에 있어서 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지원, 친한 친구 수, 이전 학교생활에서 학교 교사와의 관계, 학교 친구와의 관계, 학교규정 위반 경험 등을 비교하였을 때 양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은 친한 친구 수, 학습 부적응, 학교규정 위반 경험뿐이었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생 청소년 보다 친한 친구 수가 많고 학습부적응 수준이 높았으며, 지각, 무단결석, 두발복장 위반, 숙제 안하기, 수업 빼먹기 등의 학교규정 위반 경험이 많았다. 특히, 월 1회 이상의 무단결석이나 수업 빼먹기는 일반 학생들에게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규정 위반사항이므로 학업중단의 위기표식으로 고려해야 한다.

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지원 수준, 학교 교사와의 관계, 학교 친구와의 관계 등에서 학생 청소년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더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표 VII-1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조사변인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의 비교집단		배경변수별 차이
	학생 청소년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자아존중감	일반 < 학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차이 없음.	여자, 가정경제 수준 높을수록, 학업성적 높을수록, 학업중단 사유

개인적 특성				가 대안교육을 원해서일수록 높음.	
	자아탄력성	일반 < 학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일반 < 보호관찰	여자, 가정경제 수준 높을수록, 학업성적 높을수록, 학업중단 사유가 대안교육을 원해서일수록 높음.	
	우울감	일반 > 학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차이 없음.	여자, 부모님 모두 안 계신 가정, 가정경제 수준 낮을수록, 학업중단 사유가 가정형편 등 개인사정일수록 높음.	
	충동성	비교데이터 없음.	차이 없음.	학업중단 사유가 가정형편 등 개인사정, 학교 부적응 또는 품행문제일수록 높음.	
	문제행동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배피우기 일반 > 학생 •술 마시기 일반 > 학생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일반 < 학생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일반 < 학생 •남의 물건이나 돈 뺏기 일반 < 학생 •음란물 보기 일반 < 학생 •돈내기 도박 경험 일반 > 학생 •자살시도 비교데이터 없음. •공공기물 파손 일반 <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배피우기 일반 < 보호관찰 •술 마시기 일반 < 보호관찰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일반 < 보호관찰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일반 < 보호관찰 •남의 물건이나 돈 뺏기 일반 < 보호관찰 •음란물 보기 일반 < 보호관찰 •돈내기 도박 경험 일반 < 보호관찰 •자살시도 일반 > 보호관찰 •공공기물 파손 일반 < 보호관찰 	분석하지 않음.	
	게임중독	일반 > 학생 통계적으로 유의함.	차이 없음.	남자, 학업성적 낮을수록, 학업중단 사유가 학교 부적응 또는 품행문제일수록 높음.	
환경적 특성	부모	부모의 정서적 지원	일반 < 학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차이 없음.	양부모가정, 가정경제 수준 높을수록, 학업성적 높을수록, 중학교 때 학업중단 하였을수록, 학업중단 기간이 길수록, 학업중단 사유가 대안교육을 원해서일수록 높음.
		부모의 경제적 지원	일반 < 학생 통계적으로 유의함.	차이 없음.	양부모가정, 가정경제 수준 높을수록, 중학교 때 학업중단 하였을수록, 학업중단 사유가 대안교육을 원해서일수록 높음.
		부모의 방임	비교데이터 없음.	일반 < 보호관찰	남자, 부모님 모두 안계신 가정, 가정 경제수준 낮을수록 높음.

	부모의 학대	비교데이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학대 일반 < 보호관찰 •정서적 학대 차이 없음. 	부모님 모두 안 계신 가정, 학업 중단 사유가 가정형편 등 개인사 정일수록 높음.
친구	친한 친구수	일반 > 학생 통계적으로 유의함.	일반 > 보호관찰	분석하지 않음.
	새롭게 사귀친 친구수	비교데이터 없음.	일반 > 보호관찰	
	친한 친구 중 학업중단자 수	비교데이터 없음.	일반 < 보호관찰	
	또래애착	비교데이터 없음.	차이 없음.	고등학교 때 학업중단 하였을수록 높음.
	친구의 비행성향	비교데이터 없음.	일반 < 보호관찰	남자, 학업중단 사유가 학교 부적응 또는品行문제일수록 높음.
학교생활	긍정적 교사관계	일반 < 학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일반 > 보호관찰	분석하지 않음.
	긍정적 친구관계	일반 < 학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차이 없음.	분석하지 않음.
	학습부적응	일반 > 학생 통계적으로 유의함.	차이 없음.	분석하지 않음.
	학교규정위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각 일반 > 학생 •무단결석 일반 > 학생 •두발·복장 위반 일반 > 학생 •숙제안하기 일반 > 학생 •수업 빼먹기 일반 > 학생 통계적으로 유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각 일반 < 보호관찰 •무단결석 일반 < 보호관찰 •두발·복장 위반 일반 < 보호관찰 •숙제안하기 일반 < 보호관찰 •수업 빼먹기 일반 < 보호관찰 •선생님에게 대들기 일반 < 보호관찰 	분석하지 않음.
지역사회	지역사회 사회통합	비교데이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유대 일반 < 보호관찰 •비공식 통제 일반 < 보호관찰 	남자, 중학교 때 학업중단 하였을수록 높음.
	지역사회 무질서	비교데이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 무질서 차이 없음. •사회적 무질서 차이 없음. 	부모님 모두 안 계신 가정, 가정 경제 수준 낮을수록 높음.
	지역사회 유익환경	비교데이터 없음.	분석하지 않음.	가정 경제수준 높을수록 높음.

(3) 학업중단 이후의 삶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업중단 이후 지난 1년간 검정고시 공부(68%),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놀음(63.6%), 아르바이트/취업(41.7%), 직업기술 배움(19.2%) 등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취미/동아리 활동(15.6%), 상담/정신과 치료(14.4%), 복학(9.5%), 대안학교(8.5%), 병원 입원(8.6%) 등은 10% 내외의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 중 7개월 이상 지속한 활동 비율을 보면 검정고시 공부(24.3%),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림(21.7%), 아르바이트나 취업(9.3%), 취미/동아리 활동(5.7%) 순으로 순위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었으나, 학업중단 청소년 5명 중 1명 이상이 중단 후 7개월 이상을 목표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거 공간과 비행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약 10%정도는 PC방이나 기출팜 등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경험하고, 8.6%는 보호관찰을 받았으며, 보호시설이나 소년분류 심사원 생활경험자는 2~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 관계를 보면 새로 사귀 친구가 없는 경우가 36.3%, 5명 이하가 40.9%를 차지해 학교라는 주된 생활공간을 떠난 후에는 새로운 친구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청소년이 다양한 지역사회기관에서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에 관한 조언을 해주는 성인 멘토를 만난 경험은 학원(15.4%)과 상담기관(14.8%)에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종교기관(9.1%) 순이었다. 이외에 청소년시설(8.2%), 직업훈련기관(7.6%), 대안교육기관(6.1%), 복지시설(3.4%), 보호시설(2.3%) 등 지역사회시설의 도움을 받은 청소년의 비율은 낮았다. 학업중단 청소년 10명 중 1.5명꼴로 이용한 상담기관 종사자가 학교 교사의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가장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타 각 지역기관들의 이용정도는 학업중단 청소년 10명 중 1명 미만이었다.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도움은 앞으로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이었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진로정보를 얻기 위한 활동을 조사한 결과, 부모님 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87.5%), 인터넷 검색(69.2%)이 대부분이었으며, 교육, 복지, 고용 등 공공기관을 찾아가 상담을 받은 경험은 22.6%에 그쳤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본인의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진로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향후 진로계획으로 검정고시 준비(30.4%), 대학 진학을 포함한

정규학교로의 복학(29.3%), 대안학교 진학(1.7%), 해외유학(4.6%) 등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비율이 65.1%에 달하였으며, 진로 미결정(17.5%)과 비슷하게 직업교육훈련(6.1%), 취업 및 창업(5.7%) 등 직업과 관련한 활동을 하겠다는 응답비율이 16.4%였다. 학업중단 청소년 중 약 2/3정도가 비록 정규학교를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학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이 직업 관련 활동을 하겠다는 청소년보다 다소 많았다. 한편,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중 93%가 향후 자신의 계획이 달성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으며, 학업중단자의 69.1%는 향후 희망하는 교육수준 정도를 초대졸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학업 혹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60%) 아르바이트 등 취업 경제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20%)보다 많았고, 여가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보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청소년은 80~90% 수준으로 개인공부나 운동 등 긍정적 활동을 하는 청소년보다 많았다. 일평균 소비시간으로 따지면 평일에는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평균 6.5시간)이 학업·직업훈련 시간(평균 5.7시간)보다 다소 많이 소비되며, 여가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보내거나(평균 4.3시간),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시간(평균 3.3시간)이 운동 등의 긍정적 활동 시간(평균 1.8시간)보다 길었다. 주말에는 수면시간(평균 9.0시간), 친구들과 놀거나(평균 5.1시간), 혼자 지내는 시간(평균 4.8시간)이 늘어났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식생활을 살펴보면, 주 5일 이상 결식률은 각 아침식사 39.2%, 점심 18.4%, 저녁식사 16.2% 순이었으며, 주 3회 이상의 인스턴트 음식 섭취율은 26.6%이다. 아침식사 주 5일 이상 결식에 대한 배경변수 차이에서 고등학교 학령에 해당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일수록 아침 결식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고, 한부모 가정이거나 부모 모두 안 계신 가정일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아침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력에 대한 인식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 받고,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차별 받는다’에 대다수가 긍정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62.7%)’라는 의견에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다.

자신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는 청소년은 92.6%였고, 성공가능성에 대해 84.8%가 긍정적이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연령이 19세인 경우 상대적으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었으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대안교육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거나(74.3%)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80.4%), 절반 이상은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59.7%).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학업중단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문제가 취급을 당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경우가 40~50%이상으로 드러나 주변 시선에는 민감한 편이었다. 학업중단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 자신이 인지하는 가정의 경제수준과 중단 당시 학업성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대안교육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 더 긍정적이었다. 가정경제 수준과 학업성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 부적응이나 품행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학업중단에 대한 더 부정적이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이후 경로를 보면, 학교에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학업에 초점을 두는 학업형 비율이 42.0%로 가장 높았고, 학업이나 직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니트형(23.0%), 직업기술을 배우거나 일하는 직업형(17.9%), 가출이나 시설에 거주하는 비행형(8.9%), 혼합형(8.2%)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남자 청소년들에게서 직업형, 니트형, 비행형 경로가 두드러졌고, 여자 청소년들은 혼합형과 학업형이 많았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업형 비율이 높고, 고등학교 학령 청소년 집단은 중학교 학령이나 19세 이상보다 직업형 많았으며, 19세 이상에서는 니트형과 특히 비행형이 타 연령대에 비해 최소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가족구성으로 볼 때 양부모가정은 한부모나 부모 모두 안계신 가정보다 학업형 청소년 비율이 훨씬 더 높았고, 부모 모두 안 계신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 소속된 청소년들은 양부모가정 청소년에 비해 직업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부모 모두 안 계신 가정의 청소년들에게서 비행형 비율이 다른 가족구성에 소속된 청소년의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업형 비율이 높은 반면, 니트형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가정경제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직업형 비율이 높았다.

주관적 학업성적이 중위권 이상일 경우 학업형 경로 비율이 높고, 학업성적이 하위권일수록 니트형과 비행형 경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학업중단 시점으로 보면, 중학교 학업중단자가 고등학교 학업중단자에 비해 학업형 비율은 높고 직업형 비율이 낮았다. 대안교육을 위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 다른 집단에 비해 학업형의 비율이 높고 니트형 비율이 낮다. 학교부적응/품행문제로 중단한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보다 학업형이 낮고 비행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업중단 사유가 비행경로를 예측해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생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주요한 생활사건(life events)

부분에서 부모님의 부부 간 갈등이나 가정 내 폭력 등 가정불화를 경험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이 50.6%이었으며, 부모의 사망, 별거, 이혼으로 인한 가족구성의 변화(44.9%), 부모의 사업실패, 실직, 장기 병상으로 인한 가정 경제의 악화(36.5%)를 상당수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73.2%는 흡연, 음주, 절도, 구타 등의 비행 경험을 가진데 반해, 폭력, 따돌림 등의 비행 피해 경험자는 27.2% 수준으로 비교적 낮았다.

이러한 주요 인생사건 경험에 따라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삶의 경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성장과정에서 가족구성의 변화를 경험한 청소년 집단은 직업형이, 무경험 집단에서는 학업형의 청소년 비율이 상반되게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이 비행 행위를 해보지 않은 경우 절반 이상이 학업중단 이후 경로가 학업형이고 비행형은 전무하였으나, 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 집단에서는 무경험 청소년 집단에 비해 학업형 비율은 낮고, 직업형 비율이 다소 높으며, 비행형 경로는 12.1%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정경제 악화, 가정불화, 비행의 피해 경험유무는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삶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5)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업중단과 중단 이후 삶의 특징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이하 일반)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이하 보호관찰)의 학업중단 관련 특징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우선 학업중단 시기에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고등학교 때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많은 반면 보호관찰 청소년은 중학교(43.2%)로 나타났고, 학업중단 이유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17.7%)’,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10.5%)’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보호관찰 청소년은 ‘공부하기 싫어서(17.4%)’, ‘선생님이 싫어서(8.9%)’라고 주로 응답하였다.

복학경험은 일반 청소년 10.3%, 보호관찰 청소년 30.8%로 나타나 보호관찰 청소년이 약 3배 높은 학교 복귀율을 보였는데, 이는 표본특성상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업중단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학이유는 양 집단 모두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53.2%)’가 가장 많았고, ‘부모님이 원해서(20.0%)’, ‘집에 있기 심심해서(7.7%)’ 순이었다.

학업중단 결정 시 양 집단 청소년 모두 부모님과의 상담이 각각 79.3%, 63.2%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일반 청소년은 상담대상이 친구나 선후배(48.1%), 학교교사(36.3%) 순이었고, 보호관찰 청소년은 친구나 선후배(47.4%), ‘아무도 없음(17.4%)’, ‘형제자매(13.2%)’ 순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편, 학업중단 시 부모님과 교사의 태도를 보면 일반 청소년보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부모가 더 반대하였고(일반 47.5%, 보호관찰 63.7%), 교사의 경우 일반 청소년들이 보호관찰 청소년보다 담당교사로부터 그만두지 말라는 독려를 받았다(일반 54.6%, 보호관찰 39.5%). 게다가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교사의 태도는 일반 청소년(18.6%)보다 보호관찰 청소년(29.5%)일 때 더 많이 나타나는 차이를 보여,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업중단이 교사에게 비교적 당연시되거나 무관심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할 시 학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는 50%미만이었으며, 제공받은 정보유형의 1순위는 일반, 보호관찰 집단 모두 ‘검정고시 준비 방법(37.3%, 42.1%)’이었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이어서 ‘학교 복학 절차(35.8%)’, ‘대안교육기관(22.1%)’, ‘청소년시설(14.2%)’, ‘진로/직업교육 관련 시설(12.6%)’ 순으로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의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정보 분야는 ‘학업중단 숙려제’이다. 일반 청소년은 22.2%, 보호관찰 청소년은 5.8%만이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큰 차이를 보였으며,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해본 보호관찰 청소년은 단 4명(2.1%)으로, 이들은 학업중단 숙려제의 유용성에 부정적이었다.

학업중단 시 가장 필요한 도움은 일반 청소년 집단은 ‘진로상담(48.3%)’, 보호관찰 청소년 집단은 ‘일자리 소개(3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소개’의 경우 양 집단 간 가장 큰 응답률 차(16.7%)를 보이고 있어서, 보호관찰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직업 및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학생,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을 비교한 <표 VII-1>을 참조하면,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평점이 일반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았으며 자아존중감, 우울감이나 충동성의 개인 심리 특성은 별 차이가 없었다.

비행의 가해와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일반 청소년이든, 보호관찰 청소년이든 학업중단 이후 흡연과 음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집단으로 비교해볼 때 대부분의 문제행동은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며, 자살시도 경험만큼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환경적 특성 중 부모관계에서 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학대는 차이가 없으나, 방임과 신체적 학대 정도는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게서 더 높았다. 친구관계에서 또래애착 정도는 집단 간 차이가 없는데 보호관찰 청소년 집단에서 친한 친구와 학업중단 이후 새롭게 사귀 친구 수가 더 적었으며, 보호관찰 청소년의 친한 친구 중에서 학업중단자가

더 많았고, 비행성향도 더 높게 나타났다.

환경적 특성 중 학교생활을 보면 친구관계를 제외한 학교 교사와의 관계, 학습부적응, 학교규정 위반경험 면에서 일반 청소년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교사와의 관계는 일반 집단에서 더 긍정적이고, 모든 영역의 규정위반 경험이 보호관찰 청소년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학습부적응의 경우 학교 수업을 알아듣는 것이 힘들다는 문항에 한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이 더 높은 평균값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지역사회 환경에 있어서 유대감과 비공식통제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의 인식 차는 없었다.

학업중단 이후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무위도식, 아르바이트/취업, 복학, 병원 입원 경험이 더 많았다. 이에 비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대안학교, 검정고시, 직업기술훈련, 취미/동아리 활동,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 경험이 비교적 많았다. 이러한 생활 차이뿐 아니라 주거 공간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절반 가까이 소년분류심사원 생활을 경험하였고, 가출 후 친구 집이나 PC방 혹은 가출팸 생활, 보호시설/쉼터 생활 경험률이 확연하게 많았다.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새로 사귀는 친구가 적었으며, 각 지역사회기관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경험은 대부분 10% 미만으로 많아야 15%내외였다.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61.3%가 보호관찰소에서 성인 멘토를 만났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보호관찰을 받는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이 대인관계 형성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업중단 이후 일상생활 시간을 보면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학업시간이 비교적 적고 근무시간은 더 길며, 여가시간에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긴 반면, 보호관찰 청소년은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보내는 시간이 길었다.

식생활 습관을 분석한 결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주 5일 결식률은 일 3식 기준 매 식사에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크게 높았다(아침: 일반 39.2% vs 보호관찰 58.9%, 점심: 일반 18.4% vs 보호관찰 64.2%, 저녁: 일반 16.2% vs 보호관찰 68.4%). 또한 주 3회 이상 라면이나 컵라면 인스턴트식품 섭취율도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이 압도적으로 높았다(일반 26.6% vs 보호관찰 66.3%). 식생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비교적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반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에 대한 노출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으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에게 더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며(일반 48.9%, 보호관찰 69.5%),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어서 더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27.1%, 보호관찰 37.4%). 현재 생활 만족도 역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의 절반에 못 미치는 47.9%로 낮았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응답도 더 적었으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는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에서 더 많았다.

생애사건 경험을 보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친부모님의 별거(일반 24.5%, 보호관찰 37.4%), 이혼(일반 29.3%, 보호관찰 49.5%), 친아버지의 재혼 또는 새어머니가 들어오신 경우(일반 6.1%, 보호관찰 11.6%) 등 가족구성의 변화를 더 많이 겪었으며,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 교사로부터의 치욕적인 대우나 구타 경험(일반 17.7%, 보호관찰 11.1%), 전학 경험(일반 50.4%, 보호관찰 40%)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았다.

2. 정책제언

학업중단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학업중단의 예방과 학업중단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정책집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체계(정책전달체계)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 학업중단자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학업중단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이나 비용면에서도 매우 필요한 정책이다.

또한 이미 발생한 학업중단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율이 1% ~ 2% 선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학업중단 대책은 개발되거나 별로 실행되지 못했다. 우리 사회는 중·고등학교를 미졸업자 인구가 얼마나 누적되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들이 어떠한 생활모습으로 살아가며 이들의 필요는 무엇인지,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이슈화된 시점을 위한 인력 제공과 재정지원 없는 대책으로만 수립되었다가 다시 정책적 무관심의 영역으로 되돌아가곤 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우리사회에서 학령기 교육기회를 상실한, 특별한 요구를 가진 취약집단으로서 공평한 교육기회의 제공차원에서 국가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업중단의 예방과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정책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정책수립의 전제

가장 먼저 정책대상인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 학업중단자의 중단 이후 다양한 삶의 경로, 다양한 유형과 욕구, 학업중단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사회적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학업중단자는 주류 사회로부터 경로 이탈자로 인식되고 사회심리적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실제적 분석을 통해 정책 담당자, 학교 교사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의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자기보고에 따른 주된 학업중단사유는 학교생활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많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후 생활에 만족도가 높고 행복해 한다. 학업중단 후 음주, 흡연 외에는 대부분의 문제행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라는 장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촉진시킨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흡연 등의 문제로 청소년이 퇴학당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흡연 청소년에게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 심리적 특성은 학생 청소년과 별 차이가 없으며, 차이가 있다면 가족구성 등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환경적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정 위반 등으로 교사와의 관계는 소원하다. 학교와 사회가 이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문제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 이들이 학교를 떠나서도 건강하게 살아갈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목소리를 사회가 경청함으로써 학업중단은 단순히 일탈이나 탈락이 아닌 선택이라는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를 떠남으로써 상실한 교육적, 사회적 혜택을 보완해주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둘째, 학업중단 예방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주체의 책임성을 명료히 하고, 강화해야 한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는 많지만 학업중단을 소수 청소년의 문제로 보고 어느 부처에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루지 않고 있다. 국가차원의 총괄적 대책 수립, 부처별 업무분담과 협력,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과 집행을 촉진하는 정책전달체계를 확립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학업중단 청소년 28만 여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긴 하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청소년이 소속된 지역사회에서 정책의 수혜를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역의 접촉점이 최대한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전달체계 수립에 있어서 특정 부처, 특정 부처 산하시설과 기관으로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는 개방적 정책전달체계를 마련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범부처 정책을 제안하면 <그림 VII-1>과 같다.



【그림 VII-1】 범부처 학업중단대책 전달체계

2) 학업중단 예방대책

(1)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경보제 도입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학업중단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이다. 학업중단의 주요 표식은 무단결석과 낮은 학업성적으로, 저조한 학업성적은 학교 공부를 지속할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돕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 내 주로 일리노이주 남부에서 시행되는 제도를 보면, 결석아동 발생 시 법적으로 지정된 한 사람이 해당 아동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보고하게 한다. 이에 학교 사회복지사, 학교 카운셀러, 학교 간호사가 담당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교육구청에서 담당인력을 고용하여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영국이나 아일랜드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2주 이상의 장기 결석자 발생 시 학교는 반드시 지역교육청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며, 이러한 학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가는 상담을 의무화하여 학생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윤철경, 2013a: 177).

(2) 학업중단 숙려제도 개선 및 전문가 인력 풀 구축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를 학업중단 조기경보제로 전환한다.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대상은 고등학교 자퇴자로 국한되어 있으며 도움이 더 필요한 중학생이나 퇴학생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자퇴 학생이 전문가를 찾아가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부할 경우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해 실효성이 낮다. 실제 본 연구 조사결과에서도 품행문제 등으로 퇴학을 당하는 청소년들의 숙려제 이용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

학업중단 숙려제를 조기경보제로 전환하여 학업중단 위기 표식을 드러내는 학생들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이 용이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전문인력 풀(학교상담사, 청소년동반자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상담전문 인력 양성 및 연수 기능을 바탕으로 전문가 파견(청소년 동반자 등 인력 확충)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도 전문가 풀 운영기관에 필요한 파견 상담, 전화상담 및 사례관리 수당 등 관련예산을 확보, 집행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3) 학교현장에 학업중단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제작 보급

시도교육청이 청소년의 학업중단 발생과정에 대한 이해와 학업중단의 예방, 학업중단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대응매뉴얼을 제작하고 보급하도록 촉진한다. 이는

학업중단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로 지역사회의 실제적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학업중단의 위기 징후,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이해와 교육적 지도에 필요한 내용, 학업중단 후 청소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정보, 지역사회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이해와 안내, 복교는 어떠한 조건에서 잘 이루어지며 복교생이 있을 때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보 등이 담겨져야 할 것이다. 특히 비행 청소년의 경우, 학교의 대응방법에 대한 내용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학교 교사가 비행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낮을 때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비행 청소년의 예측 변수가 되는 특이한 가족구성이나 무단결석, 낮은 학업성적 등의 행동징후를 보이는 청소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윤철경, 2013a: 181).

(4) 특성화고 학업중단 예방대책 수립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율이 일반고와 특성화고(중전 전문계고 포함)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특성화고에서 학교 부적응을 원인으로 하는 학업중단율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4배를 넘었는데, 특성화고의 부적응 사유 발생에 대한 현황 파악과 면밀한 분석, 더불어 학생 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취약지역 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에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학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학습지원과 특기적성 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학업중단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지역 학교에서는 학업 이외에 미래에 대한 동기, 진로교육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이 많이 발생하는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방과 후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술을 익히고 용돈을 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입과 지출, 저축과 같은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수입을 유흥비로 탕진하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3)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 대책

(1) 학업중단 시 학교의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 기능 강화

학업중단 시 학교의 역할이 소극적이다. 교사가 상담자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데 붙들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 중 1/4은 담당 교사가 자신의 학업중단 사실을 모르거나 별다른 관심이 없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그 효용성이 의심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의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절차가 너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의 행정처리가 자발적 자퇴인 경우가 80%이며, 기출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자들은 학교에서 상담 한번 받지 않고 퇴학, 자퇴, 또는 유예 처리되어 교사나 학교의 상담 기능이 낮음을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비행 청소년들이 교사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 적절한 상담과정도 거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이에 학업중단 시 학교의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업중단 시 학교가 학업중단 이후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복교절차, 진로상담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청 단위로 관련 정보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동시에 학교 교사 등의 진로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대안교육기관 확대 운영, 학교선택권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대안교육역량 제고

① 대안교육기관 확대 및 운영지원

학업중단 청소년은 어떤 형태로든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한다. 학교를 그만둔 후 대안을 찾지 못해 무위도식하는 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기존의 정규학교 외에 다양한 교육기관이 확대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지역사회기관을 통해 성인의 도움을 받는 경험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시설들이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유익하고 긍정적인 활동과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관, 박물관, 대학, 지역문화센터, 복지관, 문화예술단체 등 다양한 지역기관과 단체에서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서 대안교육기관 운영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사자격증 소지자, 문화예술인력 등의 지역사회 인적자원과 청소년 시설 등 지역사회 물적 자원을 결합한 다양한 대안교육 모델(청소년활동, 인문교양교육, 직업훈련 및 상담 등)이 창출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② 학교선택권 제공

현재의 위탁형 대안교육제도는 장기결석, 품행 등의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몰아내는 기능이 강하므로 청소년 당사자의 성취동기가 부족하여 교육적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지역사회기관들이 경쟁하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들의 대안교육 선택 기회를 확대한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청소년들은 기존의 정규 학교생활이 무의미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있었다. 자신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체제 하에서는 학업중단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므로 불가피한 공교육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차터 스쿨 법(Charter School Law)에 의해 비영리단체의 교육기관 설립을 촉진하고, 공교육 기관과 동일한 조건의 1인당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차터 스쿨(Charter School)은 대체로 일반 학교에 비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교 예산규모 등이 적어 불리한 면은 있으나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Illinois policy Institute, 2008; 윤철경, 2013b : 135에서 재인용). 미국 시카고의 YCCS(Youth Connection Charter School)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지원하던 지역사회 민간 기관의 프로그램을 네트워크화하여 시카고시 교육위원회의 재정지원을 이끌어 낸 모범 사례이다(YCCS, 2013; 윤철경, 2013b : 135에서 재인용). 지역사회 민간기관의 프로그램을 네트워크화하고 공립학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위탁형 대안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화와 양적 확대를 통한 교육당사자의 선택권 부여,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자율성 보장 원칙이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③ 취약지역에 공공 대안교육기관 우선 설치

학업중단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 대안교육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이 정규교육 학업중단 학생들을 수용하여 교육하고 있지만 학비 부담 및 수용가능 인원의 제한으로 자유로운 취학이 어려운 현실이다. 교육부 또는 여성가족부가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대안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윤철경, 2013a: 183).

(3) 학업중단자 유형별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행로는 어떤 형태로든 학업을 지속하려는 학업형, 목표 없이 시간을 때우며 무위도식하는 니트형(무업형), 직업훈련이나 전일제 근로를 하고 있는 직업형, 가출, 비행 등에 노출된 비행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4가지 유형 중 학업형의 비율이 가장 높으므로 다양한 방식의 교육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급성으로 따지면 비행형 그리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니트형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무시할 수 없다. 비교적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직업훈련 대상이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 또한 미룰 수 없으므로 학업중단 이후 각 생활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① 학업중단 시점에 따른 차별적 지원 강화

비교적 이른 시기인 초·중학교의 학업중단자는 교육공동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복교, 대안교육 등의 학업적 지원을 강화하고,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는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이 더 요구된다(윤철경, 2013a: 181).

②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복교는 부모나 주변의 관심에 따라 촉진되며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좋다.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은 부모의 지속적 권유가 있으면 대부분 학교를 옮겨서 복교하였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복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교육청의 복교지원 프로그램 홍보와 운영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복교를 촉진할 것이다.

복교 후 다시 학교를 떠나는 비율도 높다. 복교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복교지원 프로그램이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윤철경, 2013a: 179).

③ 가출·비행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보호, 자립지원의 원스톱 지원시설 확대

학교 부적응과品行문제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중단 이후 생활이 비교적 힘들어

질 가능성이 높다. 권고 자퇴, 퇴학 등의 형태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서, 학교의 무관심과 냉대는 물론 가정에서의 지원도 어려운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조사결과 다른 집단에 비해 복학 경험은 많으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다시 자퇴하기를 반복하게 된다.

이들은 불안정한 주거생활과 결식 등 생계형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집단이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시설 설치와 식사와 주거 등이 해결되는 보호시설이면서 시민으로서 필요한 인문교양교육과 경험세계를 확장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공간이다. 정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낮은 학업성취도를 가진 집단이므로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대안교육이 필요하며 경험세계를 바꾸고, 비행 친구가 아닌 새로운 친구를 접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길거리 상담을 통한 사례 발굴, 지속적인 상담과 보호, 교육을 통합한 주거형 시설이 필요하다. 경기도 안산의 ‘들꽃 피는 마을’, ‘들꽃피는 학교’와 상담을 포함하여 보호, 복지, 대안교육, 청소년활동, 직업훈련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위기청소년지원센터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윤철경, 2013a: 182).

④ 무업형 청소년을 위한 거점 문화 공간 설치

중단 후 특정 목표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무업형 청소년들은 신속히 개입해야 할 집단이다. 조사결과 학업중단 후 7개월 이상 아무것도 안하고 지낸 무업형 청소년 비율이 20%를 넘어서고 있고, 이러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안을 찾기가 더 어렵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편하게 드나들며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공간을 통해 자신에게 유익한 긍정적 활동을 접하면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시카고 교육청이 운영하는 Reengagement Center가 그러한 사례로 미 전역에 20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센터에서는 학습에 관련한 활동은 하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레크레이션, Workshop, 검정고시 준비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안전한 장소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지역에 따라 전화를 걸어서 학업중단자들을 초대하는 아웃리치 활동을 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자유문화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쉴 수 있거나 모이는 공간적 역할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길거리 상담자의 배치를 통한 진로상담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거점 문화공간이 필요하다.

⑤ 직업형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강화

청소년 친화적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전문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참여는 저조하며 청소년의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 교육청 아현산업정보학교와 같이 청소년 친화적 직업훈련 교육기관을 모델로 청소년 친화적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도록 한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보편적이다. 청소년들이 착취적 노동시장에서 보호받으며 장기적 안목에서 일의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자리 연계·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4) 긍정적 청소년활동 지원 대책 수립

① 학업중단 청소년 자조모임 지원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들은 새로운 친구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취미나 동아리, 운동 등 긍정적 활동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욕구가 없지 않으나 적절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다가 여가시간에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혼자서 시간 때우기로 보내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동아리지원 사업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여가 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청소년 자조모임을 지원한다. 또한 자조모임을 통해 학업중단 선배들과 진로와 경험, 활동정보 등을 나눌 수 있으며 학업중단 동료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② 긍정적 청소년활동 촉진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보다 무위도식하는 시간이 많다.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뿐 아니라 참여활동, 진로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이러한 긍정적 활동실적을 청소년카드의 포인트로 적립하는 등 다양한 활동지원 정책을 수립한다.

4) 학업중단대책의 전달체계 및 추진일정

(1) 지역교육청 내 전담부서 설치

지역교육청에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및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일본의 부등교 학생지원 네트워크, 영국의 중퇴학생 전담과처럼 교육청에서 학업중단 예방과 학업중단 후 진로지원 및 사회적응을 돕는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부처의 필수 업무는 학업중단 예측의 주요 표식이 될 수 있는 무단결석 학생과 비행 학생에게 적시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급별 학교의 보고체계를 갖추는 것이며, 퇴학생의 재적용 계획을 입안하여 그들의 학교복귀를 돕는 것이다. 학교 퇴학과 함께 학교의 교육적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진출까지의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퇴학 후 대안교육과정 등 재적용 과정을 제공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복교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윤철경, 2013a: 177).

(2) 지역별·교급별 학업중단대책 수립 촉진 및 평가

학업중단 현황을 볼 때 지역별·교급별로 역점을 두어야 할 학업중단 대상이 다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이를 고려하여 지역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우선 학업중단율이 높고 지역 격차가 큰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청소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대전과 강원지역의 특성화고 학업중단율은 6%를 넘어서서 2~3% 수준인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였다.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북, 전남지역은 중학교나 일반고보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업중단 인원이 더 많았으므로 이들 지역의 특성화고 학업중단 대책 마련에 각별히 힘써야 한다.

특성화고보다 학업중단자가 더 많은 일반 고등학교 발생 지역은 경기, 광주, 충남, 전북, 경남, 경북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더 많은 학업중단이 발생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서울, 경기 지역은 절대적 수치 상의 학생 인구 자체가 많으므로 학업중단 인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타 지역에 비해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의 학업중단도 현상도 많이 발생하므로 그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부나 여성가족부는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상과 같은 지역의 학업중단 특성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전국 학업중단 정책지도를 작성하고 그 성과를 점검하여, 학업중단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촉구한다.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에 관련 조례제정 및 정책 시행 등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반영하여 학업중단 예방 및 지원정책을 촉진한다.

(3) 학업중단 사유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기입을 위한 지침 마련

학교 현장에서는 학업중단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임의로 기입하여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학업중단 사유는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경로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각급별 학교가 청소년의 학업중단 실태 및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행정시스템에 기입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4) 학업중단 예방 및 복교 지원에 대한 학교평가지표 설정 및 적용

학교 규범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권고자퇴, 전학 권유 등의 방식으로 퇴학을 종용하는 학교가 있다. 강력한 학교 규범 남발로 학업중단을 야기하는 학교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순 학업중단자 수(학업중단자 수에서 복교자 인원을 감하여 산출)와 증감률을 평가지표로 설정하여 활용한다. 학교와 교사가 학업중단에 더 예민하게 대응하도록 하여 교사와의 관계 악화로 인한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복교를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하도록 유도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위기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국가차원의 중앙지원센터는 정책모형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수준에 부합한 해당 정책을 수립하고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지역센터는 해당 지역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는 전방위 시설로서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시도교육청(또는 교육부)은 지방자치단체(또는 여성가

죽부)와 협의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역센터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상담 및 복교지원, 검정고시 준비 및 대안교육 및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에 대한 지역사회 정보를 구축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온라인 상담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청소년이 찾아와서 상담과 향후 진로, 각종 프로그램을 안내받고 참여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윤철경, 2013a: 189). 또한 해당 지역사회에서 학업중단 학생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를 탐색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윤철경, 2013a: 185),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원받는 서비스 현황 및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 개입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한다(윤철경, 2013a: 189).

이상의 대책에 대한 추진일정은 <표 VII-2>와 같다.

표 VII-2 범 부처 학업중단 대책 추진일정

	정책과제	추진일정			소요 예산	정책대상	주관기관 / 관련기관	
		2014	2015	2016				
예방정책	학업중단 조기경보제 도입	→			비예산	학교/센터	교육부	
	전문가 인력풀 구축운영	→	→	→	50억	센터	지방자치단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보급	→			3억	학교	교육부/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대책 수립	→			비예산	학교	교육부/교육청	
	방과 후 학교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	→	→	비예산	학업 중단자	교육부/교육청	
학업 중단자 지원정책	대안교육기관 확대 및 운영지원	→	→	→	100억	대안교육 기관	교육부/여성가족부/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학업중단 시 정보제공 강화	→			비예산	학교	교육부/교육청	
	중 단 유 형 별 대 책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	→	→	10억	학업 중단자	교육청
		비행청소년 원스톱 지원시설 확대	→	→	→	50억	지자체	교육부/여성가족부
		거점 문화공간 설치	→	→	→	32억	학업 중단자	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	→	→	비예산	학업 중단자	고용노동부
	긍정적 청소년활동 지원	→	→	→	32억	학업 중단자	여성가족부	
전달체계	지역교육청 전담부서 설치	→	→	→	비예산	교육청	교육부	
	지역별 대책 수립	→			비예산	교육청/ 지자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중단사유 조사 및 기입 지 침 마련	→			비예산	학교	교육부/교육청	
	학교평가지표에 반영	→			비예산	학교	교육부/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중앙/지역)	→	→	→	30억	지역	교육부/여성가족부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합 계					307억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2.9.11). 201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3). 2011학년도 학업중단자 현황 (내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충북: 질병관리본부.
- 교육부 (2013). 2006~2012 연도별 학업중단학생 현황 (인성교육지원팀 내부자료).
- 구분용, 신현숙, 유제민 (2002).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중퇴 모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 상담연구**, 10(2), 35-57.
- 국회 (2013). 초중고 시도별 학생변동상황 2008-2012 (내부자료).
- 권재환, 이은희 (2006). 남녀 청소년의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1), 325-351.
- 금명자 (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299-317.
- 김경식 (1997). 중·고교 중퇴생과 재학생의 교내외 생활 비교를 통한 중퇴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7(3), 115-138.
- 김민 (2001).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 (01-R23).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성식, 남궁지영 (2008).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IV)** (연구보고 PR 2008-2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종범 (2009).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6(2), 25-48.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 (연구보고 10-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선, 홍영오 (201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연구총서 11-26).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류한구, 김양분, 현주, 김일혁, 강상진, 김현철, 박성호 (2005).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I) : 예비조사 보고서** (연구보고 RR 2005-1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민인철, 이용교 (2011). **광주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 보고서**. 광주: 광주광역시.
- 박재숙 (2009). 학교위험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중퇴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과다사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3), 1-23.
- 성운숙 (2005).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중퇴과정과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6(2), 295-343.
- 양계민, 김승경 (2010).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 I** (연구보고 10-R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9(2), 125-154.
- 윤여각, 박창남, 전병유, 진미석 (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조사** (CR 2002-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윤철경, 김영지, 유성렬, 강명숙 (2013a). **학업중단 학생 중단정책 연구** (연구보고 12R-5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김성기 (2013b).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 (연구보고 12R-56)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류방관, 김선아 (2010).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연구보고 10-R33). 서울: 교육과학기술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김기현, 임희진 (2007).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연구보고 07-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백혜정 (2005).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II** (연구보고 05-12).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 (2011).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I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1-R1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서정아, 배상률, 성은모, 김지영, 강현철 (2012).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II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2-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조혜영 (2005).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8(2), 41-64.
- 이근창 (2003). **학교중퇴 청소년의 중퇴이후 적응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병환 (2002).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 방안. **한국교육**, 29(1), 175-196.
- 이소영 (2000). **학교중단 청소년의 중퇴이후 적응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숙영, 남상인 (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이현주, 김용남 (2012). 고등학교 학업중단을 변화의 지역별, 학교유형별 현황 및 학교 관련 요인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13(1), 149-185.
- 이희길 (2006). **범죄성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연심, 조아미 (2007).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4(1), 123-136.
- 전경숙 (2006). 10대 학업중단 청소년의 근로 실태에 관한 실증적 고찰 연구: 가출경험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4(1), 3-21.
- 전영실, 신동준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12-AA-01).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규필, 박현지, 김래선, 김범구, 양대회, 이현진, 황수진 (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 재적응 과정 연구. **중등교육연구**, 59(4), 969-1000.
- 최인재, 모상현, 강지현 (201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1-R2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인재, 모상현, 이선영 (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2-R1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2학년도 학생현황 교육통계 (내부자료).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임숙 (2004). **학교를 떠난 아이들의 세계: 학교중퇴자에 대한 사례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Russel W. Rumberger. (2011). *Dropping out: Why Students Drop out of High School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013년 10월 접속.

Children of Immigrants Longitudinal Study(CILS). <http://www.icpsr.umich.edu/icpsrweb/ICPSR/studies/20520>에서 2013년 7월 7일 인출.

Monitoring the Future(MTF). <http://www.monitoringthefuture.org/purpose.html>에서 2013년 7월 8일 인출.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Add Health). <http://www.cpc.unc.edu/projects/addhealth/design>에서 2013년 7월 8일 인출.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CDS). <http://psidonline.isr.umich.edu/Guide/FAQ.aspx?Type=2>에서 2013년 7월 7일 인출.



부 록

1. 일반 청소년용 설문지
2. 보호관찰 청소년용 설문지

부 록

1. 일반 청소년용 설문지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 2013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는 향후 3개년 간 계속되는 연구로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2013년 6월

조사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14번지
윤철경 박사(02-2188-8804)
전영실 박사(02-3460-5122)

조사 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2-19번지
신성현 수석부장(02-3014-0087)
박선경 대리(02-3014-1016)

패널ID (기록하지 마세요)					본인 이름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생년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small>(예: 98년 3월 출생 시 9803년 03월)</small>		

I. 학업중단 현황

문 1. 여러분은 현재 다음 중 어떤 상태입니까?

여기서 학교란 정규학교로 학력 인정을 위해 검정고시를 볼 필요가 없는 학교를 말합니다.

- ① 학교를 그만 둔 상태
- ② 학교를 그만 두었다가 정규학교로 복학한 상태

※ 지금부터 응답하는 모든 문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응답 기준이 없는 한

가장 최근에 학업을 중단했을 때(유예, 면제, 자퇴, 퇴학 등으로 인해)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문 2. 최근 학교를 그만둔 때는 언제였습니까?

- ① 중학교 때 ② 일반계 고등학교 때 ③ 전문계 고등학교(현행 특성화고) 때

문 2-1. 몇 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였습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중학교 졸업이후 진학하지 않음

문 3. 학교를 그만 둔 때는 언제였습니까? (예 : 2012년 7월에 그만둔 경우 2012년 07월)

20 년 월

문 4.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부터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강상의 이유로 ③ 가정불화 때문에 ⑤ 공부하기 싫어서 ⑦ 친구들이 싫어서 ⑨ 학교를 그만 둔 친구를 따라 놀고 싶어서 ⑪ 검정고시를 하려고 ⑬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⑭ 비행으로 보호처분(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⑯ 기타(_____)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④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⑥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⑧ 학교의 규칙이 엄해서 ⑩ 선생님이 싫어서 ⑫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
|---|---|

문 5. 학교를 그만둔 당시 처리 형태는 무엇이었습니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발적 자퇴(내가 그만 둔 것) ③ 징계로서의 퇴학 ⑤ 유예 ⑦ 기타 (_____)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권고 자퇴(내 생각보다는 학교의 권고로 자퇴) ④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포기 ⑥ 면제 |
|---|---|

문 6. 학교를 그만 둔 당시 학교성적은 어느 정도였나요?

최하위권	하위권	중하위권	중위권	중상위권	상위권	최상위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7.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모두 몇 번의 학업중단 경험이 있었습니까?

'학업중단 경험'이란 3개월 이상 장기결석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자퇴 등으로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번

문 8. 학업중단 이후 학교에 복학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복학한 경험이 있다 → '문 8-1'로
- ② 현재 복학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다 → '문 8-1'로
- ③ 복학한 경험이 없다 → 다음페이지 '문 9'로

문 8-1. 최초 학업중단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예 : 2012년 7월에 그만둔 경우 2012년 07월)

20 년 월 (중학교 학년 때, 고등학교 학년 때)

문 8-2. 최초 학업중단 후 얼마 만에 학교에 복학했습니까?

년 개월 후에 학교에 복학했음

문 8-3. 최초 학업중단 후 복학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
- ② 검정고시를 보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어서
- ③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게 되어서
- ④ 집에 있기 심심해서(다른 할 일이 없어서)
- ⑤ 부모님이 원해서
- ⑥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 ⑦ 기타()

문 8-4. 최초 학업중단 후 여러분이 복학한 학교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전에 다녔던 학교 → 다음페이지 '문 9'로
- ② 다른 학교 → '문 8-5'로

문 8-5. 최초 학업중단 후 전에 다녔던 학교로 복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선생님들에게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 ② 친구들에게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 ③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서
- ④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는 학교로 옮기려고
- ⑤ 검정고시를 쳐서 학력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 ⑥ 기타()

문 8-6. 최초 학업중단 후 여러분이 복학한 학교는 어디입니까?

1) 학교명	() (중학교/고등학교)
2) 학교소재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문 9. 최근 학교를 그만 둘 무렵, 학업중단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의논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부모님
- ② 형제자매
- ③ 학교교사
- ④ 학교 내 상담교사
- ⑤ 상담기관(상담사, 인터넷 상담 등)
- ⑥ 친구나 선후배
- ⑦ 아무도 없었다
- ⑧ 기타(_____)

문 10. 학업중단 시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제공받은 경험이...	
1)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① 없다	② 있다
2)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① 없다	② 있다
3)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① 없다	② 있다
4)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	① 없다	② 있다
5) 진로나 직업 교육·훈련 관련 시설(예: 고용지원센터)	① 없다	② 있다
6)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설명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결정 전에 전문기관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생각하고 고민)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	① 없다	② 있다

문 11. 여러분이 학교를 그만들 당시 필요했던 도움은 어떤 것이었나요?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 ② 심리상담
- ③ 진로상담
- ④ 대안교육
- ⑤ 직업기술훈련
- ⑥ 일자리 소개
- ⑦ 또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
- ⑧ 경제적 지원
- ⑨ 기타(_____)

문 12. 학업을 중단하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① 안된다고 하셨다
- ②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셨다
- ③ 별 다른 반응이 없었다
- ④ 학업을 중단하려는 것을 모르셨다
- ⑤ 기타(_____)

문 13. 학업을 중단하려고 했을 때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① 안된다고 하셨다
- ②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셨다
- ③ 별 다른 반응이 없었다
- ④ 학업을 중단하려는 것을 모르셨다
- ⑤ 기타(_____)

문 14. 학업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기관 상담을 받으며 2주 정도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간을 가졌습니까?

- ① 예 - 「문 14-1」로
- ② 아니오 - 다음페이지 「문 15」로

문 14-1. 2주 동안 학업중단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II. 학업중단 당시 학교생활 회고

문 15 학교를 나가기 싫어서 결석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15-1」로
- ② 없다 - 「문 16」으로

문 15-1. 학교를 나가기 싫어서 결석하기 시작한 일은 언제 처음 있었습니까?

- ① 초등학교 저학년 ② 초등학교 고학년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문 15-2. 학교를 나가기 싫어서 결석하게 된 최초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를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① 공부하기 싫어서 ② 친구들이 괴롭혀서 ③ 선생님께 혼나서
- ④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⑤ 기타(_____)

문 16. 최근 학교를 그만두기 전 여러분의 학교생활은 어땠는지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2)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3)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4)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5)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①	②	③	④
7)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친구들이 도와주었다.	①	②	③	④
8) 학교 수업내용은 내 관심, 흥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9) 학교 수업내용은 내 수준에 맞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10) 학교 수업을 알아듣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다.	①	②	③	④

문 17. 최근 학교를 그만두기 전 여러분의 학교 분위기는 어땠는지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규칙이 엄격했다.	①	②	③	④
2) 잘못에 비해 벌을 심하게 줬다.	①	②	③	④
3) 학교에 문화예술행사나 동아리활동 등이 활발하였다.	①	②	③	④
4)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치활동이 활발하였다.	①	②	③	④

문 18. 여러분은 최근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했는지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없었다	연 1-2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
1) 지각	①	②	③	④	⑤
2) 무단결석 (보호자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은 경우를 말함)	①	②	③	④	⑤
3) 두발복장 등 규정위반	①	②	③	④	⑤
4) 숙제를 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5) 수업을 몰래 빼 먹음	①	②	③	④	⑤
6) 선생님에게 대들었음	①	②	③	④	⑤
7) 잘못된 행동을 하여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감	①	②	③	④	⑤

Ⅲ.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인식

※ 다음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현재까지 여러분의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기억을 되살려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업중단을 여러 번 한 경우 가장 최근 학업중단 이후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세요.

문 19. 학업중단 이후 아래 각각의 일을 경험한 달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예시]

승호는 2012년 8월에 학업을 중단한 후 9월~10월은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013년 3월에는 전에 다니던 학교에 복학하여 2013년 6월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2013년 2월~3월은 집앞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 승호가 학업을 중단한 2012년 8월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응답합니다.
- ☞ 문1) 복학하여 학교에 다님 의 보기 ⑨ 2013년 3월 ~ ⑫ 2013년 6월에 모두 등그림이 합니다.
- ☞ 문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의 보기 ③ 2012년 9월과 ④ 2012년 10월, ⑧ 2013년 2월과 ⑨ 2013년 3월에 모두 등그림이 합니다.
- ☞ 학업중단 기간 중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은 문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의 보기 ② 2012년 8월, ⑤ 2012년 11월 ~ ⑦ 2013년 1월에 등그림이 합니다.

	2012년						2013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 복학하여 학교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승호가 응답해야 할 기간

	2012년						2013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 복학하여 학교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2) 대안학교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3) 검정고시 공부를 함 (검정고시 학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4) 직업기술을 배움 (직업학교나 학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7) 취미나 동아리활동 등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8)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9)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문 20. 학업중단 이후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지낸 경우가 있다면 해당하는 달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2012년						2013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 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 같은 곳에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 (가출팸: 가출한 친구들 끼리 모여 함께 사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2)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쉼터 등)에서 지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3) 보호관찰을 받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4)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소년분류심사원: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하여 원인을 밝히고 분류 심사하는 기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문 21.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 21-1」로
 ② 아니오 - 다음페이지 「문 22」로

문 21-1. 지금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체크해주세요.

현재 하는 아르바이트가 2개 이상이라면 '더 많은 시간을 하는 아르바이트 기준'입니다.

- | | |
|-------------------------------|--------------------------|
| ①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 | ② 신문 및 우유배달 |
| ③ 카페(커피숍) 및 주점 서빙 | ④ 24시간 편의점 점원 |
| ⑤ 일반상점 판매원 | ⑥ 비디오 대여점 카운터 및 서빙 |
| ⑦ 비디오방 카운터 및 서빙 | ⑧ 게임방 카운터 및 서빙 |
| ⑨ 노래방 카운터 및 서빙 | ⑩ 전화방 카운터 및 서빙 |
| ⑪ 만화방 카운터 및 서빙 | ⑫ 여관 카운터 및 서빙 |
| ⑬ 피자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서빙/카운터/배달 | ⑭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서빙/카운터/배달 |
| ⑮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삐끼), 서빙 및 접대 | ⑯ 이벤트 행사장도우미 |
| ⑰ 주유소 주유원 | ⑱ 이삿짐 운반 또는 물건 포장 |
| ⑲ 건설현장 노동 | ⑳ 공장노동 |
| ㉑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 ㉒ 아기, 노인 돌보기 |
| ㉓ 기타(_____) | |

문 21-2.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에서 응답한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주일에 며칠씩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약 (_____)일
2)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약 (_____)시간
3) 한 시간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약 (_____)원

문 22. 학교를 그만 둔 이후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여러분을 이해하고,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기관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원, 문화의 집 등)
- ②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 ③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쉼터 등)
- ④ 상담기관(청소년상담소 등)
- ⑤ 보호관찰소
- ⑥ 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취업사관학교)
- ⑦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 ⑧ 학원
- ⑨ 병원 등 치료시설
- ⑩ 대안교육기관
- ⑪ 기타(_____)

문 23. 학교를 그만 둔 후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①	②	③	④
2)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①	②	③	④
3) 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문 24. 향후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당하는 번호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단,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여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임		→ 다음페이지 「문 26」 으로
진학·학업	② 정규학교로 복학(대학 진학 포함) ③ 대안학교 진학 ④ 해외 유학 ⑤ (대안학교 등을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준비	→ 다음페이지 「문 25」 로
취업	⑥ 진학하지 않고 취업(창업)할 예정임 ⑦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임	
⑧ 취업과 진학 병행(방송통신고 등)		
⑨ 진학이나 취업은 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임		
⑩ 당분간 무보수로 가업(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 등)을 도울 예정임		

문 25. 여러분은 향후 원하는 진로계획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문 26. 여러분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중졸	고졸	초대졸 (2~3년제)	대졸 (4년제)	대학원 졸 (석사 및 박사)
①	②	③	④	⑤

문 27. 다음은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여러분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복학했다면,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의 심정으로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2)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가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3)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였)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한(했)다.	①	②	③	④
5)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한(했)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였)다.	①	②	③	④

IV.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

문 28.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으니 각 항목에 대해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관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문 29. 여러분의 평소 기분과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운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①	②	③	④
3)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4)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5) 울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6)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한다.	①	②	③	④
7) 외롭다.	①	②	③	④
8)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9)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10) 모든 일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화가 나면 물물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문 30. 여러분이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 보았는지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①	②	③	④
2)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①	②	③	④
3)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①	②	③	④
4)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5)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6)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7)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8)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V. 부모·친구관계·동네주변 환경

문 31. 다음은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는 보호자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보호자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다른 가족, 친척 등이 부모님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단, 시설 및 기관의 보호자는 제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고민을 들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5)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문 32. 다음은 부모님(보호자)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냈던 행동이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기억을 되살려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일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①	②	③	④
2) 나에게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셨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셨다.	①	②	③	④
4)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	①	②	③	④
6) 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셨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셨다.	①	②	③	④
8)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때린 적이 많다.	①	②	③	④
9)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예를 들어 멍청이, 개만도 못한 것, 내가 죽어라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말)	①	②	③	④

문 33. 현재 친한 친구가 몇 명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한 친구란 '평소에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 로 예전 학교친구, 동네친구 및 선후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

문 33-1. 그 중에 학업중단 이후 새롭게 사귀 친구는 몇 명입니까?

()명

문 33-2. 친한 친구 중에 학업 중단한 친구는 몇 명입니까?

()명

문 34. 여러분의 친구(선후배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4)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①	②	③	④
5)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	①	②	③	④
6) 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	①	②	③	④

문 35. 여러분이 학업중단 시에 살았던 동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학업중단 이후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을 경우는 학업중단 시에 살았던 동네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냈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①	②	③	④
3)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4)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말렸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5) 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빈집이나 공터가 많았다.	①	②	③	④
6)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7) 우리 동네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녔다.	①	②	③	④
8) 우리 동네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9) 우리 동네에는 여가문화시설(청소년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했다.	①	②	③	④
10) 우리 동네는 산, 공원, 하천 둔치 등이 있어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았다.	①	②	③	④

VI. 일상 생활 및 가치관

문 36. 다음은 여러분이 하루 동안 생활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생활 영역별로 해당 여부를 응답하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기입해 주세요.

		해당여부	평일에는	휴일에는
수면 시간	1) 나는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이 대략...	X	()시간이다.	()시간이다.
공부나 일하는 시간	2) 나는 하루 24시간 중 학교나 대학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3) 나는 하루 24시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여가 시간	4) 나는 하루 24시간 중 숙제, 시험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5) 나는 하루 24시간 중 휴대전화기, 컴퓨터, 게임, TV 등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대략.. ※ 숙제나 공부 때문에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는 시간은 제외함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6) 나는 하루 24시간 중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에 가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7) 나는 하루 24시간 중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노는 시간이...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문 37. 다음은 식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유나 주스만을 마신 것은 식사에서 제외하며 빵, 선식, 미숫가루, 죽, 시리얼 등을 먹는 경우는 포함합니다.

	아니다	그렇다
1) 최근 7일 동안 나는 아침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2) 최근 7일 동안 나는 점심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3) 최근 7일 동안 나는 저녁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4) 최근 7일 동안 나는 라면이나 컵라면을 주 3회 이상 먹었다.	①	②

문 38. 다음은 학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사회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2) 우리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3) 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문 39. 다음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여러분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VII. 생애사건 경험

※ 말씀해 주시는 응답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습니다.
오직 연구목적의 통계 자료로만 사용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40. 다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을 수도 있는 "나의 생활" 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사건' 에 관한 것입니다. 제시된 '사건' 가운데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 이 있었는지,
1) 발생여부와 2) 그 사건이 "처음" 일어난 때가 언제였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사 건	발생 여부	처음 일어난 때 (예) 취학 전 · 초 · 중 · 고
1) 친아버지가 돌아가심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2) 친어머니가 돌아가심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3) 친부모님의 별거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4) 친부모님의 이혼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5) 친아버지의 재혼(또는 새어머니가 들어오심)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6) 친어머니의 재혼(또는 새아버지가 들어오심)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7) 친아버지의 가출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8) 친어머니의 가출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9) 친아버지의 사업실패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0) 친어머니의 사업실패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사 건	발생 여부	처음 일어난 때 (예) 취학 전 · 초 · 중 · 고
11) 친아버지의 실직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2) 친어머니의 실직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3) 친아버지의 오랜 병상생활(질병, 교통사고 등)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4) 친어머니의 오랜 병상생활(질병, 교통사고 등)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5) 기억에 남을 만한 심한 친부모님의 부부싸움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6) 친아버지가 친어머니를 심하게 때림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7) 친아버지로부터 심하게 맞음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8) 친어머니로부터 심하게 맞음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9) 학교선생님으로부터의 치욕적인 대우나 구타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20) 이사 등으로 전학함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Ⅷ. 문제행동 경험

※ 말씀해 주시는 응답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습니다.
오직 연구목적의 통계 자료로만 사용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41. 다음은 여러분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기억을 되살려 최근 학업중단 이전에 혹은 학업중단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중단 이전에		학업중단 이후 현재까지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1) 집단 따돌림(왕따)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2) 성적인 놀림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3) 문자나 메신저로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4)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상납)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5) 심하게 언어맞기(폭행)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6) 성폭력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문 42. 다음은 여러분이 최근 학업중단 이전에 혹은 학업중단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이후 현재까지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1) 담배 피우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2) 술 마시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3)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5)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뺨 뜯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6)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보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7) 돈내기 도박 해보기(인터넷 포함)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8) 자살 시도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9)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IX. 배경요인

문 43.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친아버지 ② 친어머니 ③ 새아버지 ④ 새어머니
 ⑤ (외)할아버지 ⑥ (외)할머니 ⑦ 형제, 자매 ⑧ 친척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 44. 친부모님의 결혼상태는?

- ① 결혼 ② 재혼 ③ 별거 ④ 이혼 ⑤ 사별
 ⑥ 부모님이 안 계심

문 45. 현재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중 외국출신이신 분이 계십니까?

- ① 외국출신 분이 안 계심 ③ 어머니가 외국출신 ④ 두 분 모두 외국출신
 ② 아버지가 외국출신 ⑤ 부모님이 안 계심

문 46.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안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문 47.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들어간 이후 현재까지 이사를 몇 번 했습니까?

(_____)번

문 48.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 참여 의향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앞으로 연구 패널로서 매년 1번의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귀하가 앞으로 1년에 1시간 정도씩만 시간을 내셔서 조사에 응해주시면 한국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정책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의 패널로서 조사에 계속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름: _____ 서명(씨인): _____

※ 마지막으로 귀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물겠습니다. 이 정보는 다른 곳에 절대로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작성해 주신 모든 내용은 부모님(보호자)께도 절대 알려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 적어주시는 내용은 패널 여러분에게 안부전화나 감사편지 등을 발송하기 위해 필요하며, 또한 계속 조사를 해야 하는 패널 조사의 특성상 여러분과 계속 연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솔직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ID (기록하지 마세요)					본인 이름		
휴대폰 번호	-	-			이메일 주소	@	
사는 곳 주소	()시/도 ()시/군/구 ()구 ()등/읍/면 나머지 주소 : _____						
부모님 주소	*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경우에만 기록 ()시/도 ()시/군/구 ()구 ()등/읍/면 나머지 주소 : _____						
집 전화번호	-	-	부모님 집 전화번호	*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경우에만 기록 - -			
아버지	성명				형제- 자매 또는 친척	성명	해당란에 O 표시 형제-자매 친척
	휴대폰 번호	-	-		휴대폰 번호	-	-
어머니	성명				친한 친구	성명	
	휴대폰 번호	-	-		휴대폰 번호	-	-

이번 조사에 응해주신 귀하께 감사의 뜻으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귀하가 매년 조사에 참여하실 때마다 감사의 뜻으로 사례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연구 및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계신 귀하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또는 보호자께도 패널조사에 대해 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문화상품권 수령확인을 위해 이름과 조사일시, 서명을 자필로 쓰시고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인 나 (이름)_____ 는 2013년 ____월 ____일 ____시에
본 조사에 참여했으며, 응답사례품(문화상품권 3만원권)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내년 조사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명(싸인): _____

♣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 보호관찰 청소년용 설문지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 2013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는 향후 3개년 간 계속되는 연구로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2013년 6월

조사 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2-19번지
신성현 수석부장(02-3014-0087)
박선경 대리(02-3014-1016)

조사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14번지
윤철경 박사(02-2188-8804)
전영실 박사(02-3460-5122)

패널ID (기록하지 마세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생년월일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예: 98년 3월 출생 시 [9]8년 [0]3월)						

1. 학업중단 현황

※ 지금부터 응답하는 모든 문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응답 기준이 없는 한 가장 최근에 학업을 중단했을 때(유예, 면제, 자퇴, 퇴학 등으로 인해)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문 1. 최근 학교를 그만둔 때는 언제였습니까?

- ① 중학교 때 ② 일반계 고등학교 때 ③ 전문계 고등학교(현행 특성화고) 때

문 1-1. 몇 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였습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중학교 졸업이후 진학하지 않음

문 2. 학교를 그만 둔 때는 언제였습니까? (예 : 2012년 7월에 그만둔 경우 2012년07월)

20 년 월

문 3.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부터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① 건강상의 이유로
② 가정불화 때문에
③ 공부하기 싫어서
④ 친구들이 싫어서
⑤ 학교를 그만 둔 친구를 따라 놀고 싶어서
⑥ 검정고시를 하려고
⑦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⑧ 비행으로 보호처분(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⑨ 기타(_____) | ⑩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⑪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⑫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⑬ 학교의 규칙이 엄해서
⑭ 선생님이 싫어서
⑮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
|---|--|

문 4. 학교를 그만둘 당시 처리 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 | | |
|---|---|
| ① 자발적 자퇴(내가 그만 둔 것)
② 징계로서의 퇴학
③ 유예
④ 기타 (_____) | ⑤ 권고 자퇴(내 생각보다는 학교의 권고로 자퇴)
⑥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포기
⑦ 면제 |
|---|---|

문 5. 학교를 그만 둘 당시 학교성적은 어느 정도였나요?

최하위권	하위권	중하위권	중위권	중상위권	상위권	최상위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6.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모두 몇 번의 학업중단 경험이 있었습니까?

‘학업중단 경험’이란 3개월 이상 장기결석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자퇴 등으로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_____)번

문 8. 최근 학교를 그만 둘 무렵, 학업중단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의논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부모님
- ② 형제자매
- ③ 학교교사
- ④ 학교 내 상담교사
- ⑤ 상담기관(상담사, 인터넷 상담 등)
- ⑥ 친구나 선후배
- ⑦ 아무도 없었다
- ⑧ 기타(_____)

문 9. 학업중단 시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제공받은 경험어...	
1)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① 없다	② 있다
2)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① 없다	② 있다
3)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① 없다	② 있다
4)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	① 없다	② 있다
5)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예: 고용지원센터)	① 없다	② 있다
6)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설명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결정 전에 전문기관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생각하고 고민)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	① 없다	② 있다

문 10. 여러분이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필요했던 도움은 어떤 것이었나요?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 ② 심리상담
- ③ 진로상담
- ④ 대안교육
- ⑤ 직업기술훈련
- ⑥ 일자리 소개
- ⑦ 또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
- ⑧ 경제적 지원
- ⑨ 기타(_____)

문 11. 학업을 중단하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① 안된다고 하셨다
- ②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셨다
- ③ 별 다른 반응이 없었다
- ④ 학업을 중단하려는 것을 모르셨다
- ⑤ 기타(_____)

문 12. 학업을 중단하려고 했을 때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① 안된다고 하셨다
- ②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셨다
- ③ 별 다른 반응이 없었다
- ④ 학업을 중단하려는 것을 모르셨다
- ⑤ 기타(_____)

문 13. 학업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기관 상담을 받으며 2주 정도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간을 가졌습니까?

- ① 예 → '문 13-1' 로
- ② 아니오 → 다음페이지 '문 14' 로

문 13-1. 2주 동안 학업중단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II. 학업중단 당시 학교생활 회고

문 14. 학교를 나가기 싫어서 결석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14-1**로
- ② 없다 - **문 15**로

문 14-1. 학교를 나가기 싫어서 결석하기 시작한 일은 언제 처음 있었습니까?

- ① 초등학교 저학년 ② 초등학교 고학년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문 14-2. 학교를 나가기 싫어서 결석하게 된 최초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를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① 공부하기 싫어서 ② 친구들이 괴롭혀서 ③ 선생님께 혼나서
- ④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⑤ 기타(_____)

문 15. 최근 학교를 그만두기 전 여러분의 학교생활은 어땠는지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2)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3)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4)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5)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①	②	③	④
7)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친구들이 도와주었다.	①	②	③	④
8) 학교 수업내용은 내 관심, 흥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9) 학교 수업내용은 내 수준에 맞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10) 학교 수업을 알아듣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다.	①	②	③	④

문 16. 여러분은 최근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했는지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없었다	연 1-2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
1) 지각	①	②	③	④	⑤
2) 무단결석 (보호자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은 경우를 말함)	①	②	③	④	⑤
3) 두발·복장 등 규정위반	①	②	③	④	⑤
4) 숙제를 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5) 수업을 몰래 빼 먹음	①	②	③	④	⑤
6) 선생님에게 대들었음	①	②	③	④	⑤
7) 잘못된 행동을 하여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감	①	②	③	④	⑤

Ⅲ.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인식

※ 다음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현재까지 여러분의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기억을 되살려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업중단을 여러 번 한 경우 가장 최근 학업중단 이후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세요.

문 17. 학업중단 이후 아래 각각의 일을 경험한 달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예시]

승호는 2012년 8월에 학업을 중단한 후 9월~10월은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013년 3월에는 전에 다니던 학교에 복학하여 2013년 6월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2013년 2월~3월은 집앞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 승호가 학업을 중단한 2012년 8월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응답합니다.
- ☞ 문1) 복학하여 학교에 다님 의 보기 ① 2013년 3월 ~ ⑫ 2013년 6월에 모두 등그라미 합니다.
- ☞ 문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의 보기 ③ 2012년 9월과 ④ 2012년 10월, ⑧ 2013년 2월과 ⑨ 2013년 3월에 모두 등그라미 합니다.
- ☞ 학업중단 기간 중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은 문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놀아다니며 놀 의 보기 ② 2012년 8월, ⑤ 2012년 11월 ~ ⑦ 2013년 1월에 등그라미 합니다.

	2012년						2013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 복학하여 학교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놀아다니며 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 승호가 응답해야 할 기간

	2012년						2013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 복학하여 학교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2) 대안학교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3) 검정고시 공부를 함 (검정고시 학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4) 직업기술을 배움 (직업학교나 학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놀아다니며 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7) 취미나 동아리활동 등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8)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9)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문 18. 학업중단 이후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지낸 경우가 있다면 해당하는 달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2012년						2013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 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 같은 곳에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 (가출팸: 가출한 친구들 끼리 모여 함께 사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2)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 센터 등)에서 지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3) 보호관찰을 받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4)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소년분류심사원: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하여 원인을 밝히고 분류 심사하는 기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문 19.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 19-1」로
 ② 아니오 - 다음페이지 「문 20」으로

문 19-1. 지금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체크해주세요.

현재 하는 아르바이트가 2개 이상이라면 '더 많은 시간을 하는 아르바이트 기준'입니다.

- | | |
|-------------------------------|--------------------------|
| ①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 | ② 신문 및 우유배달 |
| ③ 카페(커피숍) 및 주점 서빙 | ④ 24시간 편의점 점원 |
| ⑤ 일반상점 판매원 | ⑥ 비디오 대여점 카운터 및 서빙 |
| ⑦ 비디오방 카운터 및 서빙 | ⑧ 게임방 카운터 및 서빙 |
| ⑨ 노래방 카운터 및 서빙 | ⑩ 전화방 카운터 및 서빙 |
| ⑪ 만화방 카운터 및 서빙 | ⑫ 여관 카운터 및 서빙 |
| ⑬ 피자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서빙/카운터/배달 | ⑭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서빙/카운터/배달 |
| ⑮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삐끼), 서빙 및 접대 | ⑯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
| ⑰ 주유소 주유원 | ⑳ 이삿짐 운반 또는 물건 포장 |
| ⑱ 건설현장 노동 | ㉑ 공장노동 |
| ㉒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 ㉓ 야기, 노인 돌보기 |
| ㉔ 기타(_____) | |

문 19-2.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에서 응답한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주일에 며칠씩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약 (_____)일
2)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약 (_____)시간
3) 한 시간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약 (_____)원

문 20. 학교를 그만 둔 이후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여러분을 이해하고,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기관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원, 문화의 집 등)
- ②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 ③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쉼터 등)
- ④ 상담기관(청소년상담소 등)
- ⑤ 보호관찰소
- ⑥ 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취업사관학교)
- ⑦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 ⑧ 학원
- ⑨ 병원 등 치료시설
- ⑩ 대안교육기관
- ⑪ 기타(_____)

문 21. 학교를 그만 둔 후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①	②	③	④
2)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①	②	③	④
3) 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문 22. 여러분은 향후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만일 이미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여 하고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 주세요.

- 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임
- ② 학교를 다니거나 검정고시 준비
- ③ 취업
- ④ 취업과 학업(검정고시) 병행
- ⑤ 취업과 학업(혹은 검정고시 준비)은 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만 계속
- ⑥ 기타(_____)

문 23. 다음은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여러분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복합했다면,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의 심정으로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었)다.	①	②	③	④
2)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가 취급을 하는 것 같(었)다.	①	②	③	④
3)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었)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하(했)다.	①	②	③	④
5)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하(했)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었)다.	①	②	③	④

IV.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

문 24.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으니 각 항목에 대해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관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문 25. 여러분의 평소 기분과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운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①	②	③	④
3)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4)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5) 울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6)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한다.	①	②	③	④
7) 외롭다.	①	②	③	④
8)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9)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10) 모든 일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화가 나면 물물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문 26. 여러분이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 보았는지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①	②	③	④
2)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①	②	③	④
3)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①	②	③	④
4)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5)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6)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7)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8)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V. 부모·친구관계·동네주변 환경

문 27. 다음은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는 보호자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보호자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다른 가족, 친척 등이 부모님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단, 시설 및 기관의 보호자는 제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고민을 들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5)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문 28. 다음은 부모님(보호자)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냈던 행동이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기억을 되살려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일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①	②	③	④
2) 나에게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셨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셨다.	①	②	③	④
4)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았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	①	②	③	④
6) 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셨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셨다.	①	②	③	④
8)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때린 적이 많다.	①	②	③	④
9)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예를 들어 멍청이, 개만도 못한 것, 나가 죽어라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말)	①	②	③	④

문 29. 현재 친한 친구가 몇 명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한 친구란 '평소에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 로 예전 학교친구, 동네친구 및 선후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_____)명

문 29-1. 그 중에 학업중단 이후 새롭게 사귀 친구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문 29-2. 친한 친구 중에 학업 중단한 친구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문 30. 여러분의 친구(선후배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4)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①	②	③	④
5)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	①	②	③	④
6) 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	①	②	③	④

문 31. 여러분이 학업중단 시에 살았던 동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학업중단 이후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을 경우는 학업중단 시에 살았던 동네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냈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①	②	③	④
3)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4)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말렸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5) 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빈집이나 공터가 많았다.	①	②	③	④
6)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7) 우리 동네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녔다.	①	②	③	④
8) 우리 동네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9) 우리 동네에는 여가문화시설(청소년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했다.	①	②	③	④
10) 우리 동네는 산, 공원, 하천 둔치 등이 있어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았다.	①	②	③	④

VI. 일상생활 및 가치관

문 32. 다음은 여러분이 하루 동안 생활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생활 영역별로 해당 여부를 응답하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기입해 주세요.

		해당여부	평일에는	휴일에는
수면 시간	1) 나는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시간이다.	()시간이다.
공부나 일하는 시간	2) 나는 하루 24시간 중 학교나 대학,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3) 나는 하루 24시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여가 시간	4) 나는 하루 24시간 중 숙제, 시험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5) 나는 하루 24시간 중 휴대전화기, 컴퓨터, 게임, TV 등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대략.. ※ 숙제나 공부 때문에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는 시간은 제외함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6) 나는 하루 24시간 중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에 가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7) 나는 하루 24시간 중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노는 시간이...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문 33. 다음은 식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유나 주스만을 마신 것은 식사에서 제외하며 빵, 선식, 미숫가루, 죽, 시리얼 등을 먹은 경우는 포함합니다.

	그렇다	아니다
1) 최근 7일 동안 나는 아침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2) 최근 7일 동안 나는 점심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3) 최근 7일 동안 나는 저녁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4) 최근 7일 동안 나는 라면이나 컵라면을 주 3회 이상 먹었다.	①	②

문 34. 다음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여러분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VII. 생애사건 경험

※ 말씀해 주시는 응답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습니다.
오직 연구목적의 통계 자료로만 사용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35. 다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을 수도 있는 "나의 생활" 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사건' 에 관한 것입니다. 제시된 '사건' 가운데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 이 있었는지,

1) 발생여부와 2) 그 사건이 "처음" 일어난 때가 언제였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사 건	발생 여부	처음 일어난 때 (예) 취학 전 · 초 · 중 · 고
1) 친아버지가 돌아가심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2) 친어머니가 돌아가심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3) 친부모님의 별거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4) 친부모님의 이혼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5) 친아버지의 재혼(또는 새어머니가 들어오심)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6) 친어머니의 재혼(또는 새아버지가 들어오심)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7) 친아버지의 가출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8) 친어머니의 가출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9) 친아버지의 사업실패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0) 친어머니의 사업실패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사 건	발생 여부	처음 일어난 때 (예) 취학 전 · 초 · 중 · 고
11) 친아버지의 실직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2) 친어머니의 실직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3) 친아버지의 오랜 병상생활(질병, 교통사고 등)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4) 친어머니의 오랜 병상생활(질병, 교통사고 등)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5) 기억에 남을 만한 심한 친부모님의 부부싸움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6) 친아버지가 친어머니를 심하게 때림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7) 친아버지로부터 심하게 맞음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8) 친어머니로부터 심하게 맞음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9) 학교선생님으로부터의 치욕적인 대우나 구타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20) 이사 등으로 전학함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Ⅷ. 문제행동 경험

※ 말씀해 주시는 응답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습니다.
오직 연구목적의 통계 자료로만 사용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36. 다음은 여러분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기억을 되살려 최근 학업중단 이전에 혹은 학업중단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중단 이전에		학업중단 이후 현재까지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1) 집단 따돌림(왕따)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2) 성적인 놀림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3) 문자나 메시지로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4)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상납)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5) 심하게 언어맞기(폭행)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6) 성폭력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문 37. 다음은 여러분이 최근 학업중단 이전에 혹은 학업중단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이후 현재까지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1) 담배 피우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2) 술 마시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3)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5)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뺨 뜯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6)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보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7) 돈내기 도박 해보기(인터넷 포함)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8) 자살 시도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9)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문 38. 보호관찰소에서 만나고 있는 선생님(보호관찰관)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각 항목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보호관찰관 선생님은 나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신다.	①	②	③	④
2) 보호관찰 선생님은 내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알고려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3) 보호관찰 선생님은 나를 잘 도우신다.	①	②	③	④
4) 보호관찰 선생님에게 내 문제를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IX. 배경요인

문 39.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친아버지 ② 친어머니 ③ 새아버지 ④ 새어머니
 ⑤ (외)할아버지 ⑥ (외)할머니 ⑦ 형제, 자매 ⑧ 친척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 40. 친부모님의 결혼상태는?

- ① 결혼 ② 재혼 ③ 별거 ④ 이혼 ⑤ 사별
 ⑥ 부모님이 안 계심

문 41. 현재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중 외국출신인 분이 계십니까?

- ① 외국출신 분이 안 계심 ③ 어머니가 외국출신 ④ 두 분 모두 외국출신
 ② 아버지가 외국출신 ⑤ 부모님이 안 계심

문 42.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안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문 43.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들어간 이후 현재까지 이사를 몇 번 했습니까?

(_____)번

문 44.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 참여 의향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앞으로 연구 패널로서 매년 1번의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귀하가 앞으로 1년에 1시간 정도씩만 시간을 내셔서 조사에 응해주시면 한국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정책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될 인적사항을 포함한 개인적인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나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며, 본 조사의 패널로서 조사에 계속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름: _____ 서명(싸인): _____

이번 조사에 응해주신 귀하께 감사의 뜻으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귀하가 매년 조사에 참여하실 때마다 감사의 뜻으로 사례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연구 및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계신 귀하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또는 보호자께도 패널조사에 대해 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문화상품권 수령확인을 위해 이름과 조사일시, 서명을 자필로 쓰시고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인 나 (이름)_____ 는 2013년 ____월 ____일 ____시에
본 조사에 참여했으며, 응답사례품(문화상품권 3만원권)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내년 조사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명(싸인): _____

♣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응답자 정보

※ 여기서부터는 담당 보호관찰관께서 작성하여 주세요.

패널ID (기록하지 마세요)						패널 이름		
휴대폰 번호		-	-	이메일 주소		@		
사는 곳 주소		()시/도 ()시/군/구 ()구 ()동/읍/면 나머지 주소 : _____						
부모님 주소		*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경우에만 기록 ()시/도 ()시/군/구 ()구 ()동/읍/면 나머지 주소 : _____						
집 전화번호		-	-	부모님 집 전화번호		*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경우에만 기록 - -		
아버지	성명				형제· 자매 또는 친척	성명	해당란에 O 표시 형제·자매·친척	
	휴대폰 번호	-	-	휴대폰 번호		-	-	
어머니	성명				친한 친구	성명		
	휴대폰 번호	-	-	휴대폰 번호		-	-	

보호관찰 관련

문 1. 이번 보호관찰 받기 이전에 처분 받은 경입 유무

- ① 없다 → 「문 2」로
- ② 있다(이번을 제외하고 ____회) → 「문 1-1」로

문 1-1. 처분받은 적이 있다면 처분내용을 모두 적어 주십시오.

발생연도	죄명	처분내용(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① 1호처분 ② 2호처분 ③ 3호처분 ④ 4호처분 ⑤ 5호처분 ⑥ 6호처분 ⑦ 7호처분 ⑧ 8호처분 ⑨ 9호처분 ⑩ 10호처분 ⑪ 기타(_____)
		① 1호처분 ② 2호처분 ③ 3호처분 ④ 4호처분 ⑤ 5호처분 ⑥ 6호처분 ⑦ 7호처분 ⑧ 8호처분 ⑨ 9호처분 ⑩ 10호처분 ⑪ 기타(_____)
		① 1호처분 ② 2호처분 ③ 3호처분 ④ 4호처분 ⑤ 5호처분 ⑥ 6호처분 ⑦ 7호처분 ⑧ 8호처분 ⑨ 9호처분 ⑩ 10호처분 ⑪ 기타(_____)
		① 1호처분 ② 2호처분 ③ 3호처분 ④ 4호처분 ⑤ 5호처분 ⑥ 6호처분 ⑦ 7호처분 ⑧ 8호처분 ⑨ 9호처분 ⑩ 10호처분 ⑪ 기타(_____)

문 2. 이번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 죄명(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 ① 폭력 ② 절도 ③ 강도 ④ 약물 ⑤ 교통범죄
- ⑥ 기타(_____)

문 3. 이번에 받게 된 처분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보호자 등에 감호위탁(1호처분) ② 수강명령 ③ 사회봉사명령
- ④ 단기보호관찰 ⑤ 장기보호관찰 ⑥ 8호처분
- ⑦ 보호관찰위반 ⑧ 기타(_____)

문 4. 부가적으로 받은 처분

- ① 부가처분 없음 ② 야간외출제한명령
- ③ 상담교육 ④ 보호자교육
- ⑤ 기타(_____)

문 5. 보호관찰소를 통해 받고 있는 지원

- ① 직업훈련기관 연계, 알선 ② 취업지원 ③ 학업지원
- ④ 원호금, 장학금 지원 ⑤ 상담지원
- ⑥ 기타(_____)

※ 다음은 위의 문 2의 행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 6. 공범유무

- ① 혼자서 했다 → 「문 7」로
- ② 다른 사람과 같이 했다(본인을 제외하고 _____명) → 「문 6-1」로

문 6-1. 공범자들 간의 관계

- ① 친구 ② 선후배 ③ 친구와 선후배 ④ 기타(_____)

문 7. 위의 행위를 한 가장 주된 이유

- ① 화가 나서 ② 심심풀이나 재미로 ③ 호기심으로
- ④ 생계비가 필요해서 ⑤ 유흥비가 필요해서 ⑥ 친구가 하자고 해서
- ⑦ 기타(_____)

문 8. 위의 행위를 할 당시 거주지

- ① 집 ② 친구나 선후배 집 ③ 쉼터 등 보호시설
- ④ 한 곳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생활

문 9. 보호관찰 종료일 201 년 월

문 10. 보호관찰 사건번호 ---

문 11. 보호관찰 담당선생님 성함 (_____)



부록

Abstract

A Longitudinal Survey and Support Plan for Dropouts I

This study has attempted to figure out current discontinuance of school attendance and dropouts' living conditions and changes in their awareness after they left school. For this, a quantitative survey was conducted. In a study for 2013, 776 general dropouts and 220 dropouts on probation were chosen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dropouts. They will be tracked down until 2015. As of 2012, a total of 400,000 students left school. Among them, about 120,000 students are attending the other educational instate, alternative school and correction institute or staying in a hospital while 280,000 dropouts are unidentifiable. According to a survey on respondents for 2013, in terms of dropouts' age, '7th grader' was the highest during the middle school years while '10th grader' was the highest during the high school years. When asked they didn't go to school, 'no necessity to go to school' or 'unsatisfied with school (or school education)' was more responded than personal reason or preference of alternative school. Only about 30% of the dropouts had consultation with a teacher or received related information from school at the discontinuance of school, which means that most dropouts have left schools without decent help from school. When dropouts were compared to normal students, no particular psychological or affectionate difference was found. In terms of problem behavio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except for drinking and smoking. In terms of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relationship with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and violation of school regulations, dropouts were high in the number of friends and mal-adaptation level. They were also high in the number of violating school regulations such as truancy and cutting class.

According to analysis on dropouts' life after the discontinuance of school, 'studying (42%)' was the highest, followed by 'NEET (23%)', 'working (18%)', 'delinquency (9%)' and 'miscellaneous (8%)'. When the pathway after dropping out was examined, it was related with reasons for dropping out and particular experience in life. Among those who left school because of failure to adapt to school life or misbehavior, 'studying' was relatively less than 'delinquency'. Among dropouts who experienced changes in family structure, the percentage of 'working' and 'NEET' were higher. Among those who experienced problem behavior, the percentage of 'working' and 'delinquency' were higher. In addition, dropouts have found it difficult to make friends and been unable to get help from a local community. Even though they wanted to get some information on their future career, they haven't received this kind of service.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dropouts' leisure activities, those who just kill the time alone or hang out with others were more than those who engage in positive activities such as studying or exercise. In terms of breakfast or dinner skipping rate during the 5-day week, dropouts were far greater than normal students. Dropouts' needs and demands greatly vary so that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plan to help them grow into healthy and sound adults.

Keywords: school dropout, pathway after dropping out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3-R01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 이경상 · 최항섭 · 그레이스정
- 13-R02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지경 · 이광호
- 13-R0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 김현철 · 임희진 · 정효진 · 민경석
- 13-R04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 김기현
- 13-R05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맹영임 · 길은배
- 13-R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 안선영 · 김희진 · 강영배 · 배경내
- 13-R07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영한 · 조아미 · 이승하
- 13-R08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 이창호 · 김경희
- 13-R09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전명기
- 13-R10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 ·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 · 윤옥경 · 조운오
- 13-R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 총괄보고서 / 장근영 · 배상률 · 성은모 · 이해연 · 김균희 · 이용교 · 홍승혜
- 13-R1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 · 이해연 · 배상률 · 성은모 · 김균희
- 13-R11-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청소년)의 상호기대 차이 연구 / 성은모 · 오현석 · 최윤미
- 13-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박주희
- 13-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김승경
- 13-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질적연구보고서 / 이창호
- 13-R12-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김승경 · 박주희
- 13-R13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김영지 · 김경준 · 김지혜 · 이민희
- 13-R13-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유성렬 · 김신영
- 13-R13-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김경준
- 13-R1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V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서정아 · 황진구
- 13-R14-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1 :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 이종원

- 13-R1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 서정아
- 13-R1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3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종단분석 - / 황진구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 오해섭·박정배 (자체번호 13-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2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2013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오해섭·박정배 (자체번호 13-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3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교육분야 지원체계 구축 / 홍영란·현영섭 (자체번호 13-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 모상현·김형주·이선영 (자체번호 13-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표개발을 통한 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연구 / 최은진·김미숙·전진아 (자체번호 13-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창호·강석영·이동훈 (자체번호 13-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 김지연·황여정·이준일·방은령·강현철 (자체번호 13-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개발 / 김은지·김동식·최인희·선보영·김나연·정다운 (자체번호 13-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 신윤정·이상림·김윤희 (자체번호 13-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 윤철경·유성렬·김신영·임지연(자체번호 13-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3-R18-1)

수시과제

- 13-R19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연계 방안 / 성은모
- 13-R20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13-R2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 황진구·김희진
- 13-R22 전국 청소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영한
- 13-R23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 윤철경·김유나

- 13-R24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임희진
- 13-R25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장근영
- 13-R26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이슈페이퍼 발간) / 이창호

수탁과제

- 13-R27 영천시 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김상연
- 13-R28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배상률 · 김형주 · 성은모
- 13-R29 2013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13-R3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1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문화 조성방안 연구 / 김승경
- 13-R32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최창욱
- 13-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4 국립대구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세부사업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이유진 · 한상철 · 추승연 · 김상연
- 13-R35 201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 양계민
- 13-R36 20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 김지연 · 이경상
- 13-R37 한중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 · 이창호 · 최금해 · 오해섭
- 13-R38 청소년국제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사업 / 양계민
- 13-R39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 구축모형 개발연구 / 서정아 · 황진구 · 조성은
- 13-R40 청소년 희망카드(가칭) 도입방안 연구 / 김경준 · 모상현
- 13-R41 2013년 성남시 청소년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 · 황진구 · 이종원
- 13-R4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BSG매니저 전문가 과정 연구용역 / 김승경 · 맹영임
- 13-R43 자유학기제 학생자율선택프로그램(농림수산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창욱 · 송병국
- 13-R44 RCY 미래전략 개발 및 참여청소년 효과성 연구 / 장근영 · 맹영임
- 13-R45 2013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배상률 · 황여정
- 13-R46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 안선영
- 13-R47 유소년스포츠포츠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 임지연 · 장덕선
- 13-R48 휴먼네트워크 멘토링의 효과성 및 사회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 성은모 · 이주석
- 13-R49 2013년 또래조정사업 (2014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 · 김지경 · 김지연 · 이종원
- 13-R50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성은모 · 최창욱
- 13-R51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김형주 · 배상률 · 강영배 · 김정주 · 김혁진 · 이은미
- 13-R52 학생모니터단 운영 (2014년 2월 발간예정) / 오해섭 · 김경준 · 김영지
- 13-R53 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 · 오해섭 · 김영지

- 13-R54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혜연
- 13-R54-1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혜연
- 13-R54-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3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4 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4-5 교사용 인권교육자료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5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초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현철 · 김희진 · 김인아 · 김재근 · 김정희
- 13-R55-1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중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현철 · 김영지 · 김희진 · 송인숙 · 표혜영
- 13-R55-2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고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희진 · 김영지 · 김현철 · 박정수 · 박지만 · 오수정
- 13-R56 디지털교과서 ·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시계열효과 분석연구 (2014년 2월 발간예정) / 장근영 · 김형주
- 13-R57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 (2014년 6월 발간예정) / 김영지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3-S01 인성교육실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학교규칙 및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28~29)
- 13-S02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 (1/7~8)
- 13-S03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I (1/7~8)
- 13-S04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제작 워크숍 (2/5)
- 13-S05 NYPI 기획세미나 -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2/21)
- 13-S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전문가 워크숍 (2/21)
- 13-S07 NYPI 기획세미나 방송과 청소년보호 (2/28)
- 13-S08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2/13)
- 13-S09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의 행복을 묻는다 : 성장 환경과 발달 모습 (3/20)
- 13-S10 후기청소년세대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4/10)
- 13-S11 제2차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 청소년 역량 개발 방향성 모색 : 체험활동과 인프라 조성 - (4/18)
- 13-S12 탈북청소년 연구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4/9)
- 13-S13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 · 선도학교 워크숍 (4/29, 30)
- 13-S14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 · 선도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9)
- 13-S15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5/21)
- 13-S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6/1)
- 13-S17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미나 (5/22)
- 13-S18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5/24)
- 13-S19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6/1)
- 13-S20 해외 이슈배경 청소년정책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6/3)

- 13-S21 2013년 미래환경변화전망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과제 I 콜로키움 자료집 : 미래에 대한 접근 (6/4)
- 13-S2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 (6/11)
- 13-S23 201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사건가 분석 (6/21)
- 13-S24 NYPI 개원 24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7/3)
- 13-S25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2차 콜리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잠재성장모형 분석 (7/14)
- 13-S26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체험활동의 연계방안 (7/5)
- 13-S27 청소년상담의 이해와 상담기법 (8/5~7)
- 13-S28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6/18)
- 13-S29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7/5)
- 13-S30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센터 관계자 간담회 (7/17, 19)
- 13-S31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모니터링 위원 간담회 (7/22)
- 13-S32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 교육단계 (7/23)
- 13-S33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2 : 직훈단계 (7/24)
- 13-S34 2013년도 진로교사 심화연수 - 청소년상담 기법(C-4) (7/29~31)
- 13-S35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하계연수 (7/22~25)
- 13-S36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8/29)
- 13-S37 제2차 학교문화개선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9/9~10)
- 13-S38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워크숍 (9.13~14)
- 13-S39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트숍 (9/27)
- 13-S40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 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 13-S41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0/15)
- 13-S42 STATA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10/16)
- 13-S43 스티그마의 이해와 대응전략 (10/24)
- 13-S44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11/18)
- 13-S45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초안) 시범운영 결과 검토 워크숍 (10/25)
- 13-S46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11/14)
- 13-S47 한-중 국제세미나 (11/19)
- 13-S48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11/27)
- 13-S49 청소년 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1/26)
- 13-S50 RCY 미래전략 및 발전방향 탐색 (11/29)
- 13-S51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11/28)
- 13-S52 210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패널 데이터의 가중치 산출 및 활용 (12/17)
- 13-S5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12/16)
- 13-S5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2/13)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6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69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7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71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2호 :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유형 및 주거비부담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3호 :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4호 : 청소년참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5호 :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6호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7호 :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8호 :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9호 :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0호 :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7호 :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8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9호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0호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년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1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2호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3-37-01
연구보고 13-R18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인 쇄 2013년 12월 24일

발 행 2013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정보자료·전산보안팀)

ISBN 979-11-5654-004-5 94330

ISBN 978-89-7816-999-8 (세트)